

파랑새의

제12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소원

차 례...

01 | 서울특별시

- 휴전선이 평화선으로 _ 9
- 어떤 나라 _ 12
- 소녀의 꿈 _ 15
- 북한산은 신토불이 _ 18
- K 그룹 _ 20
- 다시 올리는 묵념 _ 24
- 하나 되어 한마음으로 달린다 _ 26
- 무지개 _ 28
- 채워야 할 자리 메꿔야 할 백지 _ 30

02 | 부산광역시

- 할아버지와 평양냉면 _ 35
- 할아버지의 눈물 _ 37
- 통일의 미소 _ 40
- 기차타고 떠나는 통일여행 _ 43
- 기관사의 꿈 _ 45
- 통일을 향한 발걸음 _ 48
- 콩닥콩닥 통일의
내 마음을 실은 열차 _ 50
- 마음으로 쓰는 애도 일기 _ 53
- 우리의 소원은 통일 _ 55

03 | 대구광역시

- 우리가 만나기 위해 _ 61
- 역에서 사는 남자 _ 63
- 이젠 너와 나가 아닌 우리로 _ 67
- 누구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 백두산 일출 _ 70
- 민족정신이 하나됨을 부른다 _ 72
- 둘이어도 하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 _ 74
- 내 친구 기운이를 소개합니다! _ 77
- 시나브로 통일을 향하여 _ 79
- 통일로 가는 길, 경의선 _ 82

04 | 인천광역시

-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을
초대합니다 _ 87
- 행복을 빼앗긴 가족 _ 90
- 우리 다시 만나야 해 _ 92
- 남돌이와 북돌이의 꿈 _ 95
- 할머니의 그리운 고향 _ 97
- 친구, 자네는 보았는가? _ 99
- 왜 우리는? _ 101
- 뜨거웠던 6월처럼 _ 103
- 한 뿌리 _ 105

파랑새의 소원

제12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05 광주광역시

- 할아버지의 꿈 _ 111
- 할머니와 바람이야기 _ 113
- 통일을 기다리며 _ 116
- 친구를 위한 통일 _ 119
- 통일의 실타래 _ 122
- 파랑새의 소원 _ 124
- 언젠가는 이루어질 통일을 꿈꾸며 _ 128
- 분단의 아픔을 딛고서 _ 130
- 통일,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일까 _ 132

06 대전광역시

- 우리! 함께 도래 춤을 추자구요 _ 137
- 초코파이 情 _ 139
- 염 원 _ 141
- 북한 하늘을 날고 싶은 새 _ 144
- 우리가 다르게 만났더라면 _ 146
- 물려주고 싶지 않은 글짓기 _ 149
- 희망의 눈물로 백두산까지 _ 151
- 정지된 바퀴 굴리기 _ 154
- 아름다운 기차여행 _ 157

07 울산광역시

- 마음을 잇는 철도 _ 161
- 어둠던 역사를 뚫고... _ 164
- 꿈은 이루어진다 _ 167
- 통일을 위한 나의 노력 _ 170
- 마음의 통일 _ 173
- '너' 와 '나' 이기 전
'우리'였기에 _ 176
- 내가 본 금강산 _ 179
- 오늘도 우리는 분단을 지운다 _ 181
- 통일로 가는 열차 _ 184

08 경기도

- 휴전선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_ 189
- 마음속의 통일 _ 192
- 통일국가의 청소년의
교육자, 정부 _ 195
- 통일을 향해 달리는 기차 _ 198
-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_ 200
- 2박 3일의 꿈 _ 203
- 경의선을 따라서 _ 206
- 통일에 관한 쓸데없는
고정관념들 _ 210
- "철마는 달리고 싶다" _ 213

09 강원도

- 통일로 가는 길 _ 219
- 작은 배려와 따뜻한 관심부터 시작하자 _ 222
- 휴전선의 봄은 머지 않았다 _ 225
- 철마야, 통일의 꿈을 신고 달리렴 _ 228
- 북한 아주머니의 소원은 통일 _ 232
-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길 _ 234
- 통일의 폭발을 바라보며 _ 237
- 할아버지의 훈장 _ 240
- 백두산 등반의 아픔 _ 243

10 충청북도

- 아빠의 출장 _ 249
- “엄마가 더 좋아, 옆집 아줌마가 더 좋아?” _ 251
- 우리는 하나이다 _ 254
- 통일을 꿈꾸며 _ 257
- 마음으로 열리는 통일 _ 259
- 통일의 기차를 타고 _ 262
- 남북의 화해를 위해 _ 264
- 육조와 고무마개 _ 266
- 금이 간 얼굴이 다시 웃는 날 _ 269

11 충청남도

- 산 아래 할아버지 _ 273
- 계란을 못 먹는 여자 _ 277
- 분단이라는 이름의 트라우마 _ 281
- 도라산 역의 시작을 위하여 _ 284
- 금강초롱을 금강산에서 만났어요 _ 287
- 우리도 민들레 씨앗이 되어 _ 292
- 통일의 밀거름 _ 295
- 경희 언니에게 _ 299
-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 _ 303

12 전라북도

-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세상 _ 309
- 핏 줄 _ 312
- 우리 가슴에 _ 315
- 다시 달리는 철마 _ 318
- 가깝지만 먼 당신 _ 321
- 한반도의 혈맥을 다시 잇다 _ 324
- 우리는 친구이니까 _ 327
- 난 황주와 해주의 달콤한 사과 맛을 보고 싶다 _ 330
- 꿈에 본 통일 _ 333

파랑새의 소원

제12회 학생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13 전라남도

- 우리는 하나 _ 339
- 우리 제일 멋진 화음을 만들었고,
모두 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_ 342
- 삶은 달걀 _ 345
- 가슴 아픈 사연들이 새겨진
'휴전산' _ 348
- 12분의 장벽 _ 351
- 그때 그 아이 _ 354
- 할머니의 아픔이 기쁨으로
되는 날 _ 357
- 통일로 가는 뱃길 _ 360
- 할아버지 어깨 _ 363

14 경상북도

- 통일이여 _ 369
- 철마의 미소 _ 371
- 철길을 따라 할머니를 만나다 _ 374
- 북한으로 달리는 남한 열차 _ 378
- '간 큰 가족'의 웃음과 눈물 _ 381
- 백범으로부터 온 편지 _ 384
- 다시 부르게 될 '대한민국' _ 387
- 유월이 오면 _ 390
- 매 듨 _ 392

15 경상남도

- 한반도의 마법 기차 _ 397
- 유월이 오면 _ 399
- 백두산 _ 401
- 창원부터 연변 끝까지 _ 404
- 현충일과 선물 _ 406
- 동해물과 백두산이... _ 409
- 기차를 타고 통일의
그날을 향해... _ 412
- "현충일" _ 414
- 이해와 화합 속에
다시 핀 백두산 _ 416

16 제주도

- 동상에 담긴 형제의 사랑 _ 421
- 꿈은 이루어진다 _ 423
- 늦봄 문익환 선생님께 _ 426
- 통일의 몸짓 _ 429
- $1 \div 2 = 1$, $1 + 1 = 1??$ _ 431
- 작지만 먼 소망 _ 433
- 우리 모두 경의선 타고 _ 435
- 삼일포에서 한 사흘 묵어가면
종으련만 _ 437
- 61년 9개월 7일 _ 440

01

서울특별시

- 휴전선이 평화선으로 _ 9
- 어떤 나라 _ 12
- 소녀의 꿈 _ 15
- 북한산은 신토불이 _ 18
- K 그룹 _ 20
- 다시 올리는 묵념 _ 24
- 하나 되어 한마음으로 달린다 _ 26
- 무지개 _ 28
- 채워야 할 자리 메꿔야 할 백지 _ 30



휴전선이 평화선으로

★
서울방산초 6 _ 이지현

MP3 플레이어에 음악을 담으려고 좋아하는 음악을 찾다가 TV의 음악 방송에서 본 뮤직비디오는 내게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였다. 가수 SG 워너비의 “아리랑”이라는 노래였는데 음악순위의 정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좋은 노래였지만 무엇보다도 뮤직비디오의 내용이 나의 시선과 관심을 끌게 하였다.

도입부에 펼쳐진 치열한 전쟁신과 함께 예전엔 친구였던 국군과 포로가 된 북한군의 만남 이후로 이어지는 한편의 영화 같은 내용을 평화롭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향해 전쟁을 하게 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 뮤직비디오를 보며 전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한국영화의 흥행기록이 ‘괴물’이라는 영화를 통해 깨어졌을 때 그 이전의 기록은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였다. 그 영화 역시 국군과 북한군이 된 형제간의 상황을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 전달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형제와 절친한 친구를 향해 서로 적이 되어 총부리를 향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을 테마로 한 작품들은 우리나라에서 하나같이 흥행성공을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에 관해 특히 6·25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에 관심을 쏟으며 자신도 작품의 주인공인 양 가슴 아파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설날이나 추석 명절 때 고향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

지옥과 같은 상황을 기꺼이 감내하며 귀향을 하는 까닭은 사랑하는 가족과 정든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확인해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그리운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바로 전쟁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소재로 하는 작품을 대하게 되면 남모를 아픔과 슬픔이 떠오르게 되고 그리움은 서러움이 되어 주인공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품은 성공하는가 보다.

그러나 우리 외할아버지께서는 6·25전쟁 영화도 보시지 않고 TV의 국내 헤어진 가족 찾기를 하는 '꼭 한번 만나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은 절대로 보시지 않는다. 아니 슬픔이 북받치는 상황이 나오면 그 어떠한 TV프로그램도 채널을 돌려버리신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올해 74세로 북한 땅 개성에서 5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다니시다가 부모님과 누님들을 남겨두고 네 형님들을 따라 월남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립고 누님들이 그리워서 가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서러워서 분단을 자초한 6·25전쟁이나 헤어진 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원천적으로 외면하시는 것 같았다. 그러나 임진각 망배단을 자주 찾고 "통일로"와 "자유로" 드라이브 하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으로는 한 없이 고향과 가족을 그리고 계시는 그런 외할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다.

철새와 비무장지대의 많은 동물들만이 오고 가던 남북한의 경계선이 이산가족상봉을 계기로 차츰 무너지고 있다. 남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금강산을 관광하게 되고 북한 땅 개성에는 공업단지도 조성하여 공산품을 생산하고 있다. 운동경기도 같이 하고 응원도 같이 했다. 드디어 얼마 전인 5월 17일에는 6·25전쟁으로 끊겼던 남북한 열차 연결 시험운행의 행사가 개성과 금강산까지 이루어졌다.

이 모든 일들이 정치적 타결이니 경제협력이니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난 잘 모르겠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남과 북의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바

라며, 마음껏 고향을 방문하여 한 번의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 계절이 바뀔에 따라 살 곳을 찾아 먼 길 떠나는 철새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큰 나무도 가느다란 가지에서 시작되고 10층의 탑도 작은 돌을 하나씩 쌓아올리는 데에서 시작되며 천릿길도 한걸음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나무부터, 내 가족부터, 내 친구부터 전쟁을 없애고 평화가 시작되는 길을 찾아 나서야겠다.

친구 간에도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도와주면 싸움이 생기지 않는다. 북한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어야겠다. 이제는 전쟁을 소재로 하는 영화가 흥행 성공이 되지 않기를, 전쟁을 소재로 하는 뮤직비디오가 시선을 끌지 않는 시대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전쟁의 커다란 후유증 '휴전선' 이 이제는 '평화의 선' 으로 바뀌는 날이 곧 될 것이라고 믿는다.





어떤 나라



서울여자중 3 _ 최지영

매일 아침 학교에서 보고 있는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봤다. 북한 사람들도 MP3를 듣고 디지털 카메라를 줄인 말인 '디카'를 항상 휴대하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북한 사람들도 커다란 눈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여 쌍꺼풀 수술을 예사로 하며 코를 높이는 성형수술도 가끔씩 행해진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기사를 보고 놀랍기도 했지만 우선 '북한도 많이 변했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리고 보면, 요즘 들어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남북 간의 교류도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2002년 월드컵에는 남한으로 응원하러 온 북측 단들의 팬클럽이 생겨 화제가 되었다. 또, 북한의 교예단이 남한에 공연하러 온 일도 있었고, 작년 이맘때에는 남한과 북한의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화상으로 만나 교류한 일도 있었다.

내가 조금 더 어렸을 적에는 북한은 폐쇄적인 나라이고 그곳 사람들은 항상 굶주려 있어서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처럼 억압받고 감시받으며 사는 줄 알았었다.

내가 그런 무지한 편견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현장 학습으로 통일 전망대를 견학하게 되었을 때이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소소한 모습들을 보며 머리 뒤통수를 한대 세계 얻어맞은 듯한 얼얼함을 느꼈다. 그때야 북한 사람들의 생활도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새삼 느꼈

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것은 나 혼자뿐이 아닌가 보다. 영국의 다니엘 고든이라는 영화감독은 북한에 머물면서 모란봉 중학교에 다니는 내 또래의 소녀 송연이와 채연이의 생활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찍어 영화 “어떤 나라”를 만들었다.

미국의 CNN 뉴스는 ‘그 동안 억압되어져 오거나 독재 정권으로만 묘사된 북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보고 전 세계가 경악했다.’고 보도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편견을 가지게 된 것은 북한에 대해 알리고 하고 이해하려 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의 내부까지 견학할 수 있게 된 일들을 보면, 굳게 잠겨져있던 폐쇄적인 북한의 문이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이라 생각한다.

한 달 전에 ‘철마는 달린다’란 제목으로 쓰여진 신문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남한에서 시작, 북한과 만주, 러시아 대륙을 넘나드는 경의선 철도가 완공되어 우리나라를 출발했다는 것이었다. 예전부터 귀에 박히게 들어온 ‘철마’ 이야기라서 완공되었다는 말을 듣고 내심 반갑고 기분이 좀 설레었다. 이렇게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는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민족의 소원인 ‘통일’이 멀지 않게 되리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철이 없던 시절, 어른들이 “통일, 통일”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왜’ 해야 하는지 궁금해 했었다. 우리 친척들 중에는 이산가족도 없고 6·25 전쟁에서 전사하신 분들도 없기 때문에 실감이 잘 안나서였다. 텔레비전에서 이산가족이 부둥켜안는 것을 보고도 ‘슬프겠다, 반갑겠다.’라는 생각만 들었지 별로 가슴에는 와 닿지 않았다. 그러다가 6학년 때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고 펴펴 울었다. 방송에서 6·25전쟁의 유가족들이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는 것을 보고서야 그 기분이 어떻겠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남북은 외세의 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양분된 것인데 그 사이에서 만날 수 없게 된 이산가족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 뒤로 학교 도덕시간에 이 이야기를 배우며 화합으로 맺어진 남북 간의 통일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오늘 오두산 통일 전망대를 올라오면서 내내 마음이 무겁고 조금 심란했다.
남한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통일전망대와 교육관들을 보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아직도 통일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남북 간의 교류를 못마땅해 하고 북핵 문제의 위험성을 다시금 각인시켜주려 한다. 하지만 남북은 원래 한 민족이기에 응당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족이기에, 한 민족이니까, 한 민족이므로 통일하여 다시금 이 땅에 철창으로 가로막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소녀의 꿈



한양사대부속고 2 _ 강유진

소녀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든 발명해낼 수 있는 훌륭한 발명가가 되는 것이었다. 발명가가 되어서 심장이 딱딱해지면 사랑하는 마음을 잃게 되겠지만 그리워하는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까지도 모두 잃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소녀는 비록 할머니의 심장이 딱딱해져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게 되더라도 할머니가 더 이상 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고 소녀는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늘 바라보던 그 하늘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와 소녀의 하늘이기도 했지만 할머니와 소녀는 닿지 못하는 하늘이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50여 년 전 6월의 어느 날에 놓쳐버린 손을 닿지 않는 하늘에서 찾으셨다. 소녀가 아직 심장이 딱딱해져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약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가에서 종이배를 띄우면 점점 멀리 떠내려가 버린다. 비단 소녀의 할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형제 혹은 친구들을 태운 종이배를 자기 손으로 띄워 보낸 지도 어언 57년이 지났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를 볼 수 있고, 그들의 언어에서 우리를 들을 수 있으며, 그들의 마음에서 우리를 느낄 수 있다. 그거면 소녀의 약에 들어갈 재료로 충분했다.

그러나 할머니에게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소녀가 약을 완성할 때까지

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지 못하고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가 버리셨다.

소녀는 울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소녀는 이제 굵은 점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한반도의 지도를 그리고 싶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선과 색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155마일이나 되는 철조망 선이 있다. 철조망 따위보다 훨씬 더 무겁고 높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에까지도 그어진 그 선은 그 너머의 세상을 다른 색채로 보이게 한다. 소녀는 그 선의 위와 아래를 모두 똑같이 칠하고 싶었다.

소녀는 겨우 18살이다. 그리고 지금 통일전망대에서 글을 쓰고 있다. 여전히 많은 꿈을 꾸면서 말이다. 소녀는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모른다. 아니, 알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녀는 매일 TV에서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면 국가의 규모가 커져서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대륙과 연결되는 육로가 생기고 방위비를 줄일 수 있다는 어른들의 말을 듣는다. 아니, 듣지만 그들의 말은 소녀를 꿈꾸게 하지 못한다. 소녀를 꿈꾸게 하는 건 할머니가 늘 바라보던, 그 하늘이다.

소녀는 아직 약을 다 만들지 못했고 지도를 다 칠하지도 못했고, 글을 다 쓰지도 못했다. 그것은 돌아가신 할머니의 잘못이 아니요, 거짓말 잘 하는 어른들의 잘못도 아니요, 저 선 너머에 그들의 잘못도 아니다.

그것은 소녀의 잘못이다. 그저 배부름 꿈만 꾸어 온 소녀의 잘못이다. 그것을 지금에서야 알았다. 그래서 펜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서면, 더 이상 꿈만 꾸지는 않을 것이다. 소녀는 겁쟁이처럼 심장이 딱딱해지길 바라지 않을 것이다. 소녀가 먼저 일어나서 그들에게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땅 위에 사는 모두가 소녀를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리라. 한반도는 이제 제3의 통일을 기다리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도, 중국에게 빼앗기고 있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되찾아오기 위해서도, 오늘 밤에도 두고 온 가족들을 향한 그리움에 사무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도 한민족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날 외세의 도움 없이 최초로 한반도의 통일을 일궈냈던 태조 왕건은

여기 없다. 대신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서 소녀는 이제 사람들이 모두 그 사실을 깨우칠 수 있도록 불씨를 당기고 싶다. 이젠 펜을 놓는다. 일어선다. 일어서서 불씨를 당기러 간다.





북한산은 신토불이



서울노랑진초 6 _ 한예은

“엄마, 중국산 말고 북한산도 있네?”

“그럼 우리 북한산 호두를 사먹을까?”

“네, 그런데 북한산은 국내산으로 표시해도 될 것 같은걸요.”

“아직은 안 돼. 하지만 통일이 되면 당연히 그렇겠지?”

오늘 아침 신문을 펼치니 ‘북한에 밤나무를 심자’ 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그 기사는 한 소년에 관한 것이었는데, 재미교포인 그 소년은 미국에 살면서도 북한의 사정을 안타까워해 북한에 큰 밤나무 숲을 만들자고 미국 의회에 건의하였다. 밤나무를 심으면 환경에도 좋고 북한 사람들이 쌀 대신 밤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멋진 생각을 해낼 수 있었을까?”

나도 열차에 한 가득 묘목을 싣고 북한으로 가 함께 밤나무를 심고 싶었다.

지난 5월17일 경의선·동해선 열차의 시험운행이 있었다. 이제 시험운행이 아닌 정기운행을 해야 한다. 정식 열차가 개통하면 헤어진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고, 북한 관광도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차에 밤나무 묘목을 싣고서 북한으로 갈 수 있다.

우리는 북한에 밤나무를 심고 정성껏 가꾸며 보살피야 한다. 한 그루, 한 그루, 우리가 심은 밤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들 뻗어 마침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밤나무는 아름다운 환경, 시원한 그늘과 더불어 맛있는 밤을 선

물할 것이다. 큰 밤나무 숲의 나무 한 그루마다 밤이 가득 열리면 북한친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겠지.

일부분은 우리나라로 수출하면 된다. 우리는 그 밤을 사먹음으로써 입 안 가득 밤나무를 심고 가꾼 보람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는 밤을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오는 데에 외화를 낭비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사정이 어려운 북한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게 된다.

지금도 시장에 나가면 많은 중국산 농산물 가운데에서 도라지, 고사리, 잣, 호두, 땅콩 등과 같은 북한산 농산물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산 농산물은 대량으로 들어오는데다가 값도 싸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땅에서 난 농산물을 먹어야 건강에 좋다. 따라서 우리는 약간 더 비싸더라도 우리 몸에 좋은 우리 땅, 북한 땅에서 난 신토불이 북한산 농산물을 먹어야 한다.

우리는 식량이 모자란 북한에 쌀을 보내준다. 하지만 직접 북한으로 가서 같이 농사를 짓고, 모내기를 도와주기도 한다. 또 우리의 농기구를 가져가 발달된 농사법을 가르쳐 준다.

이러한 활동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해져야 한다. 많은 신식 농사법을 가르쳐 주어 뛰어난 품질의 북한 특산물을 재배하여 전 세계로 수출해야 한다. 갱서의 고려인삼, 대동강의 송어, 그리고 신포 명란젓 등은 세계적인 수출품이 될 수 있다.

지금은 '북한산 도라지', '북한의 고사리', '북한의 호두'와 같이 표기되어 있는 북한산 산물들이 '국내산 도라지', '국내산 고사리'로 표기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통일의 길에 밤나무 한 그루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나갈 것이다.





K 그룹



서울당산중 3_김동현

요즘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해 봤다. “북한에게 핵이 있으니까 통일을 하면 좋죠.”

“남남북녀라고 하잖아요? 모든 국민이 예뻐지면 우리나라가 완벽해지겠네요.”

“제가 가려는 외국어 고등학교는 시험에 사회 영역이 출제되지 않아서 이런 것 알 필요도 없어요.”

위의 토론 내용은 2학년 때 도덕시간에 우리 모둠이 수행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된 토론이었다. 우리 모둠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몇 명 있었는데... 자유로운 토론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의견들을 갖고선 ‘모둠활동 기록지’를 완성할 수조차 없었다.

친구들이 어찌다가 ‘활동 기록지’조차 쓸 수 없는 ‘무지상태’가 되었을까? 그리고 활발한 토론을 기대했던 나는 ‘재수 없게 아는 척’하는 아이가 되었을까? 글썸..., 나는 잘 모르겠다. 단지 ‘작디작은 관심’이라는 계기가 얼마 되지 않는 인생에서 몇 번 있었을 뿐...

내가 여섯 살 때, 부모님께서는 독서지도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다. 어느 날 어머니는 지도하시려는 북한 관련 도서가 말썽을 부린다고 말씀하셨다. 책이 어려워 원생들이 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걱정하셨다. 그리고 여러 날을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시던 끝에,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찾으셨다면

서, 내게 옥수수 가루 한 봉지를 사오도록 하셨다. 어머니의 교육방법은 바로 “체험”이었다.

어머니는 관련된 자료를 원생들에게 보여주시고, 북한사람들이 먹는다는 옥수수 죽을 원생들에게 끓여 주셨다. 그들은 죽을 모두 남겼고, 조금 맛보던 나는 비위가 약해 바로 그 자리에서 토를 하고 말았다. 그 비릿하면서도 멍멍한 맛..., 구역질이 났다.

조금 더 자라서 열한 살 나는 월드컵의 열기가 뜨거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여행을 갔다. 어학연수가 아니라 단순 여행을 위해, 나는 학교 대신 ‘YMCA 여름 캠프’에 들어갔다. 동양인은 나 하나뿐이라서 미국 아이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였을까?

나와 눈이 마주치는 아이들은 내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 보았고, ‘오 필승 코리아’를 기억하고 있던 나는 당연히 ‘코리아! 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다.

“North or South?(북쪽이야, 남쪽이야?)”

내가 모르는 영어였다. ‘North’라는 말은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서 나는 그렇다고 했고, 그날 후로 나는 혼자 놀게 되었다. 나중에 말문이 트여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월드컵을 개최했다고 하니 그들은 당황해 하면서 왜 그 말을 진작에 하지 않았냐며 미안해 하였다. 이유를 물어보니 부모님께 ‘북한’ 사람이 친구라고 이야기하니 이상한 나라 아이라며 함께 놀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속으로는 ‘나 참! 그게 뭐가 중요해? 한국이면 다 코리아지...’라고는 생각했지만 영어로 그 말을 할 줄 몰라 가만히 있었다.

만화를 좋아하던 나는 위성 방송국에서 방영하던 만화를 보고,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그 방송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Korea’라는 보기는 국적을 쓰는 부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Corea’도 찾아보았지만 역시나 없었다. 한참만에야 찾았다.

‘South Korea’ 우리나라는 S로 시작하는 집합에 속해 있었다. 이것이 진짜 분단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삶을 사느라 바빠 우리나라의 이름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

었던 것이다. 아니,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인가. ‘우리는 한 민족, 남과 북은 하나’ 라고 우리끼리 외쳐도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항상 묻는다.

“북쪽이야? 아니면 남쪽이야?”

물론 남들의 시선 따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념을 굳게 지켜 나간다면 언젠가는 통일의 그날은 온다. 하지만 ‘내가 지원하는 학교는 사회영역은 필요 없어’ 라는 말은 중립의 입장조차 될 수 없다. 그것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 이라고 한다.

사랑의 반댓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면, 통일의 반댓말은 ‘반공’ 이 아닌 ‘무관심’ 이다.

옥수수 죽을 먹고 토하고, 북한사람이라고 말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왕따가 되고, ‘남한’ 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여 지구촌의 상징이라는 인터넷에서 비국적자가 될 뻔하였던 내게 깨달음을 준 작은 하나의 사실은 ‘우리가 분단국가가 아니었다라면’ … 이라는 작은 하나의 생각이다.

이 생각은 두 가지 길로 나뉜다. ‘원망’ 이라는 길과 ‘통일’ 이라는 갈림길.

당연히 나는 후자를 택할 것이다. 그리고 굳세게 행군해 나갈 것이다. 아직 작고 어려서 많이 넘어질 나를 잡아 줄 누군가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조금씩 그 길은 넓어지고 있다. 새터민은 증가하고 철마는 달리게 되었다. 나와 내 옆에 앉은 몇백 명의 학생들은 열심히 통일 글짓기를 쓰고 있다. 몇 시간 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꼼짝도 않고 앉아 있다. 우리가 잡고 있는 펜조차 통일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통일로 인해 크고 작은 아픔을 겪었다. 이 상처를 치료해 줄 유일한 약은 통일이다. 이제 그만 아프자. 반세기면 충분하다.

통일로 인한 크고 작은 문제들, 물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단’ 이라는 병을 치료해줄 처방약인 ‘통일’ 에 약간의 문제로 아플 것은 생각하지 마라.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더 아플 것이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여태껏 인류를 살린 의사보다 죽인 의사가 더 많아서 의심하는 것인가?

완벽한 처방약은 없지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약도 있다. 이번 경우 또한

그렇다.

약, 길 그리고 우리의 소원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S' 와 'N' 그룹이 아닌 'K' 그룹.

속하고 싶다. 아니 감히고 싶다.





다시 올리는 묵념



서울선린인터넷고 2_ 강채하

오래 전부터 가난한 나라의 삶을 체험하고 싶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넉넉하지 않은 이웃나라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싶었다. 그러던 내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국제청소년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가고 싶은 나라도 몽골을 선택한 후 몽골의 젊은이들과 함께 할 일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았다. 우리나라 사람과 많이 닮은 사람들, 알록달록한 전통의상, 넓게 펼쳐진 초원을 달리는 말….

그러던 중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가장 가고 싶은 나라는, 가장 먼저 가봐야 할 곳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내 나라 북한이다.

매스컴에서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을 보고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이런 내 자신이 싫어졌다. 그리고 해외자원봉사도 사치스럽게만 느껴졌다. 자신의 나라 민족 문제도 해결 못 하는 나라의 국민이 무슨 자신감으로 국제 사회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가 들었기 때문이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려고 김포공항까지 가는 길에 오래도록 한강을 들여다보았다. 찬란한 아침의 한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눈부신 빛 속에 높게 솟은 빌딩, 아름다운 한강 위의 다리, 넓게 뻗은

도로를 짹짹 달리는 차량….

서울은 이미 세계적인 도시였다. 어느덧 우리나라는 우리의 주변을 둘러 봐야 할 만큼 성장해 있었다. 그렇다면 할 일이 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둘러 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물겠다. 우린 언제까지 분단국가로 남아 있을 것인가? 민족이나 인종이 달라 분쟁이 일어나는 국가는 많이 있지만 한 민족이면서 분단 되어 있는 국가는 지구상에 우리 밖에 없지 않은가. 언제까지 이산가족의 이별과 슬픔의 시간을 더 늘리고만 있을 것인가?

북한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생겼을 거라는 생각을 하던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 어떻게 해야 통일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 통일이란 단어를 얼마나 많이 들었던가? 셀 수나 있을 정도일까?

얼마 전 정의선 열차가 북한을 한 바퀴 돌고 돌아 왔다. 끊어진 철로를 잇고서… 텔레비전 속으로 점점 작아지는 기차의 뒷모습과 북한을 돌고 돌아 오신 기관사 할아버지의 환한 웃음에 나는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나는 통일을 맞을 준비가 되어있나? 바른 자세를 갖고 있나?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다.

곰곰이 생각해 본다. 잘사는 형제가 못사는 형제를 나 몰라라하면 안되듯이 북한도 남한이 잘산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자 하는 통일을 받아 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한 민족, 한 핏줄이 아니던가. 한 핏줄이라는 대전제… 그 가슴 시린 사실 앞에 하지 못 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전 세계가 무한경쟁에 내닫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 개개인도 전 세계 세계인들과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을 이루어 우리의 성실성과 우수함으로 무한경쟁에서 이겨야 할 것이다.

6월은 가슴 시린 달이기만 하다. 올해도 순국선열들께 묵념을 올리지만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다. 이제 더는 6월이 가슴 시린 달이 아니길 소망한다. 그래서 머지않은 날 통일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선열들께 통일을 이룬 자손으로 당당하게 묵념하고 싶다.



하나 되어 한마음으로 달린다



서울신현초 6_김준희

작년 3월 개학식 날의 일이다. 모두가 새로운 반에 모여 서먹서먹한 분위기 가운데 “안녕? 난 이평이라고 해.” 라는 명랑한 목소리의 인사말이 들려왔다. 난 마침 ‘심심하던 차에 잘 되었다.’ 싶어서 열린 뒤를 돌아보니 뺨안 얼굴에 밝고 명랑한 미소를 먹음은 아이가 있었다. 친근함이 느껴졌던 나는 처음 만났다는 사실이 무색하게 오랫동안 못 본 친구를 본 것처럼 열심히 수다를 떨었다.

그러던 중 “난 북한에서 왔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순간적으로 멍해진 나는 우리 반에 탈북자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 표정관리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동안 북한 아이들이라고 하면 아프리카에서 굶주리는 아이들과 같다고 생각을 해왔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평과 1년 동안 같이 지내는 동안 이평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활발하고 밝은 친구였고, 이평과 나의 우정이 깊어진 만큼 북한에 대한 막연한 편견들이 허물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2007년 5월 17일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들뜬 목소리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달리고 싶은 철마가 다시 달리게 되었습니다. 남북의 열차가 17일 오늘 경인선과 동해선을 지나 반세기 만에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나는 이 감동적인 소식에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다. 그리고 남북열차

의 소리에 맞추어 내 가슴도 쿵덕쿵덕 함께 뛰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북한의 모습은 한적해 보였지만 북한 사람들도 우리만큼 감동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지금 세계는 중국 횡단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놓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열차 시범운행은 우리 인류역사에 큰 발전을 가져다줄 비단길이라 생각된다. 만약 내가 서울에서 평양을 지나 중국 횡단 열차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다면 뜬구름처럼 잡히지 않던 일이 잡힐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수업시간에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한반도라고 배워왔다. 하지만 외국을 나가려면 육지가 아닌 배나 비행기를 이용하여, 섬나라 일본처럼 나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반도이기 전에 분단국가이기에 겪는 어려움이 서려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중국의 눈부신 발전을 바로 앞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념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정말 한탄스럽고 가슴 아프다.

서로에게 충구를 겨누느라 들이는 돈을 굶주리는 아이들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나누어준다면 복지국가인 스위스가 부럽지 않을 텐데 말이다.

앞으로 서로가 짊어진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타협점을 찾아서 통일열차를 함께 타고 달린다면 경제대국에서 나아가 미국과 같은 세계 대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독일의 베를린장벽도 평화적으로 무너졌다. 큰 장벽도 작은 벽돌 하나만 빠져도 무너지듯이 남북열차 시범운행이 하나의 작은 벽돌이 되어 분단의 장벽이 허물어져 이평과 같은 아이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날을 학수고대한다.



무지개



서울신목중 3 _ 오민영

우리 영화계의 흥행 보증 수표중 하나는 6·25전쟁이다. 한국 영화 역대 흥행 순위를 보면, 상위권에 속한 많은 작품들이 동족 간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영화들은 사상과 이념의 대립으로 희생된 우리 민족의 비화를 묘사하여 보다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한 것이다. 이렇듯, 우리 민족이라면 남녀노소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분단 현실이며, 소원하는 것은 통일이다.

한반도의 잘못된 허리를 매정하게 베어버린 6·25전쟁은 큰 비극이었다. 할아버지께서 직접 경험하셨던 터라, 그때의 재앙을 생생하게 전해들을 수 있었다. 피난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잿빛 하늘에는 무시무시한 폭음과 외마디 비명이 울려 퍼졌다고 한다. 전쟁의 끝은 도저히 보이지 않는 듯했고 하루하루의 생존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고 말을 이으셨다.

인명, 재산 피해는 물론이요, 가족의 손을 놓친 사람들이 수두룩했고, 날로 사람들의 마음은 시들고 병들어 갔다고 하셨다. 역사상 가장 치열했고 그 영향이 극히 치명적이어서 오늘날에도 거론되는 전쟁이 동족 간의 전쟁임을 생각하니 조금은 수치스럽다.

이런 암울한 역사를 극복하려면 통일의 길 뿐이다. 이 외에도 통일은 꼭 필요한 것이다. 대립으로 인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지우기 위해 필요하고 50여 년 동안 이루어진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민

족 간의 왕래가 허용되지 않았기에 사상뿐만 아니라 생활 모습과 언어까지도 차이가 생겼다. 통일 후에도 이런 이질화로 혼란이 야기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금부터 교류와 왕래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줄이고자 노력해야 한다.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평화통일은 꼭 필요하다고 느낀다. 남과 북이 힘을 합친다면 경제력 10위권에 든다는 주장처럼 선진화를 위해서는 남북의 인텔리들의 협동과 단결이 필수이다. 최근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의 해결을 위해서도 하나로 뭉친 한반도를 요구하는 바이다.

무엇보다도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남들은 매일 보는 얼굴이고 지겹도록 소통하는 목소리지만 이산가족들에게는 이 모두가 사치이다. 몇 해 전, 이산가족 상봉 장면이 방영되었다. 부둥켜안고 눈물이 범벅되고 숨이 찰 정도로 우시는 노인 분들의 모습에 어린 마음에 나 또한 울었다. 그분들 얼굴과 손에 깊이 패인 주름은 그동안의 잠 못 이룬 세월을 반영하는 듯했다. 이제는 그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야 한다. 맺힌 한의 매듭을 풀어드려야 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간절해졌다. 정말 가까운 곳인데 가로막는 휴전선 때문에 밭 디딜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통일이라는 말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왔었다. 이제는 진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통일이 필요하다. 두 손을 맞춰야지만 손뼉을 치듯, 남과 북에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절실하다.

통일은 오색찬란한 무지개와 같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소유하고 싶어도 불가능해 보인다. 잡힐 듯 하면서도 이내 사라진다. 이렇게 어린 시절 우리의 애를 타게 했던 무지개를 갖는 일은 무지개의 생성 요인과 환경을 연구한 끝에 가능해졌다. 통일이 불가능해 보여도 끊임없는 화해와 협력, 교류와 왕래로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원하는 이상, 통일이라는 무지개는 잡힐 것이다.



채워야 할 자리 메꿔야 할 백지



서울방산고 2 _ 소혜린

이상 시인의 시 “거울”에는 두 명의 화자가 등장한다. 거울 밖의 화자는 귀도 두개요, 눈도 두개다. 거울 안쪽의 화자도 귀도 두개고, 눈도 두개다. 반가운 마음에 거울 밖의 화자 ‘나’는 거울 안의 그에게 악수를 청해보지만, 그는 나의 손을 잡을 수 없다. 그는 왼손잡이이기 때문이다. 나와 너무나 닮은, 거진 똑같은 모습의 형상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으나 다가갈 수 없는 차가운 무언가에 우리는 가로막혀 있다. 이 시의 내부에는 남과 북, 우리가 있다.

한 터에서 함께 나고 자란 우리지만, 지금은 마음의 눈 대신 총대의 눈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고, 악수조차 할 수 없는 역설의 관계 또한, 우리의 모습이다.

세계 유일무이한 단일민족 분단국가로 그 어디를 가든 걱정스런 눈빛을 받는 두 한국은, 정작 자신들에겐 그 긴장이 와 닿지 않는 듯, “휴전의 불감증”으로 누구보다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아질수록 통일의 당위성에도 멀어져 가는 것이며, 과거의 위선된 진상의 회로에 말려드는 것이다. 그래서 연일 세계의 신문에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한반도일 것”이라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독단적인 행동으로 일관, 세계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로 범세계적

인 인간들에게 대항하는 그들이 무모하게 보였고, 그들을 세계의 범정에 세우는 주장에도, 또 2·13남북 공동 성명 합의에서도 도출되었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완벽한’ 해결책에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였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 정상회담 등에서는 한결 편하고 행복한 이야기만 늘어놓다가도, 마음만 먹으면 한반도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제작하는 그들의 음성적인 모습을 볼 때면, 국제사회에서는 친구도, 적도 없다는 생각과 함께 통일의 당위성이 더욱 간절해진다.

50년, 이질성, 통일, 이산가족…

이 모든 말들은 분단국가에 태어난 이상 숙명적으로 늘 듣고 자랐을 단어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피로 뭉쳐진 관계’나 “동포애”에 관해 그토록 집착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우리 민족의 공동적 정서 ‘정’으로 보았을 때, 서양이 생각하는 것처럼 강경한 대응만이 ‘완벽한’ 이행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손창섭의 소설 “비오는 날”의 배경은 그야말로 “비 오는 날”이다. 이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에는 모두 음산한 비가 내리고 있다. 이 비는 누누이 말했듯이 봄날 개구리의 등어리를 적셔줄 따뜻한 비도 아니고, 가을날 목마른 나뭇잎의 목이라도 축여줄 시원한 비도 아니다. 동옥과 동옥의 머리위로 내리는 비는 그야말로 절망과 전쟁의 ‘비’인 것이다. 이 소설의 비극은 작게는 불구인 동옥의 새하얀 다리와, 그런 동옥의 돈을 가지고 달아난 노파의 이기심에 있지만, 크게는 전쟁 때문에 한 가정의 남매가 얼마나 황폐해질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두 남매는 서로에게 돈 조차 맡길 수 없는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 전쟁이라는 배경이 준 폐해가 어디까지이며, 얼마나 개인을 어렵게 하는지 까지도 잘 나타나 있다.

더 이상의 비극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3년간의 옥신각신 끝에 우리가 얻어 낸 것은 반으로 줄어버린 국민과 반쯤 타버린 옥도였다. 탈무드에는 이런 일화가 있다. 한 마을에 몸통은 하나지만, 얼굴이 둘달린 괴이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볼 것인지, 두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대립하게 되었다. 전자는 ‘머리가 두개여도 몸통이 하나라면 그것은 한 사람이다’ 라는 주장을 했고 후자는 그 반대의 논리를 폈다. 며칠이나 계속된 그들의 논쟁은 한 늙은 랍비의 해답으로 풀리게 되었다. ‘한쪽 머리에만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반대쪽 머리도 비명을 지른다면 그것은 한 사람이고 반대쪽 머리가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두 사람이다’

우리는 한 민족인가? 두 나라인가? 그 정답은 랍비의 대답 속에 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가능성 있는 한겨레의 표상일 것이지만 벌써 그들에게 무감각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호랑이 허리춤의 칼날을 끊어내지 못하고 ‘남’ 이 될 것이라는 것이기도 하다.

잃어버린 반쪽의 거울을 찾고 싶다면, 혹은 거울 속의 그와 악수가 하고 싶다면, 무기력하게 서 있지만 말고 우리가 먼저 거울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진정한 포용과 교류와 지극히 정상적인 “악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도 생각해 본다.



02

부산광역시

- 할아버지와 평양냉면 _ 35
- 할아버지의 눈물 _ 37
- 통일의 미소 _ 40
- 기차타고 떠나는 통일여행 _ 43
- 기관사의 꿈 _ 45
- 통일을 향한 발걸음 _ 48
- 콩닥콩닥 통일의 내 마음을 실은 열차 _ 50
- 마음으로 쓰는 애도 일기 _ 53
- 우리의 소원은 통일 _ 55

할아버지와 평양냉면

★
용산초 4 _ 김미라

저희 외할아버지 고향은 평양입니다. 그래서인지 평양냉면을 무척 좋아 하십니다. 아마 그럴 때 할아버지께서는 고향 생각이 많이 나시는가 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피난 내려 오셔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공군으로 큰 활약도 하셨다고 합니다. 가끔 저는 할아버지와 UN평화공원에 가곤 합니다. 그곳엔 6·25때 우리 나라에 오셔서 싸우다 전사하신 용감한 용사들께서 묻힌 곳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오셔서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TV를 보다 보면 이산가족의 슬픈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는 할아버지 눈가에는 이슬이 맺히시곤 합니다. 아! 얼마 전에 그동안 가지 못했던 북한행 열차가 북한으로 갔다고 하지요? 그 자료 화면을 보니 우리 남한과 북한 사이에 멋지게 달리는 열차가 눈앞에 보입니다.

오늘따라 할아버지께서 자료화면 앞에서 떠나실 줄을 모르시네요. 아마 할아버지의 마음은 벌써 그 열차를 타고 고향으로 달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 저희 어머니께서 남한의 어린이들이 푼푼히 모은 용돈을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보내주는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 한달 용돈은 이 만원입니다. 용돈 기입장도 꼼꼼히 쓰고, 용돈도 아껴 쓰고 있지만 맛있는 음식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한 끼 식사 값 5,000 원이면 북한의 어린이들은 한달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

니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저도 용돈을 모아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보내주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의 아픔을 자라나는 너희에게까지 넘겨주어야 하는 게 안타깝다고 늘 그러십니다. “할아버지,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통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엔 남북 단일 팀으로 스포츠 경기에 나갔대요. 또, 북한 노래인 ‘반갑습니다’도 우리 남한에서 유행하여 친구들과 부른 기억이 나요.”

맞아요.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빨리 통일이 되어서 할아버지와 저와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할아버지 고향으로 가서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평양냉면도 먹으면서 즐겁게 소풍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요!



할아버지의 눈물

★
장안중 3 _ 김보현

“고조, 내 살아생전에 한 번만 고향 땅 밟아봤으면…” 내가 펜을 잡고 있는 지금처럼 비가 추적추적 올 때면 할아버지께서는 술을 드시고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다. 돌아가신지가 벌써 10년이 되었지만, 할아버지의 그 슬픈 눈빛은 아직도 나의 가슴속에 남아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엔 술을 드신 할아버지의 슬픈 잠꼬대가 들리는 듯하다.

강화도에서 나고 자라신 할아버지는 6·25 난리 통에 맨몸으로 남쪽으로 내려오셨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족보도 없고, 우리 아빠마저 외아 들인 바람에 친가 쪽에는 일가친척 하나 없다. 심지어 우리가족의 성인 ‘강 화 김’ 씨 성을 가진 사람도 남한에는 우리 가족 외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어릴 적엔 아무것도 모르고 술 드시는 할아버지께 자주 투정을 부렸었는데, 이제야 그분의 외로움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내가 더욱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 할아버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들은 여전히 가슴에 멍을 지닌 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는커녕 공산당은 빨갱이니, 통일은 안 된다느니 하며 그들의 상처를 더욱 후벼 파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이미 충분히 아팠다. 이제는 그들의 멍든 가슴팍에 시퍼런 칼날 대신 치료제를 안겨줄 때이다. 최고의 치료제 ‘통일’을 말이다. 통일!

매스컴이나 교과서에서 떠들어대니 이젠 익숙해져서 별 것 아닌 듯이 들리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다. 애들 장난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적 균형, 정치적·문화적 차이 극복, 이념 대립 완화 등 여러 문제가 통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은 저기 청와대나 국회에 계신 높은 분들이나 해결하지, 학생인 나로서는 힘든 게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통일을 위해 뭔가 할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마침내 해답을 찾아냈다. 간단하면서도 획기적인 것이다. 바로 '생각의 전환'이 그것이다.

의사가 원인을 찾아서 병을 치료하듯이 한반도가 둘로 갈리게 된 원인을 찾아보면 그것이 이념의 대립, 즉 생각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생각의 사소한 차이로 인해 어제까지 이웃이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총칼을 들이뒀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서로 오해를 풀고 생각차이의 간격을 좁힌다면, 통일로 한 발짝 다가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일까?

우선, 북한에 대한 오해, 즉 잘못된 생각들을 풀어내야 한다. 사람들은 북한의 남침으로 6·25가 일어났으니 전쟁은 전적으로 북쪽에 책임이 있고 공산당 빨갱이들은 모두 나쁜 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두 사람이 싸움을 했는데 어떻게 한쪽에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물질문명에 찌든 우리들보다 오히려 북한의 주민들이 더 순박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남과 북은 하나라는 동질감을 되찾아야 한다. 분단 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50여 년의 세월동안 남북은 너무 많이 멀어졌다. 본래 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무색케 할 만큼 서로의 언어가 낯설고 음식이 낯설고 옷차림이 낯설다. 이제라도 서로 한 민족임을 자각하고 다가간다면 통일도 좀 더 다가오지 않을까 싶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오늘도 하늘 위에서 뚝 끊어진 한반도 호랑이의 허리를 내려다보시며 다른 이산가족들과 마찬가지로 피눈물을 뚝뚝 흘리시겠지. 어쩌면 이 땅에 내리는 비는 이산의 아픔을 간직한 모든 이들

의 눈물이 모여서 내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제 비가 그치고 서서히 날이 개어온다. 먹구름이 물러가고 무지개가 고개를 내밀 듯이 휴전선이 물러가고 사람들의 얼굴에 일곱 빛깔 찬란한 행복이 꽃피는 날을 오늘도 기다려 본다.





최우수상

통일의 미소



기장고 2 _ 손가인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 정신을 놓으셨다. 초점 없는 두 눈동자로 나를 지그시 바라보실 때 죄송스럽게도 나는 여름날 힘없이 풀린 좌판 위 생선의 눈이 생각났다. 별경계 충혈 되어 미친 듯 타는 태양의 발악 같은 실핏줄들이 툭툭 불거져 나온 누런 희 자위, 할아버지의 방은 깨끗했다. 작은 창문으로 비집고 들어와 조심스레 비치는 햇살도 사실은 따듯했다. 그러나 나는 그 방에 들어가기 싫었다. 나만 느끼는 비린내, 콧속으로 들어와 내 몸 구석구석까지 돌아 나가는 알 수 없는 비릿한 내음이 싫었다. 어쩌다 그 방 앞을 지나자면 여느 때처럼 또 흐느끼고 계신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일말의 정도 없이 나는, 동요 없는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다. 미쳐버린 나의 할아버지도 조용히 고개를 돌리셨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셨다. 가족 중에 6·25전쟁에 참전하신 분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는 선생님, 무의식중에 손을 들던 나는 누가 볼 세라 얼른 다른 한 손으로 들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가 정신을 놓으셨다는 걸 몇몇 아이들은 알고 있었고 또 다시 '미친 할아버지가 자랑이냐'는 놀림을 받고 싶지 않았다. 어린 나는 그저 단순했다.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할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지만 나는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정도 가질 수 없었다. 남북전쟁에 참여하신 할아버지를 두고 있다

는 건, 나에게 자랑도 명예도 아닌 무거운 짐 같은 것이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이시다’ 같은 말은 쉽게 할 수 있었지만 더 깊이 말하는 건 여전히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어쩌다 나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영화관을 가게 되었다. 한참 텔레비전에서 ‘태극기 휘날리며’를 선전할 때, 무표정한 얼굴로 가늘고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가락을 뺨어 장동건과 원빈을 가리키는 할아버지 때문이었다. 혹여라도 아는 친구를 만날까봐 나는 할아버지와 부모님 뒤에 멀찍이 떨어져 따라 걸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끌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영화관 여기저기에서 사연 많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물론 나도 눈물 콧물 범벅이 되었지만 그리고 내 오른쪽에서 진지하게 영화를 보시던 할아버지도 드디어 눈물을 흘리셨다. 남들은 잘 울지 않는 장면에서 말이다. 주인공들이 폐허가 된 마을에 들어가는 장면이었다. 한 방울도 눈물을 쏟지 않으시던 할아버지는 그 때 우셨다. 한 번도 고개를 내밀지 않았던 동정이라는 감정이 그제야 모습을 드러내고, 어서 저기 저 손을 잡아드리라는 말을 건넸다. 그러나 나는 어릴 때 그 날처럼 또 다시 가던 손을 막아버렸다. 넌 정말 바보라는 질책이 나의 머리를 때렸다. 용기를 내어 그 햇살 좋은 방에 들어갔다. 햇빛에 비쳐 갈색이 되어버린 투명한 눈동자가 그다지 나쁘진 않았다. “할아버지…” 살며시 부르자 신기하게도 할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시는 듯 했다. 잔잔하고도 속 깊은 물결 같은 주름이 얼굴에 한 가득이었다.

“내가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아이를 끌어안고 부엌에 숨어 오들오들 떨고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 아이는 호기심 어린 얼굴로 내 총을 하나하나 훑고, 여자는 아이 안은 손을 더 짝 그러줘더구나. 난 정말…, 못 본 척 지나가려 했었어.” 죽어버린 고목 같은 목소리에 다시 촉촉한 눈물이 배어 나왔다.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야윌 대로 야윌 어깨를 들썩이셨다. 상사의 지시로 여자를 겨눴다고 살려달라고 미친 듯이 울어대는 여자의 마른 등쪽에 방아쇠를 겨눴다고….

“여자의 시뻘건 피가 흘러나와서 서 있는 그 아이의 맨발을 적시더구나. 울지도 않고 그 심연 같은 눈동자로 날 꿰뚫던 아이가 너무 무서웠ندا.

난···, 그때 죽었어. 수천 번이고 수백 번이고 난 그 아이 눈길에 총살당했다. 지금이라도 다시 그 작은 집 부엌을 열고 들어 가 큰 눈을 가진 그 아이에게 사과하고 싶어. 전쟁의 끝나고도 그 아이가 꿈속에서 날 따라오더구나. 다시 그곳에 가면 서 있을 것만 같아···.”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죽을 때가 다가오면 미쳤던 사람도 잠시 정신이 돌아온다고 한다. 우리 할아버지도 그날 그랬다. 한참 뒤에야 알았지만···.

며칠 뒤 할아버지는 누우셨다. 방은 여전히 햇살이 좋았다. 십 년이 넘게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그 손을 잡았을 때 저절로 눈물이 흘렀다. 꺾꺾 눌러 다졌던 것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것이다. 할아버지 얼굴은 내 눈물에 가려 흐릿했지만, 햇빛 비친 마지막 미소만큼은 뚜렷이 기억한다. 감히 내 모자란 글재주로 형용할 수 없는 편안하고 따스하고 아름다운 미소.

“고맙구나.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다니. 나랑 같이 너희 집으로 가자꾸나. 네 어머니 무덤도 만들고, 어서 가서 빌어야겠다.” 다행이었다. 마지막이라고 기억될 할아버지 모습이 전쟁의 아픔으로 서러워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모든 고통이 끝난 듯이 환하게 짓는 미소여서. 나는 그 미소에서 우리 할아버지 같으신 분들의 아픔을 씻어드릴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문득 깨달았다. 평생 동안 심장을 갉아먹어오던 과거의 끔찍한 기억과 그 고통, 그 죄책감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정부의 보조금도 아니고 국가의 훈장도 아닌 ‘통일’ 단 하나이다.

요즘 사람들은 자꾸 통일을 기피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햇살을 닮은 미소를 보고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한 개의 티끌도 없이 투명하게 맑은 그 미소를 보고도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슴 깊은 곳까지 뜨거운 눈물을 채우는 할아버지의 미소를 평화로운 분홍빛 봄날 어디선가 훈훈하게 불어드는 바람 같은 그 미소를. 눈물을 웃음으로 만들고, 슬픔을 어머니 품처럼 안아주는 미소를. 그 통일의 미소를.



기차타고 떠나는 통일여행

★
창신초 6_이슬

통일하면 제일 생각나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뉴스에서 떠들썩했던 경의선 개통소식이 생각난다. 기차가 떠나는 장면을 보는 순간 “우와, 우리도 통일이 될 수 있겠네!”라고 소리쳤다. 우리나라만 60억 인구가 사는 지구에서 분단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이 마치 36년간 일제에게 고통을 당했던 우리 민족의 수치심과 같은 기분이 들게 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북한과 통일하여 더 강한 한국이 되어야 할 텐데. 왜 통일이 안 될까? 이때, 도덕시간 선생님께서 “우리는 통일을 기원하며 소나 쌀, 비료 등을 보내기도 하지요. 또 대통령끼리도 만나고 합니다. 회담도 가졌었지요? 그런데 왜 통일이 안 될까요?” 우리 반은 “3·8선 때문예요!” “아니야, 대통령이 두 명이니까 그렇지~ 국민들이 누굴 뽑을지 몰라서 그런 거야. 바보야!”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었다. 선생님께선 웃으시더니 “글쎄, 이긴 선생님 생각일 뿐이지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달라서예요. 공산주의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몇몇 공산당원들만 부를 누리고 있어서 인민의 원망을 사기도 합니다. 또, 민주주의란 국민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정치를 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가끔 북한주민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건너온답니다. 어쨌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차이점이 의견도 틀리게 하고 사고방식도 다르게 하니까 선생님은 통일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라고 하셨다. 이 말을 듣고 나자 우리 반은 통

일이 되면 좋겠다. 안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나왔다. 나는 통일이 되면 좋은 점도 많은 것 같다. 먼저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유럽여행도 할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 기쁨을 누릴 수도 있다. 또 북한의 물자, 특산물 등으로 수출도 늘리고 수입도 늘어날 것이다.

나는 통일이 되는데 6·25전쟁처럼 참혹하게 동포들을 살생하여 피투성이만 땅에 얼룩지고 사상자만 남는 그런 통일은 원치 않는다. 언젠가 뉴스에서 할머니들께서 손을 잡고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 하며 눈시울 붉히며 금강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할머니들께서 이미 전쟁을 경험하셔서 부모형제를 잃은 후라 6·25 같은 무시무시한 전쟁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으실 것이다. 또 나도 이런 전쟁이 우리나라의 찬란한 역사에 발도장 찍히기 싫은 것이다. 하루하루를 통일에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할머니들과 우리들을 위해서라도 통일을 꼭 이뤄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웃음 짓는 그런 통일을 말이다.





기관사의 꿈

★
선화여중 2 _ 백수희

1950년 6월 25일 새벽, 형제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어야만 하는 가슴 아픈 전쟁이 시작되고야 말았다. 그 당시 우리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기차를 모는 기관사이셨다. 금강산역에서 아우지 탄광까지 달리던 기차. 매일 아침 할아버지는 금강산을 보며 눈을 즐겁게 하셨고 명사십리라는 바닷가를 지날 때는 아이들이 물장구를 쳤는데 그 모습이 아직까지 눈에 선하다고 하신다. 고기잡이들이 있는 곳을 지날 때면 어부들은 매일 할아버지께 명태를 몇 마리 드렸다고 한다. 마지막인 아우지 탄광에서는 힘들게 일하는 광부들에게 음료수를 건네며 인사하셨다.

6·25전쟁이 일어나던 그날도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기차를 몰기위해 기차역으로 향하셨다. 하지만 그때, 전쟁터에서의 첫 총소리가 울려 퍼졌고 할아버지의 기차역을 향하던 발걸음이 피난길을 따라 아래로 아래로 떠밀려 왔다. 같은 피난길 무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앞으로 쓰러질 때마다 할아버지 눈에는 생사를 알 수 없는 부모님과 형제들의 얼굴이 번져갔다.

그렇게 힘든 피난길을 따라 내려오시다 정착한 곳이 바로 초량이다. 그때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할머니를 만나셨고 할머니 역시 북한에서 혼자 내려오셨던 터라 두 분은 잘 맞으셨고 결혼까지 하게 되셨다. 그리고 아빠와 고모들을 낳으시고 아빠는 또 이곳에서 엄마를 만나 결혼하셨다.

할아버지는 밑으로 내려와 자식들을 낳고 손자까지 보셨지만 아직도 북한에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은 떨치실 수 없으신 듯 보인다. TV에서 이산가족 상봉 장면이라든가, 먼 하늘을 보며 멍하니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얼마 전, 할아버지께 희망을 드리는 한 뉴스거리가 있었다. 우리나라 기차가 북한에 올라가고 북한기차가 우리나라로 내려오는 뉴스이다. 우리나라는 경의선 철도를 타고 개성까지 올라갔고 북한은 동해선 철도를 타고 금강산역까지 내려왔다. 금강산역! 할아버지가 모시던 기차의 출발역이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잦은 왕래라면 통일에 한 발짝 다가갔다고 하셨다. 하지만 그때 나는 왜 꼭 통일이 되어야만 하는지를 몰랐다. 남한과 북한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른데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도 극과 극인데 하나로 합쳐진다고 해서 금세 서로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내 생각은 너무나 어리석었다. 우리는 지금 통일로 가는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밟고 있는 것이지 금방 통일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평화통일을 한 다른 여러 나라처럼 자주 왕래를 하고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할아버지처럼 북한과 남한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평생을 지내는 이산가족들은 너무나 괴로울 것이다. 그러니 빠리는 아니더라도 차츰차츰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야만 한다. 할아버지도 그러셨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은 통일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번 뉴스처럼 잦은 왕래가 우리 때쯤 되어야 통일로 바뀐다고. 그리고 통일이 되어 할아버지가 모시던 기차가 운행된다면 할아버지 대신 기차의 운전대를 꼭 잡아봐 달라고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내가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원하시고 평생의 소망이 금강산역에서 아우지 탄광을 달리던 기차를 다시 한번 몰아 보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손녀딸인 내가 통일은 나와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더니...

지금은 내 생각이 바뀌었다. 또한 소원도 바뀌었다. 통일은 6·25전쟁을 겪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

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도 모르는 우리들에게도 문제인 것이다. 소원은 할아버지가 모시던 그 기차가 온 가족을 싣고 북한을 달리는 것이 되었다.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되새겨 본다. 통일은 꼭 오고 할아버지의 꿈이자 소망인 기차운행도 된다고. 한반도는 금방 하나가 될 것이라고….





통일을 향한 발걸음



혜화여고 3 _ 송지은

요즘 우리 어머니는 왼쪽 발에 깁스를 하고 계신다. 며칠 전 계단에서 발목을 삐끗하신 것이 탈이 난 것이다. 생전 처음 깁스를 해보신다는 어머니는 두 발이 온전히 건강하지 못한 불편함을 새삼 느끼고 있다 하셨다.

“왼발은 왼발대로 육신육신하고 깁스 안에 갇혀 가지고 답답해가 힘이 들고, 오른발은 또 오른발대로 몸을 다 지탱할라 카니까 무게에 짓눌려가 힘이 든다 안 카나.”

어머니의 하소연을 매일같이 듣던 어느 날, 내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다. 오늘날 남북의 모습이 우리 어머니의 두발과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것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커다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 서로에 대한 이질감과 각종 국제 정세의 무게에 눌려 우리는 그렇게, 반세기 가 넘는 시간을 걸어오지 않았던가. 마치 깁스를 한 어머니의 두 발처럼 힘들게 견뎌왔을 우리 민족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동시에, 어느새 통일에 대해 무관심해진 내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돌이켜 보면, 초등학교 때만 해도 나는 통일에 아주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다. 고 정주영 회장이 소 때를 이끌고 가는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보며 웬지 모를 감격에 눈물을 글썽였던 기억, 남한에 공연하러 온 북한의 친구들을 보며 ‘이 다음에 꼭 저 아이들처럼 친구가 되어야지.’ 하고 마음 먹었던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땠던가. 내게 통일이란,

어느새 대학교 논술 시험을 위한 지식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가슴이 아닌 머리로 생각하는 데에 익숙해진 내 모습이 실망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서울에 위치한 통일교육문화원에 토론대회를 하러 갔다가 매우 값진 친구를 얻게 되었다. 강경선이라는 한 새터민 아저씨가 그 주인공이다. 삼년 전 탈북하셨다는 아저씨는 우리들과 좋아하는 음식도, 가수도 비슷했다. 어느새 남과 북이라는 경계가 모호해졌고 결국 아저씨와 나는 친구가 되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아저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요새 한국 청소년들은 공부는 열심히 하면서 정작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네 또래의 아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해.” 그랬다.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에 매달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온 나였다. 참으로 오랜만에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 뿌듯했다. 하나의 핏줄을 타고 난 우리들은 하루빨리 한반도에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나와 내 친구들은 통일에 대해 가슴으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민들레 홀씨도 바람에 날아가 뿌리를 내리고 새들도 마음껏 넘나들 수 있는 그곳, 북한. 언제쯤이면 도시락을 싸들고 북한으로 나들이를 갈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초등학교 때 꼭 친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들을 만나 볼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의 발은 점점 회복되고 있다. 아마 조금만 더 참으시면 곧 그 답답하고 불편했던 김스를 풀고 마음껏 걸어 다니실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상처가 아물 듯 남북의 깊은 상처도 어서 아물었으면 좋겠다.

남과 북이, 건강한 두 발이 앞으로 나아가듯 통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길 마음속 깊이 소망해 본다.



콩닥콩닥 통일의 내 마음을 실은 열차



해림초 6 _ 배성은

매년 호국보훈의 달 6월이 되면 우리의 통일을 위해 개최되는 여러 가지 통일에 관한 대회가 많아진다. 나는 그 중에 하나인 6월 2일에 나루공원에서 이루어졌던 통일글짓기 대회에 참가했었다. 영광스럽게도 나는 대상을 수상해서 오늘의 본선대회를 만나게 되었다.

학교의 점심시간을 끝내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대회가 열리는 초읍의 자유회관으로 향했다. 학교에서 지금쯤 아직 공부하고 있을 친구들과는 달리 좀 더 일찍 학교를 마치고 온 나는 좀 어색했다. 하지만 대회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품고 오늘 대회에서 무얼 쓰면 좋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았다. 이 때, 어머니 차의 차창 밖으로 흰 비둘기가 보였다. 흰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던데, 좋은 징조인 것 같았다. 순간 내 머릿속에서 우리나라의 통일과 흰 비둘기가 친구가 되었다. 정말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했다. 또, 정말 노력하고 싶었다.

내가 잠시 나만의 상상과 생각 속에 잠겨있는 동안 벌써 눈앞에는 기다리고 궁금해 했던 자유회관이 있었다. 나는 얼른 차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통일에 대한 여러 상징물이 전시되어 있었다. 1층의 강당에서 설명을 들었다. 중앙 무대 옆에는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쓰여져 있었다. 글짓기 주제는 통일이었다. 얼마 전 우리는 민족의 뼈아픈 상처였고 서울과 신의주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이던 경의선 열차를 시

범 운행 했었다. 나는 그때 신문 1면에 큼지막하게 실려 있던 경의선 신문 기사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든 국민들이 일제히 일어나 시원한 함성을 지르는 것 같았었다. 통일의 문턱을 이제 넘는가 보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하나의 나라가 되는가 하며 혼자만의 상상의 세계로 들어갔었는데...

모든 순국선열들의 소망이 하나 둘 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 외할아버지께서도 순국선열이시다. 외할아버지께서는 군대의 높은 직위 이셨는데 6·25전쟁에 참전하셨다가 그만 다리에 총탄을 맞아 병이 악화되어 돌아가셨다고 늘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순국선열 외할아버지의 꿈과 바램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는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또 그 꿈과 바램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란 걸 알고 있다. 나는 외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다. 그래서 통일을 원한다. 나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보았다.

우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노력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일들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나라의 통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로는 내가 할 일을 책임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은 나라를 이끌어 갈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내 할 일에도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은 필수이다. 셋째,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혼란한 국민들의 마음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나라의 기틀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3가지만 잘 지키더라도 우리의 통일은 머지않아 다가 올 것이다.

통일을 하게 되면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애타지 않아도 된다.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먼저 알록달록 평화의 애드벌룬을 북한으로 날려 보낸다면 북한은 그에 대해 환영의 애드벌룬을 날릴 것이고 그 두개의 애드벌룬이 서로 손잡고 하늘 위로 날아간다면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또 우리가 나서서 평화의 따뜻한 악수를 건넨다면 답례로 북한으로부터의 반가운 손길이 다가올 것이다. 하늘이 푸르면 바다도 푸르다. 하늘이 흐리면 바다도 회색빛이 된다. 끝과 끝은 통한다. 우리나라와 북한도 마찬가지로이다. 북한이 슬프면 우리나라도 슬프고 북한이 기쁘면 우리나라도 덩달아 기뻐진다. 나는 내 생각,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마술처럼 글로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좋은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통일을 향한 내 마음이 하늘에 닿으면 된다.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아까 본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맞다.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 땀, 노력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 6월 6일 현충일마다 얼굴은 모르지만 생각은 간절한 채로 할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가 두 손 모아 통일을 기도하는 대한민국 한 학생의 작은 소망이다. 그리고 작은 마음이다.





마음으로 쓰는 애도 일기

★
동래여중 3 _ 황수현

지구본이 뱅글뱅글 돌아가다가 언제 잡힐지 모르는 작은 국가 한반도에 세계 국가에 비해 한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독일마저 통일을 하고 다 합쳐진 가운데 한반도는 아직 두 개의 나라가 분단되어 있다. 언 50년 전, 한반도는 그저 눈물만 날 수밖에 없는 6·25전쟁을 겪었다. 반색된 얼굴로 죽음의 그림자를 피하기 위해 가방을 둘러메고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에 피난을 가야만 했고, 그중 나의 외할아버지마저 북에서 피난을 오셨다.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그 당시 헌병이셨고, 할아버지에겐 어머니 같은 외할머니가 계셨다. 화목하기만 했고,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할아버지 댁에서는 갑자기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 내려와야 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북에서 데려오시지 못했다.

“먼저 가거라. 내가 곧 뒤따라 가마. 걱정하지 말고 어서 아버지 따라 먼저가.” 이 말만 남긴 채 일흔이 되신 할아버지께 아무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다. 아직 할아버지의 마음속엔 한이자, 과거의 아픔으로 남아 방안에 홀로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신다. 할아버지께겐 독한 소주가 잠시나마 약이 되어주고, 할머니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어렸을 적, 문틈으로 살며시 보았던 술꾼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덜어낼 수 없었던 것을 뒤로 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작은 거인이셨던 것이다. 내가 겪지 못한 깊은 전쟁의 아픔들을 엄마의 말씀으로 난 마음깊이 애도의 눈물을

흘리며 내 마음속 백지장에 한 글자, 한 글자 일기를 쓰고 있었다. 유일하게 통일이 되지 못해 국가와 국민이 애타게 기적만을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아직 우리에게 기적이 없었다. 휘날리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묵념을 하고 아픔을 겪은 한반도의 기억을 아름다운 통일로 지워주고 싶지만 일기장 마지막 줄에 소원으로 남아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

현대 사람들과 청소년들은 통일을 그저 불가능하고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면 무관심과 나라 일로만 생각한다. 나라 일로 생각해서 군대에 갔던 나의 사촌 오빠도 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지켰으나 이젠 영영 볼 수 없는 사진 속 얼굴로 기억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죽은 아들을 먼저 묻고 현충일마다 아들이 그리워 애통한 부모의 가슴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아들 이름을 불러도 다시 볼 수 없는 오빠의 모습을 생각하니 그저 내 눈에는 눈물이 고여 가슴팍으로 떨어진다. 이젠 기억조차 흘려야 하는 눈물밖에 될 수 없어 난 가끔 전쟁을 원망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통일이 빨리 되어서 국방비도 줄이고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세계에 알려지는 작고도 큰 한반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파레트에는 여러 색의 물감이 있다. 그중 빨강색과 파랑색은 한반도의 두 나라의 색깔이다. 빨강색과 파랑색의 혼합은 어둡지만 매력 있는 보라색이 만들어진다. 물질에 의해서 분단되어 있는 나라를 합치지 않고 수비지만 어려운 남한과 북한이 합쳐져 화려하고도 희망의 보라색이 만들어지면 세계 곳곳 학교 교과서에 멋진 나라 남·북한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는 일이 기적같이 일어나는 게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폭죽과 기쁨의 함성이 글과 그림, 대중매체로 통일을 알리며 서로 만나 부둥켜안고 기적의 눈물, 기적의 함성을 지르는 일은 멀지 않았다. 모든 기적들이 남과 북이 함께하는 날이 오기를 한국, 한국인들은 다시 한번 한반도를 믿는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부산국제외고 2 _ 장은성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이 글귀는 내가 초등학교 때 다닐 때 자주 즐겨 부르던 노래인 '금강산'의 가사 중의 한 부분이다. 이 노래를 자주 불렀던 탓일까? 언제인가부터 금강산에 대한 호기심이 내 머리 속에서 떠나지를 았았고 '커서 꼭 가보고 말아야지.' 라는 소원마저 내 마음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던 때에야,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힘든 것임을 알게 되었다.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6·25전쟁을 시작으로 3여 년 뒤에 휴전한 그때부터 우리 한반도는 남북,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져 서로 남이 된 상태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그랬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의 나의 소원이었던 '금강산 가기'는 이루어지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금강산에 가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것을 초등학교 때 처음 알았을 때에는 금강산에 가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었지만 어느 정도 커버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금강산에 가볼 수 없게끔 만든 상황 자체가 슬프고, 안타깝다.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핏귀고, 혈뜬었던 상황 자체가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어렸을 때의 소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금강산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나는 한반도의 통일을 소원했고 그 소원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변함이 없다. 그렇게 나는 다른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이 나와 별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통일을 당연

하다고만 여긴 내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 일은 고등학교 논술·토론수업 때 벌어졌다. 그때의 수업의 주제가 통일의 찬반이었다. 그 수업을 시작하기 전만해도 나는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많으리라 생각했지만 이러한 나의 생각은 수업이 진행되면서야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과는 반대가 대다수였던 것이다. 주위에 있던 친구들 역시 이러한 결과는 생각도 못했다는 듯이 놀란 표정을 지었고, 시끌벅적하던 교실 분위기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머릿속에서는 물음표만이 떠다니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때에 한 친구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난 솔직히 통일에 반대해. 너희들도 알다시피 지금 북한의 경제사정은 매우 좋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을 도와줄 만큼의 여력을 지닌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을 한다 생각해봐. 아마도 우리 또한 무너지게 될 거야.” 교실의 분위기는 반대하는 친구의 말에 동조하는 듯했다. “그리고 통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 한반도의 사상은 민주주의가 될까, 공산주의가 될까? 또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 건데?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야.”

또 다른 반대 의견에 반대하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가고 있을 때, 조심스레 말을 꺼내는 한 친구가 있었다. “물론 너희 말처럼 경제상황이나 정치상황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대로 통일을 미루게 되면 북한과 우리는 아예 남남이 될지도 몰라. 지금도 언어나 문화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말, 문화, 하나였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 찬성하는 의견을 낸 친구 덕분에 용기를 내 주눅 들어 있던 나의 소원을 위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고조선 때부터 함께 해오던 한 민족이잖아. 물론 경제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 역시 중요하기는 하지만 민족이라는 건 경제, 정치 그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해. 경제나 정치의 갈등은 어떻게 해서든 극복할 수 있을 테지만, 민족적 개념이 상실했을 때의 민족의 결합이란 매우 힘들 테니 말야. 그러한 만큼 민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생각해도 내 의견은 그리 논리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논리성을 중시하던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내 말로 인해 수업 분위기는 더욱더 엄숙해 졌다. 반대하던 친구들 또한 동의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렇게 그 토론이 끝난 후 반대하던 친구가 곁에 와서는 “은성아 사실 나도 통일이 됐으면 해.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 너도 알지? 우리 같이 이루자! 우리가 통일을 이끌어 가는 거야. 우리 다같이 해 보는 거야.” 그 친구의 확신이 가득 찬 목소리에 주위에 있던 친구들까지 모여 약속했다. 더 이상은 어렸을 때의 나처럼 금강산에 가고자 하는 소망을 버리는 아이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통일의 주역이 되어 통일을 이끌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웃으며, 하지만 두 눈과 마음속에는 열정과 확신을 품으며 모두 함께 다짐했다. 그 다짐을 위해 나의 옛 소원을 위해서라도 그 꿈을 이루고 말리라, 그래서 언젠가는 웃으며 금강산에서 ‘야호’를 외치는 날을 맞이하리라. 오늘 역시 기대해 본다.



03

대구광역시

- 우리가 만나기 위해 _ 61
- 역에서 사는 남자 _ 63
- 이젠 너와 나가 아닌 우리로 _ 67
- 누구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
백두산 일출 _ 70
- 민족정신이 하나됨을 부른다 _ 72
- 둘이어도 하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 _ 74
- 내 친구 기문을 소개합니다! _ 77
- 시나브로 통일을 향하여 _ 79
- 통일로 가는 길, 경의선 _ 82

우리가 만나기 위해



시지초 6_ 김혜린

아침 조회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현충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각 반에서 통일 포스터를 그려 우리의 작품은 북한에 ○○초등학교에 전시하고 북한 ○○초등학교의 그림은 우리 학교에 전시할 겁니다. 그러니 포스터를 열심히 그려 보도록 하세요.”

조회를 마치고 들어와 선생님께서도 알려 주셨습니다.

“내일 5, 6 교시 미술시간에 그림을 그리겠어요.”

혜경이는 통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혜경이는 작년 통일 포스터 그리기 대회에서도 상을 타 북한 아이들이 자기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봐줄까 초조하면서도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혜경이는 학교를 마치자마자 따라 오기라도 하는 듯이 열심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혜경이는 도착하자마자 도화지를 펼쳐 포스터를 어떻게 그릴까? 하고 열심히 구상해 보았습니다.

다음날, 혜경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포스터 그리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혜경이는 어제 구상한 것처럼 쓱쓱쓱 그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혜경이는 구상을 잘 해둔 탓인지 금방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통에 물을 받아와 채색을 하였습니다. 혜경이의 모습은 마치 유명한 화가 같았습니다. 혜경이가 그린 그림은 누가 봐도 정말 잘 그린 것 같았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와, 역시 통일 신동은 뭔가 다르긴 달라.”

라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난을 치던 준용이와 채경이가 물통을 쳐서 그림에 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 순간 교실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혜경이는 순간 그림이 망쳐졌다는 것에 울고 말았습니다. 채경이와 준용이는 자기 탓이 아니라고 핑계만 댔고 여자 아이들 몇몇이 와서 혜경이의 그림을 닦아 주었습니다. 먼저 혜경이는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싸우는 채경이와 준용이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둘 다 잘못 없어. 순전히 우연찮게 물이 쏟아졌잖아? 그리고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뭘.”

“미안해.”

“아니야. 이 그림에는 통일이 되길 원하는 내 마음이 담겼잖아. 난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해.”

“정말 고마워.”

그리고 혜경이의 작품과 다른 친구들의 작품은 북녘땅에 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혜경이의 감상문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그림을 그리는 도중 물이 쏟아져 이렇게 작품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이 그림에는 남녘땅 한 소녀의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북한 아이들도 이 마음이 너무 와 닿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혜경이의 엉망인 작품이 유독 우리의 눈에 빛나 보였습니다.



역에서 사는 남자

★
복현중 1 _ 조소연

‘빠아아앙’

“범어, 범어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안전선 뒤로 한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 출근시간에 지하철역은 무척이나 붐빈다. 서로의 몸을 부대끼다 기분이 팍 상해서는 인상을 찌푸리며 얼른 회사로 뛰어간다. 바쁘게 돌아가면 시선이 한 사내에게 머물다. 허나 곧 다시 인상을 굳히며 발걸음을 옮긴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이는 바로 백발의 노인이다. 빼만 남은 외소한 몸에, 달랑 신문지 한 점을 깔고 있는 모습이란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다. 더군다나 20년은 더 돼 보이는 가죽점퍼를 덮고 있는 것이 그를 더욱 더 안타깝게 만들었다.

출근시간이 지나자 역은 한산해지더니 곧 텅 비어버렸다. 그때 중년의 한 남자가 노인에게 뒤통뒤통 걸어왔다.

“최형, 최형! 밥 잡수셨소? 아이고, 보나마나 안 잡셨제. 바닥도 이리 찬데 궁둥이 안 시립니까? 내 뜨끈한 국밥 하나 살터니 갑시다.”

중년의 남자는 역 근처 국밥집을 찾더니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는다.

“아줌마, 여기 소머리국밥 두 개 주소! 참 이제는 말 안 해도 알죠?”

“그러문요, 파뿌리 쪽에 흰 거 넣지 말라고요? 척하면 척이죠!”

“내도 마 이제 여기 단골이 다 됐네. 꺾꺾.”

“에이, 쉽디요? 난 예전부터 단골인줄 알았는데, 김씨?”

시시껄렁한 잡담을 주고 받다보니 어느새 식탁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이 나왔다.

“최형. 먼저 드소. 이 집 소머리국밥하면 동네가 알아준다니깐. 뜨끈할 때 얼른 잡썰요.”

노인은 야윈 손으로 숟가락을 잡더니 국물 한 숟갈을 퍼먹는다. 일어있던 몸이 사르르 녹는 몽롱한 전율을 느낀다. 슬슬 몸이 풀려갈 썸 갑작스레 김 씨라 불리던 중년의 남자가 숟가락을 탁 놓더니, 어렵게 말을 꺼낸다.

“저, 최형 형님은 왜 역에서 그러고 있는 거? 이북에서 선생님이었다면서...” 사내는 잠시 생각하나 싶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는다.

“내가 김 씨한테 이북 얘기 안 해주든가? 그게 말이지...”

난 저쪽 평안남도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오마니 혼자 날 키우셨지. 내가 김 씨한테 이름 안 가르쳐줬지? 내 이름은 굳셀 강에 지혜 혜자를 써서 최강혜여. 어릴 때 이름이 계집아 같다고 놀림도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오마니도 많이 미워했지. 그때마다 오마니는 내 머리를 쓱쓱 넘기면서 부드럽게 타이르셨지.

“강혜야, 강혜야. 니 이름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겨, 아무리 누가 뭐래도 최강혜가 최고여 알겠지?”

하지만 철이 없던 나는 오마니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신경질을 부리고 틀툴댔지. 마치 우는 아기를 부드럽게 달래면 아이가 더 우는 것처럼 말이야. 자라면서 나는 더욱 더 비뚤해졌고, 오마니는 그런 날 붙잡으려고 갖은 애를 쓰셨지. 난 아버지가 없는 게 싫었고, 가난이 싫었고, 불효막심한 자식이라도 제 새끼라고 좋은 옷 하나, 고기 한 점 더 주는 오마니가 싫었어. 난 오마니의 사랑을 부정하고 거부했지. 그리고선 집을 나왔어. 분명 후회할 걸 뻔히 알면서도, 하지만 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어. 당신 삶도 지옥 같은데 혹 같은 어린 자식이라도 떼 드려야지. 어린 마음에 내가 사라지는 게 효도라고 생각했지. 정말 바보 같은 것인데 말야.

난 아는 형들과 같이 황해도로 내려갔지.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성

공해서 나중에 어머니님 호강시켜드려야겠다고 결심했지. 낮에는 탄광에서 일하고 밤에는 스스로 공부를 했지. 그렇게 3년을 하고, 지식을 쌓으니 선생님의 자리에까지 올라섰어. 난 이제야 오마니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하며 땀땀이 고향을 찾았지. 이사를 했으면 어쩌나 했는데 3년 전 그대로더라고. 내가 던져 놓았던 옷가지, 내가 쓰던 연필 한 자루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 가슴 속에서 울컥한 마음이 피어오르는 거야. 그리고 다급히 오마니를 찾았지.

“오마니, 오마니. 강혜왔어요. 오마니! 하나 밖에 없는 아들 강혜왔어요. 오마니?”

한참을 목청 터져라 부르짖는데 저기 멀리서 다락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며 우시는 거야. 내가 얼마나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았는지. 어머니의 마음이 들리더라고. 난 평생 왕비님같이 호강하시면서 살게 해드리겠다고 호언장담했지.

일 년이 지나고 우리는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었어. 그날은 내 생일이었는데, 오마니가 한 손에 뭘 들고 오시더니 자랑스럽게 꺼내 드시는 거야. 그건 가죽점퍼였어. 내가 깜짝 놀라며 이 비싼 걸 어떻게 구했냐 물으니 그동안 내가 용돈 쓰시라고 주었던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샀다고 하시더라고. 눈물이 핑 도는 거야. 이 오마니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어. 그날 새벽이었지. 갑자기 제복을 갖춘 이들이 들어오더니 같이 좀 가자고 하는 거야. 난 오마니가 놀래실까봐 아는 형들이라고 둘러댔지. 그들은 날 으스스한 곳에 데려오더니 전쟁에 참전해라고 하더군. 난 반항을 하면 어떻게 될 지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그들을 따라갔어.

내 손에는 어느새 전투복과 총이 들려 있었지. 대충 흘러들으니 우리가 저기 밑에 땅을 빼앗으러 가는 거래. 밑 사람들이 우릴 먼저 공격해서 우리가 다시 복수하러 간다고 하더라고. 난 그 말을 철썩같이 믿으며 꼭 이기겠노라 다짐했지. 싸움이 점점 격해졌을까, 난 그만 무리에서 떨어진 낙오자가 되었고 남녘의 포로가 되었지. 내가 이대로 죽으면 혼자 남은 우리 오마니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지. 그래서 도망을 가기로 결심했

지. 감시자들이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을 때 틈을 노려 뒷걸음을 치며 도망갔지. 그들은 나중에야 그걸 알아채고 급히 총을 들고 쫓아오더라고. 하지만 어둡고, 거리 또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손쉽게 그들을 따돌릴 수 있었어. 전쟁은 3년 동안 계속되었고, 나는 남녘의 한 촌구석에서 숨어 지냈지. 곧 있으니 북녘과 남녘 모두 지쳤는지 휴전을 하더라고. 나는 오마니는 건강히 계실까, 혹시 무슨 해는 안 입으셨나 걱정하며 다시 돌아갈 기회를 노렸지. 다시 오마니를 뵈려면 그 만큼의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니깐. 지금이라도 달려가 오마니를 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 정말 미칠 지경이었지.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몸을 부셔가며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빨리 돈을 구했어. 그리고 오마니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떴지. 그런데 이게 웬 말이나! 지금까지 잘도만 다녔던 길을 막고선 다시는 건너오지 못하게 하더라고. 이게 뭐 소리야.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네. 하이고. 그리고 그 선은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길을 막고 있다네. 그 후로 나는 어머니를 뵈지 못했어. 내게 남겨진 오마니의 흔적은 딸랑 이 가족점퍼 밖에 없지. 사진도 없고, 편지도 없어. 나도 늙으니 오마니의 얼굴도 다 잊어 먹었어. 기억하는 거라곤 이웃에 남겨진 오마니의 냄새뿐이야. 전에 왜 이 옷만 입고다니냐고 했지? 왜냐면 여기서라도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거든. 혹시나 나중에 만나서 다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럼 정말 큰일이잖아. 참, 왜 역에서 사냐고 물었지? 혹시나 오마니가 날 찾으로 내려왔을 수도 있으니깐, 정말 그럴수도 있으니깐, 난 여기서 살 수 밖에 없어. 내 이 평생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오마니를 일 분만 가만히 보고 싶어. 죽어서도 잊으면 안 되니깐. 죽어서라도 기억해야 할 분이니깐. 정말 보고 싶다….

노인이 말을 끝내자 김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최형, 아니 강혜영. 꼭 만나실 거예요. 하늘이 존재하는 이상 꼭 그 소원 들어주실 거예요. 꼭 그럴 거예요.”

그들은 국밥집을 나왔다. 그리고 노인은 다시 역으로 돌아갔다.

이젠 너와 나가 아닌 우리로

오성교 3 _ 장재원

50여 년 전, 과거 고려사 이래로 단일성을 유지하고 있던 한반도는 외부 세력에 의해 각각 두 개의 상호대립적인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국가로 분열되었다. 특히 남북의 분단은 민족의 주체성의 발현이 아닌 미·소 두 진영의 냉전(cold war)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비극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후쿠야마의 이데올로기의 증언에서 주장하듯이 더 이상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갈등, 투쟁은 존재하지 않거나 대부분 약화 되었다. 이 시점에서 남한과 북한 역시 상호간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통일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확대’이다.

50여 년간의 분리는 서로에 대한 단일민족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남북통일은 ‘민족사적 요청’이라는 역사적 당위성을 내재한다. 물론 단기적 측면에서, 통일은 각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수반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통일은 21세기 한민족 공동번영을 위한 토대가 된다. 또한 남북통일은 ‘민족적 역량 낭비 방지’라는 사회, 경제적 당위성을 지닌다. 실제, 일반적인 국가의 경우, 국방비는 전체 GDP의 1% 내외인 반면,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3~4%이고 북한은 무려 GDP의 27% 정도를 국방비로 소모한다. 이러한 과잉 국방비 지출은 ‘안보의 딜레마’로 이어진다. 즉 각 개별 국가의 평화를 위한 군비

증강은 오히려 국가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로서 작용한다. 특히 생산적이지 않고 소모적인 군비 증감 정책 대신, 그 비용을 사회복지영역에 투입하면 사회, 경제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통일은 '인도주의적 요청'의 당위성을 내제한다. 이 데올로기간 대립으로 발생한 이산가족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남북 상호간 화해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또한 남북통일은 '국제 평화주의 요청'이라는 당위성을 갖는다. 동·서독의 통일 이래로 남한과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되었다. 진정한 국제평화주의 이념의 정착은 남북한의 통일이 전제된 이후에야 가능하다. 물론 남북통일에 따른 동아시아 열강들의 상호 이해관계의 충돌이 문제시 되지만, 이들 국가의 이해관계가 '국제 평화주의의 원칙'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국제적 차원에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남북통일은 대내적 차원과 대외적 차원에서 모두 정당한 당위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제 남북한은 구체적 정책을 통한 통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통일에 대해 가장 우려할 점은 통일 비용의 마련이다. 만약 경제적인 대책이 결여된 상태로 통일을 맞이할 경우, 이는 사회 계층 간 정치, 경제, 사회적 차원에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을 내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통일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가령, 사치품에 부과되는 특별 소비세를 높여 세원을 확충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북한과 남한의 경제적 차이를 고려해 보면, 이와 같은 정책은 국민 간 빈부 격차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수반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은 상호 합의하에 DMZ를 생태공원화 해야 한다. DMZ는 지난 50여 년간 천연의 자연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태공원화' 정책이 실시될 경우, 전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의 가치가 있다. 이러한 방식의 통일에 대비한 경제적 영역에서의 실질적 논의가 진행되어야만 비로소 남북은 통일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남북통일에 장애가 되는 또 다른 갈등 중 하나는 정부형태에 대한 충돌이다. 일부 사람들은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나, 흡수통일은 많은 문제점을 내재한다. 만약 갑작스런 흡수통일이 진행된다면, 충분한 경제적 영역에서의 대비책을 확보하지 못한 남북한 사회는 급진적인 분열과 아노미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이는 국가 내부의 자원 조달을 불가능하게 하여 한반도의 경제를 일본의 경제권에 종속시킬 위험성도 지닌다. 그러므로 흡수통일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한다. 이에 대안으로 제시되는 가장 바람직한 국가 형태는 남북연합이다. '남북연합'은 1민족 2국가 2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정부 형태로서 유럽의 EU와 유사한 체제이다. 비록 북한은 1민족 1국가 2체제를 근간으로 한 연방제 실시를 주장하지만 한 국가 내의 상충되는 두 체제의 존재는 국가적 행위의 기본인 국가정책의 일관된 수립조차 불가능하게 하고 사회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자체의 존립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 반면 '남북연합'은 다소 느린 듯해도 이질적인 두 문화 집단을 상호 조율하여 국민 합의하에 민주적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통일은 '둘 이상의 이질적 단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하지만 남북의 통일은 단일성만의 추구가 아닌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제 남북은 서로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구도를 창출하여 우리 민족, 나아가 전 세계인들에게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해야 한다. 신뢰, 믿음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 정책의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통일'은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 질 것이다.





누구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 백두산 일출

★
달성초 6 _ 조은비

난 그림 그리기 전날, 큰 고민이 생겼다. 왜냐하면 그림 그리기 주제가 다름 아닌, '통일'에 관련된 것, 그리기였기 때문이다. 난 1등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그런데 곤란한 점은, 통일에 대해서 그릴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산가족 상봉을 그릴까? 음, 그건 너무 평범해. 그럼 통일 기차는?”

이라고 중얼거리다가 문득, 무언가 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러고는

“그래! 그거야.” 라고 외치며, 거실로 후다닥 달려갔다. 그리고 저번에 백두산 일출을 녹화해둔 테이프를 꺼내 들고는 말했다.

“그래, 너무 평범하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는 백두산의 일출을 그려야겠어.”

그리고 난 산삼이라도 캔 듯,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다.

다음날 아침, 난 기쁜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그리고 가는 도중, 벚꽃나무가 살짝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 내 눈에는 잘 그리라고 손을 흔들어주는 것처럼 보였다.

학교에 들어가니, 교실은 시끌벅적했다. 잠시 후, 선생님께서 들어오시자 조용해졌지만 말이다. 선생님께서는 교탁을 ‘탁탁’ 치더니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오늘은 통일에 관련된 글짓기나 그림 그리기를 할 거예요. 물론, 무엇을 할지는 생각해 왔겠죠.? 그리고 1교시와 2교시에는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를 하고, 3교시와 4교시에는 특별히 영화를 보여주도록 하겠

어요. 모두들 좋죠?”

우리는 물론 “네”라고 대답했다.

1교시가 시작되자, 우리 반 아이들은 무섭게 그리거나 글짓기를 시작하였다. 아이들은 너무나도 잘 그렸다. 물론 내가 최고처럼 보였지만 말이다.

2교시가 끝나자, 선생님께선 들어오셨다. 그리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말씀하시고는 제목과 자신의 이름을 적으라고 하셨다. 난 그림 제목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제목을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 백두산 일출”이라고 붙였다. 이 제목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바로 북한의 것도 아니고, 남한의 것도 아닌 남·북을 통틀어 하나의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통일을 하자는 뜻도 있어서, 이 제목은 내 마음에 꼭 들었다.

3·4교시에는 영화를 보았다. 제목은 우리는 하나라고 하였다. 내용은 물론 남한과 북한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장면에서는 우리 반 모두 울음바다가 되었다. 그리고 상장을 받기 위해서 그렸던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였다.

‘백두산이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고 말이다.





우수상

민족정신이 하나됨을 부른다



동부중 2_ 임효정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 있나요?”

조창민 장편소설 ‘길’에서 주인공인 승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던졌던 질문이다. 그들은 딱히 이렇다 하진 않지만 그들 하나하나의 사고방식에 따라 대답이 모두 다르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 살 수 없다는 마지막 사람의 대답에 나 또한 생각해본다. 정말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 있는지. 하지만 가정이 없고, 사회가 없고, 더 큰 범위 안에서 나라마저 없다면 과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서는 가정이라는 범위겠지만 좀 더 넓게 볼 때 우리는 같은 피가 흐르는 민족이라는 집단이 있기에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민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정신일 것이다.

며칠 전, 도덕선생님께서 한민족과 그 정신에 대해 말씀해 주신 적이 있다.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며 같은 말과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민족의식 곧, 민족정신이라는 것이 빠지면 우리 민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고. 만약 어느 재일동포가 한국인임을 버리고 자신은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 아내가 있으며 우리말도 모른다고 할 때 그를 과연 한민족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민족정신은 매우 추상적이며 명확히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높였을 때 우리는 모두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자랑스럽지 못한 일을 하여 우리나라 이름에 먹칠을 했을 때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도 창피함에 얼굴을 붉히게 된다. 또한 월드컵 때 우리는 축구선수들의 몸짓 하나하나를 주시하며 골을 넣을 때마다 감탄을 자아냈고 환희의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뜨거움을 가득 담은 붉은 색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와 모르는 사람끼리 부여안고 환호했으며 축구선수들의 팬이 되어 그들을 응원했다.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의 정을 느끼는 것 또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민족정신을 실감하는 경우일 것이다.

독립운동에 몸 바쳤던 여러 의사와 열사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과 고유한 민족정신 하나로 버티며 독립운동을 전개했을 것이다. 한결같은 의지와 굳은 지조로 오로지 겨레의 앞날을 위해 목숨 바쳤던 백범 김구 선생은 조국독립이 소원이라고 고백하며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도 이 소원을 바라며 살고 있으며 미래에도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겠다고 한 분이다. 이들에게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일궈 내게 한 힘은 원동력은 무엇일까? 아마 우리 조상들과 민족의 울부짖음,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이었을 것이다.

이에 비하여 현대인들은 '나 하나면 그만'이라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 아니 우리의 생활에 뿌리처럼 박혀있다. 개인중심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한민족, 민족정신이라는 단어는 이미 생소한 단어로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민족정신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같은 한반도 위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독립 운동가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도 훗날 민족정신으로 통일을 이루어 보자고. 예전엔 서로가 쳐놓은 울타리가 너무 높아서 서로를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아 무엇을 도와야 할지도 몰랐지만, 이제는 우리의 울타리를 조금 낮추어 보자고도 말하고 싶다. 그리고 그 울타리 옆에는 아름답디 과 일나무를 심고 그 나뭇가지가 울타리 너머까지 뻗으면 우리 형제에게 그늘도 줄 수 있고, 함께 열매도 따먹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허리만큼 낮아진 울타리를 넘어서 북쪽 형제들과 화해의 손을 잡고 미소 띤 눈을 마주보며 하나 뒀을 온 누리를 향해 알리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



둘이어도 하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



대곡고 1 _ 황다솜

그냥 살아가고 있었다. 남과 북이 나뉘져 있다는 것이 나에게 별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꽃을 꺾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괜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통일정신을 심어 주려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나는 통일이 이산가족들에게만 절실한 것이고, 또 북한과 하나가 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몰랐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더 이상 통일에 대한 무지로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다.

남북분단이라는 것은 절대 한반도가 3·8선으로 나뉘져 있다는 게 다가 아니다. 통일도 그 3·8선을 지워 버린다는 게 결코 아니다. 진정한 통일이란 우리 머릿속에 남한과 북한이라는 경계를 지워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 이라는 말이 가장 마음에 와 닿지는 않지만 가장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3년의 휴전협정 이후 50여 년이라는 너무 긴 시간을 다른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다. 우리의 의도도 아닌 분단이었는데, 한번 벌어져 버리니 마치 다른 나라가 되버린 것처럼 떨어진 것이다. 아마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당한 이들이 이산가족들이 아닐까 싶다. 요즘은 예전보다 교류가 활발해졌다 하더라도 보고플 때 잡을 수 없고 안고플 때 달려갈 수 없다는 아픔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지만 분단이라는 상황은 그들만의 아픔이 아니다. 지난번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친구들과 모여서 북한에게 우리가 공격당하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하냐면서 걱정스러운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우리는 분명 하나인데 아무도 모르게 북한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휴전상태임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한 상황이다. 전쟁을 잠시 쉬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시작한다는 것이다. 잠시 잊고 있었을 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는 지금은 분단되어 있지만 가슴 속에는 언제라도 하나가 될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같은 편끼리 총을 겨누면서 괜한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통일을 하면 필요 없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적이 있다. 군사 한명을 훈련시키는 비용으로 학생 80명을 7년 동안 학교에 보낼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비용이 어쩔 수 없이 쓰여지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뿐이다. 결국 나라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개인의 아픔이 다 나라의 아픔이 되는 것이라고 느꼈다.

이것이 바로 하나가 아닐까 하나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남한의 기술, 자본과 북한의 풍부한 인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평화 속에서 발돋움할 수 있다. 지금은 비행기나 배를 통해 대륙으로 왕래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우리의 땅을 밟으며 경제적으로 뻗어갈 수 있게 된다.

또, 세계화시대에 맞춰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까지도 더욱 자유롭게 문화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넓은 시야로 더욱 풍부한 문화국가가 될 것이다.

손잡고 있는 것이 하나가 아니다. 이번을 통해 더욱 느낀 것이지만 한 사람의 아픔이 모두의 아픔이 되고 하나여서 더 행복해 질 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하나이다.

지금은 모습도 생각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통일이 되자마자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개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감싸 안을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통일이라는 것은 되었다라고 말하기보다 이제 몇 %를 이뤄 내가고 있다

는 표현이 맞다는 누군가의 생각처럼 조금 조금씩 동화되어 가야한다. 비록 하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50여 년이라는 세월이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될 나와 같은 청소년의 힘이 필요하다. 모른다는 것을 핑계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마음속에 한 형제처럼 남북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멋진 하나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일 것이다.





내 친구 기문이를 소개합니다!

★
성동초 6 _ 박유민

2년 전, 내가 4학년이 있을 때 우리 반에는 이기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아이가 있었다. 기문이는 늘 1시간씩 지각을 하였고, 숙제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준비물도 밥 먹듯이 챙겨오지 않았다. 늘 꼬질꼬질한 옷과 실내화에 얼굴에서는 시커먼 땀국물이 흐를 정도로 더러웠다. 우리 반에 있던 친구들은 기문이를 피하였고, 나 또한 기문이를 피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기문이는 보통 때와는 다른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점심때가 다 되어서 학교에 왔다. 알고 보니 늦은 이유는 뜻밖인 “방송”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나는 정말 놀랐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더러운 기문이가 방송에 출연한다는 것은 상상도 안 해봤기 때문이다. 기문이가 방송에 출연하게 된 이유도 놀라웠다. 그 이유는 기문이네 엄마께서 책을 써서 내셨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방송에 소개되었던 것이었다. 내 친구의 엄마가 작가라는 사실이 새롭고 놀라웠지만 기문이에 대한 얘기는 더욱 놀라웠다. 그 사실은 기문이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인데, 너무나도 북한에서 살기가 어려워지자 기문이 엄마는 기문이와 함께 탈북하였다고 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일어난 일들은 파란만장하고 마치 한편의 영화 같았다. 기문이네 엄마께서는 기문이를 남한인 우리나라로 데려오기 위해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무려 세 번이나 오고가기를 반복하셨다고 한다. 그렇게 한 뒤에 기문이가 7살 때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왔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기문이랑 얘기를 나누었다. 기문이는 어서 통일이 되어서 기문이랑 기문이네 형이랑 그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 밥도 같이 먹고 놀이동산으로 나들이가고 싶다고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께서 나에게 기문이에게 수학문제를 알려주라고 하셨을 때에 상냥하고 좀 더 자세히 알려 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때에 나는 좀 통명스럽게 가르쳐 준 게 후회가 된다.

그때에 나는 별로 통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국기는 어떻게 정할 것이며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서 부를 것인지, 그 오랜 시간동안 변한 말은 어떻게 쓸 것인지와 같은 문제점과 부딪히게 된다. 그런데 기문의 말을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 통일은 우리의 마지막 남은 숙제이자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구촌 안에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한 땅덩어리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한다. 또한 외국에 나가서 한국에서 왔다고 얘기하면 남한에서 왔는지 북한에서 왔는지 물어본다고 하는데 어서 통일을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통일을 하면 더욱 잘 살게 될 수도 있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남한의 뛰어난 기술을 혼합하면 지구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마지막 숙제를 제출하는 그날이 어서 오길 바라며 먼 훗날 우리의 후손에게는 통일이 이미 제출된 숙제였으면 좋겠다.





시나브로 통일을 향하여

★
포산중 3 _ 이지은

따스하고 포근한 봄 햇볕을 제대로 만끽하기도 전에 후덥지근하고 축축 늘어지는 여름이 왔다. 항상 최고 기온이 제일 높은 대구의 여름을 보내고 나면, 어느새 모두가 바빠지는 가을이 오겠지. 이렇게 시간은 누군가가 밀어주거나 당겨주지 않아도 쉼 없이 쉼 없이 흘러간다.

모든 나라들이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빠르게 진보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만 국토의 분단이라는 아픈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느낌이다. 영어를 배우려고 중국어를 배우려고 어학연수는 기본으로 다녀오고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한 이때, 사람들은 진정 모르는 듯하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나라와 발을 맞추려면 가장 가까운 북한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국토의 분단 때문에 제대로 발휘 못하는 우리 민족의 무궁무진한 능력들, 국가의 발전과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 아직도 북에(남에) 있는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는 이들을 위해 6·25전쟁에서 같은 동족에게 총을 겨누어야만 했던 안타까운 녀들을 위해 남한과 북한은 한시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

중학교 2학년 때 '들판에서' 라는 문학작품에 대해 배웠다. 분단 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들판과 형과 아우에 비유한 희곡인데, 측량기사(외세)에 의해 형과 아우(남과 북)가 서로 다투는 내용이었다. 작품의 절정에는 서로

총까지 쏘아 대었는데, 그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어리석어 보였고 한편으로는 비참했다.

사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나는 통일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왔다. 내 주변에는 북쪽에 고향이 있거나 가족이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평소 뉴스도 즐겨보지 않는 나로서는 이산가족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 듯했고, 모두가 함께 일해 같이 먹고 산다는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도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정말 인상 깊게 보았던 금강산에서 이루어진 이산가족 상봉 장면..., 그동안의 아픈 세월을 증명하는 거친 살갓을 더듬는, 이제는 전부 늙어버린 이산가족들, 그들도 한 때는 사랑하는 아내, 남편, 아들, 딸이었을 것이다.

내가 글을 쓰는 이 순간도 나의 부모님은 차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내게 사랑하는 가족이 하루라도 없으면 못 견딜 것 같은데 그들은 사랑했던 사람을 얼마나 오래 기다려 왔으며, 또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몇십 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과 아픔을 다 쏟아 내려고 꼭 끌어안고 서로 놓지 않으려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절대 다 이해하지 못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축하하는 것인지, 다시 헤어져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인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내 눈과 마음에서도 뜨거운 무언가가 맺혔다.

언젠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빠, 그냥 휴전선만 없애면 통일 되는 거 아니야?”

나의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어제 방과 후 먹었던 팔빙수처럼, 얼음 위에 얹은 팔과 딸기시럽이 자연스럽게 얼음에 녹아드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서로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당장 언어부터 시작해 생활 습관과 방식, 민족의식과 동질감 서로에 대한 잘못된 오해, 정책, 나라의 책임자 등등 서로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이해하고 가져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니 당장 통일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하지만 차츰차츰 느리지만 멈추지 않으면 우

리는 해낼 수 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는데, 동방의 백의민족이라 불리며 예의 바르기로 소문이 자자하고, 국토와 인구가 적는데도 불구하고 끈질긴 생명력과 정신력으로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약탈로부터 벗어났다.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국민의 성실성과 똑똑함.

통일이 되었을 경우, 우리 국민이 납부할 세금은 지금의 약 12배 가량이 라고 한다. 12배….

북한도 개발을 하며 많은 것을 바꾸려면 그 정도의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의 세금도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두들 더욱 힘들어질 테지만 나는 믿고 있다. 우리민족은 해낼 것이라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서있을 우리의 모습을…, 학생은 공부를, 직장인은 업무를, 주부는 열심히 가정일을 하며 조금만 통일에 관심을 가지면 금강산과 백두산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6월 5일에 있을 합창대회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합창부 아이들이 연습을 하고 있다. 나도 합창단원인데 우리는 '나의 노래' 라는 곡을 부른다.

“세상에 크게 외치리라 평화롭게 하나 된 세상을…”

이 노래를 부르면 항상 머릿속에 북한 아이들과 우리 합창단이 함께 노래 부르는 모습만 떠오른다. 그건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통일은 꼭 될 것이라는 나의 믿음 때문이다. 아! 통일이 되면 걱정되는 것이 있다. 걱정은 '남남북북'란 이 사자성어 녀석 때문이다. 남쪽은 남자가 멋있고 북쪽은, 여자가 예쁘다. 북쪽의 예쁜 애들이 남쪽의 멋있는 애들 다 데리고 가는 거 아닐까…, 많이 걱정되지만 휴전선이 바스러져 나가는 것에 비하면 남한 여자와 북한 남자들이 감수해야 할 아주 작은 희생이다.

며칠 전 또다들 내리며 화단을 축축이 적시는 빗물 같이 남한과 북한도 서로의 문화에, 생각에, 매력에, 점점 젖어들며 하나가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통일로 가는 길, 경의선



대구외고 1_ 허태영

“도라산역은 남한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통일로 가는 첫 번째 역입니다.” 2007년 5월 남과 북을 연결해 주는 경의선의 역 중 하나인 도라산 역이 개통 되었다는 신문기사를 보게 되었다. 평소 기차 여행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인터넷으로 도라산 역에 대한 것들을 이리저리 알아보았다. 그러던 중 내 마음을 꼭 박힌 표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표어는 바로 내가 이 글의 맨 처음에 적은 구절이다.

이 표어는 통일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도라산 역의 전광판에서 빛을 내며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나 또한 역시 이 표어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특히 대륙 횡단 철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륙횡단 철도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봤을 것이다. 특히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유럽과 우리나라를 연결하는 이 철도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막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물론 이런 경제적 영향들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철도가 우리 통일에 미칠 영향과는 비교할 것이 못된다.

먼저, 이 철도가 개통 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문화교류를 할 수 있게 된다. 문화교류는 우리가 통일을 하려는 준비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었고 그

로 인해 우리의 말, 가치관, 문화는 많은 차이가 났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 교류는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문화교류를 위해서는 자주 왕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그 역할을 대륙 횡단 철도가 해 줄 것이다. 따라서 이 철도가 개통된다면 북의 평양 예술단, 역사학자들과 남한의 예술단들이 지금 보다 쉽게 왕래하게 될 것이므로, 그런 만큼 교류도 더욱 활발해져 통일을 앞당길 것이다.

둘째, 지금 남북같이 개발 중인 개성공단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개성공단은 북의 값싼 노동력과 토지 그리고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을 투입해 개발 중이다. 개발이 된 후에는 요즘 3D 업종의 노동력부족과 높은 임금으로 고생하고 있는 남한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진출하는 것 대신 개성 공단으로 많이 이전해 올 것이다. 이때 철도와 같은 편리한 교통은 좋은 조건의 개성공단의 입지 조건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셋째,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에게 좀 더 편리한 만남을 제공할 수 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없어지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있고 모두가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다. 분단이 된 지 50년 넘게 지난 지금, 대부분의 이산가족들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다. 이산가족이 된 것도 슬픈 일인데 그 가족을 다시 만나러 가는 길이 멀고 힘들다면 그 또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당장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대륙 횡단 철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문학을 배우면서, 알고 있어야 하는 작품 중 6·25전쟁, 분단으로 인한 아픔, 민족사의 비극에 마지막에는 부자가 함께 외나무다리를 건넌다든지, 서로 인정하고 화해를 하는 장면들이 나와 우리나라의 통일을 암시한다. 이러한 소설들처럼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이자 소원을 이루어 줄 이 열차가 우리의 외나무다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대륙 횡단 열차가 한반도 방방곡곡을 다니며 통일의 씨앗을 뿌린다면 언젠가 통일이 이루어져 도라산 역의 전광관 대신 백두산 역에서 “다음 역은 한반도의 최북단 역, 백두산 역입니다.”라는 전광관을 좀 더 빨리 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04

인천광역시

-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대합니다 _ 87
- 행복을 빼앗긴 가족 _ 90
- 우린 다시 만나야 해 _ 92
- 남돌이와 북돌이의 꿈 _ 95
- 할머니의 그리운 고향 _ 97
- 친구, 자네는 보았는가? _ 99
- 왜 우리는? _ 101
- 뜨거웠던 6월처럼 _ 103
- 한 뿌리 _ 105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을 초대합니다



경인교대부설초 5 _ 김한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저는 인천광역시에 사는 김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가족과 함께 제3땅굴, 도라 전망대, 그리고 자유의 다리를 갔었습니다.

제3땅굴 전혀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무기 없는 전쟁의 시작, 제3땅굴 설명을 들어보니까 73m의 깊이를 가지고 있고 1시간에 무려 3만 명의 병력이 이동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시대에 안 살아봐서인지 아니면 어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저 그랬습니다. 으스스하긴 했지만요. 하지만 땅굴의 서늘한 기운이 되살아나면 날수록 만약 내가 있는 이 땅굴로 인해 전쟁이 다시 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되셨더라면 난 이 자리에 없었겠지 라는 생각도 더욱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내고 나라의 허리를 잘라버리고도 또다시 전쟁을 준비했던 당신의 나라 북조선, 도라 전망대에 서면 개성공단이 보입니다. 개성공단으로 가는 커다란 운반 트럭도 보입니다. 북한의 한 평범한 마을도 보입니다. 아무리 눈 씻고 쳐다봐도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한적한 풍경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곳이라더군요. 소리를 지르면 대답해줄 것만 같은 가까운 곳임에도 사진 한 장 못 찍고 숨죽인 채 볼 수 밖에 없었죠.

또한 임진강을 가로 지르는 자유의 다리는 얼마 가지 않고 막혀 있었습니다. 벽이 가로막고 있는 곳, 그 벽에는 저처럼 통일을 염원하는 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분단의 아픔은 다리에서조차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벽, 그 아픔을 넘어서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민족이 사는 두 나라는 벌써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넛' 이라고 부르는 것을 북에서는 '가락지 빵' 이라고 부른다고요. 이처럼 언어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지만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북물자 수송,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을 바에야 통일을 하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협적인 휴전상태, 그 때문에 국방비에산도 엄청나다던데, 그 돈을 통일비용으로 쓰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멀어지기 전에 통일은 되어야만 합니다. 국방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와 보세요. 7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해 위원장님과 활짝 웃으며 악수를 했었죠.

그러나, 그 이후 왜 우리나라에는 오시지 않으시나요?

서로 오고 가면서 많은 대화를 해야 친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과 북은 너무 오랜 시간동안 벽을 허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위아래로 있고,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끼어서 경제 발전도 위협 받고 있는 샌드위치 코리아라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도 우리의 도움을 받기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강력하고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순간에 통일이라는 것을 이루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나라에 자주 와서

서로 친해지고 나면 통일도 한결 쉬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인천에 오시면 꼭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인천항과 인천 공항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곳을 직접 보시면 통일 뒤의 강한 대한민국이 보일 것입니다.

저의 초청을 받아들으신다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통일 대한민국을 간절히 바라는 김한이 올림

2007년 6월 9일





행복을 빼앗긴 가족



신현여중 3 _ 고혜경

항상 곁에 있기에 함께 하기에 그 가치를 잊고 사는 가족, 가족의 소중함은 가족과 헤어져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여행이나 잠시간의 이별을 가짐으로써 그 가치를 깨닫고자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는 한다. 그러나 그 가치를 뼈저리게 느꼈음에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슬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산가족이다.

예전에 친구와 학교에서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면서 친구가 나에게 우스갯소리로 “뭐 저렇게 까지 우냐? 난 가족 얼굴 안 보면 속이 다 시원하던데.” 라고 한 말이 떠오른다. 그때는 솔직히 이산가족들이 왜 저렇게 통곡을 할까 하는 생각에 친구의 장난을 받아주며 함께 웃었었다. 그러나 몸도 마음도 어느새 훌쩍 커버린 지금 주변에서 이산가족을 볼 때면 그때의 웃었던 내 모습이 떠올라 부끄럽기 그지없다. 이산가족이 아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감흥이 없었을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가족과 헤어진 이후에 평생을 기다려온 꿈을 이룬 순간의 기쁨과 가족을 다시 만났다는 반가움, 그리고 그동안의 설움이 북받쳐 올라 눈물로 나오는 것이리라. 이렇게 생각하니 얼굴이 붉어지고 그들에게 한없이 미안해졌다.

그 이후로 나는 이산가족에 대한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을 담아 두었다. 그리고 얼마 전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가 내 마음속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한 할머니께서 6·25전쟁 때 피난을 오시다가 북에 두고 온 남편을 그리워하다 결국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그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남편을 그리워하시면서 “내 죽으면 북쪽을 향해서 무덤을 만들기라. 내 죽어서라도 영감님 얼굴 한 번 봐야제.”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죽어서까지 남편의 얼굴을 그리워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무엇이 이 할머니를 이렇게 비극적으로 만들었을까? 그 할머니의 자식들은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할머니의 모습이 어찌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에 내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행복을 빼앗긴 가족. 그들의 불행은 누구의 잘못인가, 그들 자신일까? 남의 행복을 빼앗은 우리는 도둑이 아닐까? 솔직히 나는 “통일이 꼭 되어야 하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다. 통일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안 좋은 점이 더 많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이 할머니의 얘기를 듣고 내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이산가족, 그들의 아픔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나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해도 단지 외국에게 큰소리치는 나라, 6·25전쟁과 같은 또 하나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는 크고 넓은 의미만 생각했다. 가까이에 있는 단지 가족과 만나고 싶다는 지극히 소박한 꿈을 가진 이산가족의 아픔은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주변에서 언제나 말하고 있었음에도 나의 귀에 들리지 않은 것은 내 관심이 모자랐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교과서를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가르침을 받아도 들을 수 없던 그 소리를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들을 위해 나아가 우리 모두를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어서 하나가 되어서 포근한 한 가족이라는 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뛰노는 그날이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날에는 이산가족의 슬픔이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행복을 훔쳤던 도둑,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남북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할 때 그날이 더욱 빨리 다가올 수 있다고 작지만 큰소리로 외쳐본다.



우린 다시 만나야 해



인천예일고 2 _ 박미이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식구, 혹은 이웃이 서로 다투고 헤어진 후 다시 화해하고 함께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우리 역사 속에서 분단의 원인과 통일, 화해와 화합의 당위성, 그리고 그를 위해 앞으로 지향해야 할 행동 방식에 대해 조금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유를 각성하고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게 다시 믿음을 찾는 것, 신뢰 회복인데 그 면에서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는 헤어졌던 이유도 다시 만나야 할 이유조차 희미한 기억이 되어간다. 이미 세대를 두 번이나 반복한 시간이 아니던가.

하여, 역사와 민족이라는 거창한 이유를 떠나서도 우리가 아직은 서로 만나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수십 년 전 모토처럼, 꿈에도 그냥 그리는 통일,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하는 식으로는 이제 공감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분열된 국가의 통합보다는 어린 아들이 손자를 둘 세월만큼 떨어져 그리워했던 이산가족의 뜨거운 눈물에서 민족 간의 사심 없는 소통이 필요한 대목이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선 서로 대치하는 정치적 상황과 강대국의 약소국 침탈이 벌건 대낮의 뻔뻔한 구타처럼 자행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평화의 탈을 쓰고 종교와 신념이 사람 위에 서서

그런 이데올로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평범한 개인들의 삶을 어떻게 유린하는지 이미 우리는 너무도 자주 목격하며 살고 있다. 하여 이제 우리 민족 앞에 당면한 통일이라는 과제도 과거와 똑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것 같다. 통일은 그러함으로써만이 얻어 낼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 하긴 보편적으로 일상에 적용되는 기준에서도 분열보다는 통일이 항상 올바른 결과를 낳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통일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분열된 민족의 화합이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이며 소모적인 대처에서 오는 경제적 손실과 자본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인류 보편의 가치는 사람이 사람으로써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뜻한다.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그 어떤 정치적,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세대를 거듭하여 그 기억도 희미해지고 그 의미도 퇴색해 간다 하여도 이미 상처받아 양쪽으로 나뉜 민족의 일원으로서 통일이라는 의미는 자신의 양분된 정체감을 회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통일은 우리 민족과 국가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독일이 지난 20세기 말에 통일되면서 흡수 통일된 동독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혼란해졌다는 의견도 있으나 세계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독일통일은 그 주변 국가의 견제를 충분히 약화시키고 있으며 세계사회에서 갈수록 그 주도권이 확대되고 있다.

통일이란 분명 국가와 민족의 역량을 한데 모아야 이뤄질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국민의 통일된 역량이 갖춰줘야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조건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국민의 그런 역량을 받들만한 정치적 힘, 정부의 능력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독일이 통일되던 그시기에 우리나라도 그 어느 때보다 통일에 대한 염원이 구체화 되던 때였으나 그 역량을 뒷받침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 전 남북이 철도로 이어져 한 곳에서 서로 만나는 모습을 보았다. 반공세대와 민족을 앞세운 무조건적 통일론도 아닌, 실제적

인 곳에서 민족의 화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문화, 예술, 체육 방면에서 그러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통일은 단순한 국가 간 연합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합이 가져다주는 신뢰의 회복인 것이다. 한국시민의 정치적 역량도 증대되었다. 많은 분야에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 당장 눈앞의 통일이 아니더라도 한민족이 서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만 있어도 많은 문제들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소통을 통한 민족의 역량이 증대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견고해지는 것만으로도 통일은 힘주어 강조하고 외쳐야 할 과제가 아닌 눈앞의 요구가 되어 구체적인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과정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올바른 교육과 통일에 대한 확신이 개개인에게 필요한 덕목이 될 것이다.





남돌이와 북돌이의 꿈

인천서꽃초 4 _ 임지수

마트에 가서 식품 매장에 “북한산 고사리”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았다. 북한에 있는 깊은 산에서 자란 고사리를 우리들이 먹을 수 있다. 수봉공원 통일관 1층에서 북한 어린이 책도 보았다. 북한에 사는 친구들도 수봉공원에 와서 바이킹을 탔으면 좋겠다. 남쪽에 사는 우리들도 북한으로 등산도 가고 백두산에 있는 천지 호수도 볼 수 없을까? 나는 남돌이로 변신하여 자유롭게 오고 갈수 있는 꿈을 꾸고 싶다.

꿈속에서 북돌이를 만나 통일을 이루고, 북돌이를 수봉공원으로 초대하여 같이 놀고 싶다. 남돌이와 북돌이는 긴 꿈을 꾸려고 잠이 들었다. 드디어 남돌이와 북돌이는 통일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인천에서 평양까지 징검다리를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남돌이는 북돌이를 만나고 싶은 설레는 마음으로 꿈을 꾸고 있다.

북돌이도 남돌이를 보면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설레었다.

남돌이는 꿈의 징검다리를 하나 둘씩 건너서 북쪽을 향해 갔다.

남돌이와 북돌이는 넓은 들길도 지나고, 긴 강도 건너고, 높은 산도 넘고 또 넘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남돌이는 북돌이에게 줄 선물을 가져가고 있다. 남돌이가 제일 좋아하는 “솔로몬의 지혜”라는 책도 가방에 넣고, 과학상자도 준비하였다.

유희 왕 카드도 주머니에 넣고 울릉도 오징어, 호박엿을 가져가고 있다.

북돌이도 처음 만나는 남돌이에게 줄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였다. 그 꾸러미에는 깊은 산에서 자라는 나무들의 열매와 약초, 버섯들이 가득 담겨 있다.

북돌이는 어떤 친구가 변신하였는지 궁금하다. 드디어 남돌이와 북돌이는 많은 시간이 지나서 만났다. 처음 만났는데 친한 친구처럼 기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쳐다보았다. 남돌이가 변신하여 힘들고 지친 몸이 북돌이를 만나는 순간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부둥켜안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눈물도 흘리면서 손을 잡았다. 남돌이는 비행기나 얼마 전에 휴전선을 지나서 달린 열차를 타고 금강산과 백두산을 여행하면 좋겠다고 북돌이에게 말하였다.

아주 행복한 만남이고 따봉이었다. 봄이 오면 진달래꽃도 함께 구경하고 봄 소풍도 가서 보물찾기도 하고 싶다. 벚꽃 구경을 하면서 함께 사진도 찍고 자전거도 타고 싶다.

여름이 되면 북쪽의 친구들과 수영도 하고 매미도 잡고 물고기도 잡으면서 신나게 놀고 싶다. 인천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서해 바다로 평양까지 가고 다시 기차를 타고 인천에 와서 친구들과 여름 방학을 보내고 싶다. 남돌이는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압록강을 가보고 싶다.

가을이 되면 햇곡식과 햇과일을 나누어 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나누어 먹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남돌이가 먼저 북돌이에게 손을 내밀어 가을 운동회도 함께 하자고 약속한 것이다.

겨울이 되면 북돌이는 따뜻한 남돌이에게 와서 지냈으면 좋겠다. 남돌이는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게 장갑과 털모자를 준비하여 북돌이에게 주고 싶었다. 북돌이는 남돌이를 초대하여 대동강에서 눈썰매를 태워 주기로 약속하면서 긴 꿈에서 깨어났다.

남돌이와 북돌이의 꿈속의 약속이 현실에서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오늘 밤도 남돌이와 북돌이는 꿈속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남돌이의 소원도 통일

북돌이의 소원도 통일



할머니의 그리운 고향

★
상인천여중 2 _ 김도희

얼마 전, 경의선 문산역에서 개성 역까지 시범 운행된 남북철도로 남과 북이 56년여 만에 고향의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을 뒤로 한 채 아쉬움과 남한의 향기를 가득 품고 떠나시던 북한 분들은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떠나셨고, 이 소식을 지켜보고 계시던 외할머니의 눈가에는 어느새 반가움과 아쉬움이 교차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북열차의 시 운행 뒤에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이번 남북철도의 단계적 개통에 대한 협상도 이뤄지지 않았고, 시급사안인 개성공단의 통신, 통행, 통관의 개선방안 조차 언급되지 않았다니 이는 남한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면 그간 있었던 작지만 소중한 교류들이 통일을 비추어주던 희망이 아닌 요구충족을 위한 북한의 무기였음이 신랄하게도 들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입으로만 외치고 마음은 더 멀어져만 가는 듯한 통일, 57년이란 적지 않은 세월을 분단되어 살아갔는데 앞으로 이렇게 긴 세월을 반복해서 보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하여 통일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과의 휴전상태이므로 지출되는 국방비를 줄이고 남한의 기술과 경제적 자본, 북한의 자원 환경이 결합된 멋진 강대국. 시베리아 횡단 철도 개방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주춤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통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이산가족 상봉만

을 위한 통일이 아닌 다목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더 이상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절된 남과 북이 서로 열린 마음으로 교류에 앞장서고 남과 북의 공동개최 행사를 주최하거나 통일을 반대하고 있는 젊은이들 참여의 남북공동 수업이나 공익광고 만들기 그림그리기와 글짓기 개최에 힘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의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통일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바로 분단된 한반도를 다시 하나로 붙여줄 수 있는 접착제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너무 달라져 버린 남과 북의 정치, 외교, 경제, 언어, 사고방식들을 통일 전에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지 만이 지난 동독과 서독의 실패적인 통일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통일을 꾀할 수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경제차이가 매우 심하였기 때문에 흡수통일을 감행하였고 그 결과로 경기침체와 실직자 수의 증가로 곤욕을 겪었다고 하니 동독과 서독의 경제차이보다 두 배는 더 큰 남과 북의 경제차가 통일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통일당시의 남북 국민 간의 제2차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언어와 구제도의 사고방식을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긴 세월동안 허공에서 통일을 향해 헤엄쳐 온 우리 한반도가 앞으로 같은 세월을 다시 길 잃고 헤매지 않도록, 잘못 도착하여 두 번의 시련을 겪지 않도록 안전한 길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통일이라는 고지에 도착하기까진 얼마나 더 높고 깊은 시행착오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넘지 못할 산이란 없듯이 언젠가는 통일이라는 고지에 서서 한반도가 그려진 국기를 꽂고 만세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남과 북 사이에 열차가 오가고 아쉬움 때문에 눈물 흘리거나 돌아갈 필요 없는 그런 날, 기쁨으로 눈물 흘리고 나와 할머니가 함께 손잡고 북한을 거닐 수 있는 그런 날, 그런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오늘도 글로써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친구, 자네는 보았는가?



인천논현고 2 _ 김해니

친구에게...

김형, 자네는 이 무더운 날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나는 내일 모레 발표될 “남북이산가족상봉” 당첨자를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네.

얼마 전 자네가 써 낸 통일을 반대하는 책을 읽었네. 그 내용에 대해 서운하다면 서운한 이 마음을 글로 몇 자 적어 보겠네.

지금 남북한은 수 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쓸데없는 군비경쟁과 남북한 공히 수백만의 군인들의 대치, 국제 사회에서의 불필요한 경쟁 등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가. 계속되는 더 큰 문제는 통일 찬반 논쟁으로 인한 내부갈등은 또 다른 정신적 분단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네.

지구촌 곳곳이 인종과 종교 등의 이유로 경쟁하고 있는 치열한 적자생존의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남한은 기존의 경제적 가치의 손실이 없기를, 북한은 사회주의 독재체제의 훼손이 없기를 바라고 있네. 서로의 이익만 주장하면서 통일을 하자며 손 내밀고 있지 않은가? 같은 생김새와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이 왜 힘을 합쳐 세계와 경쟁하기도 전에 우리끼리의 경쟁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안타까운 현실도 분단에 의한 것 아닌가. 북한에 계신 나의 형제들, 우리의 형제들을 떠올려보게.

북한의 문제가 남의 얘기가 아닌 우리 이웃의 문제 즉, 우리의 문제라네.
하지만 자네, 오해는 말게. 더 이상 이산가족이 안타까워서 실향민이 불쌍해서라는 식의 감성적인 통일 이유들, 앞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다는 것을 나 또한 잘 알고 있네.

통일을 하면 당장 5~10년은 힘들겠지만 북한의 인구 증가로 우리나라의 건설업, IT산업 등이 활기를 찾을 것이고 미개발 지역을 관광 자원으로 이용하면 북한의 생활수준이 나아지네. 그러면 소득수준도 높아져 우리나라에게는 2,500만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자네가 주장한 통일을 하면 우리나라가 피해만 입는다는 식의 논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네.

또, 좀 더 다양하고 다원화된 사회가 되어 삶의 풍요가 확대되고, 통합을 위한 노력으로 국민 역량이 증대될 수 있네. 정치군사적 엄청난 효과를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친구, 자네는 보았는가?

반세기를 지나 흐린 컴퓨터 화면으로 혈육을 바라보고 지쳐 쓰러지는, 모니터 화면에 절을 하고 쓰다듬는 그들의 모습을..., 더 이상 아파서는 안 되네.

나는 내일 모레 당첨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어 우리 형제를 만나게 된다면 말하고 싶네. 보고 싶었다고... TV에서 김정일만 나와도 우리 함께 피난 가던 길이 떠오르고 아침에 방송되는 사람 찾는 프로에도 나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우리가 더 늙어 죽기 전에 우리 힘으로 우리 손으로 통일하여 다시 한번 만나자고...

친구, 오늘도 날은 저물어 가네.

이제는 형제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내게는 당연한 듯이 여겨지네.

뜨고 지는 해처럼 말일세.

2007년 6월 23일

자네의 벗.



왜 우리는 ?



인천주안북초 6 _ 안정환

“형, 왜 이제 왔어. 왜 이제 온 거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눈물이 난다. 가끔씩 TV를 보다가 이산가족상봉 장면이 나오면 나는 눈물이 난다.

상상을 해본다. 나에게도 2살 많은 형이 있다. 만약 전쟁이 나서 한순간에 형과 헤어진다면 같이 장난도 치고 같이 놀았던 형이 그립고도 내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을 것인가. 그리고는 아침에 매일 일어나면서 “오늘은 형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런 세월이 36년이나 흘렀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인가. 만날 수 있어도 못 만났던 형이, 늘 생각만 했던 형을 만날 수 있다면 이렇게 말 할 것이다.

“형! 살아 있어줘서 고마워, 살아 있어줘서 고마워.”

그러나 이미 지나버린 36년이라는 시간을 누가 보상할 것인가. 그런 이산가족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을 해보니 가슴이 아프다.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다. 예전에는 독일도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국민들의 노력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같이 어우러지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나뉘어져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왜 우리는 독일처럼 하나가 될 수 없을까, 아마도 그것은 남한은 남한대

로 북한은 북한 방식으로 통일을 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 되는데 정말 답답하다. 아니면 북한의 공산주의와 남한의 민주주의가 합쳐져 새로운 주의가 탄생해서 하나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옛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은 펜이 아니라 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분단된 나라를 대화와 타협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헤어져 살고 있다. 그분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북에 있는 가족을 못 만날 수 있다.

그분들을 떠올리면 괜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

남한은 북한에게 여전히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손길을 모른 채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의 손길을 받아들여 한 민족이 같이 어우러지면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노력할 것이다. 나의 작은 힘이 하나가 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내일부터는 달라진 나로 살아가야겠다.





뜨거웠던 6월처럼

★
구월여중 3_정하영

늦은 시간,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저녁식탁을 맞으니 급했던 마음이 차분해져갔다. 어두움이 가득한 밖과는 상반되게 밝은 거실에는 어머니의 빨래 개는 손짓과 TV 속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가득했다. 취침시간이 지나 피곤해진 내 눈동자가 소파 위에 앉아 TV를 바라봤다. 지루하게 뉴스를 보던 눈이 순간 흥미로 반짝였다. 화면에선 6월 항쟁 20주년을 맞아 특집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다.

교과서에서 지루하게 웅웅거리던 6월 항쟁의 함성이 TV 속에선 뜨겁게 울리고 있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에서 넥타이를 맨 아저씨까지 우리나라의 열정들이 모여 독재타도를 외치고 있었다. 거리 위에서는 최루탄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지만 그 함성은 여전히 식지 않고 뜨겁게 나라를 바꾸고 있었다.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달고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에게 반발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화면 속 거리로 빨려 들어가 주먹을 꼬옥 쥐었다. 그들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아나운서의 단정한 얼굴이 다시 나타났다. 그때까지 내 손에는 그들의 땀방울이 함께 흐르고 있는 듯했다. 이목구비가 뚜렷한 아나운서를 바라보며 멈춰있던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그들이 아닌 그였다면 6월 항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었을까.” 내 머리는 빠르게 답을 내렸다. 아마 그럴 수 없었을 거

라는 부정의 답을….

그 답 속에서 나는 “우리”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각 사람의 힘들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 모습이 내 마음에 뜨겁게 다가왔다.

아직 눈앞에는 그 인영들이 잔상으로 남아 아른거렸다.

뉴스가 스포츠뉴스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내 눈은 시간이 흐를수록 멍하게 풀려갔다. 어머니의 빨래 개는 손이 마지막 빨래를 개고 멈추었다.

“들어가서 자야지. 내일 백일장 가야 되잖니.”

어머니의 손길과 목소리가 피부로 느껴졌다. 멍하게 잠에 반쯤 취해있었던 몸이 튕겨지듯 일어났다. 힘 빠진 몸이 용하게 잠자리를 찾아서 누웠다. 그리고 귀에서 들리는 함성과 함께 잠에 젖어갔다. 얼마 가지 않아 이부자리에 녹듯이 잠들었다.

금방 꿈속으로 빨려 들어간 나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가득한 곳에서 있었다.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 색이 만나 더 큰 하나가 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우리와 같은….





한 뿌리



연수여고 3 _ 성정은

어릴 적, 여자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나 역시 소꿉놀이를 즐겨 했었다.

언젠가 장난감 그릇에 담기 위해 잔디를 뽑으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질긴지 아무리 당겨도 뽑히지가 않았다. 약이 잔뜩 오른 나는 해가 다 저물도록 잔디와 싸움 아닌 싸움을 했으나 손에 붉은 생채기만 남은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명백한 나의 패배였다.

이때의 패배감은 북핵문제가 대두되고 한참 나라가 떠들썩하던 때에 새삼 다시 떠올랐다. 잔디는 흙과 분리되어 살수 없다. 그래서 흙과 분리되지 않기 위해 끈질기게 뿌리를 박고 저항했고, 결국 나를 굴복시켰던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한낱 미물인 잔디도 인간의 힘에 의해 뽑혀 나가지 않는데 왜 우리는 소련과 미국에 의해 갈라져야 했는가. 왜 우리는 반쪽짜리 뿌리만을 가진 불구적 국가가 되어 서로에게 등을 지고 있는 것일까. 반쪽짜리 뿌리를 한 뿌리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물론, 남북을 갈라서게 한 주 원인인 “사상”이, 앞으로의 통일을 향한 행보에도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수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이산가족의 상봉

의 시도는, 북한과 남한이 평화적 통일을 위해 한발자국씩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또한 5월 17일, 50년 이상 녹슬어 있던 철로 위를 달려 북한으로 간 경의선 열차는 지금까지의 평화 통일 노력의 집결체이자 앞으로의 새로운 시도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경의선 열차의 시범 운행보다도 내 가슴에 와 닿았던 것은 ‘한겨레 큰 사전’의 편찬에 대한 뉴스였다. 사실 남과 북 사이에 철조망보다도 더 크고 넓은 골은 문화의 차이였다. 50년 이상 갈라져 있으면서 점차로 더 벌어진 언어, 관습 등의 문화의 차이를 좁히는 것은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이러한 일을 위해 일차적으로 시도한 남북의 언어 수록 사전 ‘한겨레 큰 사전’의 편찬은 분명히 남과 북 모두의 친화적 사고를 제고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평화통일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특히, 우리 시민들 모두의 인식의 전환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그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6·25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직접 겪은 세대들이 줄어들고, 감각적이고 가벼운 것만 찾는 새로운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통일에 대한 의미는 많이 쇠퇴하고 있다. 북한의 실상을 다룬 다큐멘터리보다는 TV 연속극을 즐기고, 북한 아동을 돕는 기금을 내기보다는 그 돈으로 PC방 가기를 원하는 지금의 세대에게, 평화통일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심지어 통일 글짓기 대회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사실 통일이 되든 안되든 크게 상관없는데 왜 써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투덜대는 것을 들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중학교 다닐 때 전교 5등 안에 들던, ‘똑똑한’ 친구의 말이었다.

“난 말이야, 통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독일만 봐도 그렇잖아. 서독은 동독 먹여 살리느라 허덕대고, 동독은 서독사람들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또 아웅다웅대고…, 그냥 이대로 살면 우린 좋잖아. 난 이대로에 만족해.”

물론, 통일된 후에 처음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이고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이산가족들의 슬픔과 장기적인 이익과 무엇보다

“한 뿌리”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치는 불행히도 학교, 정부, 개개인에게도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장치의 마련은, 평화적 통일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걸어서 못가면 임진강을 헤엄쳐서라도 가고, 임진강을 헤엄치지 못하면 뉘이라도 북에 가겠다던 한 시인이 생각한다.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평화적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쪽짜리 뿌리가 이어져 한 뿌리가 되고, 그 한 뿌리가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05

광주광역시

- 할아버지의 꿈 _ 111
- 할머니와 바람이야기 _ 113
- 통일을 기다리며 _ 116
- 친구를 위한 통일 _ 119
- 통일의 실타래 _ 122
- 파랑새의 소원 _ 124
- 언젠가는 이루어질 통일을 꿈꾸며 _ 128
- 분단의 아픔을 딛고서 _ 130
- 통일,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일까 _ 132

할아버지의 꿈

일곡초 6_ 유은빈

“아직 이산가족에 대한 소식 없냐?” 오늘도 할아버지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계신다.

6·25전쟁 당시 할아버지는 북한에 살다가 남한에 포로로 끌려오셨다고 한다. 그래서 부모형제가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살고 계신다.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할아버지는 주무시다가도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

황해도 염백군 혼합면 소정리. 이곳이 할아버지가 생활하셨던 곳이다. 평화롭고 평화로웠던 할아버지의 고향, 할아버지는 그곳을 떠난 지 57년이 넘었는데도 살았던 곳을 잘 기억하고 계신다.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에 대한 그리움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한반도에 6·25전쟁이 일어나면서 평화롭기만 하던 소정리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가득해지고,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며 피를 흘리고, 살을 찢고…, 믿을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같은 형제끼리….

김일성은 군사들을 늘리기 위해서 마을에 사는 젊은 청년들을 강제로 군인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도 강제로 끌려가 군인이 되었다.

“어머니, 아버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세요.” 집을

나설 때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 그것이 부모님과 이별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셨다고 한다.

6·25전쟁 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남한과 북한의 사이가 점점 좋아지면서 헤어진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기회를 주고 있다. 7년 전, 할아버지도 이산가족 상봉신청을 하셨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 ‘7년이나 지났는데 왜 소식이 없을까?’, ‘할아버지의 가족 분들은 돌아가신 것일까?’

7년이란 세월이 흘러도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을 보니 난 정말 답답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 없이도 가족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도 해 보았다.

“다른 사람은 잘도 만나는데, 왜 나는 아무런 소식이 없냐?” 할아버지는 TV에서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실 때마다 부러워하시며 목이 메신다.

‘할아버지의 가족 분들은 정말 돌아가신 것일까?’

지금도 할아버지는 북한에 살고계신 가족들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다. 추석, 설날 등 명절이 되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을 보고, 한 번이라도 좋으니 가족끼리 모여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실 것이고, 가족들이 무사히 잘 살아 있길 간절히 소망하시고 계실 것이다.

할아버지의 간절할 소원 통일.

할아버지가 꿈속에서만 어찌다 볼 수 있는 가족을 현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명절 때 할아버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과일을 나눠 드실 수 있도록, 6·25전쟁이 준 가슴 아픈 상처와 고통으로 갈라진 수많은 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할아버지가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통일 기차를 타고 3·8선을 지나 황해도에 있는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달려가 가족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할아버지가 가족들과 만나서 행복해진 할아버지의 모습을 난 꼭 한번 보고 싶다. 통일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할아버지가 마지막 소원까지도 모두 이뤄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 할아버지가 이 삶을 사는 동안 소원을 꼭 성취할 수 있도록 통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할머니와 바람이야기

★
양산중 3 _ 문지은

오늘도 바람이 불니다. 오늘도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할머니는 바람이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나는 5살적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맞벌이이신 부모님은 바쁜 일 때문에 나를 신경 쓸 여유가 없으셨고 나는 할머니 손에 맡겨졌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부모님을 뵈 수 있었고,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아마 할머니 덕분이 아닐까 합니다. 나의 할머니는 정말 고우시고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늘 나를 이해해주시고, 감싸주셨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어째선지 내 눈엔 슬프신 것 같이 보였습니다.

내가 할머니께 맡겨지던 첫 날, 나는 물었습니다.

“왜 할아버지는 없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예의 그 슬픈 미소를 지으시고는 대답하셨습니다.

“저 멀리에 계신단다.”

“멀리 어디요?”

“새하고 바람은 갈 수 있는 곳이지.” 그때 할머니가 너무 슬픈 표정을 지으셔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유치원에 다니지 않아서 언제나 할머니와 함께 있었는데, 할머니는 종종 낡은 상자를 꺼내시고는 낡아서 누렇게 변색된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

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때론 웃음 지으시고 때론 얼굴을 붉히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장을 읽고 나시면 언제나처럼 미소 지으시며,

“할머니랑 언덕에나 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 역시 언제나처럼 활짝 웃으며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낡은 편지들을 읽어보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 나는 글을 못 읽었기 때문에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읽고 난 후에 언덕에를 가실 때 내 손을 꼭 잡으시고 바람을 맞으시며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비야, 할머니는 바람이 되고 싶구나.”

“왜요?”

“저 철조망을 넘어 날아가고 싶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면 손수건으로 눈가를 두드리기 일쑤셨습니다.

그러던 날, 나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상자 안에는 뭐가 들었나요?”

“저거? 은비 할아버지가 써 주신 편지가 들어있지.”

“언제 쓴 편지요?”

“옛날, 옛날 은비 태어나기도 전에 쓴 편지이지.”

“할머니, 나도 그거 읽어보고 싶어요.”

“은비가 할머니가 하는 말 알 수 있을 때가 되면 보여줄게.”

그날 밤,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6·25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18살 때에 은비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지. 그리고 20살 때 결혼을 했단다. 그런데 은비 엄마가 할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난거야. 은비 할아버지는 군인이 되고, 할머니는 도망을 와서 이렇게 살고 있지. 할아버지가 어디 살고 계신지는 커녕 살아 계신지도 모른단다. 살아라도 계시면 좋으련만…”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또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왜 할아버지 만나러 못 가요? 찾으시면 되잖아요!”

“할머니도 찾고 싶단다. 하지만 저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어. 우리는 저 너머로 갈 수가 없단다. 통일이 되면 좋을 텐데…”

“통일이 된테요?”

“통일이 되면 저 철조망이 없어져서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어쩌면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가고 나서 올지도 모르고.”

할머니의 눈물을 보자 나 역시 울면서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통일은 이렇게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지금까지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그 낡은 편지는 할아버지의 연애편지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하셨을 두 분을 전쟁이 갈라놓았다고 생각하니 그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입니까. 할머니께서 바람이 되셔서 철조망을 넘어 북한 땅에서 할아버지를 뵈었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통일이 제가 살아있을 때 올까요? 나는 누군가 나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마다 대답합니다. 내 소원은 통일이라고, 무슨 그런 식상한 소리를 하냐고 질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지만, 이산가족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나이기에 그것은 그냥 식상한 소원이 아닙니다. ‘통일’ 말만 들어도 그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할머니처럼 바람이 되고 싶어 하시는 많은 이산가족들에게 분단의 현실은 살에 직접 닿는 아픔입니다. 과연 통일은 언제쯤이나 올까요?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사라질 날이 언제나 올까요. 제발 그 통일이라는 감동적인 미래가 빨리 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을 기다리며



동아여고 3 _ 박세미

오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먼 곳에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나 캐나다에 계시는 작은 할아버지께서 몇 년 만에 다녀가셨는데, 그곳 주변에 사는 친구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셨다. 그 친구는 6·25 때 헤어진 여동생이 있는데 몇 번의 이산가족 상봉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와 그로 인해 그 그리움이 이제 한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고, 가족이라는 게 뭔가? 또한 같은 민족이라는 게 뭔가? 보고 싶을 때 보고, 살아가는 일에 힘겨울 때는 얼굴을 맞대고 함께 나눔으로써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인데 이렇게 같은 가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가슴 속의 한으로 자리 잡은 분단의 아픔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얼마 전 경의선 철도를 복원한다는 말들이 오고가고, 그리하여 철도 개통도 하였는데 이는 통일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는 밑거름인 것만은 사실인 듯하다. 경의선 복원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기차를 타고 북한의 곳곳을 순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이나 유럽 국가와의 물자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큰 것이다. 또한 남북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북한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사회기반 시설을 구축해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의선 철도가 복원되고,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여 한반도를 이끌

어 간다면 이미 다른 쪽으로 새어나가는 경제적인 손실을 조금은 막을 수 있을 텐데, 양쪽 모두 군사지원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를 치르는데 이런 자원낭비를 교육이나 복지정책에 투여한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물론 선진국으로 도약해 가는데 큰 바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남북이 통일해야 한다고 버리고 버리면서도 쉬히 할 수 없는 것은 이제껏 다른 문화 속에 깃들여 살아온 차이도 크다. 한쪽은 경제성장과 나라발전에 뜻을 두고 살아온 반면에, 한쪽은 군사력을 목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 척도를 대보면 그 거리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작은 땅에서 서로 다른 곳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형태는 부끄러운 역사다. 지구상에서 우리 민족만큼 오랫동안 단일민족 국가로서 정치 문화적 전통을 유지해 온 나라도 드물다. 이렇게 분단의 이면 속에서 계속 가다가는 진정 수습할 수 없는 사태로 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지금 굶주림에 허덕이는 실정이라니 안타깝기 그지없는 노릇이다. 그러므로 남북이 통일해야 하는 것은 절실한 상황이다. 이제껏 사회주의권을 고집해왔던 소비에트 연방체제도 이미 해체된 지 오래이며, 동서독의 통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동서독은 우선 베를린 장벽을 허물었으며, 그 힘을 바탕으로 평화 공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접근해 갔다. 또한 상대방의 생활태도를 공개하여 공동 문화권에서 서로 이질감을 없애도록 노력했다고 한다. TV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 사회, 문화를 접할 수 있게 열어 놓았으며, 차츰 그 갈등은 희소되어 통일에 이르렀다고 하니 좋은 방법들은 우리가 받아들여 절충해 가면 우리나라도 통일의 문으로 들어서는 것은 당연해지지 않을까?

남북통일은 우리의 염원이며, 꼭 이루어야 하는 과업이다. 같은 형제끼리, 같은 민족끼리 3·8선을 사이에 두고 가슴에 한을 묻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세계화다, 다민족이다 귀가 시끄러울 정도 읊어대면서도 정작 한 민족끼

리 이렇듯 서로 눈빛을 겨누며 살아간다는 것은 씻지 못할 부끄러움이다. 그렇게 높은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당당히 통일의 길을 택한 동서독의 예를 거울삼아 우리도 3·8선을 허물고, 남북 화해의 손을 잡고 통일의 문으로 걸어가는 날이 머지않아 있을 것이며, 그날을 기다려본다.





친구를 위한 통일

★
울곡초 2 _ 홍강현

엄마가 운영하셨던 공장에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하였던 분이 근무하고 계셨다.

내가 7살 겨울 무렵에 엄마를 따라 공장을 갔을 때 처음 보았던 그 아저씨는 엄마보다도 훨씬 적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많이 있으며, 굉장히 늙어 보이고 고생을 한 흔적이 뚜렷하였다. 공장의 일은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로, 매일 아침 7시면 하루의 일을 시작한다. 일이 힘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하지 않은 일로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일을 하신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두려워하시고 일을 하는 중에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점심시간에도 혼자서 국에 밥을 말아 김치 몇 가닥을 얹어 공장 밖으로 나가서 드셨다. 식사를 한 후에는 자신이 타고 출근하였던 오토바이를 온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닦으신다. 나는 그렇게 그 아저씨를 보았다.

내가 두 번째로 그 아저씨를 본 것은 초등학교 1학년 가을 무렵에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이 마트 앞에서였다. 그런데, 그 아저씨의 얼굴은 예전에 보았던 것보다 굉장히 밝은 얼굴이었고 나에게도 인사를 하면서 아는 체를 하셨다. 그때 나와 같은 또래의 아이가 종이박스를 발로 차면서 축구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내가 그 아이에게 “에이, 축구는 축구 공으로 해야지.” 하였더니 “그래도 이것도 재밌다.” 하고 말한다. 나는 재미가 없을 것 같은

데 그렇게 말한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사 오셔서 나와 그 아이에게 한 개씩 나누어 주셔서 맛있게 먹었다. 아저씨는 나와 같은 또래의 아이가 자신의 아들로 나랑 같은 동갑이고,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겠다.

내가 궁금하여 아저씨에게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자유도 없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을 하셨어요?” 라고 물었다. 아저씨는 북한의 탄광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셨다고 한다. 매일 엄청난 고생을 하셨고, 자유도 없어 자유를 찾아 가족끼리 북한을 탈출하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시면서 남한에서는 일반 시민들도 일을 하는 만큼 돈도 가질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도 살 수 있으면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하셨다. 자유가 있는 남한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돈도 벌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셨다. 아저씨는 그러시면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었다. 나는 아저씨가 우는 것이 이상하여 “어, 아저씨 왜 우세요?” 라고 말하였더니 아저씨는 북한에서 너무나 급하게 탈출하시는 바람에 부모님이 북한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나 살자고 부모님에게 불효를 하고 말았다.” 고 하시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셨다. 아빠가 그 아저씨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잖아. 곧 통일이 될 거네,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만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헤어져 살고 있어, 곧 통일이 될 거야, 암, 통일이 되어서 자네 부모님도 만나야지.” 라고 말씀하셨다. 아저씨의 우는 모습이 너무도 슬퍼보였다.

아빠는 아저씨에게 남한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오늘은 웬일로 아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했냐는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고, 나와 그 친구는 종이박스로 축구놀이를 하면서 재미있게 놀았다.

한참 후에 서로 헤어질 시간이 되었는데, 아저씨는 나와 아저씨의 아들을 세우시더니 서로가 손을 잡게 하시고서는 “강현이는 남쪽, 우리 아들은 북쪽, 두 사람이 손을 잡았으니 통일이다.” 하시면서 웃으셨다. 나와 그 아이는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통일이다, 통일” 하면서 서로 손을 잡고 우, 아래로 흔들었다. 마치 우리는 통일이 된 것처럼 기뻐다. 아저씨는 애지중지하

시던 그 오토바이 뒤에 아들을 태우고 떠나가셨다. 그 친구는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없이 손을 흔들었다. 엄마의 사정으로 인해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그 아저씨와는 그 후에 다시 만날 수가 없었다.

이번에 통일을 공부하면서 나는 그때 종이박스로 축구놀이를 하고, 나에게 한없이 손을 흔들어 주었던 그 친구의 얼굴이 생각이 났다.

아빠의 말씀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 일본에 많이 시달리고 억압을 받다 해방이 되었으며, 그때 사상문제로 민주진영, 공산진영으로 나뉘면서 이렇게 남, 북으로 갈라졌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는 세계가 경제 사회이기 때문에 남, 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도 곧 합쳐질 거라고 하셨다.

나는 아직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부모형제를 그리면서 우셨던 그 아저씨와 나와 손을 잡고 통일을 외쳤던 그 아이를 생각하면 부모, 형제가 헤어져 사는 것보다는 통일이 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가족이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꼭 통일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때 만났던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통일의 실타래



봉산중 3 _ 전효빈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다.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기쁨도 잠시였을 뿐, 광복이후 우리나라는 또다시 분단이라는 아픈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갈라서 살게 된지도 벌써 50여 년이 넘었다. 분단이 된 이후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져버렸다.

사용하는 언어가,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우리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영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저 한반도의 북쪽에서 '얼음 보숭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지 못한다. 유학이라고 하며 다른 나라의 교육제도를 배우는 데에 인색하지 않으면서 북한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해 하지 않는다.

우리는 언론에서, 그리고 주위에서 통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초등 학교에서도 매년 이맘때 즈음이면 통일글짓기며, 그리기 대회를 열곤 한다. 그러나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을 해볼 기회는 매우 적은 것 같다. 어찌면 우리는 입으로는 통일을 외치지만 마음은 이미 우리의 반쪽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같이 살지도 못하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아픔에 곧바로 직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설움에 둔감해져 있다. 그러나 이제는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할 때이다.

나는 어렸을 때,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적으라고 할 때면 북한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적어내고는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말 그대로 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통일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면 굳이 북한이 아니더라도 괜찮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민족이다. 단군조선 이래로 배달민족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피는 이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흘렀다. 그 피를 나눈 형제로서 우리는 마땅히 한 나라로 합쳐져 함께 살아가야 한다.

지금껏 통일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다. 고대 마케도니아의 제왕이었던 알렉산더는 풀리지 않는 매듭을 칼로 잘라내어 버렸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에 감탄하지만 나는 그의 방법만이 꼭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매듭은 잘라내 버리는 방법보다 풀어야 할 때가 더 많기 때문이다. 통일문제도 잘라낼 문제가 아니라 천천히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릴지는 모르지만 문제를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그리고 어떤 피해도 입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새천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작은 실마리를 잡아냈다. 북한과 남한의 대통령과 국방위원장이 만나고, 이산가족들이 50년 만에 그리운 가족들을 만났다. 소를 몰고 북한으로 가 구호물자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한 노력들이 통일을 향한 작은 실마리들이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초는 조그만 단서들이듯이, 별 것 없어 보이는 이 작은 일들은 통일을 향한 큰 발걸음들이다.

지금은 갈라져있어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꼭 끌어안을 수도 없는 나라, 북한. 그러나 북한 또한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이기에 분단되기 전 반만년의 역사를 함께 나눈 단군의 후손들이기에 우리는 하나이다.

마음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단단한 끈이기에 비록 갈라져 있다 해도 마음만 있다면 갈라진 것이 아니다. 지금 몸은 갈라져 있다 해도 우리가 마음으로 통일을 갈망한다면 분명 통일은 꿈이 아니라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을 것이다.



파랑새의 소원



광주상무고 2_ 윤주연

2000년 6월 13일.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다. '통일'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남북정상회담에서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악수를 하던 그 모습.

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자세한 배경상황은 알지 못했지만 나는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리고 옆에 계시던 할머니께 6·25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할머니의 젖어있던 목소리를 나는 아직도 기억할 수 있다.

50년의 시간이 너무나 지루했다는 듯 빠르게 가까워지는 남북의 관계를 보며 당장 내일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아 흥분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적극적이지 못한 남과 북의 태도와 소원해지는 서로의 관계, 그리고 모든 주도권을 쥐는 것 마냥 약속을 어기는 북한과 그에 휘둘리는 우리나라를 보며 나는 적잖게 실망하였다.

20세기의 세계는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혼란의 시대였고, 한민족사에 있어서는 더욱 길게만 느껴졌던 고난의 세월이었다. 극단의 시대를 주동하며 우리를 분단에 이르게 한 근원인 강렬한 이념도 과거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유물이 되고 그러한 시대적 대세는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와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고, '화해'와 '협력'을 낳게 하였다. 그러나 사라졌다 믿고 싶었던 이념적 잔재는 소매 끝에

붙은 레페르처럼 또 다시 남북관계의 급진전을 시기하였다. 그렇다면 통일에 대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일까?

먼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자 단점은 빨리 달아올랐다가 너무 쉽게 식어버리고, 그것을 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일은 여태까지 대해왔던 뜨거운 감자와 같은 것들과는 다르다. 통일은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전제로 항상 생각하고 우리들의 입에 오르내려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젊은 세대 중에서 통일에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노랫말 그대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망설임 없이 외칠 수 있는가? 부끄러운 말이지만 나도 통일관련 행사 때만 되면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해보곤 할 뿐이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하여도 통일교육과 짝은 행사를 통하여 그 중요성과 필요를 느끼곤 하였는데 요즘의 아이들은 하루하루 급변하는 사회문화 속에서 순수했던 통일염원이 점점 빛바래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일이지만 우리 세대가 겪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쓸쓸해진다.

또,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이산가족의 아픔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의 일이며 아픔이다. 하나하나가 뿔뿔 뭉쳐 아픔을 해소하고 잃었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일에 우리는 최선의 힘을 모아야 한다. 이것은 민족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의무이다. 우리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불태워야 한다.

다음으로 민족의 동질성의 회복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 관계를 이어가고, 나아가 하나의 통합된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반세기 가 넘도록 분단되었기 때문에 서로 이질감을 극복하기 많이 힘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동포로서 이해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북한을 돕고 통일에 대비하여야 한다. 서로에 대한 이질감과 불신감을 버리고 화합과 협력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힘써야 한다. 한 겨레, 한 민족.

한 핏줄이라는 정신으로 우리는 통일을 향해 느리게, 하지만 분명하게 다가
가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남북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절약하여 북한을 돕고, 그들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동질성과 이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문화의 차이와 그 영향이란 너무나 커서 그것을 눈
앞에 맞닥뜨렸을 때 혼란과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통일과 관련
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욱 많은 교류
가 이루어진다면 남과 북은 마음의 문까지 열어 통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을 바라는 마음만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끊임없는 노력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통일은 민족과 국가적인 숙원임
에는 분명하지만 어설픈 자세로 그것을 맞는다면 고통과 반목 등 통일보다
더한 짐을 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보
다는 통일을 준비해가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 국가적 통일보다는 우리들의
준비된 통일이 우선이다. 그 과정에는 많은 이해가 필요하고 때론 충돌도
있겠지만 통일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면 할수록 통일 후의 혼란은 더욱 견잡
을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통일은 우리에게 크나큰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
다. 이때 무엇을 희생할 것이며, 또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요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를 대처할 틀은 잡아야 하며 지
금이 바로 통일의 청사진을 준비하고, 이에 근거한 방안들을 착실히 제시해
야 할 때이다.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분단의 역사를 끝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세대이다.
통일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후세를 위해서, 그리고 동북아의 안
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모든 것을 할애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고도 넘치는 것이다.
통일은 먼 훗날의 일도 아니며, 어려운 것도 아니다. 꽃은 상처에서 핀다는
말처럼, 힘든 시기를 이겨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통일이라는 소중한 꽃을 피워내 나갈 것을 믿는다. 끊임없

는 관심과 작은 실천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들은 그때를 대비하여 끊임없는 학문 수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잊어야만 한다 하지 말자. 이미 흘러간 과거 속에서 서로의 추억을 만나 손끝으로 기억하자. 그리고 함께 꿈꾸자! 오늘,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소원하며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파랑새를 날려 보낸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통일을 꿈꾸며



신암초 6_심 설

“드디어 수학여행이다!”

얼마 전, 우리는 강화도와 강원도에 수학여행을 갔다 왔다. 강화도로 가면 멀리서나마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여 우리 반 친구들은 기대에 차 있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학여행 당일. 우리는 버스에서 친구들과 북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희들은 남북통일이 되었으면 하니?”

“아니, 난 통일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

“그래도 이산가족들과 나라 이미지를 생각해 봐서라도 통일이 되어야지.” 그리고 보니, 우리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나라의 이미지와 통일을 했을 때 얻는 이득만 생각하고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면 지금처럼만 살기를 원하는 무리도 많다. 무엇보다 순전한 민족이 된다는 것으로만 통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을까? 수학여행을 하면서 곳곳을 돌아 다녔는데 그 중 기억에 남는 곳은 제3땅굴과 도라산 역이었다. 제3땅굴은 북한이 우리나라에 몰래 침입하려고 만든 이동 통로로 제1, 2땅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주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1, 2땅굴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힘을 가졌다고 한다. 나는 1, 2땅굴을 들어가자마자 웬지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길이 막혀있는 곳에는 제한구역이

라는 뜻말이 붙어 있었는데, 당장이라도 북한군이 푹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우리가 정말 같은 민족이 맞기는 한 걸까? 그럼 왜 서로에게 상처만 주려고 하는 걸까? 현재 세계에서 분단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세계에서 분단국가가 우리나라 뿐이라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다. 한 민족이 한 땅을 반으로 가르고 살고 있다니... 그 남과 북 사이에 있는 철조망 때문에, 서로를 못 보면서 살고 있는 이산가족은 얼마나 슬플지 상상조차도 되지 않는다. 어언 우리가 분단국가의 슬픔을 맞이하게 된지도 50년이라는 세월이 넘었다.

우리는 그새 강원도에 정이 들었는지 버스를 탈 때, 왠지 아쉬웠다. 버스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가 통일을 위해 할 일을 남에게만 하길 바라지 않고 그 전에, 내가 먼저 실천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자 세계에 분단국가가 우리나라 뿐이어서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괜히 씩씩해졌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을 원하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휴전선 대신 아름다운 꽃이 자리할 그날을 위해 화이팅!”





분단의 아픔을 딛고서



광주서석중 2 _ 유종현

나는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분단국가가 존재하는 한반도의 남쪽에서 살고 있다. 현재 우리 민족은 동일한 언어와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는 단일민족임에도 불구하고 3·8선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으로 인한 국토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다. 이러한 분단은 결국 남북한 사이의 불신을 낳게 되었고, 문화적인 차이가 생기고 말았다. 또한 이산가족을 만들어내서 가슴 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지난 4월 19일, 나는 학교에서 역사현장 체험학습을 갔는데, 체험학습 도중에 독립기념관과 제3땅굴, 도라산 역 등에 가서 우리 민족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느낄 수 있었다. 독립기념관에서는 일제의 침략과 만행의 실상을 보여주는 각종 자료와 독립운동에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애환과 일제에 대한 강한 항거의식을 느꼈고, 제3땅굴의 거대한 규모를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그 당시 북한의 남침에 대한 욕망을 알 수 있었다. 도라산 역에는 상당히 쓸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텅 빈 내부는 허망함을 남겼다. 그러나 “도라산 역은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전광판이 상당히 의미심장해 보였다.

이미 모든 운행준비를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개통되지 않은 남북한

철도, 참으로 쓸쓸했다. 그러나 언젠가는 철마가 달릴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도라산 역의 역무원 아저씨는 기다리고 계셨다. 이러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는 남북한의 평화통일은 여러모로 필요하며,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고, 동족상잔의 방지와 이산가족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으며, 둘 사이의 쓸데없는 경쟁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을 수도 있고, 더 넓게 본다면 세계평화에도 기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산주의 체제인 북한과 민주주의 체제인 남한사이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나 경제협력과 같은 경제적 문제 및 군사적인 문제를 극복해 내야 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요즘 내 또래 청소년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전에 어느 TV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통일을 하든 말든 관심이 없다는 것이 대다수였고, 북한과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오히려 불편할 지도 모른다는 의견 또한 존재했다. 통일을 위해서는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분단의 아픔을 딛고서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북한의 자본과 남한의 기술의 결합을 통한 정치 및 경제의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통일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분명 그것만은 확실하다. 과거의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준 교훈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도라산 역에서 기차를 타고 아직 가보지 못한 한반도의 북쪽에 발을 디딜 날이 올 것임을 굳게 믿는다. 뉴스에서 남북철도가 곧 개통될 것이라고 한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문구가 왜 마음속에 그토록 간절하게 다가오는지. 나의 마음은 벌써 통일의 열차를 타고 평양을 지나 신의주, 압록강까지 달려가고 있었다.



통일,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일까



금파공업고 2 _ 김혜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지구상에서 오직 하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만이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왜 우리나라는 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로 합치지 못한 것일까? 우리가 분단됨으로써 우리는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우리는 분열로써 많은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두 나라가 쏟아 붓는 천문학적인 군비, 그 군비만 하더라도 상당한 양이다. 민주자본주의를 받아 들인 남한과 달리 북한은 군대, 군 시설 등을 늘리는 것에 열중한 나머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이미 파탄에 이른 지경, 기아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국경을 넘는다. 통일이 되면 군비가 반으로 줄게 되고, 그 군비를 사회복지 쪽으로 돌리게 된다면, 북한의 기아로 허덕이는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둘째, 아시아, 세계적인 강국이 되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군사력, 남한은 자금력, 그리고 북한의 인력과 우리의 정보력과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지하자원 등을 이용하면 우리나라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도 개성공단과 각종 국제경기에서의 응원전 등으로 노력하고 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서로가 채워주면서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통일이란 것은 최우선의 선택이란 것이다.

셋째, 반백 년 동안 갈라진 시간은 이산가족에게 혈육과의 생이별이라는 가슴 아픈 상처를 남겼다. 고향이 눈앞 또는 차로 몇 분이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강 건너에서 망원경으로 봐야하는 실정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예전에 통일전망대에 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망원경으로 보지 않고서라도 손에 잡힐 듯 닿을 듯 복한 땅이 보였다. 이산가족이 없는 나로서도 안타까웠다.

그런데 이산가족이 있는 분들은 얼마나 가슴 아플까? 50년이라는 시간은 헤어진 어린 형제를 이미 중년, 노년으로 돌리기 충분한 시간이다. 이 생이별이 진짜 이별이 되기 전에 통일은 얼른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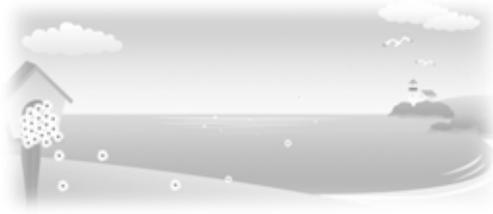
국민, 아니 민족 모두가 바라고 있는 통일을 왜 이루지 못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북한은 왜 통일을 꺼려하는가? 물론 북한에게도 아니 남한보다 더 절실하게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북한이다. 하지만, 북한은 통일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다. 왜 그럴까?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단 남한의 통일방안과 북한의 통일방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남한의 통일방안인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라는 세 가지를 내세운다. 자주 즉, 외부세력에 간섭을 받지 않고 한민족 스스로 결정한다. 평화 즉 무력통일이 아닌 평화적인 통일을 한다는 것. 민주 즉, 모든 통일방안은 민주적인 원칙에 따른다는 것인데 북한쪽에서 반대하는 것은 민주이다. 민주적이라는 것은 북한의 입장으로는 아직 익숙치 못한 것이며 지금까지 북한정부는 민주주의를 비하해 왔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면 엄청난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이 내놓은 정책은 고려연방제이다. 남한과 북한이 독자적인 정부를 유지하면서 상무정부인 연방정부를 조직, 국제적 교류 등을 맡기는 것이다. 남북연합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나서 추진하는 점진적 단계적 통일이라면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통일 후 동질성을 회복하자는 주장이다. 일단 우리 측 입장에서 고려연방제는 이상적이나 이에겐 북한이 포기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로 미군의 철수, 둘째로 국가보안법의 폐지, 셋째로 공산 활동의 합법화 이 세 가지 조건은 언뜻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미군의 철수는 군사적으로 약한 우리나라를 무력통일로 집어 삼키기 위함일 수도 있음이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공산 활동의 합법화는 세뇌적으로 공산화에 물들어 있는 북한과는 달리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혼란 상태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양측은 협의점도 찾지 못한 채 현 상태를 유지해 왔다. 그리고 반백 년, 이 긴 시간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도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져다주었으며 이로 인해 오해가 빚어져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공산주의의 분배에 길들여진 북한의 주민들이 자본주의 사상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까? 직설적이고 독선적인 북한의 언어에 우리가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까? 언어, 문화적인 차이는 이미 수습하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

민족상잔의 비극이 낳은 우리나라 최대의 소원. 원하고 원하면 이루어진다고들 하지 않는가? 청명하고 푸른 하늘아래, 하나로 합쳐진 하늘처럼 휴전선이라는 철조망으로 갈라진 우리나라도 다시 합쳐져 눈물이 아닌 희망의 미소가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기원해 본다.



06

대전광역시

- 우리! 함께 도래 춤을 추자구요 _ 137
- 초코파이 情 _ 139
- 엄 원 _ 141
- 북한 하늘을 날고 싶은 새 _ 144
- 우리가 다르게 만났더라면 _ 146
- 물려주고 싶지 않은 글짓기 _ 149
- 희망의 눈물로 백두산까지 _ 151
- 정지된 바퀴 굴리기 _ 154
- 아름다운 기차여행 _ 157

우리! 함께 도래 춤을 추자구요

★
선화초 5_ 김규재

“에구~ 중국 땅은 편안하겠어요. 나처럼 사람들이 몸 위를 줄로 꿰뚫어 놓지 않았으니까.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잘 지내셨지요? 저는 한국 땅이에요. 어느 날 내 몸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서 화약 냄새, 피비린내가 진동하더니 이상한 바늘이 내 몸 위를 찌르고 나서 줄로 꿰뚫어 놓았어요. 어찌나 꿰뚫어 놓았는지 이제는 피도 안 통하고, 느낌도 안 통하고, 내 위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각도 안 통하는 아래 위가 나누어진 두 개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슬프습니다.”

“여보시오 한국 땅, 그래도 그대는 나보다 좋습니다. 나처럼 쾌쾌한 연기와 더러운 진물이 흐르는 곳이 없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등의 한 쪽은 점점 말라 들어가 이제는 먼지만 풀풀 날리고 다른 쪽은 개발이다. 돈이다 하여 아무 생각 없이 파헤쳐져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속이 너무 상하고 마음이 아픈 땅입니다. 그러니 그만 화를 푸시지요.”, “그래도 그렇지 내 등 윗부분은 풀과 나무가 많이 자라지 않고 홍수와 자연재해와 함께 너무 나를 돌보지 않아 살기 나쁘고 등 아랫부분은 위보다 살기가 좋아서 이젠 동·식물들도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 왕래도 쉽지 않아 내 몸의 피와 신경이 서로 잘 통하지 않은 것이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만일 나도 모르게 내 몸을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내 허리를 꿰뚫어 놓았다면 얼마나 살기

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내 생각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지금 어디에선가 다른 사람들이 내 심정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예고! 내가 어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요전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땅이었는데.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흐엉~ 흐엉~ 흐엉~”, “한국 땅 그만 좀 우시지요! 당신 탓이 아닙니다. 내 마음도 울컥거리기 시작하니 지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알리면 돼요.”, “중국 땅, 하지만 무슨 수로 알립니까? 사람들은 우리들의 말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도 이번 5월 17일에 시험 운행된 기차와 금강산에서 자주 열리는 남북이산가족상봉, 그리고 자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은 당신의 심정을 사람들이 서서히 알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갈라진 두 땅덩어리의 사람들은 통일~ 통일~! 하고 마음과 소리를 하나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희망이 보이는 당신이 정말 부럽습니다. 나는 서로 떨어져야 할 부분을 억지로 묶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잘 맞지 않아 사람들이 아직도 한 마음이 안된 부분들도 있답니다. 마음이 한 마음이 된다면야 가뭄이 뭐가 두렵고 황사가 뭐가 두렵단 말입니까? 더불어 잘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땅,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제 내 몸 한쪽에 있던 가시가 뽑히고 작은 핏줄이지만 몇 개가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적은 수지만 내 몸에 피가 통하기 시작했으니 사람들이 서로 만나 부둥켜안고 잘 살려고 노력하겠지요? 중국 땅 고맙습니다.

당신의 위로 덕분에 힘이 솟아납니다. 아프고 갈라진 땅이라 앞으로 조금은 힘들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신 말대로 희망을 갖고 참아 보겠습니다.

당신 땅에서도 그 옛날과 같은 번영과 문화가 다시 돌아오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모임을 만들어 우리 위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기쁜 마음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도록 해주지요. 그리고 노래나 한 판 합시다. 우리 땅 어린이들이 예전에 즐겨 부르던 노래 중에 도래 춤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 볼 테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까? 어리 얼싸 도래 춤을 주렁 주렁~ 추울 거나, 이 세상도 처자들이 모두 손을 쥔 달 시면 넓은 바다 빙빙 돌며 도래 춤을 출거외다, 도래 춤을 출거외다. 빙 빙 빙 빙 바다 돌며...”

초코파이情



노은중 2 _ 홍세진

들어보니까 ‘한국’ 이라고 하는 나라는 꼭 초코파이 같더라구요.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다른 나라보다 특이한 게 많았어요. 그 중에서 제가 10년이라는 세월동안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 사람들은 가운데에 울타리를 쳐놓고 서로 말을 걸어도 안 되고 만나면 더더욱 안 된대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일본이랑은 만날 수 있다고 해놓고 저 너머 미국이랑도 만나면서 왜 별로 높지도 않은 울타리는 넘지 못하는 걸까요? 여행을 하는 동안 저는 한국이 마치 한 덩어리의 초코파이 같았어요.

먼저 한국은요, 초코파이에 있는 마시멜로우 같은 휴전선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해요. 그 마시멜로우를 뜯어내려고 해도 자꾸만 붙어 당겨요. 하도 오랫동안 익숙해진 나머지 뜯어내려고도 안 해요. 뜯어낸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너무 어색할 거예요.

그리구요, 그 초코파이 속 마시멜로우는요, 그 어느 나라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거래요. 정말 휴전선이랑 똑같죠? 그것도 전 세계 중에서 우리나라에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아도 없어지지 않는 마시멜로우처럼 지금 강산이 6번이나 바뀌려 하는 동안에도 쇠창살이 아프게 계속 짓누르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한국은요 초코파이의 그 초코렛 코팅처럼 이산가족의 눈물을

머금은 먹구름이 끼어있어요. 이 초콜렛 코팅도 마시멜로우처럼 떼내려 해도 안 떨어져요. 빨리 떼내지 않으면 다 녹아버려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도 없을 텐데 왜 그냥 그걸 가만히 보기만 하는 걸까요?

또 한국은요, 그런 아픔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너무 어설퍼요. 초코파이를 먹을 때도 한 입 베물어 먹고 그냥 내버려두면 빵은 다 딱딱해지고 마시멜로우도 굳어버리고 초콜렛도 다 흘러 내려와서 굳어버려요. 만약에 한국이 계속 어물쩍어물쩍 시도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통일은요, 자꾸 미뤄만 질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한국 사람들이 초코파이를 사랑하는 만큼, 그 초코파이를 먹어온 시간만큼 그 아픔을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이런 독특함은요, 세계에서 유일하긴 하지만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았어요.

저도 이번에 한국에 와서 아래쪽밖에 구경을 못했거든요. 만약에 그 울타리를 넘을 수만 있다면 2배는 더 좋은 걸 구경했을 거 아니에요?

초코파이에는 情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요. 한국이 그 情이라는 글자에 담긴 뜻처럼 서로 마음의 고리를 연결해서 울타리를 치워주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10년 뒤에 다시 왔을 때 한반도 위에서부터 끝까지 구경할 수 있겠죠?



영 년



지족교 1 _ 오유진

유난히도 황사가 심한 봄이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어 닥치는 노란 먼지바람에 사람들은 창문도 열지 않았고 바깥출입이라도 할라 치면 모두들 중무장을 하기 바빴다. 병원은 기관지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고, 학교들은 거대한 먼지의 강을 이룬 황사에 휴교령을 내렸다. 그칠 줄 모르는 흙먼지 바람에 모두들 짜증이 극도로 치달았던 그때였을 것이다. 내가 그 할아버지를 만난 건 께죄죄한 어르신이었다. 옷과 신발 모두가 흙으로 덮여 지저분했고, 두 눈은 별경게 충혈된 것이 영락없는 파민이었다. 황사 먼지만 한껏 뒤집어 쓴, 특별할 것 없는 그 어르신을 내가 기억하는 건 지나치듯 듣게 된 한숨 섞인 한 마디 때문이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이 모래바람 속에 북 고향 흙도 섞여있을 것이여.”

오래도록 그리워한 시절이 있었는가 보다. 속수무책으로 불어 닥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던 황사바람에서 당신 고향의 향내를 찾으시던 그분에게는 아마도 오랫동안 품은 분단의 한이 있었는가 보다. 입을 가린 마스크도 모자라 점점 움츠러드는 사람들 틈에서 들성한 치아를 드러내며 어르신은 욱싯 입을 벌리셨다. 그 황량한 모래먼지 속에 분명 당신의 고향산천을 쓰다듬으며 내려온 흙바람이 있을 것이라 하시며, 그 흙바람이라도 맘껏 마신다면 내 가슴 속이 온통 흙으로 쌓여 죽게 되더라도 나는 행복하겠노라 하시던 할아버지.

긴 분단의 세월도 이산가족의 슬픔은 이미 깊다. 휴전선 철조망은 우리 국토와 국민의 몸만 나누어 놓았다. 그들에게 흐르는 피와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둔 채. 결국 남는 것은 상처와 흉터였다. 35만 국민이 북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망운지정에 젖고, 돌아오지 않는 남한의 아우를 기다리며 지쳐갔다.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부인의 유품 아닌 유품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옛된 흥안의 모습이 오늘, 스쳐도 모를 백발로 만나는 기구한 상봉. 북받쳐 오르는 감격과 분노로 통곡밖에 말문이 막힙니다.”

이산가족 상봉자의 회고이다. 어느 상봉 도우미는 상봉 마지막 날 ‘인간으로서 볼 수 없는 가장 괴로운 장면 하나를 고르라면 나는 오늘의 재이별을 기억하게 될 것 같다. 모두가 혼이 나간 것처럼 보였다.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이별보다 계획된 이별은 더욱 인간의 가슴을 찢어 놓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수구초심이라고, 여우도 죽을 때에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머리를 돌린다는데, 하물며 사람이 어찌 제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는 법, 지금이 아니면 너무 늦은 후회만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산 1세대는 고령자다. 하루 평균 10명 꼴로 매년 3천~4천명이 혈육을 만나지 못한 한을 품고 숨을 거둔다. 한정된 삶을 사는 우리들인 만큼 이산가족들의 삶이 다 하기 전에 통일을 이루어야 하겠다.

새터민 역시 분단의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다. 새터민을 교육하는 셋넷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망채’라고 부른다. 망둥이의 북한방언인 망채는 바다도, 육지도 아닌 갯벌에서 산다. 분단이라는 슬픈 운명 때문에 존재하게 된 이들의 처지를 보는 듯해서 ‘망채’라고 부른다. 그들 대부분은 자기 신분을 숨긴다. 북에서 온 게 알려지면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늘을 당당하게 날아다닐 수 있다 하여 새를 좋아한다. 탈북 후 중국에서 마음 풀이며 은거한 것만도 안타까운데 이곳에서까지 숨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생활의 차이도 큰 문제다. 북한 사람들에게 ‘볼펜’은 ‘원주필’이다. 우리

의 ‘삶은 달걀’은 그들에게 ‘돌알’이다. ‘능쪽, 뒤셈, 직승비행기…,’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출입문, 도시락, 유비쿼터스…,’ 그들도 알아듣지 못한다. 남한과 북한은 각각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그들의 언어는 이질감으로 다가온다. 같은 남한 안에서도 육지와외의 왕래가 잦지 못한 제주도 방언은 생소한 것이 많다. 언어와 사고, 생활에서 생기는 차이는 불가피하다. 우리가 학교에서 주권재민의 민주정치를 배울 때, 그들은 인민학교에서 김일성 공산주의를 찬양한다. 우리가 잔반 남기지 않기 캠페인을 실시할 때, 그들은 한 숟가락 밥이 없어 죽어간다. 때문에 통일을 민족사적 당위성은 물론 민족 동질성의 회복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무거운 과제이나, 모든 차이의 벽을 허물 수 있다는 믿음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을까.

2002년 6월 25일,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문구와 함께 우리는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어 냈다. 그 열망으로 지금처럼 북한에 관광지도 개발하고, 남북 예술단 공연도 하며, 경제적 부분에서도 협력해야 한다. 상봉 기회를 늘리고, 서신 교류를 하며, 적극적으로 문화교류에 임해야 한다. 마음을 열어가야 한다. 고향이 그리워, 가족이 그리워 황사먼지 한 줍에 온몸으로 흐느끼신 할아버지의 간절함으로 칠천만이 함께 통일 한국을 간절히 원하면, 언젠가는 꼭 휴전선 철조망은 제거되어 끊어지고, 끊어진 산과 강은 이어질 날이 온다.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는 가슴 아픈 한을 품은 휴전선이, 이제는 남북이 하나 되는 희망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인선·동해선 통일 열차의 기적 소리가 남과 북에 힘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유월이 오고 있다.





북한 하늘을 날고 싶은 새



선암초 3 _ 김채림

어느 날 동화책 ‘은반지를 낀 후투티’를 읽었다. 그 책은 새를 연구하는 원병오 박사님이 후투티라는 새를 연구하다 북한에 계신 아버지와 연락을 한다는 과학 동화이다.

원병오 박사님 아버지께서는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교수와 북한 최고 인민회의대의원을 지냈던 세계적 조류학자 원홍구 박사님이다.

원병오 박사님은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시고, 1929년 경기도 개성에서 태어나 6·25전쟁 때 세 형제가 남으로 피신을 오셨다고 한다. 난 지도에서 개성을 찾아보니 서울에서 내가 사는 대전보다 가까운 거리가 개성이었다. 북한은 참 가깝지만 가기에는 먼 나라인 것 같다.

1965년 여름, 원병오 박사님은 일본 국제 조류 보호협회 아시아지역 본부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동화책에서는 ‘후투티’라는 새로 나왔지만 사실은 ‘북방쇠찌르레기’를 발견했는데 혹시 남한 학자들이 철새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서 보낸 것인지 묻는 내용이었다.

새의 다리에는 ‘시7655’라는 일련번호가 매겨진 알루미늄 가락지가 끼워져 있었다. 가락지는 원병오 박사님이 철새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서울에서 새를 날리면서 끼워준 것이고 그 새를 북한의 대표적 조류학자인 그의 아버지 원홍구 박사님이 발견한 것이다. 세상에 어쩜 이런 우연이 있

을까? 아마 하나님이 북한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은 원병오 박사님의 마음을 읽은 것일까?

원병오 박사님과 아버지 원홍구 박사님은 새를 통해 5년간이나 소식을 주고 받았지만 끝내 만나지는 못했다고 한다. 원병오 박사님은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원홍구 박사님이 70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더욱 가슴이 아팠을 것이다.

훗날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일본과 북한은 합작으로 ‘새’라는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고 한다.

원병오 박사님은 2002년에서야 북한에 있는 아버지의 묘소에 찾아가갈 수 있었다고 한다.

어릴적 새를 연구하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다 아버지처럼 새를 연구하는 박사님이 되셨다는 원병오 박사님의 마지막 꿈은 북한의 강단에 서는 것이란다.

만약 6·25전쟁이 없었다면 원병오 박사님은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헤어져서 돌아가실 때까지 못 만났다니 전쟁은 참 슬픈 것이다.

난 통일이 되어서 원병오 박사님이 아버지 묘소도 자주 찾아가고 또 북한 사람들에게 새를 연구한 것을 발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개성에도 가보고 싶고 북한에 가보고 싶은 곳이 너무 많은데 갈 수가 없어서 안타깝다. 통일이 되면 이 모든 곳을 다 가봐야지.

북방쇠찌르레기는 좋겠다. 북한도 훨훨 날아서 갈 수 있다니 나도 새가 되고 싶다. 북방쇠찌르레기야. 북한에 갈 때 나도 데려가 주렴. 너랑 같이 북한 하늘을 훨훨 날아보자.





우리가 다르게 만났더라면



신계종 3 _ 신푸름

“또 다른데서 만나면 서로 총질해야겠지?” 영화 ‘웰컴투 동막골’은 6·25전쟁 중 외지에서 고립되어 밖에 상황은 전혀 모르는 동막골이란 동네에 우연히 들어오게 된 국군, 연합군, 인민군이 마주치며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 내용의 영화다.

이 영화는 여러 가지에서 상징적, 직접적으로 6·25전쟁 당시에 상황과 현재 우리가 가져야 할 통일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방향을 제시해 준다.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부상병을 버리고 가지 못하여 다른 부하들을 위협에 빠트린 인민군 장교와 한강다리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탈영한 국군의 상황, 모두 자신이 원해서가 아닌 타의에 의한 전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분단의 경우 독일의 분단과는 달리 미국과 소련에 의한 분단이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러한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었던 걸까? 동막골 사람들은 총을 들이대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수류탄을 봐도 쇠덩어리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그려진다.

이런 점에서 동막골 사람들의 순수함과 다른 외지 사람들을 따스히 맞아 친구로 받아들이는 면, 따뜻한 초록빛에 동막골의 배경은 전쟁 이전 우리들의 선조와 국토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느껴졌다. 하지만 그러한 순수성은 원

하지도 않는 남북전쟁과 분단 등을 통해 변질하여갔다. 밖에서는 전쟁이 났다는 말에 ‘쳐들어 온 놈이 왜놈인지, 된놈인지’ 라고 말하는 동막골 사람의 말에는 같은 민족끼리 서로 쳐들어가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우리는 역사를 함께 공유하고 같은 언어를 쓰며 같은 인종인 같은 민족, 내 민족인데 어째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단이 되었던 말인가? “우리 이렇게 말고 다른데서 다르게 만났더라면 참 재미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국군의 표정에는 우리 민족의 한이 서려있는 듯했다.

서로 다른 군복을 입고 총부리를 겨눴었지만 군복이랑 다 벗어던지고 소박한 한복을 입고 옥수수를 베어물던 모습으로 돌아왔던 국군과 인민군은 그 순간 이미 마음속 응어리는 풀어지고 정신적인 통일을 한 것이다. 미국 장교 한 명 때문에 동막골을 몰살시키려는 미국을 막으려고 국군, 연합군, 인민군이 모여 연합작전을 펼치는 모습과 마지막에 자신의 전쟁에 의한 때를 벗겨준 동막골을 지켜냈다는 생각에 웃음을 머금은 채 떨어지는 폭격 속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도 이제 통일을 이루어야 할 때가 아닌가. 동막골을 지켜냈듯이 것처럼 순수한 민족성을 하나에 담아내야 한다. 타의에 의한 분단으로 생겨나버린 민족적 상처를 언제까지 싸안고 울음만 터트릴 수는 없다.

지금 북한은 대량아사를 걱정할 정도의 식량부족 상태이며 남한은 기술 발전에 필요한 물자자원의 부족으로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남한에서 가지고 있는 평야와 식량자원으로 북한을 돕고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산지와 지하자원을 이용하여 남한의 기술 발전에 도움을 준다면 창출되는 이익은 얼마일까? 지금 우리는 자원의 부적절한 사용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통일이 되면 국토확장이 되며 바로 대륙으로 연결되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배로 운송하지 않게 되므로 운송비가 절감된다. 무엇보다 민족성을 되살림이 가장 중요하다. 이질감이 생겼다고 해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끼리 돕는 등 바탕이 되는 민족정신은 아직 머리와 가슴에 자리 잡고 있다.

통일은 나라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 개인 개인이 민족정신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북한의 사상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도록 하며 배고픔으로 힘들어 하는 우리의 민족을 돕도록 해야 한다. 통일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였고 지금도 하나이기 때문이다.





물려주고 싶지 않은 글짓기

★
송천고 3 _ 최미영

아직 철없고 순수하기만 했던 나의 초등학교 시절 짝궁과 다들 때면 책상을 반으로 가른채 “여기 넘어오지마!” 하며 싸우던 일이 생각이 난다. 그때의 그 책상의 선은 서로 쭈스런 미소 지으며 지우개로 쓱쓱 지울 수 있었지만 50여 년이 지난 이념과 사상으로 융합되지 못한 채 지워지지 못한 선이 남겨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 이것은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되는 세계화 시대에 크나큰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개방적 민주국가인 남한과 이에 비해 폐쇄적이고 공산국가인 북한과의 이질감과 경제적 격차 또한 더욱 벌어질 것이다.

또한 항상 통일 하면 나의 주변에는 이산가족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그 그리움과 아픔은 느껴지지 않지만 어린 나의 눈 속에 비춰진 TV 속의 이산가족 상봉의 모습은 그때로선 벅찼던 감동이었다. 50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그 가물가물한 기억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꺼내보며 눈물 짓던 모습들, 그 그리움만큼이나 큰 행복과 안도와 안타까움이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TV에서 보는 이산가족상봉의 그 감동은 내 일이 아니면 신경 쓰지 않고, 무관심해진 사회 속에서 더 이상의 이슈가 되지 않고 있으며 나와 같은 청소년들에게는 더더욱 외면 받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기간, 그때 도덕 시험범위가 남북 평화 통일 방안에

관한 내용이었다. 내용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통일에 대해 생각 한번 해보지 않은 우리로선 이걸 도대체 왜 배워야 하나며 짜증이 났고, 주위에선 “통일 꼭 해야 해?”, “난 북한하고 통일하기 싫어.”, “난 북한 싫은데.” 이리 한 이야기가 나왔다 ‘간 큰 가족’이라는 영화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 위해 온 가족이 통일된 척 연기를 하는 해프닝을 벌인다. 영화의 내용 중 할아버지가 평양으로 가기 위해 터미널로 와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에게 평양으로 가는 버스를 사달라고 부탁하는데, 학생들은 걱정 말라하며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간다. 이것처럼 청소년들에게는 통일이라는 것이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즉 통일이 되면 되는 것이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라는 방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해당될 것이다.

몇 년 전 느낌표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했던 남북 알아맞히기 경연대회는 문제는 북한 측에서 출제하고, 남북을 각각 대표하는 전국의 학생들이 모여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서로의 격차를 알아가서 조금이나마 그 격차를 줄여 보고자 하는 의도로 제작된 프로그램이었다. 획기적이고 예측하기 힘든 문제들로 문제를 푸는 학생이나 지켜보는 시청자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고, 우리말에 저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과 한없이 벌어진 언어적인 격차에서는 한 민족끼리 이렇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곤 했는데 이것은 조금이나마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들게 해주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통일에 대해서 방관적인 태도를 버리고 통일이 꼭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작게는 통일이라는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의식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가 흥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한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 6·25전쟁의 아픔과 분단국가라는 배경까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 영화를 보고 느꼈던 감정과 우리가 보고 느꼈던 감정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난 나의 후배들이나 자손들에게 이 통일 안보 글짓기를 쓰게 하고 싶지 않다.



희망의 눈물로 백두산까지

★
동서초 5 _ 유예빈

2006년 6월 내가 활동하고 있는 KBS 어린이 예술단은 중국으로 해외공연을 갔다. 공연을 하기 며칠 전 우리는 백두산 천지로 올라갔다. 그 6월 우리나라는 여름이었고 중국도 초여름이었다. 하지만, 그 높은 백두산은 바닥이 얼어있고 눈이 오는 추운 겨울이었다. 케이블카 한 번 안 타고 가이드 오빠의 도움을 받으며 힘들게 올라갔다. 이윽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백두산 천지에 다다랐다. 그 백두산 천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어공주의 진주같이 하얀 눈이 내리는 백두산 천지는 마치 아름다운 하나의 풍경화 같았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 올라온 길을 다시 되돌아보니 나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북한을 향해 크게 '우리의 소원은'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옛날 우리 민족의 통일을 원하는 마음을 느끼며 고마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에 파이팅을 외치며 내려왔다.

다음날 우리는 북한 땅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북한과 중국의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 갔다. 이런 땅바닥에 그려진 작은 선이 우리 통일을 멀어지게 해놓다니 정말 때려주고 싶었다. 우리는 속으로는 북한에 뛰어 들어가고 싶었지만 무뚝뚝하게 서있는 북한군인 아저씨들 때문에 마음만 가고 있었다. 갑자기 나는 눈물이 났다. 백두산에서는 힘들어서 나는 눈물이었지만 이번에는 아니었다. 무엇 때문일까? 6박 7일이라는 긴 시간 때문에 가족이 그리워서일까? 아니면 무엇 때문일까...

나는 나처럼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작가언니 품에 안겼다.

지금 북한과 우리 남한도 겹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울고 있겠지.

우리는 멀리 북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그러자 북한 사람들에게 답이 들렸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너무 기뻐 다시 소리쳤다.

“사랑해요~”

그러자 또 북한 사람이 외쳤다

“사랑해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추억을 담고 있는 같은 한 민족인데도 지금은 떨어져 산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마음으로는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집에 살고 같은 곳에서 놀고 있다는 것을….

갈때기도 가는 북한이지만 우리는 못가는 우리 땅, 마음은 벌써 북한에 가 있지만 몸은 아직 북한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는 다시 불렀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소원 3가지를 묻는다면 나는 김구 선생님처럼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말 할 것이다.

“나의 첫 번째 소원은 세계의 모든 경계선을 지우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고, 두 번째 소원을 물어본다면 나는 “나의 두 번째 소원은 북한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 노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고, 세 번째 소원도 물어 본다면 “나의 세 번째 소원은 지구가 통일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나에게도 꿈은 있다. 바로 좋은 시인이 되는 것이다. 아이들을 위한 시집을 내는 것이다. 나는 약속한다. 내가 시인이 되서 시집을 만들게 된다면 그 중에 ‘희망의 눈물로 백두산까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통일에 대한 멋진 시를 만들

거리는 것을 약속한다.

나는 한번 생각해 본다.

우리 대전 동서초등학교에 있는 무궁화의 향기가 이 둥근 지구를 돌아 백두산을 지나 북한에 있는 동서초등학교까지 갔으면..., 빨리 통일이 되어 북한 친구들과 손잡는 날까지 파이팅!!





정지된 바퀴 굴리기



진잠중 3 _ 신재균

난 어렸을 때부터, 글짓기를 좋아했다. 하얗고 텅 빈 공백에, 내 생각을 쌓는다는 것은 꽤나 매력이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주제가 통일이라면 더욱더 많은 것이 변했다. 단순하게 나이가 많아지기도 했고, 더 나아가선 통일이라는 주제에 대해 내 생각도 변했다. 아니, 변했다기보다는 조금씩 수정되면서 훨씬 확고해졌다... 정도가 알맞을까?

그런데 이 나름대로 확고해진 개념에서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나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 중’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누구나 입으로는 이렇게 떠들어댄다. 통일이 한민족이 이루어 내야할 가장 큰 것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 안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난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

솔직히 말해 난 이런 글짓기 대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겠다. 간판에는 통일이라는 민족 차원의 가장 큰 중대사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통일의식을 고취시킨다고 한다.

그럼 그 대상이 누구인가?

누가 이 명확하고 훌륭하기까지 한 이 의도를 충실히 따라 사색하여 통일을 위해 일할 것인가. 누가?

난 깊이 생각했다. 내 나름대로 말이다. 독일 통일의 예도 찾아보고 조사해 보고, 혼자 글로 정리해 보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통일은 무리지만 독일

의 예를 보아 두 나라의 경제수준이 통일 후를 버틸 정도가 되고, 북한 내에서 아주 약간씩이라도 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바람을 조금씩 장기적으로 넣어주어야 할 것이라는 해결안을 어설피게나마 구체화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게서 끝났다. 누구와 생각도 나누어보지 못했다. 게다가 이 해결안 자체도 통일에 관련된 세계, 국내 정세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완전치 못했다는 것이다. 배경이 없다!

내가 이 정도다. 통일 글짓기 대회에서 상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지하게 한반도가 하나가 되는 것을 생각하려했던 나에게도 현실은 이 정도밖에 허용해 주지 않았다.

하물며 이제 통일을 부정적으로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떨 것인가, 어쩔 것인가?

주위를 보라. 어느 누가 통일에 대해 현실적으로 논하고 있는지 찾아보아라. 없다. 아니, 찾았다 해도 극소수일 뿐이다. 그나마 현실을 감안해 진지하거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안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더욱 없다.

물론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일생을 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눈에 띄는가? 뉴스에 자주 나오기라도 하나? 나라에서 훈장이라도 주나? 거의 없다. 앞으로 미래에 조국을 이끌어갈 내 눈과 기억 속엔 그런 모습이 담겨있지 않다. 그러면서 여전히 주위의 사람들은 허공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라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특히 높은 직위의 사람들은 이것을 시키고 있다. 국민들에게 무엇 하나 제공하지도 않고 배경도 깔아주지 않고 이것이야말로 캠핑에서 텐트도 침낭도 아무 것도 해주지 않고 자라고만 하는 우격다짐이 아닌가!

물론 정부의 힘으로 많은 것을 추진하기는 한다. 가진 힘에 비례하여 말이다. 그러나 그게 국민들에게 피부로 뜨겁게 느껴졌던 적이 있었던가? 친구들이 내게 '어제 TV에서 통일이 놀자 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됐는데, 유익하기도 하고, 내용도 좋았어. 정부가 노력하긴 하더라? 나도 통일에 대해 생각 좀 해봐야겠어.' 그랬던 적이 있었던가?

없다. 한 번도 없다. 단 한 번도... 잘린 허리를 다시 이어야 하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고한다. 정지된 바퀴, 이 정지된 바퀴를 굴려야 하는 건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는 자신의 의무이다.

글을 마치며 몇 마디 덧붙인다. 극명한 악은 선을 연상시킨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글을 읽어 달라. 우리가 정지시킨 바퀴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굴러가기 시작한다면, 이 글의 목표는 200퍼센트 충족된 것이다.





아름다운 기차여행

★
전민고 2 _ 한지수

질어가는 녹음 속에 찬란한 햇볕. 누가 축제를 벌이지 않아도 그저 아름답기 만한 5월. 이 5월에 나는 아름다운 여행을 꿈꾼다. 국경을 초월해 느긋한 마음으로 기차에 몸을 싣고 유럽기차 여행을 하고 싶다. 기차가 스쳐 지나가는 길목마다 멋진 풍경을 감사하며, 기차가 서는 역마다 이국적인 사람들의 내일을 즐기고 싶다. 그러나 이 여행의 기차 출발역이 꼭 대한민국 이길 소망한다.

그렇게 말도 많던 남북한 철도 운행. 언제나 그렇듯이 시도에 그치겠거니 시큰둥한 생각으로 사실은,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끊어졌던 철도가 마침내 연결되고 휴전선을 넘어, 비행기도 갈 수 없는 북녘 땅을 그것도 기차로 육지로의 여행을 시작했다. 이 장면을 보며 가슴은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벅찬 뭉클함으로 기쁨보다는 슬픔이 몰려왔다. 큰 기쁨은 오히려 슬픔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1시간이면 가는 길은 56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려 가다니... 꿈처럼 생각됐던 북으로의 기차여행, 작은 꿈에서 시작된 이 소망은 마침내 현실로 옮겨졌다. 작은 출발은 곧 큰 역사를 만들리라. 남북한 통일 열차 시험운행이라는,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 일회성이 아닌 정말 통일로로의 초석이 되길 조바심치며 소망한다. 생각만 해도 마음은 벌써 통일 열차를 탄 것 같다. 남북한 열차 시험운행이 역사에 길이 남을 한 획이 되어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곳, 대전에서부터 유럽까지 기차여행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인간이건 동물이건 하나의 개체는 하나이어야 한다. 두 동강나면 죽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동강난 몸은 언제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 훌륭한 의사에 의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좋은 상태의 몸으로 재탄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훌륭한 의사이다. 고도의 봉합 기술이 요구되는 수술을 사이비 의사에게 맡길 수는 없지 않겠는가? 대충 봉합한다면 그 수술은 언젠가는 탈이 나고 만다. 엉터리 봉합 기술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수술 후유증으로 수술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못한 상태로 살 수 밖에 없다. 고통, 상처, 고민 그 많은 걱정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은가?

그러나 훌륭한 의사는 하루아침에 탄생하지 않는다. 긴 시간의 수련을 통해 훌륭한 의사가 된다. 통일에의 염원을 안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 모두 남과 북이 훌륭한 의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25의 전 세계적 비극, 천만 이산가족의 생살을 찢는 전쟁 후 지금까지의 아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남북이 대립해서 발생한 수천 건 이상의 교전, 전투..., 이러한 아픈 옛 상처를 이해하고 그에 걸 맞는 치유법을 모색할 수 있는 훌륭한 의사가 되길 우리 모두 기도하자.

통일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다. 과거의 아픔을 잘 알고 있는 어른들은 현실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 할 것으로 통일을 말한다. 그에 비해 젊은 사람들은 통일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 우리가 이뤄 놓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유럽의 통일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드는 비용이나 시간 때문에 한민족의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아주 오래전, 고구려의 지향점은 옛 조선의 영토를 회복하고 유민들을 통합하는 것이었다. 선조들 때부터 지향한 것은 한민족의 통합인데 우리 시대에 와서 그를 무시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어떠한 희생이 따르고 많은 비용이 소요될지라도 한민족, 한겨레인 이상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나의 꿈, 유럽에로의 기차여행을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통일의 그날을 염원한다.

07

울산광역시

- 마음을 잇는 철도 _ 161
- 어둡던 역사를 뚫고... _ 164
- 꿈은 이루어진다 _ 167
- 통일을 위한 나의 노력 _ 170
- 마음의 통일 _ 173
- '너'와 '나' 이기 전 '우리'였기에 _ 176
- 내가 본 금강산 _ 179
- 오늘도 우리는 분단을 지운다 _ 181
- 통일로 가는 열차 _ 184

마음을 잇는 철도

★
다운초 6_ 박종훈

“이곳은 56년간 끊어져 있던 경의선을 다시 개통하는 현장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통일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북한과 남한을 잇는 경의선을 개통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반도, 한 민족이 두 동강이가 난지 6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기차를 타고 북한으로 여행갈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올 것 같아 내 마음은 정말 두근거렸다.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도 우리는 $1+1=2$ 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갈라진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1+1$ 은 얼마가 되어야 할까?

얼마 전 나는 생일 선물로 어머니께 예쁜 운동화를 선물 받았다. 그 운동화를 자랑하느라 여기저기 쏘다니다 내 실수로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멋진 운동화지만 한 짝뿐인 내 운동화... 하지만 이제 신을 수가 없어서 결국 그 한 짝도 버리고 말았다. 나는 분단과 통일이라는 문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두 개가 짝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은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불렀을 때가 있었다. 아마 북한이 자신도 파괴될 수 있는 핵을 만들려 하고 100만 군대를 이끌려 해서인 것 같다. 서로를 오해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우리나라의 사정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 내 마음은 정말 아팠다.

60년 가까이 분단이 되어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게 되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이산가족일 것이다. 60년 가까이 헤어져 사느라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는 장면을 TV로 본 적이 있다. 이제는 힘이 없어 휠체어를 타고 남편을 만나 얼굴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할머니..., 이제는 백발노인이 되어 형제를 찾게 된 할아버지..., 정말 감동적이고 가슴이 미어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상봉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극히 일부일 뿐이다.

다음 문제로는 언어의 벽이 높아지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국어 시간에 북한의 말과 우리의 말을 배운 적이 있다. 우리가 쓰는 ‘오’를 북한에서는 ‘르’로 표기하고 김밥은 곱밥, 아주머니는 아주마이, 다이어트는 살짜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친구들은 와아아~하고 웃었지만 순간 걱정이 되었다. 통일이 되어서 북한의 친구들과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말이다.

다른 문제점들도 많겠지만 마지막으로 지나친 국방비를 말하고 싶다. 북한의 내 또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를 움켜쥐고 있을 지금, 북한의 거의 모든 자금은 무기의 유지를 위해 사용한다.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다. 언젠가 책에서 1년간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국방비는 전체 세금의 60%라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아직은 어린 나지만 그 사실은 정말 놀라울 수 밖에 없었다. 미국에서 주한미군의 지원금을 우리에게 점차 떠맡기고 있는 지금 앞으로 국방비는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어 그 많은 국방비를 우리를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살 수 있는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시작은 모두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작은 실천이지만 통일에 가까워지기 위해 나는, 우리는 어떻게 노력하면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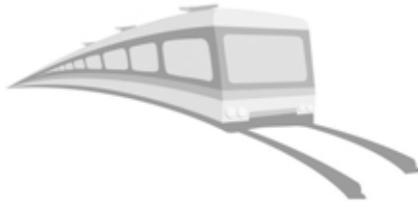
먼저 식량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북한에게 우리는 모금을 통해 그 문제점을 조금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린 아이부터 연세 드신 어르신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마음을 합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다음으로는 국가에서 많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면, 군사적인 면에서 서로가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남한이 서로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비록 철조망을 앞에 두고 총을 겨누고 있는 사이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 언젠가 철조망을 함께 걷어낼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멀어만 보이는 통일이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조금씩 노력하다보면 통일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앞에 있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기차가 자유로이 다닐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마음을 잇는 철도를 놓자!





최우수상

어둡던 역사를 뚫고...



남창중 3 _ 이현주

“고저, 감동이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도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 한 방송 프로그램서 북한에 공연을 다녀 온 가수가 북한에서의 공연이 어땠냐는 질문에 눈시울을 붉히며 말한 내용이다.

그가 처음 북한에 갔을 때, 감시원들까지 따라 다니면서 경계하고 마음이 담긴 선물마저도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땅바닥에 내팽개쳐졌을 때, 그는 참으로 쓸쓸한 심정이었던란다. 그러다 자신이 북한에 간 궁극적인 목적인 공연이 시작되고 민족의 노래 ‘아리랑’의 전주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흥겨운 무대와는 달리 관객석에서는 조금씩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단다. 그 가수도 서러움과 쓸쓸한 마음으로 흘러내리려는 눈물을 소매 끝에 적셔내고 무대를 급하게 내려오던 찰나, 조금 전 자신의 선물도 거절하고 어색해져버린 감시원이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로 내려오는 가수의 손을 잡고는 하는 말.

“고저, 감동이었습니다.”

그 말에 가수도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을 흘려내고 말았다고 한다.

노래 가사에도 있지 않았던가, ‘우리의 소원은 단 하나, 다시 만나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의 말들이 나온 지가 몇 년이고, 이렇게 내가 통일을 염원하는 글을 쓴 지도 몇 년째인가?

처음 이렇게 통일을 염원하는 글을 쓴 때가 초등학교 2학년쯤이었다. 그때는 '통일'이란 것은 곧 실현될 수 있는,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으로 지내 온 1년, 1년이 모여 어느덧 10년이 되어간다. 과연 당사자인 '이산가족' 들은 얼마나 더 애가 타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치는 가슴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 이산가족 1세대들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던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얼마만큼의 더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더 이상 '남한'과 '북한'이 아닌 하나 된 국가로 불릴 수 있는 것일까?

얼마 전 뉴스를 보니 탈북하여 태국에 수용되어 있는 탈북자들의 한국 이송이 지연됨에 따라 태국수용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이송될 때까지 단식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또한, 북한의 핵 문제로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핵 연구를 완전히 중단할 때까지 경제적 압박을 멈추지 않겠다고 한다. 이러한 소식들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건 몰라도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흔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외면상으로는 세계 강국들에 대한 도전으로 전쟁까지도 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쥐도 구석으로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식이 아닐까? 이럴 때에 우리나라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 아니라 하루빨리 통일에 앞장서야 한다.

만일 북한이 최악의 상황까지 간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일까?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우린 한 민족이다. 한반도에 공존하고 있는 하나의 나라이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 모든 매체에서 언급하는 대선! 오래전의 과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민생안정 정책을 펼치고, 무슨 경제 발전을 이룰 것인지...

우리는 '한국'이 아니라, '한반도'라는 것을 먼저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통일 염원의 글을 쓰고 있는 날에 맞춰 감격스럽게도 56년의 오랜 기다림 끝에, 착공 6년 만에 경의선이 드디어 시범운행을 하였다.

초대된 100명의 승객 중 한 사람인 마지막, 최후의 경의선 기관사 한준기 용은 '죽기 전에 다시 개성 역에 오다니...',란 말로 남북한의 철길 개통에 감격하며 6·25전쟁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며 군사분계선(MDL)을 지나는

순간에는 모두가 눈물로 박수치며 환호하였다고 한다.

이제 철길도 개통되었다. 남한과 북한의 실질적인 거리가 좁아진 만큼 남한과 북한 아님, 우리 한민족의 마음에도 철길과 같은 고리가 연결되어 하루빨리 하나 되길..., 그래서 잠시 늦어졌던 세계화로 하나 되어 향해 가길...



꿈은 이루어진다



효정고 2 _ 임단비

신나는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도 우리 가족들은 어김없이 북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한다.

10년 전, 2007년 5월 17일 경의선 개통 시범 운영을 계기로 남-북은 이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당시에 나는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시범 운영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잘 몰랐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뉴스를 통해 그 소식을 전해 들으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무언가 대단한 일임을 느낄 수 있었다. 이듬해 여름에 나는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어서들 챙겨 나와~ 할아버지 기다리시잖니.” 오늘따라 아버지께서 자꾸 우리를 재촉하신다. “아휴~아범아, 괜찮다. 천천히 준비해도 돼.”, “아닙니다 아버지! 한시라도 빨리 남규를 보셔야죠.” 남규? 난 처음 듣는 이름인데..., 나는 당장 어머니께 여쭙어 보았다.

“엄마. 남규가 누구야?”, “승리야, 남규는 네 작은 아버지란다. 지금 북에 있는 작은 아버지 댁에 가는 거야.”, “우와~ 북? 우리가 북에 간다구?” 내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을 때 고등학생인 오빠가 노트북, 게임기 등을 들고 나왔다. “승현이 너 그걸 가져 가려구?”, “네. 거기 가면 없잖아요~ 가져가서 놀러구요.”, “휴~ 그럼 가져가서 사촌들이랑 사이좋게 해야 해.”, “네” 그렇게 우리는 개통된 경의선을 따라서 북에 있는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 아버지의 동생 그리고 나의 작은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역에 도착해서 내리니 작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마중 나와 계셨다. “아버지! 절 받으세요.” 작은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큰절을 올린 뒤 하염없이 우셨다. 할 아버지께서 작은 아버지를 부둥켜안으시고는 “너 혼자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애비가 미안하다.” 하시며 작은 아버지를 토닥이셨다.

그날 우리가 북에 내디딘 첫발은 지금까지 이어져 방학이 되면 북으로 향한다. 이번에는 가서 사촌 영수와 함께 수학 공부를 하기로 했다. 처음에 나는 북한 아이들도 수학 공부,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마냥 신기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와 같은 음식을 먹으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어린 마음에 나는 북한을 외국쯤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통일이 된 지금 2017년, 10년 전에는 꿈도 못 꾸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며 통일 염원의 비행기를 접어 날리기, 연 날리기를 하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서로의 유행가도 알만큼 가까워졌다. 내 짝지 은미는 다음 주에 북으로 이사를 간다. 은미의 아버지께서 북의 회사로 발령이 나서서 온 가족이 이사를 한다고 한다. 또, 10년 전에는 4박 5일 코스로 금강산 관광을 다니곤 했지만, 지금은 하루 만에 금강산 등산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라 경제도 더 부강해졌다. 초기에는 경제 수준의 차이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조금 힘들었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한강의 기적’도 이루어 낸 나라가 아닌가? 놀라운 속도로 서로 균형을 맞춰 가면서 현재는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많은 지하자원과 우리나라의 기술이 만나서 이루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전적으로 남한과 북한 어느 한 쪽이 잘해서 이루어 낸 것이 아닌 힘을 합쳐 이루어 낸 값진 성장이다.

이렇게 좋은데 왜 진작 통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념의 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민족끼리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서로에게 총을 겨누며 지내 온 세월이 아깝기만 하다.

그동안 작은 아버지를 가슴에 품고 평생을 눈물로 사신 할아버지가, 아버

지 없이 살아오신 작은 아버지가 가엾게 느껴진다.

“엄마~아빠! 얼른 가요~, 얼른….”

“애가 또 늦장이네! 최승리! 얼른 안 일어나? 늦었어! 지각이야. 일어나야지!”

“오잉? 엄마, 안 가?”

“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가긴 어딜 가. 얼른 씻고 나와서 밥 먹어.”

‘뭘야 이게 다 꿈이었다는 거야?’ 달력을 보니 2007년 5월 20일이다.

2017년도 아니고, 여름 방학도 아니고, 금강산에 하루 만에 등산을 갈 수도 없고 은미가 이사를 가지도 않고 무엇보다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다.

“으악! 안돼~” “어머, 깜짝이야. 안되긴 뭐가 안돼! 얼른 나와.”, “네”

그렇게 나의 달콤한 꿈은 끝이 났다 그러나 아직 통일의 꿈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믿는다. 언젠가 반드시 꿈에서처럼 남과 북이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갈 날이 오리란 것을!





통일을 위한 나의 노력



삼정초 5 - 최유진

‘통일’이라는 두 글자는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평소에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간혹 텔레비전에서 이산가족이 상봉을 하는 장면이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물자를 보내는 장면을 볼 때와 오늘날처럼 통일에 대한 글짓기를 할 때 빼고는 잘 잊어버린다. 통일은 곧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일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나는 통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다. 으레 어른들이 이루어졌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냥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통일에 대한 노력은 그저 말로만 하는,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달달 외우기만 했던 통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5학년이 되고 보니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다. 왜냐하면 통일전망대를 다녀와서 느낀 것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학년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이기 때문이라는 걸 서서히 깨달았기 때문인 것 같다.

작년 겨울 방학 때 경기도 과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위치하고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간 일이 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의지를 배우게 하고 통일의 염원을 기리기 위해 데리고 가셨다. 어머니께서는 남북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에 통일에 대한 글짓기를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는 망원경을 함께 보며 북한의 모습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다.

전망대 망원경을 통해 본 북한은 우리가 있는 곳과 너무나 가까이 있었다. 우리가 있는 곳과 북한지역까지는 임진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곳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460m로 비무장지대 폭이 가장 좁은 곳이라고 했다. 강 너머 북한에는 북한의 건물 몇 개가 보였는데 그것은 모두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사람은 살지 않는다고 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오고 갈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다. 한 민족이 반으로 잘려 이산가족을 만들고, 전쟁의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바라만 보아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통일 전망대 전시실에는 연도 별로 통일을 위한 노력의 사진과 설명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남북 적십자 회담, 이산가족 상봉, 북한에 물자 보내기 등 많은 노력의 흔적이 있었다. 머지않아 곧 통일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또 전시실 곳곳에는 북한의 생활모습을 알 수 있는 실제 모습처럼 꾸며놓은 방과 학교 교실, 북한 사람들의 의상,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교실의 책상과 의자에 앉으니 북한 친구들과 이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통일 염원실이다. 통일 염원실에는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천 마리가 넘는 학을 접어 엮어서 만든 목걸이와 학으로 표현한 그림액자 등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통일을 염원하며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보니 내 자신이 조금 부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통일 염원지에 이렇게 썼다.

“저는 이제야 우리 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통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통일이 되는 그날을 위해 열심히 맡은 일에 충실하겠습니다.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염원합니다.”

내가 쓴 통일염원의 글이 이 다음에 통일이 되었을 때 중요한 역사의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만 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 전망대에 다녀와서 통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것을 쉽게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 내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다. 관심을 가지면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주인이 될 우리들이 조금만 더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보탠다면 통일은 더 빨리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통일'이라는 두 글자를 자신의 이름처럼 가까이 해서 통일에 대한 염원을 키웠으면 좋겠다.



마음의 통일



월평중 3 _ 신명진

북한 핵문제로 인해 주춤했던 남북관계가 ‘경의선과 동해선 시험운행’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내가 작년에 북한 핵문제에 대해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이었다. 그렇지만 17일에 열리는 열차 시험운행을 통해 긴장 상태가 완화되고 경제교류도 활성화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우리 주변에는 통일 이야기가 나오면 “통일을 왜 해야 되는데? 통일을 하면 우리가 손해 보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통일을 하면 남북한의 경제적 차이로 인해 많은 예산이 쓰여질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손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통일은 과거의 암울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민족의 단일한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반세기 이상의 민족분열과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극복하고 민족의 참다운 역사를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휴전 이후 계속된 민족의 갈등상태에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런 남북한의 소모적이고 적대적인 대립 관계를 통일을 통해서 청산할 수 있고 이산가족 문제 등 인간적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이 앞당겨져야 한다. 그리고 통일은 국방비 감소, 자원 증가, 훌륭한 문화 형성 등에서 본다면 오히려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긍정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북한으로 비료, 소, 쌀 등의 물자를 보내주고 금강산 관광, 정상급 회담 등을 하며 정치적·경제적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북한 예술단의 공연과 우리나라 가수의 공연을 통해 문화적인 교류도 한다. 이렇게 통일을 위해 다방면에서 힘쓰고 있다. 물론 이런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남북 간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교류를 하고 서로 비난을 하기보다는 진정한 대화와 화해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신뢰와 믿음으로 통일이라는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남한이 중심이 되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북한도 또한 북한 중심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통일이라는 말만 앞세워왔다. 아마도 우리가 아직 통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럴 때에는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던 나라들의 통일 과정을 비교해서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예멘은 정치적인 합의로만 통일을 하였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 각종 사회 문제의 발생으로 인해 내전이 발생하여 결국에는 무력으로 통일이 되었다.

독일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여 통일하였다. 이 통일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국민의 유대감과 협동심이 약화되었다.

위의 두 가지 예를 통해 한 쪽으로의 일방적인 통일과 무력 통일의 위험성을 알 수 있고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할 최대의 과제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교류를 더 활발하게 진행하고 마음의 통일부터 서서히 해 나간다면 진정한 민족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면 '정치인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하며 나와 멀리 떨어진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텔레비전에서 이산가족 상봉장면, 대북 물자 수송 장면이나 주변에서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는 모습을 보면 우리와 친밀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라는 사람도 있다. 이런 무관심과 이기주의는 통일을 하는 데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홍보를 하고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이 분단이라는 현실을 극복하여 우리 역사와 문화, 땅을 함께 소중하게 지켜 나갔으면 좋겠다.





‘너’와 ‘나’ 이기 전 ‘우리’ 였기에



현대고 2 _ 김경선

“남북 간 열차운행이 완전히 정상 가동되려면 낙후된 북측 철로의 현대화 과정에서 소요될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 운행은 천리 길을 가는 소중한 첫걸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디어 오늘 기사 발췌 -

56년이라는 긴 긴 시간 동안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민족의 혈맥을 잇는 남북 철로에 힘찬 박차가 가해졌다. 아직은 시범운행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진 못했지만 끊어졌던 우리 혈맥의 일부를 다시 이음으로써 통일이 더 이상 내일의 과제가 아님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아직까지도 통일에 대한 찬·반 의견이 쟁쟁하지만 통일이란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본다면 이는 선택이 아닌 당연한 도리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남과 북이기 전에 이미 한 민족이다. 결국 통일이란 ‘너’와 ‘내’가 만나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닌 이미 ‘우리’ 였던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이득과 손해를 저울질하며 찬·반으로 나뉘는 것은 단순히 통일을 현재의 관점에서만 바라본 실수를 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에 대한 찬·반의 대립에 연연해 할 것이 아닌 앞으로 통일의 문을 어떻게 함께 열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주도면밀한 준비를 갖추나가야 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의 일부분 -

같은 환경에서 성장해 온 형제를 한번 떠올려 보자. 한 뿌리에서 뻗어 나온 가지이지만 우리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의견 차이로 다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심지어 쌍둥이일지라도 성격이 확연히 다른 경우를 볼 수 있듯이 말이다. 이처럼 같은 환경에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개개의 특성이 다르다면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 아래에서 살아 온 남과 북의 가치관, 생활방식의 차이는 얼마나 클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는 한 시인의 말처럼 남북의 통일 앞에는 넘어야 할 수많은 산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언어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 문화의 차이, 경제력의 차이 등등 미묘한 차이에서 오는 서로에 대한 이질감과 더불어 다양한 갈등이 빚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의 과정과 더불어 통일 후에 빚어질 갈등에 대해 관용과 포용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 문화적 교류를 통한 평화적 통일을 이끌어 낼 정부의 막중한 임무도 있지만 그보다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넓은 마음가짐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는 말을 떠올리며 말이다.

그럼 이런 갈등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적, 문화적으로 발전한 우리 남한의 문화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동독과 서독 사이의 벽은 무너지지 않고 있다. 이는 동독의 색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서독의 색깔로만 흡수하려 했기 때문이다. 비록 동독 주민의 찬성에 의한 흡수 통일이라고 할지라도 분명 오랜 시간 동안 동독만이 가졌던 문화의 색깔이 있기에 서독의 달콤함도 결국은 남의 것이란 걸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과 북의 고유한 색깔을 가지되 화합과 조화의 어울림으로 이 끌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분명 세계 속의 한국이고 우리의 통일은 단순히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화의 거센 바람에서 혼자만의 뜻심으로 버텨낼 수

없기에 우리의 통일 역시 단순히 남과 북의 화합이 아닌 세계의 도마 위에 올려두고 볼 일이다. 남과 북이 통일된다면 세계적 수출입의 중간 유착지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런 만큼 주변 강대국의 시선이 좋을 리 없다. 그렇다고 해서 통일을 하지 않아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민족만의 화합이 아닌 주변 국가와도 두루두루 하나가 될 수 있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사실상 북한이 핵문제로 인해 미국과 충돌을 빚고 있음과 더불어 독단적 정치라는 좋지 못한 시선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적, 문화적 차원의 개방화를 통해 북한의 세계화를 도움과 동시에 우리의 통일이 외세의 간섭이 되지 않도록 자주적 통일이라는 기본 뿌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 형제를 맞이한다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은 '너'와 '나'이기 전에 '우리', '우리 동포'였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본 금강산

수암초 4 _ 서봉기

나는 2학년 때 아빠와 함께 금강산을 다녀온 적이 있다. 처음 금강산에 간다고 했을 때 겨울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태백산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니 절차가 복잡했다. 우선 관광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증명서를 받아야 하고 출입 사무소에서 출입심사도 받아야 한다.

나는 비로소 북한에 간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였다. 남한과 북한은 같은 한국인데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금강산 관광 시에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는데, 특히 사람을 가리킬 때나 금강산 바위에 쓰여진 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안 되고 사진 촬영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북한 안내원들도 사진촬영은 거절하였다.

집결지인 통일 전망대에서 버스를 타고 비무장 지대인 DMZ와 군사 분사분계선을 지나 북측 출입 사무소에 도착했다.

북한 군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버스에 타서 또 검사를 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눈을 감고 있자 “깨우시라요.” 라고 했다. 나는 우습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했다.

금강산은 가는 곳마다 여러 모양의 기암절벽과 폭포가 많아서 아주 절묘한 모습이었다. 날씨도 변화무쌍 하여서 짙은 안개가 끼었다가 비가 오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맑아졌다. 그런데 금강산에 관광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남한 사람들이었다. 북한사람들은 왜 금강산 관광을 하지 않는지 궁금했다.

아빠께 여쭙어 보니 북한의 보통 사람들은 여행의 자유가 없고 경비가 비싸서 금강산 관광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다. 북한의 주민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말투도 듣고 싶었는데 아쉬웠다.

안내하는 북한 안내원이 “아직도 금강산에 올 사람이 남았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만큼 남한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뜻이다.

금강산은 아름답지만 금강산을 가기 위한 절차가 너무 복잡했다 그냥 자가용으로 쉽게 왕래할 수 있다면 참 편리하고 좋을 텐데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가 둘로 나뉘어 각기 다른 정부를 둔 나라는 한국 뿐이라고 한다. 우리는 한 민족, 한 나라인데 왜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 졌는지 정말 안타깝다. 남한의 뛰어난 기술력과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합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일본도 더 이상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기 힘들 것이고 중국도 우리 고구려의 역사를 왜곡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는 짓을 포기할 것이다. 우리의 영토와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이 되어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

뉴스를 보니 남북열차 시험운행이 실시되었다고 한다. 분단으로 발이 묶였던 열차가 56년 만에 처음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는 순간이 온 것이다.

2000년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후 7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하늘 길, 땅길, 바닷길이 다 열려 누구든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는다.

비록 지금은 시험운행이지만 이것이 실제 운행으로 계속 이어져서 백두산을 갈 때에도 비행기를 타고 중국을 거쳐서 가지 않고 기차를 타고 바로 갈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 아울러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 저 멀리 유럽까지 기차를 타고 여행할 수 있는 꿈같은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는다.



오늘도 우리는 분단을 지운다

온산중 3_ 김수진

우리는 무려 반세기나 되는 시간 동안 너무나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북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피를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다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버렸지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가끔 이산가족상봉이라는 이름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언제가, 텔레비전을 켜면 1분도 채 되지 않아 눈물을 흘렸던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슬프게, 아프게 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울 수 있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눈에 가득 맺혀있던 이슬이, 한없이 서려있던 안개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울산과 경주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치술령 정상에 망부석이 있습니다. 남편을 그리워하다 돌이 된 아내, 망부석 앞에 서서 아내의 마음이 되어 본적이 있습니다. 돌이 되어서라도 남편을 만나야겠다는 아내의 마음이 북한의 가족들을 하염없이 그리워하면서 통일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이산가족들의 마음과 너무나 닮아 나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경의선은 있었다.

경의선은 없었다.

경의선은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로 통일열차가 시험 운행되던 날 지은 고은의 시입니다. 이 시를 읽는 순간, 그 뿌듯함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분단을 흔적도 없이 지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샘솟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험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이 기차에 올랐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달려 나가는 기차를 바라보며 한반도를 흔들던 사람들도 영상으로 지켜보던 사람들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어느새 제 입가에도 행복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분단이 지워지는 기쁨을 우리는 이미 맛보았습니다. 금강산관광사업으로 금강산을 여행하던 날,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을 펼쳐 모아진 성금과 물자를 보내던 날, 부산 아시안 게임에 북한 선수를 응원하던 날, 시드니 올림픽에 남북한 선수가 동시 입장하던 날,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세워지던 날 등 최근의 기쁨만을 잠시 떠올려 보아도 분단이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쁨도 중독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분단을 지웁니다. 철없을 적, 나는 통일의 필요성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분단을 지워나가는 기쁨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생기는 문제점을 먼저 생각했고 통일을 위해 쓰는 우리나라의 노력들이 못마땅했습니다. 통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내 생각이 자라면서 그때의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기적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행여나 누군가에게 그때의 내 마음이 들릴까봐 얼굴이 화끈 거립니다.

나의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이 나와 똑같이 이산가족상봉을 보며 눈물짓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통일포스터에 분단된 한반도를 더 이상 그리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소중한 자손들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하나 된 한반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똑같은 국기를 바라보고 똑같은 애국가를 부르고 똑같은 민족의 발전을 기원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걸어온 길이 달랐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서양과 동양의 차이와는 다릅니다. 한 부모를 지닌 형과 아우의 차이입니다. 서로 다른 동양음악과 서양음악이 어울려 만들어진 '크로스오버

음악' 이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도 섞이어 한데 어우러 지는데 같았던 것은 얼마나 쉽게 완전하게 섞이겠습니까? 한반도의 행복은 세계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분단을 지웁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오늘도 우리는 분단을 지운다.





통일로 가는 열차



성신고 2 _ 차지석

2007년 5월 17일은 분단의 벽을 가로지르는 남북철도 열차 시험운행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날이다. TV를 통해 도라산 역을 출발하여 개성으로 향하는 열차를 보면서 지난해 금강산 수학여행의 추억을 떠올려 본다.

북한 여행에 대한 기대와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버스를 타고 남측출입국 사무소를 지나 비무장지대의 고요함을 뚫고 북측출입국사무소에 도착하니 북한 가요인 '반갑습니다'와 '휘파람' 노래가 스피커를 통하여 흥겹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여행증을 검사하는 북한 군인의 냉담한 모습은 우리 일행을 긴장하게 하였다. 검사를 모두 마치고 금강산을 향하는 차창으로 보이는 북한의 황량한 바위산은 무척이나 이국적인 느낌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는 풍경을 보았는데, 경운기 한대 없이 일하는 농민과 야윈 소의 모습을 보니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숙소인 온천 밸리지에 도착하여 폭신한 이불과 냉장고, 텔레비전 그리고 호화스런 뷔페의 음식들을 보니 좀 전에 보았던 농부와 야윈 소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식사를 마치고 금강산에 올랐다. 금강산의 에메랄드빛 물과 거대한 바위들이랑 신비한 나무들은 마치 신선이라도 나올 듯한 장관이 펼쳐졌다. 산을 내려와 북한 예술 공연단의 공연을 관람했는데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현대화한 공연의 아름다움은 평생 잊지 못 할 것이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금강산 수학여행은 나에게 북한을 이해하고 통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한

뜻 깊은 여행이 되었다.

그동안 나는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비극이 무엇인지 모른 채 성장하여 왔다. 남한은 6·25전쟁 이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전 국민이 합심 단결하여 노력한 결과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나,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 극심한 경제난으로 식량부족과 에너지 부족으로 생존조차 어려운 지경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평안히 생활해 오면서, 통일 문제는 나와는 무관한 일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금강산 수학여행의 체험 이후에 북한의 핵실험 보도와 남북이산가족 상봉장면을 보고 남북철도시험운행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었다.

먼저 민족구성원 전체가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평화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을 구제하고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해 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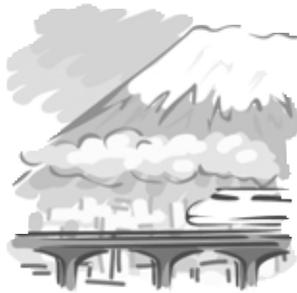
두 번째로 분단으로 인해 나타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한다. 최근에 남한에서는 매년 국방비로 20조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분단으로 인한 군사적인 대립은 한반도가 가지는 지정학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발전의 잠재력을 차단하여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평화통일이 이루어져 국방비의 많은 부분들이 사회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면 북한 주민들을 비롯하여 많은 동포들의 생활수준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 민족의 역량을 세계에 떨쳐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고려해 볼 때 통일 후 국가의 균형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엄청난 통일비용의 부담이 예상된다고 하지만 좀 더 먼 훗날을 생각해본다면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개발되지 않은 자연은 남한의 기술력과 함께 한반도를 강대국의 대열에 설 수 있게 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하에 남북한의 문화와 사고 방식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변하면서 남북한 간의 민족 이질성이 심화되어 왔다.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하루속히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분단으로 인해 낭비되는 경제적 지출을 줄이면서 민족번영의 새 시대를 우리에게 선물해 줄 것이다. 또한 통일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가 강대국으로 우뚝 솟아 우리 민족의 기량을 널리 떨치고, 분단으로 인해 단절된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를 하나로 이어줄 것이다. 이러한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력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비극을 막기 위해선 국가안보를 철저히 지켜나가면서 북한이 개방하고 경제적인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가야 할 것이다.

통일 열차를 타고 북녘의 산하를 자유롭게 달리는 소망이 실현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간절히 불러본다.



08

경기도

- 휴전선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_ 189
- 마음속의 통일 _ 192
- 통일국가의 청소년의 교육자, 정부 _ 195
- 통일을 향해 달리는 기차 _ 198
-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_ 200
- 2박 3일의 꿈 _ 203
- 경의선을 따라서 _ 206
- 통일에 관한 쓸데없는 고정관념들 _ 210
- “철마는 달리고 싶다” _ 213

휴전선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
세종초 6_ 김규식

얼마 전 군립도서관에서 빌려 온 <노근리, 그 해 여름>이라는 책을 읽어 보았다. 말로만 듣던 전쟁의 참상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전쟁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 전쟁을 경험했던 어른들을 생각하니 정말 무섭고 힘들었을 것 같다.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면서 싸우는 것도 억울한 데 아무런 죄도 없이 죽어야 한다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런데 그런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한을 남겼다. 휴전선... 넘을 수 없는 장벽이 가로놓인 것이다.

6월이 되면 우리는 이런 아픈 기억들을 떠올려야 한다. 6월 6일 현충일과 6월 25일 한국전쟁 기념일이 다가오면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천만 이산가족의 마음은 애가 탄다. 보고 싶은 부모 형제를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고통이 56년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금강산 관광도 할 수 있고, 개성공단에는 남한의 공장들이 들어서고, 남북이산가족의 상봉도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또 얼마 전(5월 17일)에는 남북을 잇는 남북철도(경의선, 동해선)가 시험운행을 하였다. 이제 통일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아 남한에 비해 경제발전도 늦고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어 탈북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다가 북한 핵문제가 세계의 비판을 받고 있으니 걱정이야. 그런 북한 때문에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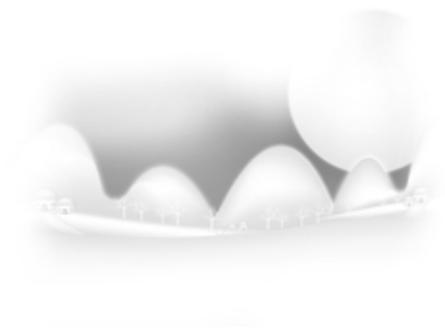
리나라가 점점 곤란해지는 것 같아 북한이 싫어질 때도 있었다. 그래서 통일일이 되면 우리 남한이 손해 본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차라리 이대로 영원히 통일이 안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다. 북한을 돕기 위해 쌀을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여겼다. 그런데 이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기아들을 돕는 일도 하는데 같은 민족을 돕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의 외삼촌도 한국전쟁 때 북쪽으로 끌려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외할머니가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 후에 외할머니께서는 동생 소식이 궁금했는데 이웃에 사시는 분이 남북이산가족상봉에 다녀오신 후 소식을 전해 주셨다고 한다. 처음에는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만날 생각을 하고 자세히 알아보았더니, 이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다시 듣게 되었고 무척 실망을 하셨다고 한다. 더 안타까운 일은 어머니의 외숙모님은 80세가 된 지금까지도 딸 하나 키우시면서 외롭게 혼자 살아오셨다고 한다. 이렇게 사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어른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산가족상봉을 한 사람들은 만남 후에 더 고통이 심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막상 만나서 얼굴을 본 다음에는 계속 만나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남북통일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통일은 어느 한 쪽만의 생각으로는 어렵도 없다. 남과 북이 한 마음이 되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경제적 차이도 극복해야 하고, 북한 말과 남한 말의 차이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남과 북이 힘을 합칠 수 있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북한의 핵문제가 한반도의 평화를 깨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하루빨리 북한이 핵실험을 포기하고 남한과 함께 잘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남한의 과학 기술을 합치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잘 사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남과 북은 한 핏줄을 이어온 단군의 후손이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서로 위해주면서 잘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루빨리 남북철도가

다시 개통되어 북쪽 땅과 남쪽 땅을 자유롭게 밟을 그런 날이 와야 한다.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기차여행을 떠나 금강산과 백두산에 오르는 그날까지 통일을 향한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 휴전선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우수상

마음속의 통일



안화중 3 _ 이해지

언젠가 할아버지의 앨범을 보던 중, 전에는 보지 못했던 사진 한 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북한 금강산에서 찍은 사진인 듯 보이는 그 사진에는 낯선 할머니 한 분이 할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 사진을 보자,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난 할아버지께 이 할머니가 누구시냐고 여쭙어보았다. 할아버지께서는 6·25전쟁 때 헤어지신 사촌 누나와 이산가족상봉을 한 사진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보니, 얼마 전 할아버지께서는 전쟁 중에 헤어진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북에서 친척들을 만나고 오신 적이 있었다. 늘 텔레비전이나 뉴스에서 볼 때, 남의 이야기라고 느끼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우리 가족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의아하고 놀랐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만난 사촌 누나였던 것이다.

할아버지의 외사촌 누이로 전쟁 중 잡혀가신 그분은 북한에서 교사로 계시며, 결혼을 하시어 두 자녀를 두셨다고 한다. 이제 팔십이 거의 다 되신 나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 많이 늙으신 모습에 할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고 하시며 그날의 기억에 눈가에 눈물이 맺히셨다.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이 웬지 안되고 불쌍해 보였다.

사실 그동안 내가 보아 온 북한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모습이 전부였다. 마치 기계처럼 네모반듯하게 정렬된 모습으로 행진하는 군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마치 로봇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사람을 보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만화나 그림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또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 경기에서도 북한이라는 이름으로 출전한 모습들만 봐서 마치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를 보듯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 그곳에 할아버지의 형제가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또 이제는 할아버지께서 그분을 언제 또 다시 뵙게 될지 기약할 수 없는 현실에서, 혹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알 길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왠지 마음이 답답하고 슬퍼졌다. 그리고 이제는 딴 나라, 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실감하게 되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살기 힘들어 탈출해 오는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인 듯 느껴지던 것이, 이제는 같은 민족이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며, 공산주의 독재 체제 속에서 자유를 잃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치 내 가족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슬프고 가슴 아팠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별 것 아닌 것에 불평, 불만하고 살아왔던가 하는 생각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두가 한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하지만 막상 통일이 이루어지라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일들은 여전히 많다. 60년 가까이 떨어져 있던 민족이 하나로 합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남북 간에 나타나게 될 문화적 이질감, 북한의 낙후된 경제력 등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진정 하나 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이유로 통일을 미루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통일을 함으로써 우리에게는 더욱 밝은 앞날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통일이 되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씻고 우리의 자존심과 문화를 되찾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남북의 대치 상황으로 인해 국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방비가 축소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력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게 될 것이다. 게다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

리 할아버지처럼 북에 가족을 두고도 만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할아버지의 낯선 사진 한 장으로 인해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떠올려 보니, 그동안 분단된 우리 조국의 현실에 대해 무관심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할아버지의 사촌 누이를 직접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할아버지의 가슴 속 깊이 묻혀 있는 평생의 한을 풀어 드리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물려받아 이끌어 나가야 할 평화로운 땅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마음속 깊이 가져본다.



통일국가의 청소년의 교육자, 정부

★
은행고 3 _ 이송이

관문점을 지나 북한군의 긴장감 넘치는 검사를 통과하여 북녘 땅에 다다랐다. 가이드가 우스갯소리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낮춤말로 새겨놓은 환영 문구라며 소개한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 온 걸 환영한다.'는 기개 넘치는 붉은 글씨가 반겨주고 있었다. 나이 지긋하신 분들의 호도관광이나, 젊은 남녀의 신혼여행과는 다른, 오로지 호기심과 신기함으로 가득 찬 여행이었다. 정철의 '관동별곡'에서 공부했던 관동의 절경을 직접 온몸으로 체험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이처럼 남북한이 가졌던 50여 년의 긴가긴 공백기 동안 청소년들은 매체에만 의존하며, 기성세대의 통일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으로 만들어진 통일관만을 배워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최근, 리서치전문기관들의 설문조사는 청소년의 역사와 통일의식이 부재하거나, 미흡하다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분단된 조국의 현실 속에 살아온 청소년 세대는 통일에 대한 의식이 이전 세대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때론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통일에 대한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산가족의 극적 상봉이 자신과 상관없다는 생각들 때문에 점점 더 북한의 청소년들과의 이질감이 커지는 것 같다.

커져가는 이질감을 극복하기위해 우리 조상들의 역사에 대해 바로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근래에 들어 '동북공정'이라는 중국의 역사왜곡이 상당한 정치상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남북한 학자들의 공동연구를 통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며, 공통교과서를 편찬하여 남북 청소년들이 올바른 한반도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필수교과로 지정해 배워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눈으로 보고, 직접 만질 수 있는 북한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 역시 여러 시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해로만을 통한 금강산 여행이 이제는 버스를 통해 육로관광으로도 가능해졌다. 최근 남북열차의 시험 운행도 이루어졌다. 단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운행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회와 같은 교육진행시 정부의 지원이 이어진다면 교육의 발전과 동시에 통일에 대한 이해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골든벨 퀴즈대회' 나 '통일글짓기, 포스터', '북한음식 만들기' 등의 행사로 북한에 대해 이해하고, 민족성 정립을 돕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면서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의 역사, 통일외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은 남북한 평화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정신적, 의식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학생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산가족의 상봉이라는 눈물과 감동의 자리에 청소년의 자원봉사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활동을 부여하거나, 행사 진행을 돕게 하여 그 역사적인 상봉의 순간에 통일의 주역으로 자리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교육으로 느껴질 것이다.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새터민들의 교육을 돕는 것 역시, 남한의 학생들이 남북한 통일에 관심 보이고, 최선을 다하는 주체로 성장함을 보여주는 커다란 예가 될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통일을 염원하며 태어날 순 없을 것이지만, 자라면서 우리 민족의 과제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주체적인 청소년으로서의 참여가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에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통일관, 통일외식과는 다르게, 미래 통일국가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와 통

일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의 청소년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필요할 것이다.





통일을 향해 달리는 기차



통진초 5 _ 장민주

지난 목요일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다. 내가 발차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뉴스를 보시다가

“어머! 정말 역사를 깨는 일이네... 민주야, 빨리 와서 이것 좀 봐봐.” 하셨다. 난 귀찮았지만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얼른 가 보았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소식을 방송하고 있었다. 바로 56년간 남북을 달리지 못하던 철마가 5월 17일 11시 30분에 우리는 남녘 문산 역에서 북녘 개성 역으로, 북한은 금강산에서 제진 역으로 삼팔선을 넘어 기차가 달렸다는 것이었다. 엄마는 그 뉴스를 보며 계속

“정말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며 기뻐하셨다. 나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작년 내 생일 때를 생각하니 대단한 발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2006년 10월 9일은 즐거운 내 생일이었다. 그래서 가족끼리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TV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고 있다는 특보가 나왔다. 그 뒤 며칠 동안 그 뉴스로 시끄럽고 세계 여러 나라들도 우리나라가 금세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도 나는 ‘설마 전쟁이 나겠어?’ 하며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전쟁이 날까봐 불안하기도 했었다. 마침 그때가 내 생일이어서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물론 시범 운행이지만 경의선, 동해선 운행을 이루어 내다니..., 생각

해보니 놀랍고 반가웠다. 그래서 이 일이 시범운행으로만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뉴스에서 봤는데 남북 간 열차로 정식 개통될 경우 물류 수송과 남북 왕래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시베리아나 유럽까지도 열차로 다닐 수 있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잘 협력해서 꼭 이루어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한자를 배워서 조금 아는데 지금 우리는 끝날 종을 쓴 종전이 아니라 쉴 휴의 휴전이기 때문에 싸움을 잠시 쉬는 것 뿐이다.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에 우리나라도 긴장상태지만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가 이라크 같은 위험한 나라로 인식하고 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이미지가 좋아져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우리도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면 나라가 더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북한과 우리나라는 같은 민족이니까 꼭 다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 나와 동생이 서로 핸드폰을 가지고 놀겠다고 발길질을 하며 싸우고 있었는데 이것을 본 엄마가

“대한아, 민주야, 엄마는 너희가 이렇게 싸우는 게 제일 속상 하단다… 너희들은 가족이잖아.”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다. 북한과 남한도 한 핏줄을 나눈 형제인데 이렇게 등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단군 할아버지가 정말 속상해 할 것이다. 그리고 한 핏줄을 나누고 있는 형제가 서로에게 총을 겨눈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 안 될 일이다. 그러니까 통일을 꼭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통일 관련 프로그램이나 책을 즐겨 봐 통일을 했을 때 서먹서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어른들은 지금처럼 이산가족 상봉이나 물자 지원, 금강산 관광, 올림픽과 같은 친선교류 등을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통일은 우리 눈앞에서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가족들과 기차타고 백두산도 가고 유럽까지 세계여행도 할 수 있겠지!!!

“통일아, 빨리 찾아와서 기차타고 백두산 여행할 수 있게 해줘…, 꼭이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별망중 1 _ 김희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 잃어버렸던 문화유산이 돌아오는 것,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것 등은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는 풍경들입니다.

바빠진 현대 생활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적다는 것입니다. 처음 어머니께서 직장에 나가시기 전까지는 엄마의 잔소리가 고맙기보다는 지겹기만 했는데 막상 함께하는 시간이 적고 자주 뵈지 못하게 되니 보고 싶은 마음도 커지고 항상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보지 못해도 통화시간이 길어지는데 이산 가족들은 그동안 얼마나 그리움이 쌓였을까 생각해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중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사회책을 읽어보니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 내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둘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 북한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 기자였다면 아마도 북한에 대한 궁금한 점을 적은 노트가 집안 가득 쌓여져 있을 것입니다.

쑥스럽지만 제 꿈은 사람들에게 세상 소식을 들려주는 아나운서입니다. 꿈을 가꾸기 위해 신문도 자주 보고 있는데, 자주 눈에 띄는 기사는 북한에 대한 기사입니다. 북한에 대한 기사 내용은 좋은 소식 보다는 좋지 않은 내용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그 기사

밑에 한마디를 적어 봅니다. ‘10년 후 내가 반대로 알릴 기사’라고 써놓는 거지요. 예를 들면 ‘북한 식량 부족과 생필품 부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라는 기사가 있으면 10년 후 제가 아나운서가 되어 ‘옛 북한 지역 주민들, 영양 과잉 공급으로 비만 및 성인병 증가’라는 기사로 알릴 수 있기를 바라는 저의 소망의 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살기 좋은 북한 사회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애쓰다면 머지않아 발전된 통일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통일 한국의 모습을 꿈꾸어 봅니다.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고, 북한 친구들과 사물놀이 공연도 함께 볼 수 있고, 남북이 서로 사랑하면서 마음들이 통하는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면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서 살기가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언어도 달라졌고 풍습도 달라서 의사소통하기도 어렵고,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서로 왕래가 없었기에 서로 말투도 다르고 풍습도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도 각 지방의 사투리와 독특한 풍습이 있습니다. 북한 말과 북한의 풍습도 그런 지방 문화로서는 우리나라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통일을 위해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동안 국방비로 사용했던 많은 예산을 경제발전이나 국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사용하게 되어 더욱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 TV 프로그램 중에서 가상으로 북한 아이들과 문제를 푸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북한 친구들의 얼굴, 말투,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조금은 귀찮은 듯하지만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영어 단어 외울 때 북한말 하나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을 때 북한 친구들 밥 한 끼를 위해 기부하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경의선 철도가 시범 운행되었다는 무척 기쁜 뉴스를 보았습니다. 머지않아 기차를 타고 금강산도 갈 수 있고, 북한의 여러 곳을 여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복을 입은 북한 친구들과 손잡고 재미있게 지

내고 싶습니다. 사람은 작은 스킨쉽을 통해 친근감이 쌓인다고 하니 하루빨리 북한 친구들과 손을 맞잡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환하게 웃는 북한 친구들의 모습을 그려 봅니다.

우리나라 지도에 지금은 남과 북 둘로 나눈 선이 그어져 있지만, 원래 하나였던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계속 노력해야겠습니다. 하루빨리 제 자리를 찾아 돌아갈 수 있기를 기다립니다. 서로 웃으며 만날 그날이 벌써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2박 3일의 꿈

★
삼괴고 2 _ 윤정아

내금강이 50여 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내가 2년 하고도 6개월 전부터 꾸었던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2년 반 전인 2005년 1월, 나는 우연한 기회로 2박 3일 동안 금강산을 다녀오게 되었다. 가끔씩 그때 당시의 기록이 꿈꿈히 나타나 있는 사진첩을 들여다보면서 희미해져 가는 기억을 되살리곤 한다. 사진첩을 볼 때면 그 속에 배어 있는 북한 사람들의 눈빛과 북한 땅에서만 말할 수 있었던 냄새가 그리워진다. 잔뜩 긴장하면서 지나갔던 비무장지대, 나는 왼쪽 발부터 북한 땅을 딛고 그곳에 섰다. 북한 땅이라..., 내가 금강산에 첫 발을 내딛던 날은 함박눈이 내리고 있었다. 숙소까지 가는 동안 내가 본 북한의 모습은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보았던 우리나라 6, 70년대 시골모습 그대로였다. 짐 실은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을 데리고 눈보라를 헤치면서 어디론가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한 가족. 추운 날씨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은 우리를 향해 신이 나 팔을 흔든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과 그래도 순수함을 잃지 않았다고 증언하듯 어디에서든 손을 흔드는 이들. 뭐가 좋아서 저렇게 신나 할까? 불과 몇십 년 전 미군들에게 “기브 미 초콜렛”이라고 뿔 모르고 외치던 우리의 옛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다고 생각했다. 마음 한 구석이 이상했다.

금강산 산행 길,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다. 어느 정도 산에 올라가니 저 멀리서 몇 사람이 삼을 들고 눈을 치워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를 만들고 있다. 우리보다 어려 보이는 꼬마아이들부터 할아버지들까지 남녀노소 없이 모두들 산 속에서 삼을 들고 눈길을 뒹고 있다. 이 추위를 견뎌내겠다며 옷들을 모두 껴입고 불은 붉게 상기된 채로 삼질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있노라니 마음속 저 어디 깊은 곳에서 울컥한다. 저렇게 고달픈 일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웃으며 대답해 주는 그들의 눈빛은 너무나 투명했다. 그 눈빛이 너무 맑아서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선 채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춥고 배고프고 고달픈 삶 속에서도 저런 순박한 눈빛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진정 하나였을까?, 하나일 수 있을까?, 그동안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닐까?’ 스스로 물어보면서 길을 재촉했다.

북한을 떠나기 전날 밤 예술단의 서커스 공연을 보았다. 어깨 넓은 남자들이 인간 탑을 쌓고 무대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화려하게 움직인다. 여행의 마무리를 이렇게 짓는 것도 괜찮을 듯싶었다. 밝고 신나게 말이다. 공연이 계속 되면서 작고 가냘픈 아이들이 아슬아슬한 곡예를 시작했다. 어찌 그리 예쁜지 조금만 움직여도 작은 요정들이 움직이는 것 같다. 공연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 저렇게 분장하고 위험한 곳에 매달려서까지 요정흉내를 내야 하나? 저렇게 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말이다. 우리가 하나가 아니어서, 그 아이들을 자유롭게 지내도록 해주지 못해서 너무나도 슬펐다. 그리고 공연장에서 우리의 가락 아리랑이 흘러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이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다.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울림. 우리와 그들은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울림이었다. 금강산에서 떠나던 날 마지막으로 들었던 노래 가사는 이랬다.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그리고 난 다짐했다. 꼭 다시 만날 것이라고.

나는 6·25전쟁을 모른다. 문학 시간 전후소설을 통해서만 전쟁의 아픔이 무엇인지, 이산가족의 슬픔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기

에 텔레비전에서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는 장면을 볼 때면 슬프니까 같이 울었을 뿐이다. 그러나 2박 3일 동안 금강산을 여행하면서 북한 동포들의 순박한 눈빛을 보았을 때, 마지막 날 밤 아리랑을 불렀을 때, 전쟁의 상처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전쟁을 모르기에 통일에 대한 절실함도 없고, 그래서 나 같은 젊은 세대들은 통일을 반대한다고까지 한다. 그러나, 북한 땅을 밟고 그 땅의 흙냄새를 맡아본다면, 고달픈 삶속에서도 따스한 웃음을 잃지 않는 그들의 맑은 눈빛을 본다면, 그리고 눈물 속에서 아리랑을 불러본다면, 우리는 한민족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함을 느낄 것이다.



경의선을 따라서



덕소초 6 _ 이경복

우리 나라가 분단된 지 반세기가 지났다. 다행히 요즘에는 남과 북 모두 통일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역사적인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사상과 문화 그리고 체제가 다른 나라가 통일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만간 통일이 이루어지리란 흐뭇한 마음을 안고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경의선 철도를 타고 북으로 여행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이러한 상상이 하루빨리 현실이 되길 바라며 내가 그 통일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사실에 갑자기 새로운 조국의 애국자가 된 것 같아 입가에 벅찬 미소가 떠오른다.

때는 2010년 9월 18일. 우리 가족은 의주에 사시는 할아버지를 뵈러 덕소 역에서 전철을 타고 왕십리로 향했다. 왕십리 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탄 후 서울 역으로 가면 경의선 열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 이후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우리 민족의 애절한 염원을 담고 수십년을 그대로 서 있던 경의선.

이제는 그 경의선이 달리고 있다.

통일의 주역이 되어 우리 민족의 경제발전과 남북한 주민의 하나됨을 실현해주는 중책을 맡은 채 말이다.

평일이어서 사람이 많지 않았다. 드문드문 개성공단으로 가는 아저씨들과 산악회에서 나온 아저씨들이 눈에 띄었다.

경의선 열차는 북으로 북으로 계속 올라갔다.

“기왕에 온 것 북한 문화재나 구경하자꾸나.”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우리 가족은 들뜬 마음으로 문화재 구경에 나섰다.

먼저 개성 역에서 내려 송악산 기슭에 있는 고려의 옛 궁궐터 만월대에 닿았다. 919년 고려 태조가 도읍을 정하고 궁궐을 창건한 이후 400여 년 흥건적의 침입으로 소실될 때까지 고려 왕실의 위용을 자랑하던 곳이다. 대체로 황실이 평지에 만들어지는 것과는 달리 산의 지세에 따라 몇 개의 단지를 형성해 세워진 곳으로 매우 특이하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온 느낌이 들었다. 개성 남대문, 형화사 7층 석탑 등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유적지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잃어버렸던 우리 선조, 그것도 900년이나 이전에 살았던 선조들의 흔적을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다음에는 열차를 타고 평양 역에 당도했다. 평양은 남한의 서울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행정수도이다. 평양 시내에는 아파트들이 눈에 띄었다. 사실 아파트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아파트 없는 도시가 어디 있을까마는 북한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 같다. 아니면 알게 모르게 북한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때 내 옆으로 북한 군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제복을 입은 군인의 모습이 우리 군인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었다. 딱딱하고 무서웠다.

평양에서도 책과 음식을 팔고 있었다. 마침 배가 고파서 과자와 사과를 샀다. 은행에서 우리 돈과 북한 돈을 바꾸었는데 우리나라 돈 100원이 그곳에서는 1050원 정도 되었다. 과자는 비스킷이었다. 그곳의 기술력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과자처럼 맛있고 다양한 과자를 만들 수 없다고 한다. 조만간 경제가 발전하고 교역량이 늘어나면 만들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만월대 고려인의 피를 물려받은 같은 민족, 한 핏줄 아니던가.

다시 열차로 돌아왔다. 열차 밖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아쉽게도 그

곳의 자연도 남한처럼 많이 손상되었다. 공장을 짓느라 땅이 많이 훼손되었다. 참으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빚어지는 인간들의 이기심은 자연을 많이 손상시키는 것 같다. 마음이 아팠다.

자연이 손상되지 않고 아름답게 개발되어 인간과 조화롭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한 일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어린 세대에게 주어졌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다음 역에서 내렸는데 마침 역사 근처에서 탈춤 놀이판이 열리고 있었다. 우리 선조들의 해학과 삶의 애환이 느껴졌다. 재미있게 구경하고 다시 열차에 올랐다. 열차에 타자마자 잠이 들었다.

어머니의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 경의선의 마지막 역인 구 의주 역, 곧 신의주 역에서 열차가 멈춰 있었다. 우리는 내려서 택시를 타고 할아버지 댁에 갔다.

할아버지는 웃는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셨다. 힘들었던 차에 할아버지 댁에서 하룻밤을 잤다. 대청마루에서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

다음날 할아버지께서는 백두산에 가자고 하셨다. 우리는 당연히 가자고 했다. 백두산에는 신기한 것들이 많았다. 할아버지는 백두산을 열 번도 넘게 다녀와서 일명 ‘백두산 박사’라고 주위사람들이 부른다. 내가 물어보는 모든 식물들의 이름을 세세히 설명해 주신다. 나는 그런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웠다. 할아버지는 어떤 식물을 화분에 심어서 집으로 가져가라고 하셨다. 이름을 물어보니 ‘고사리’라고 하셨다. 요즘 보기 힘들 거라고 하시며… 정상에서 하루 종일 뛰어놀았다 산의 공기가 오염되지 않아 시원하였다. 다음날, 할아버지와 다시 온다는 약속을 하고 아쉬운 이별을 하였다.

할아버지를 뒤로 하고 우리는 금강산을 향하였다. 덕소로 가기 전 마지막 일정으로 잡힌 것이다. 동해선을 타고 금강산으로 갔다. 금강산의 일만이천봉을 모두 정복할 수 없는 노릇이니 그냥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다. 정상에서 보니 금강산의 모습이 한눈에 보였다. 굴도 구경했다. 신이 났다.

순간 통일의 염원을 이루어낸 우리 민족의 지혜와 현명함에 자긍심이 솟

았다. 영원히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한 번 어린 애국자가 되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금강산과도 작별을 고하였다. 아쉬웠지만 다음에 또 오자. 그때는 어른이 되어 일만이천봉 등반에 나서야지.

기차를 타고 원주에 내려서 중앙선을 타고 다시 덕소로 향했다. 한참을 가니 귀에 익은 소리가 들린다.

“이번 역은 덕소, 덕소, 이 열차의 마지막 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지금 집에는 할아버지께서 주신 고사리가 포자를 터트렸다. 길가 화단에도 뿌려놓고 화분에도 뿌렸다.

이 고사리가 커서 군락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통일된 조국도 새로운 꿈을 안고 21세기를 향해 달려가겠지... 힘차게 달려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저마다의 가슴에 흠뻑 젖었던 비극의 역사를 딛고 하나가 된 자랑스러운 민족의 힘과 역사를 느끼며 한민족의 후손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기필코 그럴 것이다.





통일에 관한 쓸데없는 고정관념들



포천여중 3 _ 최보미

며칠 전 과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너희들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 안 되었으면 좋겠어?”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우리들은 각본에 짜여 있더라도 한 듯 “아, 싫어요!, 개네랑 통일하면 우리가 손해예요.” 라고 외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의아해하시며 “무엇을 손해 보는데? 손해 본다는 건 너희가 어른들이나 주위에서 들은 소리 아니야? 너희들은 정말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니?”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우리 교실은 정적이 흐른 뒤 “아, 모르겠어요. 그냥 싫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정말 그동안 통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손해 본다는 생각도 그냥 어디서 주위들은 말 같아.’ 저는 과학 선생님 말씀에 공감하며 새삼 통일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남한보다 가난하다는 인식과 함께 그냥 통일하면 우리가 무조건 손해라는 고정관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냥 무심코 내뱉은 “통일하기 싫어, 우리가 무조건 손해야.” 이 한마디가 남한과 북한을 멀어지게만 하는 지름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머리 속에는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는 사이 남북을 절단시키는 무서운 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금이야말로 실제로 50년이 넘게 그어져 있는 휴전선보다도 더 허물기 힘든 마음의

벽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나라가 잠시 분단된 상태에 있는 것인데 이제는 너무나도 붙기 힘든 자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쪼개진 자석이 붙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통일에 대한 쓸데없는 고정관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하고 물어보면 물음에 대한 대답은커녕 “난 통일되는 거 싫어”, “맨날 왜 우리는 북한한테 쌀 보내줘?” 하며 짜증까지 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산가족 당사자들이라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과연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노인이 되어버린 이산가족들은 하루하루를 그리움과 아픔에 시달리며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이산가족 상봉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연세가 100세가 다 되신 할머니께서 지팡이도 간신히 잡고 북한에 있는 남동생을 만나 울분을 토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본 후 ‘얼마나 한뫼히게 보고 싶으셨을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겨우셨을까?’ 하는 안쓰러움에 제 마음도 눈물에 젖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불쌍한 할머니를 앞에 두고 “아, 나는 그냥 통일하는 거 싫어, 맨날 북한 애들한테 쌀 줘?” 라는 말을 무심코 뱉을 수 있을까요?

며칠 전 뉴스에서 수십 년 동안 끊어져 있던 철로와 열차를 복구해서 만든 남북간 경의·동해선 열차가 시범 운행을 하였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남북 관계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이산가족 할머니께서 꼭 그 열차를 타고 북한에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쓸데없는 고정관념까지 그 열차를 타고 싹 달아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열차가 달린 그날은 텔레비전에서 특보가 나오고 굉장한 일처럼 보도가 되었지만, 이제 몇 년 후에는 그 열차를 타고 북한에 가는 일이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모두 통일에 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이산가족 당사자들과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빨리 통일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국민 모두가 남북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한 번만이라도 신경써서 생각해 보신다면 그것이 야말로 마음속의 휴전선을 지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통일되면 우리가 손해' 라는 쓸데없는 고정관념을 씻어버리면 남북 간 경의·동해선 열차가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 봅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



문산고 2 _ 오정우

오늘은 남북을 잇는 철도의 시험운행이 있는 날, 우리 반은 대한민국 최북단에 있는 문산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혜택으로 내빈으로 초청받는 행운을 얻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17년을 살아온 익숙한 고장이지만 오늘날만큼은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게만 느껴졌다. 평소 무심했던 내 고장 문산이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고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는 장소로 사용된다는 생각이 들자 문산역 안으로 들어서서 나의 마음도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올랐다. 들어선 역내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발디딜 틈도 없이 꽉 차여 있었다. 기차 탑승에 선발된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흥분과 기대감이 넘쳐 흘렀고 내외 기자들은 남북열차의 시험운행에서 한민족, 한 핏줄의 염원을 읽어내려오는 듯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화창한 날씨, 푸르른 하늘을 배경으로 역 주위에는 온통 하얀 바탕 위의 파란 한반도의 깃발이 희망찬 밝은 햇살을 받으며 펄럭이고 있었다. 참석한 사람들도 모두 제 손에 통일의 뜻을 담은 한반도기를 흔들며 기대감에 젖은 축제 분위기로 즐거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사람들을 돌아보다가 나는 한편에서 어둡고 상기된 모습으로 가만히 지켜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분들은 실향민으로서 북으로 향하는 열차를 보고 싶어 달려왔지만 막상 열차를 보니 치밀어 오르는 한을 주체하지 못하고 반평생을 마음속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끓어오르는 응어리를 담고 계신 분들

이었다. 긴장된 모습으로 지켜보고 계시다가 탑승자들이 열차에 오르자 결국 할머니 한 분이 그 설움을 참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부짖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께서는 “나도 데려 가요. 우리도 고향에 가고 싶어.” 라며 가슴 속 응어리를 토해내셨다.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었던 광경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니 목이 메어지면서 가슴이 저려왔다.

‘이산가족, 오십 년도 훌쩍 넘었지만 저토록 처절하게 응어리진 통곡소리를 토해낼 만큼 실향민의 슬픔은 크구나. 이 땅에 할머니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자 나는 단지 내가 문산에 살아서 역사적 현장을 지켜보며 TV에 출연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만 들떠있던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나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금까지 가벼운 마음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맛살 위에 드리워진 설움과 그리움의 그림자, 기차 운임표의 종착역이 임진각까지만 적혀 있는 것들이 크게 보이게 되었다.

한반도의 허리가 잘리고, 남북을 가로지르던 철도도 두 동강이 난 채로 반세기가 지나왔다. 그 두 동강이 난 자리에는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내달렸던 열차는 문산 역과 도라산 역에서 끊긴 채 ‘철마는 달리고 싶다’ 라는 이정표가 남았고, 돌아갈 수 없는 고향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실향민의 향수어린 말만 맴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정말 이 철로를 따라 기차를 타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오늘의 행사가 통일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의 행사는 단순한 시험 운행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길이길이 기억되고 앞으로 희망의 약속을 할 밑거름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토막짜리 한반도의 운명을 짊어진 듯 기차가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희망의 앞날로 한발 한발 내딛듯 달리기 시작했다.

오늘의 이 열차가 언젠가는 분단의 사슬을 끊고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는 희망의 열차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언젠가의 희망의 열차에는 지금 눈물짓는 실향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웃는 얼굴이 타고 있을 것이다.

나는 아무런 경계도 없는 푸른색 한반도기를 꼭 쥐었다.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싣고 출발한 남북열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철마야 계속 달려라, 우리의 마음을 싣고 신의주까지 달려라.’ 하고 마음속으로 힘껏 외쳐보았다.



09

강원도

- 통일로 가는 길 _ 219
- 작은 배려와 따뜻한 관심부터 시작하자 _ 222
- 휴전선의 봄은 머지 않았다 _ 225
- 철마야, 통일의 꿈을 신고 달리렴 _ 228
- 북한 아주머니의 소원은 통일 _ 232
-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길 _ 234
- 통일의 풀밭을 바라보며 _ 237
- 할아버지의 훈장 _ 240
- 백두산 등반의 아픔 _ 243

통일로 가는 길

★
중앙초 5_ 김민지

지난 5월 4일 어린이날 전날 학교에서는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이지만 나는 설레는 가슴을 안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개회가 선언되었고 우리는 준비운동을 한 후 본격적으로 체육대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학년별로 치러진 우리 5학년의 첫 경기는 바로 '단체 줄넘기'였습니다. 시합에 앞서 각 반은 몇 분간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반의 차례가 돌아왔지요. 연습이 부족해서였는지 여기 저기서 발이 걸리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결국 우리 반은 단체 줄넘기 종목에서 꼴찌를 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꼴찌여도 좋다. 하지만 서로를 비난하거나 닳하면 안 돼. 아직 줄다리기와 단체 이어달리기도 남아 있으니까 하는 데까지 해보자.”

우리는 단체 줄넘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미운 말을 퍼부었던 자신을 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를 외치며 줄다리기 경기를 시작하였지요. 아까보다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영차, 영차”를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해 줄을 잡아 당겼습니다. 드디어 1반과의 경기를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첫 경기에 너무 힘을 쓴 나머지, 바로 뒤에 벌어진 3반에게는 그만 지고 말았지요. 그렇지만 단체 줄넘기 때보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의 마지막 경기인 단체

이어달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30명의 어린이들이 줄줄이 모두 나와 이어 달리는 경기입니다. 우리 반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다른 반의 추격에 3등으로 밀려나고 말았지요. 우리의 희망은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때 어디에선가 응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반 잘해라, 2반 잘해라. 최선을 다해라, 2반 잘해라!”

희망을 잃어가던 우리 반은 뜨거운 응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반 날쌔 돌이 윤지가 대 역전극을 펼쳐낸 것입니다. 운동장 반 바퀴를 뒤지고 있었는데 결국 따라잡고 역전까지 해 낸 것이지요. 마지막 30번째 주자까지 우리는 뜨거운 응원을 계속했고 이렇게 역전에 역전을 한 우리는 단체 이어 달리기에서 영광의 1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오늘의 체육대회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민족이면서도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엔 한반도 허리에 3·8선을 그어놓았습니다. 단체 줄넘기에서 우리의 발이 맞지 않았던 것처럼 60년 전 어른들의 마음은 맞지 않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싸우며 결국 남과 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줄다리를 할 적에 손바닥이 까지면서까지 이겨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몸을 다 맡기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남과 북은 서로에게만 맞는, 서로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만 하는 줄다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텔레비전에서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의 눈물은 몇 십년 만에 만나서 기뻐서일까! 슬퍼서일까! 아니면 그간의 서러움이 씻겨 내려가면서 나오는 울음일까!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부모님과 잠시만 떨어져도 슬픈데 말입니다. 잠깐이긴 했지만 그 시간이 이산가족들에게는 희망이고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일만 이천 봉을 가진 금강산 관광, 처음에는 바닷길이 열렸더랍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던 땅을 마침내 밟게 된 것입니다.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향 땅을 밟고 싶어 하시던 어르신들은 힘든 발걸음을 그 어느 때보다

도 가볍게 걸어가셨습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고향의 냄새를 맡을 수 있으니까요. 그동안은 먼발치에서 그리워만 했던 땅을 밟게 되었으니까요. 금강산에 다녀오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가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군사 분계선을 지나 북한 땅을 밟습니다. 그 버스들은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립니다. 최근 텔레비전과 신문에는 온통 열차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56년 만에 잘려진 한반도를 남과 북이 함께 꿰매고 매워 평화와 사랑이 담긴 열차가 “드디어 내가 간다.” 를 외치며 힘차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금강산 관광이나 통일 열차 이 모든 것들이 통일을 향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일까지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무수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희망을 품습니다. 꼴찌로 시작했던 우리 반 체육대회는 결국 이어달리기 1등으로 마쳤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서로 응원하고 사랑을 담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잘 달리는 친구들이 느린 친구들을 비난하고 원망했다면 우리는 결국에 이어달리기도 꼴찌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에 사랑을 담았고 마침내 해냈습니다. 자기네 편을 향해 줄을 힘껏 당기던 다른 반 친구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통일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남과 북이 서로를 미워하고 자기들만 잘 살려고 한다면 결국엔 희망도, 사랑도 사라질 것입니다. 서로를 보듬어 주는 것, 모자란 부분은 채워 주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관심부터 시작하자



봉래증 3 _ 정보람

『나라를 버린 아이들』이란 책을 읽으면서 북한이 아닌 남한에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란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 책은 고향인 북한을 떠나 중국을 떠도는 아이들, 일명 ‘꽃제비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이국땅, 중국에 가기 위해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야만 했고, 중국에 들어가서도 시장통에서 배추 쪄가리나 주워 먹으며 비참하고도 불안한 삶을 영위해 가고 있었다. 그나마 운이 좋은 아이들은 중국 공안원들 눈을 피해 남한 자원 봉사자들이 몰래 만든 ‘나눔의 집’에서 절망을 넘어 작은 희망을 키우며 살고 있었다. 그 책을 읽었을 때, 부모님께서 나를 남한에서 낳아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만일 내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나도 그 아이들, 꽃제비들과 마찬가지로 비참한 생활을 했으리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 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생각조차 하기 싫은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아이들이나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다른 체제 속에서 자유를 유린당한 채 살아오고 있다. 제대로 배불리 먹어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면서 50여 년 넘게 살아오고 있다. 6·25전쟁으로 고착화된 남북 분단은 우리에게 크나큰 아픔이 되어 가슴 한 구석에 남아 있다.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던 수많은 사람들, 죽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저버리지 못

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굶주리고 있는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사실 휴전 이후 우리는 그나마 작은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다. 그러나 휴전이 가져 온 평화는 진정한 평화라고 볼 수 없다. 언제 또다시 북한과의 갈등으로 인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작년에 있었던 북한의 핵 실험으로 남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포심을 느끼고 긴장하지 않았었는가? 그때 북한의 핵실험 관련 뉴스를 보면서 나는 아버지께 여쭙었다. “아버지,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그러면 다 죽는 거지 뭐.” 라고 하셨다. 이제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이기 때문에 승자도 패자도 없이 함께 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셨다. 그때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세계대전때 일본 원자폭탄 투하의 비극처럼 끔찍한 일이 또 한번 나타날 것 같은 위기감에 아직도 몸서리가 쳐진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진정한 평화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통일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청소년인 우리 모두가 통일에 관심을 갖고 작은 일부터 조금씩 시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과 남한을 서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과 늘 말과 행동이 다른 북쪽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 될 것을 왜 굳이 통일을 하려고 애쓰는지 의문이 생겼던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을 북한의 알미운 행동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많은 피해와 위협감, 답답함을 주는 북한의 행동이 잦을지라도 북한의 비참한 생활상을 보고 적지 않게 도움을 주어 왔기 때문이다. 서로의 의견 대립은 체제의 차이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체제의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의 자세와 따뜻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둘째, 이산가족의 아픔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수련회에 갔을 때, 우리는 밤마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했었다. 그런데 이산가족은 단 며칠이

아니라,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가슴 속으로 그리면서 목소리도 듣지 못하는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산가족의 눈물을 결코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북한에 대하여 작은 배려와 따뜻한 관심을 가진다면 지금 겪고 있는 남북한의 갈등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서로 떨어져 가슴에 그리움이라는 명을 안고 사는 이산가족도 아픔을 털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 아이들의 힘든 삶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던, 눈물 흘려 슬퍼하던 사람들도, 꽃제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에 빠졌었던 나도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과 한 사람, 그리고 여럿, 모두로 퍼져서 남북이 서로 하나가 된다면 휴전선 철책 위의 녹과 마음의 응어리가 후드득후드득 눈물이 되어 떨어져 나갈 것이다. 몸에 굽힌 상처는 저절로 두뎃 나게 되지만, 상처에 박힌 총알은 빼내지 않으면 언젠가 상처는 굵아 썩게 되고 결국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과 북한 사람들의 마음에 박힌 한을 빼내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신중하고 정성스럽게 마음의 한을 빼내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 내고픈 마음만 있다면, 반드시...



휴전선의 봄은 머지 않았다

★
강릉고 2_ 최종휴

“여기에서는 남쪽도 북쪽도 없네. 그러니 한 식구처럼 편하게 지내라.”

오사카 조선고의 여학생을 짝사랑하게 된 일본 남학생의 시각에서 재일 조선인 사회를 그려낸 영화 ‘박치기’에서 북한 출신 재일 교포가 일본으로 밀입국해 들어온 남쪽 학생에게 한 인사말이다. 비록 몇 초뿐인 화면과 대사였지만 이 짧은 말 한 마디에 가슴 한 편이 아려왔다. ‘저들은 벌써 서로를 하나로 받아들이고 사는구나!’ 하는 부러움보다도 ‘왜 우리 민족의 화합과 상생의 장이 남의 나라 땅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 라는 탄식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한참을 착잡함으로 뒤척이다 잠든 나는 이 날의 일을 가슴 한 편에 묻어둔 채 잊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가슴 속에서 그 명대사를 다시 이끌어낸 또 다른 영화가 개봉되었다. 재일 조선인 학교의 일상을 담은 ‘우리 학교’가 바로 그 영화이다. 지금까지 재일 조선인들의 삶을 조명한 영화는 수없이 많았지만 대부분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았다. 평범하지 않은 학생들의 평범한 학교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우리 학교’는 높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인공기 배지를 가슴에 달고 ‘수령님’의 초상화가 높이 게양된 학교에 다니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북한 사람, 남한 사람이 아닌 ‘조선인’으로 불렀다. 남쪽 출신인 감독이 카메라를 들고 다가가도 서로 아무런 거부감 없이 미소를 건넨다. 남의 나라 일본 땅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들

은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정작 우리의 땅에서는 지금 어떠한가? 국내 유명 일간지의 칼럼리스트는 북쪽 동포들을 굶겨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자 말하고, 여의도의 정치가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대선에 연관시켜 정치적 도구로만 보고 있으며, 다른 쪽에서는 황금어장을 한 뺨이라도 더 차지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신동엽 시인께서 40년 전 말했던 ‘껍데기’와 ‘쇠붙이’들로 우리 땅이 메워져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일 축구 경기 때에 목청껏 함께 내지르는 응원구호나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의 개막식 때면 매번 볼 수 있는 남북한 동시 입장과 같은 풍경은 우리 민족에게도 화합과 평화의 봄별이 비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각종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에서 남북한이 동시 입장하였고, 동시 입장을 넘어 남북 올림픽 단일팀 논의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북측의 핵무기 보유 선언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되었고,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가능해졌다. 금강산에는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설 중에 있고, 국내 관광업체를 통해 개성과 내금강 지구의 관광이 곧 본격화 될 것이며, 개성공단은 이미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또한 금강산에서 영화 ‘황진이’의 시사회가 계획되어 있어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60년만에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통해 남북의 기차가 서로 오갈 수 있는 시범운행에 성공했다. 남북한 철도가 연결된 후에도 여러 차례 미뤄져 왔던 시범운행이라 더욱 뜻 깊다. 아직은 경의선쪽의 열차 통과시간표가 포화상태이고 동해선 철도가 남쪽 제진 역까지만 건설되었다는 점 등이 문제이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몇년 후에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부산에서 탈 수 있게 될 것이다.

1990년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룬 독일은 상호여행, 서신왕래, 방송교류를 활발히 하여 통일의 밑바탕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두 진영 간의 엄청난 소득격차로 인하여 서독이 경제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통일은 착실

한 준비와 든든한 기반으로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어야 한다.

신동엽 시인의 '봄은'이라는 시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이제 울/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우리들 가슴 속에서/움트리라/움터서./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눈 녹이듯 흐물흐물/녹여 버리겠지'

이 시가 말하듯이 이제 올 평화와 통일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과거의 잘못은 용서하고 두 손엔 총 대신 꽃을 들고 다시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따뜻한 가슴을 맞대고 '미움의 쇠붙이' 들을 녹여버릴 동포애로 화합해야만 한다. 일본 땅에서 그들이 보여준 사랑을 우리 가슴에도 하나씩 지닐 수 있다면 불신과 미움으로 얼룩졌던 휴전선에도 봄은 머지 않았다. 우리는 통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철마야, 통일외 꿈을 싣고 달리렘



황지초 5 _ 권지혜

2007년 5월 17일에 서울에서 개성을 잇는 경의선·동해선 열차가 군사 분계선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지난 50여 년 동안 달리고 싶어 했던 '철마의 꿈'이 다시 이루어졌다는 신문기사였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

오늘은 북한과 전화선이 연결되는 날이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서로 분단된 이후로 북한 사람과는 목소리를 듣지도, 직접 보지도 못했었다. 그나마 나아진 것이 'N' 세대라고 해서 인터넷으로도 북한 사람과 채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다행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꿈만 같던 리송이와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한번 시험해 보려고 지난 번 채팅에서 만났던 리송이와 함께 통화를 해보기로 했다.

“엄마, 저 북한에 있는 친구와 전화 좀 할게요.”

“북한 친구? 우리 지혜 친구가 북한에도 있어?”

“그럼요. 채팅으로 사귀 친구예요. 엄마.”

신기하게도 통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거기 송이네 집인가요?”

“네, 그런데요. 실례하지만 누구세요?”

그동안 인터넷 채팅만 해 온 터라 내 목소리를 몰랐던 송이는 나더러 누구냐고 물어보았다.

“나? 나 권지혜라고 해. 기억하니? 우리 채팅에서 늘 만났잖아. 인터넷으로 채팅은 해 봤지만 직접 너의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꿈만 같다. 이렇게 직접 통화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래? 니가 정말 지혜라고? 정말 꿈만 같다.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말이야…”

“요즘 북한은 어떠니? 우리 남한은 최신 기술도 많이 발달되어서 예전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는데… 요즘은 ‘FTA’ 같은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기도 하지만 말야.”

“우리도 그래. 작년 10월인가 우리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었잖아. 사실 나도 북한 사람이긴 하지만 핵실험을 한단니까 무섭기까지 했어.”

“솔직히 말해서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 답답해. 독일은 벌써 통일이 되었다는데, 왜 우리는 통일이 되지 않을까?”

2002년까지만 해도 평양 학생 예술단의 남한 방문과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으로 인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았던 남북통일이 다시 멀어지고 있는 느낌에 내 맘이 답답했다.

그리고 문득 지난 1월 가족들과 임진각에 갔을 때가 떠올랐다. 나무에는 노란 손수건이 가득 걸려 있었다.

“엄마, 저기 왜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어요?”

“응, 북한으로 납북된 선원들이 빨리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걸어 놓은 거란다.”

나는 묵묵히 노란 손수건이 걸린 나무를 지나서 자유의 다리 끝에 있는 철조망까지 가보았다. 낡아서 빛바랜 태극기가 걸려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 앞에는 어떤 할머니가 원한이 맺힌 듯 자식을 부르면서 ‘내 자식을 돌려 달라’며 철조망을 흔들고 계셨다. 그 모습을 본 나도 눈물이 글썽해 있었다.

그때 나는 생각한 것이 있다. 만약 이런 슬픈 현실을 딛고 통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보다 나라 힘도 세져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이나 '백두산은 자기네 산'이라고 우기는 중국 같은 나라들이 합부로 우리나라를 알아보지 않게 할 수 있을 텐데….

또 남한의 경복궁과 침성대, 전주비빔밥 등과 북한의 원조 평양냉면과 함흥냉면, 일만 이천 봉으로 유명한 금강산 등 볼거리도 많아서 외국 관광객도 많아질 텐데….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니 정말 통일이 되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잘 살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남북 간의 이산가족들도 다시 예전처럼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아까 송이와 함께 말했던 '북한의 핵실험'을 떠올리면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사라질 것만 같아서 불안하기도 했다. 이대로 통일은 '남북한의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어야 하는 걸까?

“송이야, 하지만 남북통일은 곧 이루어질 거야. 최근 2007년 5월 17일에 서울에서 개성을 잇는 경의선·동해선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통과했잖아. 지난 50여 년 동안 달리고 싶어 했던 '철마의 꿈'이 다시 이루어졌다는 신문 기사를 봤을 때 나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눈물이 나올 정도였어. 앞으로 통일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

“경의선·동해선 열차가 계속 운행돼서 우리가 직접 만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게 말야….”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

“지혜야, 어서 일어나. 아무리 일요일이라고 해도 이렇게 낮잠을 오래 자니? 일어나, 어서.”

어렴풋이 기차소리와 함께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꿈이었나 보다. 낮에 보았던 뉴스로 이런 꿈까지 꾸었나 보다. 이처럼 좋은 순간이 꿈이라니…, 꿈이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지난 1월 임진각에 갔던 기억을 더듬으며 그때 생각했던 것을 다시금 되새긴다. 비록 꿈이었지만,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 북한에 있는 친

구들과도 채팅으로나마 대화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니 꿈에서처럼 채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경의선 열차를 타고 송이네로 놀러가서 북한의 평양냉면과 함흥냉면도 먹어보고 싶고 금강산도 함께 올라 만세도 부르고 메아리도 듣고 싶다.

오늘 신문에서 본 경의선 개통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말고 이 철마가 통일의 꿈을 싣고 계속 달려 통일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할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아, 철마야, 좀 힘들고 지치더라도 통일의 꿈을 싣고 열심히 달려주렴….





북한 아주머니의 소원은 통일

대동여중 1_김영숙

남북으로 갈라진 지 언 50년.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산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이랑 헤어져 아픔을 가슴에 안고, 아물지 않은 상처에 쓰러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었을까요?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통일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도 못 느낄 겁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북한에서 넘어오신 한 아주머니랑 함께 음식점에서 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서는 몇 달에 한 번씩 중국을 다녀오시곤 합니다. 그 아주머니의 고향은 북한입니다. 10년 전에 중국을 통해 남한으로 도망쳐 오게 된 분입니다. 그런데 겨우겨우 험난한 길을 넘어왔으면서 다시 중국으로 넘어갔다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머니께서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북한에서 중국을 통하여 남한으로 도망치고 있을 때 아들이 그만 중국 공안에게 붙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혼자 자유를 찾아온 아주머니께서는 아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중국을 다녀오시곤 하는 모양입니다. 처음에 아주머니께서는 남한에서 정착금을 받기는 했지만 생활을 해야 하고 아들을 찾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는 한 민간교회단체에서 돈을 주면 아들을 탈출시켜 준다고 하여 돈을 지불했고, 고생하여 모은 돈을 아들을 찾아내는데 다 쓰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찾아내지 못하셨고 아주머니께서는 또 돈을 모으

기 위해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한 달에 조금씩 모 아둔 월급(100~200만 원)으로 몇 달에 한 번씩 배를 타고 아들을 찾는다는 희망 하나로 중국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렇게 돈을 벌기만 하면 중국으로 넘어간 지도 언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 하자면 그 아들은 중국 공안이 북한으로 넘겨 북한 위원들에게 몸이 불구가 되도록 맞았다는 소식만 전해져 아주머니의 마음은 제2의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중국에 가서 사기도 많이 당하셨다고 합니다. 세상 부모 중에 자식을 구한다는 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을 구해준다고 하면서, 사기일지라도 혹시나 아들이 내 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하는 믿음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란 희망 하나로 아주머니는 곳곳하게 다시 돈을 벌어 중국으로 갔다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들을 못 찾으시면 다음에 더 돈을 갖다 주면 될거야 하며 아무도 관심 안 가져 주는 곳에서 혼자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가족, 얼굴조차도 볼 수 없는 이산가족의 현실이 내 주위에, 내 옆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거대한 의미는 아주 작은 소망이 모인 것이 아닐까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라는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한 인간의 고통, 한 가정 이 같이 마주 보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것, 더 나아가서는 이산가족들, 이분 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는 것이 진정한 통일이 아닐까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북한 동포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못 먹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죽어 가는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아기들, 부모 없이 고아로 쓰레기를 뒤지며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북한에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통일'이라는 큰 선물이 빨리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길

★
춘천여고 2 _ 이현주

푸른 하늘을 바라본다.

푸르름, 이 무한한 자유와 평온은 내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한다. 지금 이 시각, 나처럼 자유로운 마음으로 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몰려온다. 목련이 만발한 뜰에 서서 계절의 향취를 마음껏 호흡하며 이 시간을 허락하신 절대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 책상 앞에 앉았다.

국어 시간 'NIE를 활용한 시사토론' 숙제를 위해 신문을 펼쳤다. 숨가쁘게 변화하는 세계의 모습들을 전하는 신문에는 늘 북한에 관련된 기사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잦은 도발적 행태,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기관과 일반 사회의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태도, 북한과의 각축전에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 대북외교 전략과 대북 지원에 대한 엇갈린 반응들, 그리고 진전 없는 회담에 관한 기사 등...

신문은 날마다 한 아름씩 북한에 대한 정보를 담아 전하고 있는 듯하다. 내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정치와 국제 질서의 구도가 느껴지고 국가 간의 쉽지 않은 입장과 입지가 모든 문제에 참여하게 얽히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신문을 보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통해 북한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곤 한다. 활자들 속에서 느껴지는 북한 주민들의 곤궁하고 메마른 삶과 한숨소리는 내 심연에서 연민과 공포, 울분을 일어나게 한다.

나는 내가 조금 전 느꼈던, 일상생활 속의 자유가 주는 기쁨이 모든 사람에게 공유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욱 북한 주민들을 떠올리면서 고통스러웠다. 그들에게 하늘은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그들은 과연 그럴 여유가 있을까? 많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은 올바른 화합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 앞에 나의 발걸음이 멈추어졌다.

어떤 경우이든 화합을 이루는 과정은 어렵다. 개인 간 문제에서 우리는 작은 문제들로 충돌하고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 절친한 친구사이도 이러한데, 하물며 수천만 명의 집단인 국가 간 문제의 통합은 많은 난제들이 제기될 것임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피해할 수 없듯이, 민족의 화합과 통합이라는 우리의 숙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화이부동(和而不同), 이것은 평화적 공존의 원리이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동화하려는 패권의 논리인 동(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철학이 화(和)이다. 나에게 감명을 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과 <더불어 숲>의 저자 신영복 씨는 동(同)의 논리가 화(和)의 원리로 바뀌어야 비로소 문명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북한 사회를 바라보면 그들의 사회는 동(同)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삶에 다양성이 설 공간은 없다. 이로 인하여 북한의 인권적 상황은 암담하다. 나는 특히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장래 희망이 국경없는 의사회의 일원이 되어 민간차원의 구호를 통해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갈등을 화합으로 이끄는 촉매의 역할이 되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주목을 끌었던 뮤지컬 '요덕 스토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념의 세뇌와 노동의 연속 속에서 개인에 대한 신격화와 우상화는 인간의 이성을 거역하는 행위이다. 헤겔은 인류역사의 절대목적이 자유사상의 발전에 있다고 천명했다. 어떠한 이념과 사상도 인류의 이상인 자유를 훼손한다면 설득의 기반

을 잃을 수밖에 없다.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햇볕 정책을 고수해 왔다.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은 세찬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었듯이, 정부는 북한에 대한 온건주의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국민을 설득했고 그 정책에 의해 많은 지원을 해왔다. 우리 정부는 물론 세계의 양심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북한에게 쌀과 비료, 구호 활동 등 각종 지원을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기를 갈망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정치적 탐욕은 우리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양상으로 많은 우려를 낳게 한다.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강한 만큼, 우리는 조금해질 수 있고 기대에 벗어난 상황에 많은 실망과 좌절을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조금한 마음을 다스려 통일에 대한 신중하고 구체적인 중장기적인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현명하고 탁월한 외교 전략이, 국민 개개인 차원에서는 통일에 대한 확신에 찬 염원과 건강한 철학이 필요하다. 우리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패권주의나 동(同)의 논리가 아니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화(和)의 철학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 갈등과 분열의 현재 상황을 뛰어넘어, 희망과 지혜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우리의 뛰어난 두뇌와 자연의 치유능력, 열정을 지닌 젊은이, 인간의 불굴의 정신이 있는 한 아무리 상황이 암울해도 희망은 있다.” 는 구달 선생님의 말씀처럼 통일된 아름다운 한국의 미래를 꿈꾸어 본다.





통일의 풀밭을 바라보며

★
월학초 6 _ 권순우

우리나라는 그동안 발전을 거듭해오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타개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도 적지 않다. 그 중 가장 시급하고 국민적인 것이 50여 년을 넘게 우리 민족을 괴롭혀온 통일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50여 년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오면서도 딱히 개선된 면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더 악화된 때도 있었다. 지금은 통일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안정적이지만 아직도 통일이라는 문을 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통일이라는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남·북한 국민들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통일의 자세에 대한 우화를 들려주려고 한다.

두 염소가 있었다. 한 염소는 하얀 염소였고, 한 염소는 검은 염소였다. 두 염소의 안식처는 자그마한 풀밭이었다. 처음에는 그곳에도 싱싱하고 좋은 풀들이 많았다. 두 염소는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였다. 풀은 점점 말라가고 사라져갔다. 하지만 다행히도 두 염소가 먹을 만큼의 풀은 있었기 때문에 들은 크게 고심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염소는 강 건너에 있는 푸르른 풀밭을 보았다. 그 풀밭에는 여러 염소들도 있었다. 두 염소는 그 풀밭을 본 후 그 풀밭을 동경했다. 그 풀밭을 본지도 여러 날이 지났다. 그때 하얀 염소가 결심했다는 듯이 말했다.

“우리 한번 저 강을 건너서 풀밭으로 가는 것이 어때?”

“아니! 절대로 안돼. 물살이 너무 세고 물 또한 차서 너무 위험해.”

하얀 염소는 낙심했다. 하지만 기죽지 않고, 자신만이라도 강을 건너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얀 염소는 첫 시도를 하러 나섰다. 검은 염소가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드디어 강을 건너게 되었다. 첫 시도는 무척이나 긴장되었다. 하지만 마음을 잡고 강을 용감하게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역시 강은 만만치 않았다. 발을 헛디더 물살을 타고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쳐 원래의 보금자리로 돌아왔다. 검은 염소는 돌아온 하얀 염소를 보살피며 말했다.

“넌 건너지 못해. 그러니 그냥 포기해!”

하얀 염소는 잠시 동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몸이 다 회복된 후 다시 강으로 나섰다. 두 번째 시도였다. 건너려하니 물살에 휩쓸렸던 그때가 생각나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건너기 시작했다. 강을 반쯤 건넜다. 하지만 힘이 빠졌다.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얀 염소는 깨달았다. 이렇게 시도만 한다면 영원히 건널 수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는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매일 달리고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노력했다. 철저히 준비한 후 드디어 세 번째로 강을 건너려하였다. 검은 염소는 말렸다. 두 번이나 실패를 했으니 그만두라고, 그냥 동경하면서 이곳에서 편안히 살자고, 하지만 하얀 염소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시도에서 거친 물살을 헤치고 드넓고 푸르른 풀밭에 닿게 되었다. 하얀 염소는 기뻐했다. 또 그와 동시에 풍성하고 맛있는 먹이와 많은 친구들을 얻게 되었다. 그때 검은 염소는 홀로 남아 외로운 생활을 하였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열쇠를 주고 있는가?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지금 풀밭을 발견하여 동경하고 건너려고 다짐하는 상태이다. 일단 우리는 적어도 현재에 만족하는 검은 염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통일을 이루어 장점들을 바라보고, 통일을 이루고자 시도하는 노력은 굉장히 훌륭한 자세이다. 하지만 아직 ‘강’과 같은 난관들이 많이 있기에 이것들을 무시하고 건너다면 첫 번째 시도에서처럼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번에 성공적으로 실현되었던 남북철도 시범운행이나, 문화적 교류, 이산가족들의 만남 등으로 남북 관계를 더욱 잘 알고, 통일이 된 이후 생길 문제들을 대비해야 한다. 또 정부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누구나 거친 물살과 차가운 물과 같은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 하지만, 결국 강을 건너고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를 거머쥐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도전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일 것이다. 눈부신 통일의 풀밭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이다. 통일이 되는 그 날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여~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자!





할아버지의 훈장



소양중 3 _ 이윤범

상자에는 먼지가 쌓여있었다. 그러나 상자의 뚜껑 테두리는 깨끗했다. 몇 해 전 할아버지의 생신 날, 우리 가족은 집과 멀지 않은 할아버지 댁으로 찾아갔다. 할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식사를 마친 후 할아버지는 말없이 벽 높은 곳에 걸려 있는 할아버지의 젊었을 적 사진을 바라보고 계셨다. 할아버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상자 하나를 꺼내오셨다. 낡은 상자는 테두리만 깨끗하고 뚜껑이며 바닥까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 상자를 조심히 다루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그 상자에 무엇이 들어 있을지 궁금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상자를 아주 천천히 내려놓으신 후 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뚜껑을 여셨다. 상자 안에는 훈장이 하나 들어있었다. 너무 낡아 원래의 금빛을 잃은 듯했다.

할아버지는 그 훈장이 50년도 넘게 된 것이라고 말하셨다. 그 훈장은 빛은 잃고 있었지만, 50년의 세월과 할아버지의 기억과 전쟁의 아픔을 담고 있는 듯했다. 그 훈장의 뒷면은 앞면보다도 더 낡아서 무슨 글씨가 쓰여 있는 듯했지만 읽을 수 없었다. 다만 1952년이라는 글자만이 겨우 보일 뿐이었다.

할아버지는 50년 전의 6·25전쟁 때 왼쪽 눈을 다치셨다. 그래서 지금도 왼쪽 눈이 잘 안 보이신다고 한다. 자꾸 훈장만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왼쪽 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께서는 먼지가 하도 많아서 먼지가

날리니 눈이 아프다고 하셨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왼쪽 눈이 아픈 것은 먼지 때문이 아니란 것을... 그리고 할아버지의 눈이 붉어진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건 먼지 때문도 아니고, 눈이 아파서도 아니었다.

내 눈에 비치는 할아버지의 눈물은 낡은 훈장의 빛 때문이었다. 표면에 녹이 슬어 아무런 빛도 없는 훈장의 눈부신 빛 때문에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고 계셨다. 그 빛의 한가운데에서 빛나는 버려두고 온 가족들과, 먼저 떠난 전우들의 추억이 너무 눈부셔서 흐르려고 하는 눈물을 할아버지는 애써 참으셨다.

할아버지가 바라보고 계셨던 벽에 걸린 사진을 보았다.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의 가슴에 훈장이 달려있었다. 그 훈장은 카메라 플래시 때문이었는지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빛을 튀겨 내고 있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낡은 훈장을 바라보았다. 녹이 잔뜩 생겨 낡은 그 훈장은 빛을 튀겨 내지 않았다. 다만 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리고는 자꾸만 할아버지의 눈가에 그 빛을 뿌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50년 전의 전쟁에서 가족들을 모두 북쪽에 두고 오셨다. 그래서 뉴스에서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방송하거나, 매년 6월 25일이나, 할아버지의 생신만 되면 울적해지시는 것 같다. 상자에 그 훈장을 가둬 놓아도 자꾸만 훈장이 50년의 세월을 건디며 품은 빛이 할아버지의 눈가를 자꾸 비추기 때문인 것 같았다.

어쩌면 50년 전의 번쩍이던 훈장보다도 할아버지의 눈을 슬프게 하는 건 지금의 낡은 훈장일지도 모른다. 아니, 아마 그럴 것이다. 1년 1년 해가 지나고, 하루하루 하루가 지날 때마다, 훈장이 낡아 녹이 슬 때마다 자꾸만 북쪽의 형제들과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과 슬픔이, 그리고 먼저 죽어간 전우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늘어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훈장이 낡아지는 만큼 늙어 가신다. 할아버지의 허리가 그렇게 굽는 만큼 할아버지의 왼쪽 눈도 점점 더 빛을 건디기 힘들어하고 침침해질 것이다. 얼마 전 어버이날, 할아버지를 보았을 때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도와 줘야 겨우 자리에서 앉고 일어나셨다.

빛은 우리를 밝게 비추고, 빛을 찾은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는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훈장의 시린 빛에서 아픈 눈부심을 찾았다. 그 시린 빛은 영원히 할아버지의 가슴에서 빛나고 할아버지의 눈시울을 붉힐 것이다. 그런 날이 이제 끝날 수 있도록 내가 할아버지를 도와 드리겠다. 남북 분단과 50년 전의 한국 전쟁의 상처는 할아버지의 다친 왼쪽 눈에는 너무 아플 것이다.





백두산 등반의 아픔



삼척고 2 _ 노승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약 4년 전에 부모님과 함께 “백두대간 우리나라의 정기”라는 주제로 등반 모임에서 주체한 백두산에 등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다녀온 적이 있다. 솔직히 백두산이라고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백두산에 갈 수 있지? 하고 의문을 갖기도 했지만 사실은 중국을 통해 중국 쪽의 백두산을 등산하는 것이었다. 이 여행에 앞서 의미를 생각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정기가 서려있는, 우리의 기상이, 우리의 혼이 담겨있는, 그 백두산을 왜 우리가 한 민족인 북한의 땅을 밟아 오르지 못하고 중국의 땅을 밟고 올라가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행 도중에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쪽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았던 충격 또한 잊을 수가 없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압록강 건너편의 북한 보초병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 가족이 손을 흔들며 반가움을 표현했을 때 그 또한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던 그때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 북한군이 우리와 똑같이 생겼으며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고요하고 한적해 보이는 시골길에 정말로 가끔씩 주민이 아주 바빠 지나가고 있었고, 산등성이마다 계단식 밭으로 덮인 것을 보았을 때 느껴진 까닭 모를 허전함과, 같은 민족의 땅이면서도 가볼 수 없을뿐더러 남의 나라에서밖에 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에 가슴이 답답해졌었다.

그런데 조선족이라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의 그 초체함과 방실방실 웃으며 “백원, 백원.” 하며 끝까지 차에 달라붙었던 그 아이들의 손과 목소리를 어린 나이의 나는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산악회의 아저씨들은 “더럽다.”, “만지지마!” 라며 돈을커녕 침을 뱉어버리고 쫓아내기까지 했다. 마치 우리가 북한을 멸시하고 부정적으로 보았던 과거와 같이..., 50년 전의 우리민족이 서로를 헐뜯는 것과 같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래로 향상되어 오던 남북한의 관계가 최근 화제였던 북핵문제로 인해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6자회담이 여러 차례 지연되고 미국의 대통령 부시가 인류에서 가장 사악하고 무서운 존재로 김정일을 지목하는 등 반갑지 못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들 뿐이었다. 과연 사상이 무엇이길래,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한 핏줄을 가진 우리 민족의 분단을 50년 이상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일까? 아니 유지해야만 했던 것일까?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2000년 6월은 역사상 특별한 달이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놀란 이 사건은 남북통일로 향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첫 걸음이었다. 텔레비전을 통해 본 두 남북 정상들이 포옹하는 모습은 당시 내가 어렸을 때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북통일이 벌써 실현되기라도 한 듯 그 잊을 수 없는 순간의 감동과 환희가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물론 그 일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까지 받으셨고,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6·15 남북 공동 선언과 함께 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 등이 가능해졌으며, 남한의 자본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개성공업단지가 완공되어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정책 중에서도 이산가족상봉은 우리나라 이산가족들의 소원이 현실로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난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측과 북측의 이산가족들이 서로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 오랫동안 불러보지 못했던 서로를 불러보는 장면, 지난날에 대한 회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주어진 통일의 과제는 결코

국가 차원의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닌, 결코 특정한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닌, 분단에 의해 직접적, 간접적 피해를 받은 사람 모두 포함해 우리 민족 모두의 공통된 과제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사상의 대립, 국가적 이해득실의 여부 등을 막론하고 통일은 우리가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수적 의무라는 확신이 들었다.

6·25전쟁을 치름으로써 우리가 얻으려는 것은 무엇이었나? 국토는 황폐화되고 국민들은 가난에 굶주리고,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우리가 원하던 것은 무엇이었으며, 결과는 어떠했는가? 평화의 원칙은 통일을 위시한 민족의 모든 문제를 다룸에 있어 폭력에 의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무력은 또 다른 무력을 낳을 것이며, 무력에 의한 것은 결코 영구적이지 못한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통일을 위해서는 비록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해야 하는 통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는 신라의 삼국통일의 의의에 있어 옥의 티처럼 항상 수반되는 한계점이 바로 외세(당시 당나라)의 협조가 있었다는 점이다. 나 또한 국사시간에 이 내용을 배우면서 신라가 굳이 외세까지 끌어들어야만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었다.

사실 7세기 한반도의 신라는 당나라를 끌어들여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었지만, 그로부터 1200년간 한반도는 중국의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주적 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함으로써 신라는 그 후에도 자주적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예나 지금이나 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자주적 원칙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의 첫 번째 원칙 또한 “자주적 통일”, 즉 통일을 포함한 민족의 모든 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민족 자결의 원칙에 입각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자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난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더욱 역사적, 사회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이 일명 '동북공정'을 내세움으로써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였던 고구려를 자기들의 역사에 편입시키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역사왜곡을 벗어나, 더욱더 중대한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 몇몇 학자들에 따르면 이 같은 중국의 역사왜곡은 미래의 통일된 한국에 대한 일종의 대비책이라는 것이었다. 즉,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옛 우리 땅이었던 고구려 땅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을 대비한 방지책이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민족의 통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도 통일된 한국은 경제력, 군사력 등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갖게 되며,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이 합쳐져서 매우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과 동시에 세계의 경제적 강대국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통일의 주체가 우리나라면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10

충청북도

- 아빠의 출장 _ 249
- “엄마가 더 좋아, 옆집 아줌마가 더 좋아?” _ 251
- 우리는 하나이다 _ 254
- 통일을 꿈꾸며 _ 257
- 마음으로 열리는 통일 _ 259
- 통일의 기차를 타고 _ 262
- 남북의 화해를 위해 _ 264
- 육조와 고무마개 _ 266
- 금이 간 얼굴이 다시 웃는 날 _ 269

아빠의 출장



남성초 3 _ 최우영

“안녕히 다녀오세요. 항상 조심하시고요.”

긴장한 듯한 엄마의 배웅을 받으며 아빠는 출장을 떠나셨다. 아빠가 출장 가시는 곳은 다름 아닌 북한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 모두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에 우리나라를 대표해 가시는 아빠가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 떨리는 마음으로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빌었다.

아빠가 가신 곳은 북한의 ‘신포’였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신 아빠는 신포로 가시기 위해 속초에서 배를 타셔야 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배가 뜨지 못해 다시 돌아오시기도 했고, 심한 배멀미로 얼굴이 핏색해지시기도 했다.

힘드신 아빠의 모습을 보며

“아빠,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 안돼요?”

하고 여쭙어 보았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하루빨리 화해를 해야 기차를 타고 갈 수 있겠지?”

하고 말씀하셨다. 어렸던 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 단지 우리 아빠가 좀더 편하게 다니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며칠 전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나오는 나에게 엄마께서 어린이 신문을 건네 주셨다. 신문 1면에 큼직한 기차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남북열차 시험운행’이라는 낯익은 단어가 있었다.

“엄마, 남북열차가 뭐예요?”

엄마는 대담대신 신문의 다른 면에 있는 녹슬고 오래된 기차 사진을 보여 주셨다. 이 사진은 또 뭐냐는 내 눈빛을 보시고 엄마께서 말문을 여셨다.

“우영아, 여기 있는 이 낡은 기차가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신나게 달리던 기차란다. 한국전쟁으로 남북이 갈라지면서 달리고 싶어도 못 달리고 이렇게 50여 년간을 이 자리에 서서 다시 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단다. 이제 이 기차도 소원을 풀게 되었구나. 남북을 이어주는 멋진 기차가 통일을 위한 시험운행을 시작했으니 말이야.”

엄마의 말씀을 듣고서 나는 몇 년 전 아빠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 신나게 말했다.

“엄마, 이제부터 기차 타고 북한 신포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엄마께서는 아직은 마음대로 다닐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노력한다면 곧 기차로 북한여행을 할 수 있는 즐거운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처럼 북한을 방문해야 하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말이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가운데 서로의 마음도 이해하고 더 가까워 질 것이라 생각한다. 통일 열차가 우리들의 희망을 싣고 수많은 이산가족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차가 되었으면 좋겠다.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서로 친구가 된다면 통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통일의 시작은 작은 노력의 한 걸음부터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통일을 위해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통일이 되어 세계에서 제일 잘사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통일열차야, 어서 달리렴. 우리의 꿈과 희망을 싣고 밝은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말아야.’

창가에 비친 환한 햇살처럼 내 마음도 밝아지는 것 같았다.

“엄마가 더 좋아, 옆집 아줌마가 더 좋아?”



한국교원대부설미호중 3 _ 황지영

“현지네 아줌마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오늘도 시작되는 엄마의 잔소리. 친절하고 언니같은 옆집 아줌마를 좋아하는 내게 엄마는 아침부터 유치한 질문을 하신다. 나는 못 이기는 척하며 모기만한 목소리로

“엄마가 더 좋아요.” 하며 학교로 향했다. 정말 우리 옆집 사는 현지네 엄마는 예쁘기도 하고, 돈도 많으시고 만날 때마다 친절한 미소를 지어주신다. 그런데 비해 우리 집은 부잣집도 아니고 우리 엄마는 매일 나에게 화만 내시고 잔소리를 하셔서 나도 모르게 엄마에겐 짜증을 내면서도 옆집 아줌마에게 더 사근사근한 미소로, 목소리로 대해왔던 것 같다.

문득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 미국 등 관계가 떠오른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 미국 등은 겉으로는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그들 나라에 유리한 어떤 협상이든 이뤄내려 한다. 맘에 들지 않으면 강자의 힘으로 밀어 부치려는 듯 억지까지 부린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리라. 북한은 식량난과 경제난에 허덕이며 우리 남한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자 한다.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라 했던가? 우리 남한사람들의 부모 형제들을 어찌 미워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던 중 문득 부끄러웠던 비무장지대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지난 10월, 호주에서 방문한 학생들과 함께 비무장지대에 간 적이 있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남북한 문제에 대한 많은 자료를 봐왔던 나를 비롯한 한국 학생들은 전쟁 영상과 땅굴체험을 하며 지루하고 따분해 하였다. 하지만 호주 학생들은 진지하게 남북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나에게 여러 가지를 물으며 통일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이었다. 진지하게 묻는 호주 학생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사 진 찍기에만 바빴던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정작 남북한 대립 문제와 통일에 관해 관심을 가졌어야 했던 내가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무관심했었던 것이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한 핏줄을 가진 우리 단일 민족의 인연은 끊을 수 없는 것인데..., 남북한 허리가 갈라져 살아도 다같이 정다운 형제 인건데...’ 하는 자책감이 들었다.

반세기 이상 분단된 남북한은 진작부터 많은 차이가 생기고 있다. 경제적 인 면은 당연할뿐더러 이제는 언어조차 심한 차이를 보여 남북한 회담을 하는데에도 통역사를 써야 할 지경까지 왔다고 한다. 서로 다른 이념 때문에 확실히 달라진 사고방식, 모두 극복하기에는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 하겠지만, 남북한이 무력통일이 아닌, 일방적인 남한의 흡수통일이 아닌, 올바른 통일의 길로 나아가려면 국민 모두가 진정한 통일의 의미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북한을 보듬어 안을 줄 알아야 한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알아 가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을 이루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 말했다. 21세기,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북한이라고. 통일이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자 희망일에 틀림없다. 남북한 에게 지대한 국방력을 지니고 높은 생산성을 가진 대강대국이라는 호칭이 붙을 그날이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과 통일에 드는 엄청난 통일비용이 그것이다. 실제로 남한과 북한은 이미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시초로 꾸준히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씩 디더왔다. 물론 그 동안 북핵문제를 비롯한 갖가지 문제들이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할 때도 있었

지만 앞으로도 휴전선을 오가는 통일 바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남북한이라는 분단된 두 나라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뤄진 이번 경의선 철도 개통 또한 헤어진 이산가족과 함께 웃을 그날이 머지않았다는 청신호이다. 나 또한 생각해본다. 나에게 이산가족은 없지만 북한 친구들과 얼굴 맞대고 통일을 염원하는 글짓기가 아닌 '통일이 되어 좋은 집', '통일을 이룬 지금'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 볼 그날이 올 것이라고... 이웃나라, 옆집 아줌마가 아무리 상냥하고 친절해도 진심으로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역사를 같이 한 한민족, 한가족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닌가 싶다.

학교 가는 길, 오늘도 어김없이 설거지 하시던 엄마의 말씀.

“지영아, 엄마가 더 좋아 옆집 아줌마가 더 좋아?”

나는 큰소리로 대답해드린다.

“당연히 우리 엄마가 최고지요!”





우리는 하나이다



대성여자상업고 3 _ 이혜림

통일은 한민족이 풀어야할 숙제이며 모두가 염원하는 소원이다. 모두들 한번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러보고 들어 봤을 것이다. 그 노래 안에는 간절히 통일을 기원하는 많은 이들의 눈물이 담겨 있다.

요즘의 젊은 사람들이나 나와 같은 학생들은 통일에 대해 그리고 남과 북이 타인이 아닌 같은 핏줄을 머금고 태어난 형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살아가기도 힘든 세상에 나오는 상관없어, 될 대로 돼라지 뭐, 라는 안일한 생각 속에서 통일은 점점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 되어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눈가가 시큰해진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형제끼리의 잔혹한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후 긴 세월동안 우리는 무던히도 잘 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긴 세월은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만들어 내며 남과 북을 타인처럼 살아가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변명 속에서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서독과 동독이란 국명으로 한 시절을 살아간 독일은 차디찬 얼음장벽이었던 베를린장벽을 무너트리고 뜨거운 포옹을 하며 감격의 재회를 이루어 내었다. 그들이 이뤄낸 이처럼 값진 쾌거를 우리는 언제쯤 맛볼 수 있을까? 우리에게 꼭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독일의 국민들과는 다르게 통일을 염원하는 강

한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각종 미디어 매체는 수시로 통일에 관련된 정보나 국민들을 동요시킬 통일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또 한 학교에서도 통일에 대한 교육을 학생들이 익숙하게 통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새 가지게 되어버린 북한을 향한 어색함과 달라져 버린 문화와 인식을 만들어 내었다.

잊지 말아야 하며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아직도 서로를 잊지 못해 괴로워하며 통곡하고 있을 가여운 이들을 위해 굳게 마음을 다잡고 실천을 할 때가 왔다.

10년 전보다 많은 것을 이뤄내고 해결해 오기도 했으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의식전환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학생들이 그러하고 이루어내야 함을 알면서도 머뭇거리는 어른들이 그것을 증명한다. 어렵고 험난한 길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간절한 마음과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된다.

나의 할머니는 가끔 통일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면 흘러가듯 말씀하시곤 한다. 내 두 눈이 감기 전까지도 통일을 이루지 못 할 것이라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통일을 황홀하고 행복한 꿈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한다. 통일이 결코 꿈만이 아닌 우리가 이뤄낼 현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 있다. 어린 시절 뛰어 놀던 정겨운 고향냄새 물씬 풍기는 그곳을…, 그리고 마지못해 놔버린 피붙이와 평생을 약속한 반려자를, 건강하게만 자라 달라던 어버이를….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해야만 한다. 한 몸이 강제로 뜯겨 둘로 나뉘었지만 우리는 하나였기 때문에 둘이 돼서는 안된다. 내가 흰머리를 가지게 되고 허리가 굽어 주름 가득한 손을 가지게 될 그날까지도 통일을 이뤄내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통일이 될 그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본래 우리는 삼쌍둥이처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였음을 기억하자.





통일을 꿈꾸며



송죽초 6_이예지

지난 5월 어느 주일 날 우리 가족은 청주 시내 구경을 갔다 온 적이 있다. 나는 집에 오는 길에 딸기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문의 가는 쪽에 있는 어느 딸기 밭에 차를 세웠다.

딸기 밭 집에는 새빨갛고 커다란 딸기가 한 바구니씩 담겨있고 어서 먹어 달라고 우리를 반기는 것 같았다.

“아주머니, 이 딸기 얼마예요?”

어머니가 물어보시자 일하는 아주머니가 “네, 만원임매다. 딸기레 참 달고 맛이 있시오.”하며 북한말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북한에서 왔나, 저렇게 젊은 아주머니가 북한말을 하네?’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을 때, 아버지도 이상한지 그 아주머니께 “조 선족인가요?” 하니까 “아니요, 내래 니북에서 왔씨요.” 하는 것이었다. 고향이 평안도라고 했다.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잘 몰라도 북한에서 온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았다. 딸기를 맛있게 먹으며 자꾸 그 아주머니를 쳐다봤다. 그 아주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뚝뚝하게 장사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께서도 “세상 참 많이 변했어! 북한 사람이 남한에 와서 잘사네!” 하셨다.

나는 북한말을 하는 아주머니가 왠지 친근하게 느껴졌고, 처음보는 얼굴이지만 이웃같고 또 친척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 우리나라는 한 민족, 한 핏줄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런가 보구나.’ 묘

한 기분이 그 아주머니를 자꾸 쳐다보게 했다.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속에서 언젠가 TV에서 보았던 ‘우리는 하나다.’ 라는 말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북한 아주머니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얼마 전 57년간 중단되었던 남북을 잇는 철도가 시험 운행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북한에서 온 딸기밭 아주머니 또 생각한다. 돈을 많이 벌어서 기차를 타고 선물을 한 아름 안고 고향으로 달리는 기차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앞으로는 통일을 꿈꾸며 글짓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현실을 기뻐하는 글짓기였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열리는 통일

★
각리종 3 _ 윤다영

“야아, 뜯어국 맛있겠다.”

“뜯어국? 뭘 뜯어?”

“응, 텔레비전에서, 그 왜, 달래 음악단이 나와서 전국을 돌면서 한국을 배우는 프로그램 있잖아? 거기서 봤는데 북한에서는 수제비를 뜯어국이라고 그런대.”

아직 방송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토요일에 느지막이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보면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들로 구성된 ‘달래 음악단’이라는 악단이 남한 이곳저곳의 문화나 지리 같은 것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다. 한번은 달래 음악단 중에 세 처녀가 딸기밭에 가서 딸기 수제비를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수제비를 보고서는 밀가루 반죽을 뜯어서 만든다고 북에서는 ‘뜯어국’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처음에는 뜯어국이라니 어쩐지 촌스런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자꾸자꾸 말을 곱씹어보니 참 정겹고 귀여운 느낌이었다. 밀가루 반죽이 냄비 안으로 푹푹 떨어지는 모습이 생각나는 순박한 말이라 웃음이 나왔다. 나는 지금도 수제비를 먹을 때마다 북에서도 뜯어국을 참 많이 먹었더라는 그 세 아가씨가 생각한다.

언제 한번은, 달래 음악단이 얼음낚시를 하러 갔다가 빙판 위에서 신나게 썰매를 내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정말 잘 타는 것이었다. 북에서는 겨울에 썰매를 정말 많이 탄다고 했다. 그런 솜씨로, 두

만강 근처에서 썰매를 타며 노는 척 하다가 재빨리 중국 쪽으로 내달릴 수 있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아팠다. 겨우 나 정도 밖에 안 되는 나이에 아니면 그 보다 훨씬 어렸을 적에, 북을 넘었을 텐데. 예전에 탈북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붙잡혀 가서 상상도 못할 엄청난 고문을 받는다는 얘기를, 우여곡절 끝에 탈북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들은 적이 있다. 혹시나 그런 조마조마한 순간은 없었는지, 중국을 거쳐 올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걱정이 되었다. 그래도 그런 목숨을 건 움직임이 성공했기에 정말 다행이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는 먼 거리도 아닌데, 우리의 말, 문화, 삶의 모습까지 반으로 딱 나누어 버린 철조망만 없다면 한 겨울 날씨보다 몇 배는 더 차가운 분위기 속에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내려올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정말 야속했다. 휴전선은 물론, 지금까지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제 곧 통일인 것처럼 정말 화해인 것처럼 회담을 벌이더니 아직도 진짜 통일을 원하는, 평화를 바라는 우리 동포들을 탈북의 위협 속에서 살게 하다니! 가끔은 우리가 내미는 화해의 손길을, 우리가 건네는 선물만 받고 돌아서 버리는 것 같은 북한의 걸모습이 너무 미웠다.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초코파이도 북쪽으로 보낸다는데 제발 굶주린 북한 친구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또, 어떤 이해관계보다도 진심으로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언젠가 마음으로 열리는 통일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예전에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러 한국의 이곳저곳을 다니는 내용의 프로그램이었을 때에는 ‘이렇게나 한국문화를 사랑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도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국인인 것을 내심 뿌듯해 했었다면 달래 음악단이 나온 뒤로는 북한에서 온 우리 동포가 갈라진 지 오래인 긴 세월 때문에 달라진 이쪽의 문화를 배우는 것을 보며 오히려 나도 그들에게서 북한의 문화나 언어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이란! 조금은 다르게 되어버린 두 문화 속에서 공통점을 찾고 그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하고 느끼는 즐거움도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모두의 마음속에서 뚫어 오르는 통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분출할 때이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듯이 우리가 예전에 하나였던 때처럼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한 마음으로 빌면 통일은 꼭 올거라고 믿는다. 오늘 밤 또 그렇게 두만강변에 서서 위험한 결심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통일의 이유는 충분하다. 함께 가길 빈다. 통일 앞에서...





통일의 기차를 타고

★
청주농업고 2 _ 황부용

푸르른 솔잎향이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치는 저녁,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 상당공원 즙을 지나가자 삼색의 바람개비가 내 시선을 고정시켰다.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바람개비, 그 옆으로 보이는 남북한의 대륙이 그려진 깃발이 바람을 타고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다. 그곳의 중간엔 꽃말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어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입가는 분명 미소를 지었고 눈은 '남·북한 6·15 선언 7돌' 이라고 읽고 있었다. 심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져 반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집으로 온 한 통의 전화! 할머니께 걸려온 전화였다. 바쁘신 엄마를 위해서 만든 반찬을 가져가라는 소식... 엄마는 오랜만에 할머니께 다녀오라는 심부름을 부탁했다. 상쾌한 산바람이 부는 곳에 자리 잡은 할머니네, 도착하니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입맛을 돋구었다. 할머니님과과의 둘만의 오붓한 저녁식사,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식사에 많은 추억이야기를 나누다가 할머니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세상은 암흑 속에서 정신없이 폭탄이 터지는 배경이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이야기를 이어나가셨다. 토끼 같은 자식들 밥 먹이려고 동남 왔다가 헤어지는 가족, 모르는 사람이 집을 찾아와 살려달라는 눈물어린 부탁,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아버지를 잃은 채 남과 북으로 피난 가는 모자와 모녀..., 얼마나 마음이 아려오던지...

나에게 가족이 있는 그 기쁨에 하늘이 너무 감사했다.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많이 보았던 남·북한 이야기 그리고 50년 뒤에야 만나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하던 주름살이 진 모자와 부녀..., 50년이란 긴 세월이 고통 속에 얼마나 한이 되었을까...

수많은 전쟁과 아픔을 딛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하고 서로의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북한의 인력과 노동력, 남한의 기술력이 협력된다면 통일로 가는 한 단계, 한 단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북한의 금강산 육로관광과 같이 남·북의 교류 협력도 발전해야 한다. 나중에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어 철도가 이어져 개통되어 TV 속 부둥켜 호느끼던 모녀와 모자, 그리고 가족들이 기차여행을 하면서 오붓하게 좋은 시간을 보내는 상상을 하게 된다. 입에 한가득 남녀노소 한민족이 웃음을 입가에 담는 날을...

가끔 설날 같은 명절에 TV를 통해 방송되는 한민족의 노래자랑과 공연을 보면 왠지 거리낌없이 즐겁고 어느새 한마음이 되어 같이 명절을 맞이하는 기쁨에 마음이 뿌듯하다. 남·북한이 만나 축구를 할 때, 남한선수가 넘어지자 북한선수가 내미는 손, 마음에 와 닿아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서로 한 발짝씩 다가가며 통일의 문을 열어야 한다.

중학교 때, 쌀을 모아 돕기 운동을 할 때가 생각이 난다. 비닐봉지에 한가득 담아냈던 쌀, 그 후 TV로 북한에 베품사를 하는 방송이 있었다. 남한의 기술을 부여하여 북한의 인력으로 같이하던 쌀농사! 성과가 잘 맺어서 좋았다.

우리 민족이 사는 작은 땅덩어리가 전쟁과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로 아직도 휴전선으로 갈라져 있다. 50여 년을 아픔과 가슴의 한과 눈물로 지내왔는데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줄 때가 되지 않았던가?

통일이 되어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남북의 화해를 위해



옥동초 4 _ 유지현

6·25를 생각하면 얼마 전 읽은 '몽실언니'란 책이 생각난다. 전쟁으로 부모님이 이혼하고 새엄마한테 난 동생을 키우려고 동냥을 해가며 힘들게 살아가던 몽실언니가 가여웠다. 전쟁시 북쪽사람들을 만났는데 남쪽에 있던 몽실언니에게 먹을 것을 주고 국기도 바꾸어주던 사람들….

“전쟁으로 만났을 땐 서로 죽일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으로 만났을 땐 그럴 수 없단다.”란 말이 자꾸 생각난다.

생각이 달라 지금은 서로를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또래 친구들은 만나 이야기하면 서로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 북쪽과 남쪽! 이렇게 분단국으로 벌써 50년의 세월을 넘어 화해의 시간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한 지도 몇 년이 지났다.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온 가족이 울음바다가 되기도 하곤 했었는데, 얼마 전에는 3·8선을 넘어 문산에서 개성까지 남쪽 기차가 금강산에서 동해까지 북쪽 기차가 남쪽사람들과 북쪽사람들을 태우고 달리는 장면을 보았다. 50년 넘게 끊어져 있던 철로가 연결이 되어 가차가 달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설레기까지 했다. 개성에 도착하기 전에 펼쳐진 밖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북녘 땅을 창으로 바라보며 노랫소리가 기차 안을 가득 채웠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몽클했다. 그러나 생각 차이였을까? 북쪽 사람들의 반응은 없었다. 그저

노래를 부르는 남쪽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래서 생각했다. 지금보다도 더 자주 만나고 이야기 해야겠다고…. 너 무나 자유로운 남쪽에 비해 북쪽은 아직 그리하지 못했다. 어른들의 만남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쪽 친구들과 함께 만나 이야기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는 기회와 남쪽 친구들에 대한 북쪽 친구들의 생각도 듣고 싶다. 언어차이가 있어 처음엔 쉽지 않겠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자꾸 만나보면 통하지 않을까?

난 생각해 본다. 기차타고 휴전선 넘어 수학여행 가는 것을….

먼 훗날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 개성 역에서 먹어보는 냉면과 순대, 이메 일과 흠피로 나누어보는 북쪽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꿈꾸어 본다.





욕조와 고무마개



한국교원대부설미호중 2 _ 박지영

친구야! 너에게서 답장이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너에게 소식을 전한다. ‘욕조’를 아니? 목욕물을 담는 통, 동네에 있는 목욕탕을 가기도 하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씻을 때는 이것을 이용하지.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는 가끔씩 물탱크 청소를 한다고 욕조에 물을 받아두라고 하기도 한다. 오늘이 그 물탱크 청소를 하는 날인가봐.

“지영아, 욕조에 물 좀 받아라.”

어머니의 말씀에 서둘러 고무마개를 찾아본다. 조그맣고 보잘 것 없는 시커먼 고무마개, 고무마개를 찾아 욕조구멍에 끼우면서 ‘만약에 이 고무마개가 없다면...’을 생각해 보았어. 비록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일지라도 고무마개만이 욕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지. 고무마개가 없다면 욕조는 구멍 뚫린, 욕실을 차지하는 천덕꾸러기에 불과할거야. 마찬가지로 욕조가 없다면 고무마개 또한 필요가 없겠지.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우리 민족의 뜻과는 무관하게 남북으로 나뉜 채 50여 년을 때로는 그리워하고 때로는 적대감도 느끼며 끼워지지 않은 욕조와 고무마개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지. 하지만 이제는 우리들의 노력으로 곧 완전한 욕조가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너도 보았지? 지난 5월 17일, 56년 동안 끊어졌던 철로를 다시 잇는 남북 열차 시험운행, 그 감격스러운 광경을 ‘남북철도 연결구간 시험운행’이란

플래카드를 달고 꽃단장한 기차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열차가 멈춰선 이후 반세기 만에 너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흥분되었는지 몰라. 어른들은, 지금은 시험운행에 불과하지만 이제 물꼬를 텃으니 유라시아 대륙이 열리는 것은 시간문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등 이런저런 말들을 하지만 난 너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더 마음이 설렌다.

봄이 무르익던 5월, 동해안 일대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일정중에는 너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통일 전망대에도 올랐어. 우리가 한민족이란 생각은 늘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네가 살고 있는 그곳이 마치 다른 나라처럼 느껴져 네가 있는 그곳을 멍하니 바라만 보았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다. 우리 힘으로 자주통일, 평화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 너에게로 가는 그 길이 그리 멀지 않으리라 생각되는구나.

우리의 경제력과 산업기술, 그리고 너희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이 합쳐져서 우리는 세계 강대국으로 도약하지 않았겠니? 가끔씩 작은 나라라 국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때면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 우리 민족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그러나 통일이 되어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도 한 두가지가 아니겠지.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기에 공산체제의 너희와 자유민주체제의 우리들과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특히 언어에서 생기는 이질감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남북의 통일과정에서 낙후된 너희를 돕느라 나라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이 한단다. 독일의 통일도 서독이 많은 부담을 짊어져서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야. 하지만 그 과제는 서로 돕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이해하다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숙제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니?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우리 민족의 한이 서려있는 녹슨 철마는 입진각으로 옮겨져 그동안의 아픔을 씻어내고 문화재로 길이 보존할 계획이라는 소식 들었지? 서로 부둥켜안고 울부짖고 언제 또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짧은 만남에 가슴이 아프고 차창 밖으로 내민 손을 놓지 못하는 아타까운 우리 이산가족들의 아픔도

한 날 옛이야기로 남았으면 참 좋겠다.

욕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건 조그맣고 보잘것 없는 시커먼 고무마개다. 그 무엇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 비록 당시 강대국들의 의사에 의해 분단의 아픔을 맛왔지만 이제는 우리 힘으로 자주통일,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니? 그래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통일조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노력하자. 욕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건 그 무엇도 아닌 작은 고무마개니까.

답장을 기다리며 너의 친구로부터.





금이 간 얼굴이 다시 웃는 날

★
청석고 1 _ 박영빈

작년 겨울방학 때였어. 부모님이랑 같이 인도에 갔었는데 우리에게 말을 걸었던 인도사람들 전부 남한인이냐, 북한인이냐고 묻더라? 솔직히 속으로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 남인이냐, 북인이냐 따지면서 구분 짓는 게 안타깝잖아. 더 실망스러웠던 것은 한국을 위협한 나라 아니냐고 묻지 뭐야. 물론 분단된 상태에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전쟁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미 세계인의 시선이 한국하면 5000년 역사를 꽃피운 아름다운 나라가 아닌 위험한 나라로 각인되어 버린 게 10년을 한 순간에 지나게 할 만한 한숨만 나왔었어.

그런 감정은 나만 느끼고 있는게 아니었어. 누나가 대학교 다닐 때,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었는데 같은 방을 쓰던 프랑스 룸메이트가 스위스에서 북한 여학생과 대화한 적이 있다고 해서 물어 봤더니, 저쪽에서도 통일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우린 서로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어. 그것 때문에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통일이 지체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 그런데 남한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통일? 통일되면 되는거고, 안되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야. 먼 미래를 바라보고 생각해야 하는 거잖아.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어.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니까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폭이 줄어들거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통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없다는 거야. 혼

히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지. 입시경쟁, 취업경쟁, 승진을 위한 경쟁 때문에 그곳으로 고개 돌릴 시간조차도 없는 거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엄청난 문화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바쁜 일상생활을 핑계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 한심하게까지 생각되는 거 있지.

얼마 전에 국회방송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를 북한에 두고 월남한 노신사가 나오더라. 아버지는 떠나간 외아들을 생각하다 그만 별세했고, 87세인 어머니의 말라버린 눈물샘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평소에 슬픈 영화를 보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나를 울게 만드는데 감정이라는게 뭔지..., 참 괴롭더라. 이산가족이 아닌 내가 보아도 코끝이 찡한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떨겠어.

우리가 태어나던 해에 우리같이 분단되었던 독일이 통일이 된지 17년이 나 지났는데 통일을 이루고 나서 동독과 서독 주민들의 불만이 말도 아니게 많아. 그건 당연 한거야. 수십 년이나 분단되었다가 다시 뭉친건데 이념도 다르고 체제도 다른 이들이 부딪칠 수밖에 없지. 문제는 북한과 우리들의 격차가 동독과 서독간의 격차보다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남과 북의 정부와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불편하더라도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 한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외국에서 북한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것보다 웬지 모르게 어색함이 감돌 것 같지 않아? 한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보듯이 바라볼 것 같아. 그만큼 서로가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

다른 나라를 보면서 항상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나라 곳곳을 막힘없이 돌아다니고 싶어. 항상 우리가 꿈꾸는 통일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돌려 줄 것이고 세계에서 우뚝선 강대국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

한번 외쳐볼까? 대한민국 만세!

11

충청남도

- 산 아래 할아버지 _ 273
- 계란을 못 먹는 여자 _ 277
- 분단이라는 이름의 트라우마 _ 281
- 도라산 역의 시작을 위하여 _ 284
- 금강초롱을 금강산에서 만났어요 _ 287
- 우리도 민들레 씨앗이 되어 _ 292
- 통일의 밑거름 _ 295
- 경희 언니에게 _ 299
-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 _ 303

산 아래 할아버지

★
응봉초 5 _ 유수연

딸아 딸아 어데가서 이다지도 날 울리나
딸아 딸아 이제라도 돌아올 날 됐지 않나
네가 네가 돌아오면 예쁜 사과 다 주련만
네가 다시 돌아오면 내 죽어도 괴안건만

나도 모르게 외워버린 이 노래.

어렸을 적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했다. 하여튼 옛날에 무지하게 유행했던 노래인 줄로만 생각했다. 분명 예전의 동방신기쯤 되었을 거라 말이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봉서산 아래에서 조그마한 과수원을 하시며 혼자 살아가고 계시는 할아버지시다. 과수원은 바로 우리 집 건너편인데 나와 내 친구들은 이 할아버지를 산 아래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산 아래 사시는 할아버지 중 가장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이다.

동네 마을회관에서 모임이 있거나 잔치가 있을 때 할아버지는 술 한 잔만 들어가시면 벌써 이 노래부터 나오신다.

기분이 좋아도

“딸아 딸아~.”

마음이 울적하셔도

“딸아 딸아~.”

참 신기하기도 한 게 같은 노래인데 어떨 때는 제법 신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금방 눈물이라도 쏟을 듯 슬프기 그지없다.

내 나이가 12살인데 한 6살 때부터 궁금했으려나? 벌써 6년째다.

아! 그리고 보니 내 인생의 반이나 저 노래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난 얼마 전 문제의 노래에 대해 엄마에게 여쭙어 보았다.

“엄마, 산 아래 할아버지요.”

“응. 할아버지가 왜?”

“몇 년 동안 왜 매일 같은 노래만 불러요? 지겹지도 않은가봐! 어떨 때는 부르시다가 눈이 빨개지신다니까.”

나의 물음에 엄마께서는 웬일인지 깊은 한숨을 내뿜으셨다.

“흠, 그건 말이야. 북에 두고 온 따님이 그리워서 그리신 걸 거야.”

“북? 북한이라고요?”

나는 북한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다. 북한은 나와는 정말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 인줄만 알았기 때문이었다.

“응, 벌써 50년도 넘으셨다지. 머물 자리를 보신다고 할아버지 먼저 남한으로 내려오셨다가 자리를 잡으시고, 북에 두고 온 부인과 딸을 데리러 3·8선까지 가셨는데 그때는 군인들이 막아서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내려오셨다는 구나. 그 뒤로 50년이 넘도록 저 노래를 부르고 계셔. 여태 혼자 사시면서 말이야.”

엄마의 말씀에 갑자기 내 눈이 시큰해졌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저 노래밖에 모르냐고 바보 할아버지라고 놀리기도 했는데...,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그런 짓을 저지르다니 내가 더 바보다.

50년이란 세월이 결코 적은 세월이 아닌데 얼마나 가족이 그리우시면 한시도 잊지 못하고 저러실까!

“갑자기 왜 그러니?”

내가 훌쩍이자 엄마께서 물으셨다.

“아, 아니 눈 속에 뭐가 들어갔나 봐요.”

나는 울적해진 마음에 시원한 공기를 마시러 열린 밖으로 나갔다. 밖에 나가보니 저 앞 사과나무 아래서 일하고 계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 할아버지의 연세 올해로 여든이 넘으셨다. 할아버지의 모습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애처로워 보이는지 마음이 너무나도 편하지 않았다.

‘저렇게 헤어져 사시는 분들이 할아버지 뿐만은 아닐 텐데…’

살면서 통일이 꼭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 같다. 문득, 뉴스에서 보았던 이산가족의 모습들이 떠올랐다. 그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

‘얼마나 아픈 상처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까…, 얼마나 지울 수 없는 그리움을 가슴속에 가지고 살아갈까…’

아무 느낌도 없이 쇼프로로 채널을 바꾸었던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졌다.

북한에는 굶는 사람들이 20만 명이나 된다는니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럼에도 북한은 우리의 도움을 번번이 거절할 때가 많다. 한때는 이러한 행동이 정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또한 저토록 애절한 사연을 가진 이산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게 할 때엔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고도 생각하였다.

하지만 북한이 그런 행동을 보인다 해서 우리도 경솔하게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통일이라는 것은 꼭 이루어내야 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끈기를 가지고 하나하나 나무 탐을 쌓듯이 그렇게 통일의 탐을 쌓아가야 한다. 그러면 서로의 믿음은 절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와 사랑을 보인다면 북한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분명 북한에도 산 아래 할아버지처럼 그리움을 가슴에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할아버지 뒤편으로 마치 빼알간 물감을 풀어 놓은 듯 노을이 그림을 그린다.

네가 네가 돌아오면 예쁜 사과 다 주련만
네가 다시 돌아오면 내 죽어도 괴안건만….

때마침 할아버지께서는 천 번도 더 부르셨을 법한 노래를 또 부르기 시작 하신다. 그 뒤로 붉은 물감덩어리 하나가 장단에 맞춰 춤을 춰 댄다. 오늘 은 제법 신명이 나시는 눈치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내가 두 손을 모아 커다랗게 소리쳤다.

“이? 이이?”

할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냐는 듯 눌러 쓰셨던 모자를 드셨다.

“통일요.”

“이? 통일? 통일 뭐?”

“통일 꼭 될 거예요. 꼭요. 꼭 될 거예요.”

나는 할아버지를 향해 오른손을 번쩍 들어 세차게 흔들며 보였다.

“암. 되야지. 되야구 말구. 고맙다. 고마워! 사과 먹고 싶거든 언제라도 놀러 와!”

할아버지께서도 두 손을 들어 세차게 흔들며 보이셨다.

손을 흔드시니 왠지 사과나무 향기가 나는 듯하다. 이 향긋한 향기가 멀 지도 않은 북쪽에도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계란을 못 먹는 여자

★
용남중 2 _ 김하림

무료함을 달래려 TV채널을 이리 저리 돌리던 중 어느 여자 주인공이 자신은 계란을 먹지 못한다고 울먹이며 말하는 장면이 나와 계란을 잘 못 먹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여자의 말투나 억양이 우리들과는 사뭇 달랐기에 호기심으로 보게 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계란을 먹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껍팍함이 싫어서 안 먹는 나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이름 주순영. 나이 40세. 북한에서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 역을 맡아 공훈배우로 활동하며 전성기를 누렸던 그녀가 왜 남한에 와 있으며 그녀가 계란을 못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의 경제난이 심해지자 탈북하여 중국에서 식당을 경영하던 순영씨는 중국 공안에게 기어이 적발되어 다시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졌고 다른 탈북자들의 운명이 다 그렇듯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생명의 위협뿐이었다. 그래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다시 선택한 것이 바로 남한으로의 탈출이었다.

구사일생으로 탈출에 성공하여 남한으로 온지 1년이 된 순영씨는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북한음식 전문 식당을 차렸다. 북한 음식도 맛볼 수 있으며 북한 노래와 춤을 구경할 수 있는 이곳의 직원은 모두 탈북자들이다.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는 탈북자들이 생면부지의 남한 땅에서 가족처럼 뿌리를 내려보자는 뜻에서 함께 모여 힘을 모았다. 김일성 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순영 씨는 요리솜씨 또한 일품이며 주방 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일일이 맛을 보고, 공연을 준비하는 직원들에겐 노래와 연주, 때너도 직접 가르친다. 이곳에서 함께 일하는 탈북자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외로운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는 가족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함께 탈출한 아들과 단 둘이 생활해 오면서 북한에 두고 온 나머지 가족들 때문에 마음 편안할 날이 없었던 순영 씨에겐 요즘 행복한 일이 생겼다. 지난 4월, 순영 씨의 뒤를 이어 북한을 탈출한 부모님이 당분간 보호를 받던 정북기관에서 나와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5년 만에 만난 부모님은 예전의 부모님이 아니었다. 5년 만의 상봉이지만 감격보다는 슬픔이 앞서는 순영 씨였다. 부모님의 얼굴이 몰라보게 늙고 쇠약해졌기 때문이다.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었던 아버지는 더욱 쇠약해졌고, 딸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던 어머니는 세 번이나 뇌출혈을 일으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던 것이다. 마음 같아서는 부모님들과 24시간 함께 있고 싶지만, 식당일 때문에 집을 비워야 하는 순영 씨는 출근할 때마다 발걸음이 무겁다.

딸이 식당으로 일하러 나간 사이, 순영 씨의 부모님은 익숙하지 않은 서울살림에 진땀을 흘리셨다. 가스밸브 잠그고 켜는 일에서부터 가스레인지 돌리는 일, 전기밥솥 사용법까지 어느 것 하나도 쉽지 않다. 순영 씨 역시 식당에 나가서도 집안에서 꼼짝 없이 간혀 지내는 부모님 걱정으로 일손이 잡히지 않아 자주 일찍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몇 년 전 어머니는 회갑, 아버지는 칠순을 벌써 맞으셨지만 그때 곁에 없어 따뜻한 밥 한 그릇 해드리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던 순영 씨였기에 생일잔치를 성심껏 다시 차려드리고 잔치를 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북한식으로 상차림을 하기로 하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남쪽에서는 볼 수 없는 음식과 진풍경들이 펼쳐졌다. 두 분께 화사한 한복을 입혀드리며 뒤늦은 효도에 가슴 아파하는 순영 씨. 하지만 부모님을 북에 두고 온 다른 탈북자들 눈에는 이런 모습이 부럽기만 할 듯하여 기쁨도 슬픔도 내색하는 것이 조심

스럽기만 하다. 탈북자들의 도움을 받아 순영 씨는 잔치 준비에 나선다. 뒤늦은 회갑과 칠순 잔치상을 받은 부모님은 감격스러워하고, 순영 씨는 두 분께 눈물의 큰 절을 올린다.

순영 씨가 흘리는 눈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하나는 부모님께 늦게나마 효도를 할 수 있어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यो. 또 하나는 북에 남겨두고 온 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에서 흘리는 눈물이었던 것이다. 순영 씨는 언제나 냉장고 안을 계란으로 채워놓곤 했는데 그 이유는 딸이 좋아하던 음식이기 때문이었다. 북한에서 나올 때 너무 어려 데리고 나올 수 없었던 딸은 엄마가 길 떠나기에 앞서 삶은 계란을 먹는 걸 보고, 자기도 먹고 싶다며 울음을 터뜨렸었다. 그 모습이 상처로 남아 아직도 계란을 볼 때마다 눈물짓곤 하는 순영 씨이다. 그녀가 계란을 먹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딸 때문이었다.

이렇게 딸 생각이 간절할 때면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녀의 또 다른 딸은 은주이다. 중국에서 같은 탈북자로 만나 남쪽으로 오기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했기에 쌓인 정도 돈독하기만 하다. 이젠 대학생이 돼 캠퍼스를 누리는 은주를 보면서 순영 씨는 커다란 위안을 받는다. 그리고 마산에서 혼자 살고 있는 은주에게 못 다한 엄마 노릇을 하고 돌아오는 순영 씨의 눈엔 하염없는 눈물만 흐른다.

방송을 통해 가끔씩 탈북자들의 생활상을 보고 듣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까지 나에게 그들은 낯선 이방인들이었다. 말투나 억양에서 오는 이질감뿐만 아니라 문화조차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는 다른 약간의 적대감마저도 느껴지는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엔 늘 색안경이 우선했다. 하지만 순영 씨의 기쁨과 슬픔을 보고 같이 행복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내 모습에서 그들도 똑같은 우리 민족임을 부정할 수는 없는 마음엔 그 어떤 것도 장벽이 될 수는 없음을 깨달았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조금이나마 더 가까운 곳에서 보기 위해 모여든 실향민들이나 탈북자들의 한숨이 임진각의 철조망을 녹슬게 하는 동안에 우리들은 무엇을 했는가? 해마다 6월쯤에나 통일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말로만 통일을 외치며 불쌍한 북한 어린이 돕기에 거액의 성금으로 생색만 내고 있지는 않았는가! 같은 민족이라고 남한 땅을 찾아온 탈북자들에게 대하여 진심어린 온정을 베풀 적이 있었는가! 운영 씨의 아들처럼 탈북자인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을 겪을까봐 방송에 얼굴이 나오지 않으려고 자기 방에 꼭꼭 숨어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를 그렇게 만든 사람 중의 하나가 나인 것 같아 얼굴이 붉어졌었다.

이제는 서로가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때이다. 겉모습만을 갖추는 발전이 아니라 북한 동포, 그들의 배고픈 굶주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야 할 때인 것이다. 아직은 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북한의 허기짐을 모른 척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하지만 50여 년간의 긴 역사 속에 가장 큰 희생자가 되어야만 했던 이산가족의 아픔, 어쩔 수 없이 나누어져야 했던 분단의 아픔을 하루빨리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인 것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통일이란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닌 것이다. 서로 아끼고 믿으며 어려움이 있으면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서로를 나누고 있는 그 철조망에서 목청껏 소리치면 되돌아오는 통일이란 메아리 소리를 가슴으로 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메마른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한 방울 눈물로 적셔 줄 수 있는 진정한 통일의 그날..., 서로의 숨소리를 가슴 가득 안아 보며 행복해 할 모습을 떠올리면서 눈을 감아본다. 그리고 딸 생각으로 계란을 못 먹는 운영 씨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당당히 대접받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게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계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와 달라요...”

분단이라는 이름의 트라우마

★
대천고 2 _ 안재훈

의학 용어 중에 '트라우마' 라는 용어가 있다. 정신적 외상이나 영구적인 정신 장애를 남기는 충격을 의미하는 말로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 즉 환영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예를 들면, 강도에게 목이 졸려 숨질 뻔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넥타이를 매려고 하면 그 교살당할 뻔한 기억이 떠올라 극심한 거부감이 드는 경우라던가, 칼 같은 뾰족한 물건에 찔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끝이 뾰족한 물건을 보았을 때 그 물건에 찔리는 환영을 보게 되는 선단 공포증 같은 경우가 바로 이 트라우마에 해당한다.

그런데 한 민족 전체가 이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경우가 있다. 바로 우리 민족이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 이 '분단' 이라는 이름의 트라우마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서 심지어 정신적·육체적 외상을 입은 지 57년이 지난 지금에도 휴전선이라는 이름의 철조망으로, 이산가족이라는 이름의 눈물로 남아있을 정도이다.

몇 년 전에도 한국 전쟁 당시의 형제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가 관객 동원 수천만을 넘어선 것을 보면, 우리 민족을 세차게 핏줄 분단이라는 상처가 아직까지도 얼마나 깊게 남아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사실 나도 '분단 트라우마' 의 간접적인 피해자 중의 하나이다. 비록 내가 태어나기 직전에 돌아가셨기에 한 번도 뵈는 적이 없지만, 내 친할아버지가 이북 출신으로 한국 전쟁 때 월남하신 분이며, 그 형제들이 거의 모두 북쪽

에 계시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1983년의 이산가족 상봉 방송 때 신청을 하셨지만 끝끝내 형제들을 찾지 못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할머니와 아버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쪽의 할아버지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셨다.

적십자사의 주최로 열린 이산가족 상봉 때 역시 신청하셨지만 찾지 못하셨다.

나는 그때 어렸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형제들이 왜 북쪽에 계시며, 만날 수 없는지, 그리고 서로 연락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나는 이것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내게 이어진 분단의 트라우마이며, 비단 나와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 말고도 수십만의 이산가족들이 근 50년 동안 매일 밤을 북쪽의, 혹은 남쪽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 이들은 깊디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곧 끝날 전쟁이라 여기며, 며칠간 피난가는 거라 생각하고 내려 왔던 그 길이 영영 끊길 줄을 이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분단의 트라우마는 비단 이산가족들의 정신적 상처에 머무르지 않는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한은 115억 달러를, 북한은 55억 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물론 이 돈은 남북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와야 하는 돈이기에 국민은 쓸데없는 세금을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은 결국 남과 북의 국민들이 문화적, 정신적으로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같은 민족 간의 불신과 반목을 불러왔다.

남과 북이 입게 된 가장 큰 트라우마는 바로 같은 민족임에도 서로 원수처럼 여기게 된 점에 있을 것이다.

최근 신문에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운행되게

되어 그 첫 승객들을 선발한다는 반가운 기사를 읽었다.

어서 빨리 이 철도가 남과 북을 가슴 아프게 아로새기고 있는 트라우마를
말끔히 닦게 해 주고 새 살이 솔솔 돋게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도라산 역의 시작을 위하여

★
조치원교동초 6 _ 이나연

“이산가족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만납니다. 이제서야, 50년이 넘은 오늘에서야 남북통일 열차가 운행됩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아침 텔레비전에서는 도라산 역에 나간 한 기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휴전 이후 처음으로 열차가 북쪽으로 간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었다. 기자의 목소리에 밥을 먹던 우리 식구는 일제히 텔레비전으로 눈을 돌렸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통일열차를 타야 한다며 우는 사람들, 먼 곳에 서서 눈물만 흘리는 사람들, 기뻐서 풍물을 치는 사람들, 모두가 각각 다른 모습이었지만 통일을 바라는 마음은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지도에서 도라산 역을 찾아보았다. 도라산 역은 경의선 열차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지막 역이라고 나와 있었다. 그러나 오늘부터 도라산 역은 마지막 역이 아니라 시작하는 역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은 솔직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남북통일 열차를 타지 못한다고 울부짖는 사람들을 보니 나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왔다. 언젠가 할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엄마가 할머니 택으로 간 일주일의 일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겨우 일주일이었지만 내게는 1년보다도 길고 긴 시간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싶다고 징징거리며 전화를 했던 기억도 났다. 그런데 이산가

족들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화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파왔다. 그리고 얼마 전 나에게 '하나 팀의 중요성'을 알려준 일을 생각했다.

눈처럼 하얀 벚꽃이 피었다가 지고 난 자리에 돌아난 고운 연두색 잎들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날, 우리 학교는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6학년이라 초등학교에서의 마지막 운동회라는 생각에 우리 모두는 각오를 다지며 체육대회에 임했다. 우리 6학년의 단체 경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몽쳐야 산다'라는 이름의 6인 7각 경기였다. 작년에도 많은 언니들이 무릎이 까지고 다쳤는데 올해에도 굳이 그걸 연습한다기에 우리는 내심 불만이었다. 6인 7각 경기란 6명에서 끈으로 발을 묶고 운동장 가운데에 있는 반환점을 돌아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경기이다. 처음에는 쉬워 보였는데 그게 아니었다. 6명에서 발을 묶고 한 발짝씩 나아갔지만 어떤 친구는 왼 발을, 어떤 친구는 오른 발을 내밀어 곧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한 친구가 구령을 불러 우리의 발을 맞춰주었다. 그 친구 덕분에 겨우겨우 출발점으로 돌아온 우리 조는 단체연습 때뿐 아니라 만나기만 하면 어깨를 부여잡고 발을 맞춰 걷는 연습을 했다. 드디어 총연습 날이었다. 5월이라고 하기엔 너무 더운 날씨에 우리는 설레고, 한편으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기를 시작했다. 한 조, 한 조 나아갈수록 우리 조의 차례가 다가왔고, 그때마다 마음이 떨리고 불안했다. '넘어지지 않을까? 혹시 나 때문에 넘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걱정도 되었다. 드디어 우리 조의 차례가 되었다. 앞 조에게 배턴을 넘겨 받고나서 구령에 맞춰 한 발 한 발 나아갔다. 기분 좋고 순조로운 출발이었다. 그러나 반환점을 돌면서부터 발이 엉켜 비틀거리다가 결국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다. 우리 6명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겨야겠다는 마음이 앞서 넘어진 것이다. 결국 예상대로 우리 팀이 지고 말았다.

모든 경기가 승부욕이 강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인 7각 경기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고 하나의 발이라도 따로 움직인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경기를 기회로 정말 '몽쳐야 산다'라

는 말의 의미를 가슴 깊이 느꼈다. 그리고 올해도 굳이 이렇게 어려운 경기를 만든 선생님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6학년이 된 우리들은 개성이 강할대로 강해져서 푹하면 싸우고, 토라지곤 했던 것이다. 이번 경기를 기회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고, 하나가 되어야만 이룰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 것이다.

체육대회 때도 비록 우리 팀이 졌지만 나는 우리 조가 자랑스러웠다. 처음엔 한 발짝도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던 우리 조가 이만큼이나 발전한 것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다. 넘어져도 기다려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마음, 이기려는 마음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농부 같은 마음, 모두의 중요함을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우린 왜 진작 몰랐을까? 친구를 이해하고 노력할 때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통일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고 서로가 마음을 모아 천천히 이루어야 한다. 오늘 도라산 역을 떠난 열차가 북한을 돌아 천천히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다. 서로가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그 얼굴의 미소가 바로 통일인 것이다. 서로 신뢰하고 잘한다는 마음으로 통일을 향해 나아갈 때, 그때쯤이면 통일에 무관심한 내 마음도, 내 친구들의 마음도, 또 나처럼 통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마음도 햇빛을 향해 고개를 쭉 빼고 서 있는 해바라기처럼 통일을 향해 곧게 뻗어있겠지.

창문으로 한줄기 향긋한 바람이 들어와 내 머리카락을 흔들어 준다. 그 바람에 나는 오늘 도라산 역의 시작처럼 중학교에서의 수학여행은 열차를 타고 북한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드디어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3·8선은 현재 철거 중에 있으며 3일 후면 완전히 철거가 됩니다. 그곳에 분단의 역사관이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는 문화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쁨을 두고두고 만끽하면서 통일된 나라를 여행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통일뉴스였습니다.” 이런 뉴스를 빨리 보게 되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친다.



금강초롱을 금강산에서 만났어요



천안백석중 2 _ 김희수

“애들아, 여기 좀 봐라, 이렇게 예쁜 꽃이 있구나!”

“와! 넘 예뻐요, 우리나라에서 본 것보다 더 선명하고 진해요. 할머니!”

지난 여름방학 때 외할머니와 금강산에서 나눴던 대화이다.

유난히 들꽃을 좋아하셨던 외할머니는 언제 어디를 가시든 모든 촉각이 꽃을 향해 있는 분처럼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셨다. 그런 할머니 때문일까? 나도 또래들보다 우리 꽃에 대해 조금은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국어 시간에 ‘우리 꽃 산책’이라는 단원을 배우면서부터는 습관적으로 책자와 인터넷 여행을 할 때마다 찾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화려한 서양 꽃에 비해 우리 꽃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세히 들여다 볼 때 그 진가를 알 수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아름다운 금강산 여행은 잊지 못할 많은 추억거리를 남겼고 특히, 금강산에서 금강초롱을 만난 일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지난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 우리 가족은 아침부터 바쁘게 서둘렀다. 아빠가 가족여행을 금강산으로 가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꿈에 그리던 금강산 여행을 하시기 위해 며칠 전부터 올라와 계신 외할머니께서도 부랴부랴 짐을 챙기시느라 진땀을 빼셨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이때를 기다리신 것은 외할머니였기 때문이다.

외할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증조외할머니의 고향은 황해도 장면이었다

고 한다. 그래서 외할머니는 마치 어린 아이처럼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다. 나와 동생은 설레는 마음 때문에 어젯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았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우리는 배를 타기 위해 속초에 있는 선착장으로 출발했다. 5시간이나 걸린 끝에 우리 가족은 전날부터 학수고대하던 금강산으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되었다. 금강산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대가 되었다. 북한을 두고 ‘가깝고도 먼 곳’이라고 한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감이 났다. 잠시 후, 배가 선착장에서 점점 멀어져가더니 어느새 우리가 탄 배가 넓고 푸른 바다 위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우리는 북한에 점점 가까워져가는 것을 보면서 ‘와!’ 하고 탄성을 질렀다. 옆에서 계시던 외할머니께서도 탄성을 지르시면서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셨다. 아마도 증조할머니가 떠오르셨던 모양이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어느덧 눈물이 글썽하셨다.

드디어 우리는 북한의 선착장에 도착하였다. 선착장 너머로 웅장하게 산맥이 뻗어있는 금강산을 보았다. 하늘에 닿을 듯 말 듯한 산봉우리도 너무 아름다웠다. 금강산에 올라가기 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리 가족은 짝지어온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유명하다는 옥류관에서 평양냉면을 맛보았다. 남한에 있는 식당에서 평양냉면이라며 팔던 그 냉면과는 또 다른 맛이었다. 평양의 ‘정통 랭면’ 이기 때문일까? 아무튼 맛있어서인지 너무 배가 고팠던 것인지 그날 그때 먹었던 꿀맛 같던 냉면의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꿀맛 같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우리 가족은 금강산으로 올랐다. 바위를 타고 흐르던 맑은 냇물에는 초록 잎 하나가 동동 떠내려가고 있었고, 금강산 주변으로는 예쁜 들꽃들이 피어 있었다. 시간적 여유만 있었다더라면 맑은 물에 발이라도 담그고 수박 한 덩이 깨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꽃을 좋아하시는 할머니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다.

“애들아, 여기 좀 봐라, 이렇게 예쁜 꽃이 있구나!”

“와! 넘 예뻐요, 우리나라에서 본 것보다 더 선명하고 진해요. 할머니!”

나는 할머니의 말씀에 공감을 하며 한참 동안 자세히 그 꽃을 바라보았다. 참으로 예뻐다. 남한에서 보기 힘든 들꽃이라며 우리 가족은 그 들꽃 옆에 서서 다 같이 가족사진을 찍었다.

“야, 우리 금강산에서 금강초롱과 함께 찰칵!”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그 꽃이 오직 금강산에서만 볼 수 있다는 특별한 금강초롱(?)이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거린다. 귀한 꽃, 금강초롱을 금강산 계곡에서 만난 것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

그리고 내가 가본 곳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구룡폭포였다. 마치 수백만 마리의 말들이 떼 지어 달리는 듯한 웅장한 물소리와 길게 뻗어 흐르는 모양새가 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라 칭하는 나이아가라 폭포보다도 아름다웠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구룡폭포에 위치한 작은 정자에서 북쪽의 안내원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은 그 안내원 언니와 여러 차례 대화를 주고받았다.

“동포께서는 남한에서 오셨습니까?” 라고 정자에 앉은 우리들에게 북쪽 안내원 언니가 먼저 말을 걸었다. 보통은 남한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건넌다고 들었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생각되었다.

“네, 저희는 남한에서 배를 타고 금강산 구경을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도 아직은 서로 거리감이 있고, 서먹서먹해서 말을 주고 받을 때에 조금은 조심스러웠다. 그러다가 동생이 궁금한 것이 있었던지 안내원 언니에게 질문을 하였다.

“언니, 북한에는요, 컴퓨터가 있나요?”

“있긴 있지만 아직까진 정부 소유로 사회 사람들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북한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놀아요?”

안내원 언니는 놀란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동생을 보고 웃으며, “어린이들은 어린이 놀이 중에 하나인 제기차기나 공기놀이를 하

고 놓는다.”

나는 안내원 언니의 말을 들으면서 비록 우리가 두 덩어리로 나누어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활모습이나 놀이문화가 비슷한 것을 보면 역시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금강산 관광을 마친 후 다음날, 우리 가족은 다시 짐을 싸서 선착장으로 향했다. 떠나는 내내 우리 뒤로 멀어져 가는 금강산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 배로 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였다. 돌아오는 내내 배 안에서 할머니와 나는 두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마치 한마음으로 똘똘 뭉친 어린 아이들처럼. 그리고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다.

아직도 내 머리 속에는 금강산의 웅장한 경관이 머리 속에 남아 있다. 가끔 도덕시간이나 텔레비전에서 북한 소식, 특히 금강산 이야기만 나오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청을 한다. 왜냐하면 금강산에서 만난 금강초롱이 보여질까, 내가 걸었던 곳이 보여질까 하는 마음에서이다.

그렇다! 통일에 대한 열망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찾아야 하는가에 확실한 대답은 누구도 해 줄 수 없다. 오로지 한마음, 한 뜻으로 통일을 염원할 수밖에...

2007년 5월 17일, 56년 만에 철마가 늦봄의 햇살을 안고 두 동강 난 한반도의 허리를 이었다. 남북의 모든 사람들의 희망과 기쁨을 담은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문산 역에서 출발하자 사람들은 기차에 탄 사람들을 향해 잘 다녀오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아직 시험운행일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이 철마가 한반도의 끊어진 철길을 달린 것만으로도 통일을 향한 한 줄기의 빛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렇듯 통일에 대한 열망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금강초롱, 아니 우리 꽃의 아름다움을 알기 위해서는 몸을 굽히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세히, 그리고 천천히 바라봐야 하듯이 우리 모두는 통일을 우리 민족 발전의 ‘꽃’이라고 생각하고 서두르지 말고 겸허한 마음으로 통일을 기다리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금강산에서 만난 귀한 꽃, 금강초롱!

이제 그 귀한 꽃, 금강초롱을 우리의 뜰안에서 반갑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민들레 씨앗이 되어



복자여고 1 _ 백가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 하면 누구나 ‘백두산’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도 뭔가 모순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도를 보면 ‘휴전선’이라는 금을 사이에 두고, 안 그래도 조그만 나라가 더 조그맣게 갈린 안타까운 모습의 대한민국이 보인다. 이렇듯, 어디까지가 남한의 경계이고 어디까지가 북한의 경계인지 정확히 나누어서 서로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군인들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을 백두산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간다.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세계인들에게 물어보면 열 손가락 안으로 누구나 ‘아직까지도 분단되어 있는 유일한 국가’를 꼽을 것이다. 이번에 북한이 ‘핵무기 사건’으로 인해 세계인의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남북의 이러한 분단 현실은 세계인들에게 더욱 확실하게 인식되었을지도 모른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코리아’인 줄로만 알았던 국가의 이름 앞에 ‘north’나 ‘south’와 같은 단어가 붙음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인의 안타까운 시선을 받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약 50년 전 정치 이념의 대립 때문에 서로에게 총을 겨누며 아슬아슬하게 휴전선으로 전쟁을 끝냈던 남북.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되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재회하지 못한 채 서로의 소식에만 연연하며 살아야 하는 이산가족들. 우리가 헛되이 보내고

있는 1분, 2분이 그들에겐 1년처럼 길게만 느껴질 것이다. 느리게 진행되는 세월은 그들의 웃음을 갉아먹고, 행복을 삼켜버리고, 눈물이 되어 그들의 가슴을 적시고 있다. 이렇게 1분을 1년같이 보내는 그들에게 상봉의 기회가 주어지면, 그들의 1분은 마치 1초가 된 듯 눈 깜짝할 새에 흘러가 버린다. '남북 분단의 현실'이라는 이유로, 시간의 장난에 울고 좌절하는 그들을 보면, 휴전선의 철조망이 더욱 단단하게만 느껴진다.

가끔, 국어 교과서나 인터넷 게시물을 보면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나온다. 남한에서 인물화라고 하는 것을 북한에서는 사람그림이라고 한단든지, 우리가 '노크'라는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손기척'이라는 고유어를 만들어 사용한다는 것이 그 예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료들을 볼 때, 남한과는 많이 다른 북한의 언어를 보면서 재미있어 웃기도 하고, 남북한 언어의 큰 차이에 신기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신기하게 여기고 웃어 넘길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아픈 분단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인 동시에, '같은 민족 간의 소통 단절'이라는 슬픈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이다. 북한의 언어를 외국어 보듯 신기하게 여긴다는 자체가 벌써 '분단의 아픔'인 것이다.

처음에는 단지 '소수 정치인들의 대립'이었던 문제가 다수 정치인들에게로, 한국인 전체에게로, 세계인들에게로 점차 확대되어 종래에는 문화의 차이까지 가져오게 된 것이다. 휴전선 북쪽으로는 한 발짝도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다는 아픈 현실. 우리에게는 그저 아픈 현실이지만, 이산가족들에게는 '그저 아픈'의 정도를 넘어선다. 이들에게 있어서 철조망은 그것에 찢리는 것보다도 더한 아픔들을 준다.

이제 더 이상의 대립은 없어야 한다. '휴전선'은 말 그대로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에서 그어진 선을 뜻하지만, 그 휴전선은 영원한 휴전선으로만 존재해야지 단절의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의 이념을 존중하고, 서로 다르게 발전해 온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남한의 국민들 중에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 그들은 남북한이 통일했을 때에 생기는 마찰, 갈등을 걱정할 뿐만 아니라, 현실의

남북한 생활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 두고 온 남편, 자식 등을 떠올리며 눈물 짓고 있을 이산가족들도 있다. 그들에게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다. 통일을 했을 경우에 빚어질 마찰과 갈등은 이산가족들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경우의 마찰은 '민족 간의 화합'으로 해결해 나가면 된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의 민족이 아니었던가.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 중 일부인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도 그는 민족 간의 융합을 통해 높은 문화를 창출해 내자고 주장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민족 간의 화합 없이는 높은 문화의 힘도, 국민들의 평화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서로의 혈관 속에 흐르는 민족의 피가 같듯이, 우리의 땅과 문화와 정신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들의 시조도 단군왕검이요, 우리의 시조도 단군왕검이다. 그들이 삼국의 역사를 배우듯, 우리도 삼국의 역사를 배운다. 그들이 '국사, 국어, 국악'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우리도 '국사, 국어, 국악'이라고 부른다.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함은 그 무엇보다도 당연한 것이다. 그들의 것이 우리의 것이고, 그들의 전통이 우리의 전통이다. 그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 남한 사람들을 '그들'이나 '우리'라고 따로 부르지 않고 모두가 '우리'가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휴전선의 북쪽에 있던 민들레 씨앗이 날아와 남쪽에서 싹을 틔운다. 휴전선 남쪽에 있던 은행나무 수꽃의 꽃가루가 북쪽의 암꽃에서 열매를 맺는다. 낮에는 북쪽에서 비를 뿌리던 구름이 저녁 무렵엔 남쪽에서 비를 뿌린다. 이렇게 철조망 위에서는 남북한의 교류와 왕래가 자유롭게, 평화롭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도 철조망을 넘어설 수 있다. 지난 날, 서로의 가슴 속에 맺힌 철조망을 뜯어내고, 민들레 씨앗이 되어보자. 씨앗이 되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훨훨 날아보자. 우리의 1분이 이산가족들에게도 똑같은 1분이 될 수 있도록, 훨훨 나는 민들레 씨앗이 되어 그들의 소식과 행복을 실어 나르자.



통일의 밑거름



신춘초 5 _ 이윤수

우리 집은 대대로 농사꾼 집안입니다.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농사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고 아버지도 벼농사만 짓는 농사꾼입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 얼마 안 되는 논만 물려주셨는데 어려움을 딛고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시어 모은 돈으로 논을 조금씩 사서 지금은 많은 논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요즈음처럼 농번기 때에는 새벽 교회 종 소리가 울리기 전에 일어나셔서 밤늦게까지 논에 나가 일을 하십니다. 트랙터를 몰고 논갈이를 하는데 우리 집 논뿐만 아니라 동네에 논갈이 기계가 없는 집이나 일손이 모자라는 집까지 논을 맡아 갈아주고 씨레질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논에 나가 논갈이를 하고 저녁 늦게 돌아오셨습니다.

“아빠, 돌아오셨어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아버지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데 묵호항에서 쌀을 배에 싣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북한에 보내주기로 한 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얼마나 큰지 쌀을 담은 곳이 우리 학교 운동장 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아빠, 저 많은 쌀을 북한에 그냥 다 주는 거야?”

그 많은 쌀을 북한에 다 준다고 하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더 많은 쌀을 북한에 보내야 할 거야.”

“쌀을 더 줘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에 산처럼 실려 있는 쌀을 보며 이보다도 더 많은 쌀을 북한에 보내야 한다는 아빠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쌀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일년 농사를 지으면 많은 벼을 수확하면서도 가족들이 쌀 한 톨이라도 아끼지 않으면 불호령이 떨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은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할 때에는 언제나 조심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는 중학교에 다니는 셋째 누나가 밥이 먹기 싫다고 밥그릇을 앞에 두고 투정을 하다가 혼이 났고, 나도 가끔 밥풀을 흘린다고 꾸중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할 때 벼 낫알 한 톨이라도 눈에 떨어지지 않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쌀을 아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쌀 한 톨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버지께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많은 쌀을 그냥 북한에 더 주어야 한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니다.

“아빠, 우리나라에 쌀이 남기 때문에 북한에 주어야 하는 거야?”

몇 해 전부터 아버지께서 쌀농사를 지으면서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가을에 수확한 벼를 어떻게 제 값 받고 파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우리 고장 농협에서 수확한 벼를 모두 사주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했는데 올해도 작년처럼 그렇게 사 줄는지 모른다고 은근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쌀이 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쌀이 남는다고 북한에 주는 것이 아니란다.”

“그럼 왜 주는 거예요? 작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는 쌀을 보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득 작년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을 때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쌀과 비료 같은 물품을 많이 보내주고 금강산 관광을 통하여 돈도 준다고 하였습니다. 나도 북한 어린이 돕기 때 저금통에 든 돈을 모두

성금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 몰래 핵실험 준비를 하고 핵실험을 하였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날, 뉴스를 듣고 난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이 핵폭탄을 갖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들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쌀을 보내주지 말아야 하는 건데….”

아버지 얼굴은 분노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제나 텔레비전 아홉시 뉴스만 끝나면 주무셨는데 그날은 특집 뉴스를 밤늦도록 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어떻게 된 일인지 북한에 쌀을 더 주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윤수야, 북한에 보내는 쌀이 통일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란다.”

“통일의 밑거름이요?”

“그래, 눈에 심은 벼가 잘 자라려면 잘 썩은 짚이나 두엄을 눈에 내지. 이것이 바로 벼가 잘 자라는 밑거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북한에 보내는 쌀이 통일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될 거야.”

아버지는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농사를 잘 지으시는 농사꾼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농사철이 돌아오면 올해는 어떤 벼 품종을 심어야하고 어떻게 벼를 길러야 할지 아버지와 함께 의논을 많이 합니다. 이런 아버지께서 두엄이 벼가 튼튼하고 잘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듯이 북한으로 보내는 쌀이 통일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북한으로 보내는 쌀이 어떻게 통일의 밑거름이 되어요?”

“아빠는 통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단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북한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다보면 머지않아 통일이 될 거야. 그럼 지금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니? 바로 쌀이야.”

아버지께서는 왜 북한으로 보내는 쌀이 통일의 밑거름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제야 나는 아버지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쌀을 북한에 왜 보내주어야 하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 북한에 쌀을 주는 것은 일석이조네요.”

“일석이조?”

“음, 굶주리는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대화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 학교에서 한자를 배우더니만 제법이구나. 하하하.”

아버지는 내가 대견스럽다는 듯 쳐다보시고 한바탕 크게 웃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땀 흘려 수확한 쌀이 통일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오늘따라 아버지의 검게 그을린 얼굴과 마디마디마다 굳살이 박힌 손가락이 자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아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통일을 이루는데 앞장서겠어요. 아빠, 약속해요.’





경희 언니에게



서산여중 3 _ 이다은

며칠 전만 해도 햇볕이 쨍쨍 내리 쬐는 게 여름 같더니 어제는 또 비가 와서 새로 나는 새싹들을 촉촉이 적셔 주었어요. 오늘 아침은 햇살을 받은 민들레가 나를 보고 살짝 인사를 했어요. 여기저기 봄꽃은 지천으로 흐드러져서 눈에 아리게 다가오는데, 언니는 잘 지내고 있어요?

작년, 언니가 전학 왔을 때, 정말 새로웠어요. 북한 사람을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담임선생님께서 북한 언니가 전학 온다 하셔서 설레기도 하고,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언니가 오면 북한에 대해 무얼 물어볼까?’, ‘잘 적응 안 될 테니 남한에 대해 친절하게 잘 알려 줘야지.’ 하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막상 생활해 보니 그게 잘 안 되었어요. 마음으로는 잘 해주고 싶은데 언니 대하기가 어렵고 어색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학교 공부도 많이 어려워했던 언니가 안쓰러웠지만 도와주지 못했어요. 결국 다시 새터민 마을로 전학을 가는 언니를 보면서 후회도 많이 했지요. 다시 전으로 돌아가서 잘해 줄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말이죠. 전학을 가면서 잘해 준 것도 없는 우리에게 고맙다며 언니가 눈물을 보였을 때 미안한 마음에 나도 눈물이 났었어요. 언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따뜻하게 대하지 못 한 것 사과할게요.

지금은 잘 지내고 있나요? 언니가 떠나고 나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대화도 통하는데 하나가 되기가 왜 그리 어려운 것일까 생각을 해 보았어요.

‘지금 우리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좋은 세상에 왔다고 해도 마음 속에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피눈물과 설움, 그리고 그리움과 억울함이 가득 차 있다. 그것은 우리가 북한에서 고생하던 가슴 아픈 추억들과 함께 현재 당하고 있을 사랑하고 보고 싶은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자식들과 나아가서는 2천 300만의 내 혈육들에 대한 생각 때문이다.’

어느 새터민이 쓴 글인데요. 갖은 고난을 다 겪으면서 북한을 탈출하였건만,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이쪽에서 받는 냉대와 아픔이 너무도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언니가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학교에 다녔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려면 무엇보다 서로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아요.

지금 남과 북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서로 헤어져서 지냈어요. 사람들이 만나 결혼을 할 때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많이 달라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세기 동안이나 헤어져 지냈던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테지요. 그래서 무작정 통일을 하는 것보다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해 스스로 만든 마음의 장벽들을 허물고, 마음을 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경희 언니, 독일 통일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강대국에 의해 강제로 국토가 둘로 나뉘어 있었지요. 그런데 동독과 서독은 통일이 되기 전부터 꾸준한 문화 교류를 했고, 서독이 적극적으로 동방정책을 펼쳤대요. 결국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는 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졌지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 전 세계인의 축하 속에 독일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지요. 하지만 그들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따른 정신적인 혼란과 실업자 문제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 문제가 심각했었다고 하지요. 그래도 독일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오랜 기간 동안 동서독이 화해와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을 했기 때문 아닐까요? 정말 우리로서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우리 남북한도 아무런 교류 없이 급작스럽게 통일만을 한다면 예멘처럼 호된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남북한의 교류가 되려면 우리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선 우선 통일에 대한 서로의 시각과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통일에 대한 교육을 받았지만 아직 많은 친구들이 북한을 우리 민족이라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는 통일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어쩌면 지금까지 받아 온 통일 교육의 수준은 너무 단편적이었던 것 같아요. 현재 남과 북의 상황을 제대로 알려 주지도 않은 채, 막연하게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했고,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통일을 외쳐왔으니까요.

통일을 하려면 남과 북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면서 실제적인 것은 배우지 못했어요. 지금 통일 교육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정신적인 기초를 다지는 일이어야 할 텐데, 남한 아이들에겐 그저 시험을 볼 때 외워야 할 암기과목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 식의 통일 교육이 아니라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통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북한을 우리 민족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통일에 대한 진전은 없지 않을까요?

물론 북한의 태도도 바뀌어야 하겠지요. 한반도 핵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몰고 왔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긴장이 이미 최악으로 확대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해요.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한다면 앞으로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나쁜 상황이 되겠지요.

북한도 이제는 예전의 낡은 인식을 버리고 새롭게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북한 핵을 다루는 6자회담이 성공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협력의 새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교류 협력하다가 때가 되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겠지요. 그렇게 되어 남북 관계가 붓물이 터지듯이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의 시대로 들어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작년에 우리 할머니께서 북한 금강산을 여행하셨어요. 정말 한 백성인가

싫게 어렵게 사는 모습이 마음에 걸린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남북의 경제력 차이가 통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우리가 북한에게 쌀 40톤을 지원한다고 퍼주기식 정책으로 국고를 낭비한다는 비난 여론도 많지요. 하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는 북한의 굶주리는 동포들을 외면할 수 없어요. 그들의 아픔을 모른 척하면서 통일을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정치적인 계산보다는 서로에 대한 따뜻한 사랑으로 먼저 마음을 열고 민간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교류의 확대가 있었으면 해요. 체육 행사나 문화행사, 학술 모임, 역사 연구 같은 것이 남북 협력으로 활발히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왜 있잖아요?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우리 고대사를 왜곡하는데 남북한의 역사학자들이 한 마음으로 손잡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중국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 아닌가요?

우리도 새터민 정책을 올바르게 해서 그들이 이 땅에 올바르게 발붙이고 살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들 마음에 먼저 서로를 이해하려는 따스한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언니처럼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말이예요.

전에 ‘연금술사’라는 책에서 읽었던 말 중에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라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통일을 위해 간절히 소망한다면 온 우주가 우리의 통일을 도와 줄 것 같아요.

언니, 기억나요? 우리 수학 여행 가서 함께 춤도 추고 어울렸던 일, 그때의 언니 모습은 행복하고 즐거워 보였는데... 그때처럼 언니가 행복했던 기억만 가졌으면 해요.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언니랑 언니가 얘기했던 고향에 웃으면서 같이 찾아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새터민에게도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어서 빨리 봄이 오길 빌게요.

2007년 햇살 따스한 5월에

다은이가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치원고 1 _ 황승민

‘골디락스’를 아는가? 골디락스는 영국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에 나오는 소녀 이름이다. 동화에서 골디락스는 곰이 만들어 놓은 세 가지 스프, 즉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적당한 것 중 적당한 온도의 스프를 선택해서 먹고 허기진 배를 채운다. 이때 등장한 골디락스는 1990년대 후반 미국의 경제 호황을 설명하는 경제 용어로 쓰이기도 하였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경제, 즉 물가가 낮으면서도 건실한, 호황의 경제를 뜻한다.

모 조간신문에 ‘요즘 세계는 골디락스 경기 국면을 맞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버블논쟁도 달궈지고 있다.’ 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통일 안보를 이야기하고자 하면서 “골디락스나 버블경제가 통일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의아해할 줄 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통일과 안보에 대한 카드는 영국 동화 속에 나오는 골디락스의 선택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골디락스의 선택에는 자유 의지와 요행이라는 행운이 함께했지만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는 어찌면 우리의 자유 의지와는 무관하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통일이나 핵 문제 등 거의 모든 문제가 남, 북,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등 6자 회담을 통해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이 주체가 되어 골디락스처럼 현명한 선택을 하기에 세계는 지금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국제 질서 또한 강자의 논리대로 흐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인 우리의 친구들의 사고 자체에 자리잡고 있는 ‘무관심’과 ‘이기심’이다. “지금 당장 내가 사는데 불편한 게 없는데,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한데 왜 쓸데없이 통일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친구들의 의식 자체가 힘의 논리로 무장한 주변국들의 이해 관계보다 더 무서운 적임을 호소하고 싶다.

나는 지난해 ‘새터민’의 정착 지원금에 관한 사이버 토론에 참가한 적이 있다. 그때 다수의 친구들이 막대한 통일 비용의 문제라든가, 이념과 정서적 이질성이 회복 불능 상태라면서 새터민 지원금 증액과 통일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우리나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너 왜 그래? 네가 먹여 줄래?”

“지금도 우리끼리 불편한 것도 없는데 통일은 해서 뭐해?”

“통일? 그거 차라리 안 되는 것이 좋을 걸. 독일도 통일된 지 1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해매고 있대.”

안타까운 일이지만 친구들은 통일 후 자신들의 진학이나 취업 때 받을 상대적인 불이익이나 무거운 세금, 문화적인 이질감 등 다양한 이유들로 통일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 당시 내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젊은 세대들의 개인주의와 통일에 대한 무관심, 새터민들에 대한 냉정한 눈초리가 더욱 고착화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이건 비단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국정홍보처가 20세 이상의 국민을 상대로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을 주제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가장 최근인 2006년 11월 통계에 ‘국민의 40%는 통일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35%는 통일을 하더라도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답을 해주었다. 청소년들은 통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어른들은 통일을 위한 비용과 통일 시기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 예로 독일의 통일 과정과 그 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그 당시 서독 경제력의 삼분의 일도 안 되는 상황이니 그 막대한 통일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고 아직 통일 이후에 대한 준비가 충분치 않기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나는 여기서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우리의 경제 사

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라는 말에 대해 반론은 제기하고 싶다.

첫째, 우리는 반만 년 동안 한 민족이었고, 앞으로도 한 민족일 것이다. 분단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의 힘에 의해 진행된 것이기에 반드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 된 조국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남북적십자회담을 시작으로 이산가족 상봉도 있었고 남북의 정상이 만난 적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일들이었으며, 오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밥을 먹는다고 해도 결코 설익은 밥이 아니며, 오히려 뜬을 너무 들이면 밥이 다 타버린다.” 고 본다.

둘째,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이 부담스럽다’ 라는 의견도 잘못되었다. 현재 남북한이 분단으로 인해 쏟아붓는 국방비만 해도 남북한을 합쳐서 약 200억 달러가 넘게 들어가고 있으며, 또한 북한의 117만 명, 남한의 68만 명의 장병들이 있다. 만약 이들이 좀 더 생산적인 것에 노동력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면 분단으로 인한 남북의 손해는 통일 비용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정부나 민간기관에서 통일 비용에 관한 연구를 했지만 항상 결론은 하나였다. 어떤 계산을 하더라도 ‘통일 비용이 분단 비용보다 적게 든다.’ 라는 결과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중 하나는 통일은 민족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통일의 당위성 위에 그 방법론이 논의되어야지 ‘통일을 하느냐, 마느냐’ 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힘의 논리대로 흐르는 국제질서와 주변국들의 역학관계에 따라 우리 민족의 통일이 민족의 자유의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 지금 안 하면 정말 분단의 고착화 속에 우리 민족은 평생 지금처럼 남북이 서로의 심장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며 미워하며 지내야 할지도 모른다. 더 늦기 전에 마음을 활짝 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12

전라북도

-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세상 _ 309
- 핏 줄 _ 312
- 우리 가슴에 _ 315
- 다시 달리는 철마 _ 318
- 가깝지만 먼 당신 _ 321
- 한반도의 혈맥을 다시 잇다 _ 324
- 우리는 친구이니까 _ 327
- 난 황주와 해주의 달콤한 사과 맛을 보고 싶다 _ 330
- 꿈에 본 통일 _ 333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세상

★
고창남초 6 _ 정다성

올해부터 우리 학교는 중국에 있는 만용 조선족 소학교 학생들과 교류학습을 하게 되었다. 교류를 하는 학생의 집에서 잠도 자고 함께 놀며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중국에 가서 중국 친구와 같이 공부하고 함께 뛰어 노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지만 이번 중국 여행이 무엇보다도 뜻 깊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 날, 우리가 간 곳은 바로 단둥이라는 곳이었다. 단둥 한 가운데에 자리 잡은 압록강 너머로 북한 모습이 보였다. 신기해서 눈을 말뚱말뚱 뜨고 있는 우리들에 비해 선생님의 표정은 너무나도 침울하고 어두워 보였다.

“애들아, 이곳 단둥에는 북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하더구나. 너희들, 혹시 간첩이라고 들어봤니? 간첩에게 잡혀가기 싫으면 항상 조심조심 행동해야 한단다.”

‘세상에 같은 핏줄, 같은 동포인 북한 사람들을 보고 조심하라니!’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이 났다. 단둥을 여행한 뒤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선 식당은 바로 북한 식당이었다. 그곳에서 북한식 음식도 먹고 북한 언니들의 공연도 보았다. ‘반갑습니다.’를 부르며 우리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었고, 교감 선생님과 함께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도 불렀다. 어느새 북한 언니들의 눈에도 우리들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는 감격의

순간이었다. 식당을 나와 호텔로 가는 길에 6·25전쟁의 슬픈 역사를 담고
켜어져 있는 압록강 철교가 내 마음을 더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졌을까? 통일은 남의 일,
힘들고 귀찮은 일이라며 마치 다른 사람의 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
다. 심지어는 지금 통일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
다. 불과 17년 전만 해도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동과 서로 나누어진 분단국
가였다. 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
리고 스스로 통일을 이루어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통일
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북한 정치가들과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으며, 금강
산 여행도 가능해졌다. 또한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
도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 사람들의 배고픔과 어려운 생활을 위해
각 단체들은 많은 구호물품과 함께 식량을 보내고 있어 한민족의 아픔을 나
누려는 노력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드디어 2007년, 이러한 노력으로 경의선 열차가' 철마는 달리고 싶다.' 는
열망을 이루어 남과 북,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감동의 물결을 전하였다. 텔
레비전과 신문의 첫 장면을 장식하며 녹슨 채로 잠들었던 철마는 우리 민족
의 혼을 담아 크고 우렁찬 소리를 내며 달렸다. 북녘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반가움의 환호성을 질렀으며, 열차를 보기 위해 꽃을 흔들며 고개를 뺏아 올
리는 그들도 분명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우리도 힘차게 달려서 남녘
땅으로 가 보았으면...' 하고 말이다. 그동안 힘차게 달려서 남과 북녘 땅을
누비고 싶었던 그 마음의 고통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철마는 말이 없으
니 고통은 더욱 컸을 것이다. 이렇듯 통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는
한 통일도 우리 눈앞으로 한 걸음 한걸음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흔히 마라톤을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경기라고 부른다. 자칫하
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자꾸만 마라톤에 도전하는 것일까? 마라톤의 거리 42.195km를 달릴 때
에는 힘들지만 완주했을 때에는 매우 뿌듯하고 행복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통일의 길도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한다. 일부의 사람들이 말하

는 것처럼 통일이 이루어지면 나라가 어지럽고 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고비를 겪으면서 다시 곳곳이 일어나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나라가 더 튼튼한 강대국이 될 수 있으며 현재의 지구촌 시대에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솟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비온 뒤에 마른 땅이 더욱 굳어지는 법...; 지금까지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끈들을 더욱 단단히 잡아매자. 통일을 향한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 달리면서 목이 마른다면, 다리가 아프다면 하는 고통쯤은 참아내자. 모든 국민들이 등에 '대한민국' 이란 번호판을 달고 쉬지 말고 끝까지 달리자. 그러면 마라톤 결승선을 넘는 그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도 우리 곁에 함께 찾아올 것이다.





최우수상

핏 줄



전주솔빛중 3_김다라

“갑자기 ‘쿠르릉, 쿵!’ 하고 천둥소리 마냥 총소리가 들리기에 어리둥절해 하는 오라버니 손을 붙잡고 냅다 달리는 기라.”

오랜만에 외갓집에 들리신 이모할머니의 이야기에 하하 호호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몰랐다. 어느새 이모할머니의 주위에는 6·25전쟁 당시의 경험담을 듣기 위해 삼촌, 이모들까지 웅기중기 모여들었다. 그때 당시 나는 아주 어렸고, 이모할머니의 강한 사투리와 빠른 말투 때문에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웃나…’ 하며 얼굴에 함박웃음을 머금은 삼촌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참 놀라부렀다니까…” 하시며 붉어진 눈가를 붉은 손등으로 쓱쓱 비비시는 이모할머니의 모습이었다. 6·25전쟁으로 하나뿐인 오라버니와 사별하신 이모할머니는 끝내 눈물을 흘리시곤 하였다. 우스개 소리로 시작하지만 전쟁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깊은 것이리라. 그 험난한 시기를 겪지는 않았지만, 나와 내 또래들에게도 ‘그날’은 아픈 역사로 남게 되었다.

6·25전쟁 이후 ‘통일’은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손꼽히게 되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두 나라의 경계태세를 갖추기 위해 국방비가 국가 예산의 크나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문제는 나아가 단순한 예산문제가 아닌 핏줄들과 평생 가슴 아픈 이별을 해야만 했던 이산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분단으로 인한 많

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들 가운데서도 가장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바로 ‘북한’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다.

학년이 바뀌어 모두가 어색하게 지낼 때였다. 내게 가장 먼저 말을 걸어준 친구가 있었다. 지금은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나에게 불쑥 고백을 해왔다.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가 북한 사람이시거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초등학교 때 같은 반 남자아이가 나를 보고 아북이라고 놀렸어. 북한 사람도 같은 우리 민족인데 그렇게 말하다니 너무 속상했어.”

나는 너무나 황당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아북’이란 말로 놀려대다니. 게다가 초등학생이 어떻게 그런 북한에 대한 편견까지 가지고 있는지가 의문이었다. 아마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심코 흘린 북한에 대한 차가운 시선이 원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단면을 보더라도 우리는 북한에 대해 같은 핏줄이라는 동질감과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내적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애쓰는 반면, 외적으로도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

나에게 있어서 휴전선 하면 떠오르는 광경은 수풀이 무성한 비무장 지대에 군인들이 한 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는 부동자세로 국경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그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입으로는 평화통일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서로를 진실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우려가 된다.

과거에 우리의 핏줄들을 벼랑으로 몰고 갔던, 지금도 방치되어있는 무시무시한 지뢰들을 하나씩 줄여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요즘에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는지 대중매체에서 북한의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또 30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우리의 심금을 울리거나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심어주는 광고도 나왔다. 그리고 북한의 여성들로 구성된 ‘달래음악단’이란 가수들은 북한 특유의 가녀린 목소리를 들려주며 남북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느낌을 들게 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교류로 남북한의 이질감을 차츰 없애가고 이산가족 상봉, 남북

정상 회담, 경의선·동해선 철도 개통 등 통일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간다면, 그리고 우리 한민족 두 나라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통일'을 애타게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아니, 아주 가까운 미래에 희곡 '들판에서'의 두 형제처럼 어리석은 싸움을 끝내고 화해와 평화의 날을 맞이하리라 생각한다.



우리 가슴에



덕암고 2 _ 류현아

정치 시간에 통일 문제로 한바탕 열띤 토론을 벌인 후에 벌개진 얼굴로 씩씩대며 집에 돌아온 나는 서둘러 서랍 속에서 삼년 전 금강산 여행에서 찍어 왔던 사진들을 꺼내어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험한 산길에 산행을 따라가는 데에 바빠 고작 몇 장밖에 못 찍었지만 사진 속의 금강산 모습은 그 모습 그대로였다.

벌써 삼년이란 시간이 흘러 내 기억속의 금강산은 흐릿해졌음에도 사진 속 금강산은 지금도 여전했다. 삼일포에서 유난히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 주셨던 안내원 분도, 셔틀 버스 안에서 우리와 통일 문제를 놓고 의기투합을 벌였던 운전기사 아저씨도 사진 속에선 여전한 모습이였다.

중학교 이학년, 집을 떠나 2박 3일간 여행을 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냥 신이 났던 열다섯의 내게는 통일 문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수업시간에나 다루어질 법한 식상하고도 먼 이야기일 뿐이었다. 학교에서 통일을 주제로 하는 글짓기 대회나 토론 수업이 진행될 때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그 흔하고도 뻔한 얘기가 돌고 도는 진부함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을 뿐, 그 이상은 통일에 대한 관심도 염원도 없었던 나였다. 그런 내게 삼년 전 금강산 여행은 3·8선 낡은 철조망 건너에 있는 나의 반쪽에 대해 생각해 볼 여유를 준 것 같다.

신선님이 한반도 곳곳에 있는 아름다운 바위를 모아 만들었다는 전설담

게 금강산의 모습은 예전부터 우리나라 명산대천의 으뜸으로 꼽히던 그 명성을 실감케 했다. 특히 내가 여행을 갔던 때는 한참 춥던 겨울이라서 제 모습을 꾸밈없이 내보이는 개골산의 모습을 마음껏 볼 수 있었다. 아직 내 금강 쪽은 개방이 되지 않아서 외금강 코스나 삼일포 해금강만 돌아야 했던 아쉬움이 남긴 했어도 온통 바위와 나무로 늘어져 있던 개골산의 모습은 예술적 감수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내가 보기에도 충분히 멋스러웠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그 여행을 떠올리면 아름답던 개골산의 모습보다는 그곳에 있던 삼일 동안 오가는 길 버스의 차창 너머로 간간히 보이던 북한 아이들의 모습들이 더 많이 생각난다. 그때는 멀리서 보기에도 촌스러운 옷을 입고 논에서 놀던 모습들이 우리보다 한참은 뒤진 것 같아 우습기만 했는데 말이다. 솔직히 짧기만 하던 삼일 간의 여행이 끝나고 남측으로 가기 위한 버스에 올라탔을 때 마지막으로 보이던 북측의 모습과 다시 만나자며 손을 흔들던 동포들을 볼 때는 나도 모르게 가슴 속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도 잠시, 이미 반세기 넘도록 왕래도 없이 잊고 살던 동포에게 형제애를 느끼며 다시 만날 수 없음을 슬퍼하기엔 어리기만 한 열다섯이었다. 내게 그들은 이미 오십 년도 훨씬 전에 우리와 총을 겨누며 싸워야 했고 그로 인해 남처럼 지내온 남보다 못한 사촌일뿐이었으니까 말이다.

그렇게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겨졌던 금강산 여행과 그곳에서 만났던 동포들의 모습이 정치시간에 통일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났다. 찬반 대립을 기대하셨을 선생님의 생각에 반해 우리들은 거의 반대가 많았는데, 경제 문제라느니 정치, 국가 외교, 국제 정세 등 온갖 잡다한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통일을 이룰 필요는 없다고 외치는 친구들을 보자 불현듯 삼년 전 마지막으로 버스에 타며 느꼈던 그 뜨거움이 다시 느껴지면서 마치 친구들이 나를 욕한 듯 기분이 나빠졌다. 그 친구가 한 말도 나름대로 일리있고 이것저것 조사도 많이 한 얘기들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소리들이 어찌나 멍청한 소리들로만 들리던지..., 이성으로 무장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단지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가 토론을 해야 한다면 그 주제는 과연 통일은 이루어져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안에 양측 모두에게 최소한의 손해를 줄 수 있나 하는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외쳐댔다.

“저는 제 가슴이 뜨겁게 반응하던 그 동포애를 믿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단지 짧은 시간 동안 함께 한 기억밖에는 없는데도 헤어지던 순간에 기약할 수 없는 후일의 만남에 가슴 아파야 했던 그날의 기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물론 통일이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낡은 철조망 하나 걷어내고 양측 정상이 만나 악수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란 걸 그곳에 다녀온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통일 문제에 대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통일은 이미 오십 년 넘게 우리 민족의 간절한 염원이었고 우리 세대에 이루어야 할 최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은 제가 그들과 헤어지던 마지막 순간에 느꼈던 그 뜨거움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 가슴 속에 서로를 향한 동포애가 존재하는 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힘은 들겠지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우리 가슴에 동포애가 존재하는 한은 말이다. 오늘은 이상하게도 삼일포에서 만났던 그 안내원분의 고운 노랫소리가 듣고 싶다.





다시 달리는 철마



화산초 6 _ 유수빈

오늘도 난 아빠가 보시던 신문을 뒤적거리고 있었다. 그때 내 눈에 크게 보이던 ‘철마는 다시 달린다’ 라는 기사 내용을 보았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남북 철도가 새로 출발한 것이었다. 하지만 난 그 기사 내용을 보고 문득 6·25전쟁으로 인한 신문기사를 둘러보았다.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밑 부분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을 마주잡고 참았던 눈물을 보이는 사진이었다. 난 너무 미안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와 통일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 이제 보니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살아생전 김일성을 무찌르자 라는 생각으로 전쟁터에 나가셨다가 안타깝게도 전사하셔서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멀게만 느껴졌던 6·25전쟁의 잔해가 내 주위에서 버젓이 남아있어 가슴 아프게 한다.

그 날, 우리 가슴과 마음속에서 잊혀 지지 못할 깊은 상처의 6·25전쟁이 가져다 준 피해는 앞에서 얘기했듯 일천만 이산가족의 아픔도 더욱 크리라 생각한다.

마음의 비극과 아픔을 애타게 목구멍으로 넘기면서 힘들어했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내 눈앞에 꼭 그려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은 고통과 쓰라린 아픔을 남기고간 6·25전쟁의 모습을 비디오로 볼 때마다 북한 사람들을 원망하며 철없이 미워했지만 나의 생각은 어디에서부터인가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다.

‘미운 정, 고운 정’이란 말이 있듯이 원망의 마음도, 가슴 찢어질 듯한 아픔도 우리 모두의 아픔이란 것을 알게 되고서부터 북한 동포들에 대한 미움도 가시게 되었다.

우리가 통일의 문제에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해하고 우리보다 못 살고 못 먹는 동포들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다.

우리 반 선생님 말씀처럼 50여 년이 넘게 분단된 조국으로 두 동강난 나라는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지만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성급한 생각으로 다가간다면 쉽게 무너질 수도 있으니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준비운동도 필요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계획대로 정상상을 향하듯이 통일의 문제도 다가가야 한다는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다. 남북이 함께 교류하는 체육활동, 문화예술단이 오가고 지난 2002년 아시안 게임에서는 남과 북의 응원단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 된 조국의 모습을 보여 주었듯이 세계 속에 우리나라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은 핵개발이니, 핵실험 발사 등 또 다른 면을 보이며 한쪽으로는 하나 된 조국, 한쪽으로는 전쟁무기를 앞세우며 으름장을 놓는 것을 보면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다.

그렇다고 우리는 통일을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슬픈 사연을 안고 평생을 살아오셨듯이 살아생전 원이라도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통일은 앞당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7년 5월 17일 오전 11시 20분경 경의선 열차가 출발을 알리는 첫 기적을 힘차게 울렸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거라 여겼던 열차는 기운찬 기적을 울리며 달렸다. 56년 만에 다시 달린 철마는 내 마음을 떨리게 하기 충분했고 1시간 반이면 올 길을 56년을 돌아 온 거리는 분단의 아픔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다. 외세가 끊어놓은 철길을 우리 민족이 다시 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열차가 달리는 철길이 아니라 통일을 세우려는 의지를 상징한다.

우리는 이제 통일을 이루는 것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갈라진 것은 다른 나라의 탓이 아니라 모두 우리의 탓이다. 서로 조금만 더 배려하고 이해했다라면 지금 우리는 행복한 한반도의 한민족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통일을 이루려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저 힘차게 달리는 철마처럼 우리 두 손에 손을 잡고 통일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





가깝지만 먼 당신

★
정우중 3_ 신옥선

“탕!” 27일, 50여 년 전의 두려움과 아픔의 총성이 아닌 사랑과 기쁨의 총성이 울렸다. 바로 “남포 통일 자전거 대회”가 개최된 것인데 남측의 참가자 152명과 북측 참가자 60여 명이 어우러져 평양 만경대 소년학생궁전에서 출발해 남포까지 왕복 40km를 자전거로 힘차게 달렸다. 행복한 표정으로 연신 웃음을 입가에 떠나보내지 않던 한 참가자의 모습과 기쁨의 땀방울을 흘리며 선의의 경쟁을 하는 한 참가자의 모습을 보고 비록 TV에서 봤지만 그 감동이 생생히 내게 전해져 왔다. 1·3등은 북측 참가자가 수상하고 2등은 남측 참가자가 수상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았던 즐거운 자전거 대회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대회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오늘부로 지난날의 아픔은 잊어버렸다. 다음에 다시 개최가 된다면 수상자를 호명할 때, 남측의 아무개 씨, 북측의 아무개 씨가 몇 위라고 하며 나누지 않고 말할 수 있길 바란다.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허리가 잘려버린지 어느새 50여 년이 흘렀다. 그 결과 우리 서로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 사회, 문화, 사는 방식, 언어, 경제 발전 등이 그런 결과물이다.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와 더 많이 달라지기 전에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한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꼭 이것뿐이 아니다. 많은 것들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로 이산가족의 아픔을 들 수 있다. TV나 뉴스를 보면 이산가족의 상

봉을 볼 수 있다. 어떤 할머니가 아들을 찾고 나서는 오열을 하시다가 쓰러 지신 것도 봤고 헤어질 때는 16살이었던 딸이 60살이 되어서 그녀의 아버지를 찾는 것도 봤다. 이산가족의 상봉을 볼 때마다 이산가족의 슬픔을 모르는 나를 비롯한 여러 청소년들과 국민들 또한 눈시울이 붉어지고 분단의 아픔에 가슴이 아프다. 다른 이도 이리 가슴이 아픈데 정작 헤어진 가족들은 헤어졌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했을까? 만났을 땐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 나는 가족과 하루만 떨어져서 지내도 집이 그림고 괜히 서러워 서운 적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5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서로 만나지도 생사도 확인하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빨리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준비로 통일을 해야 한다.

둘째로 해마다 들어가는 엄청난 국방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병역이 의무이다. 해마다 군대에 가는 아들을 마중하는 어머니의 눈물을 다 모으면 얼마나 많을까. 그 눈물을 기쁨 때 쓸 수 있도록 아끼기 위해 통일을 해서 꼭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의무인 병역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전쟁을 위한 것인데 통일을 한다면 이런 엄청난 국방비를 꼭 필요한데 사용한다면 아주 효율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사용한다든지 통일을 해서 북한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사용한다든지 해서 사용한다면 엄청난 국방비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해서 더욱더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질 수 있다.

셋째로 남과 북이 통일을 하게 되면 국력이 더욱 세질 수 있다. 많은 인구수도 그렇거니와 남의 훌륭한 기술력과 북의 풍부한 자원이 만나서 예전에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했던 자원들을 북한에서 가져오게 되면 돈도 덜 들고 질 좋은 자원을 가져 올 수 있어 짠 가격으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짠 노동력에 상품을 제작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 이윤이 더 남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북한의 노동자들은 돈을 벌어서 좋고 우리 기업은 이윤을 더 많이 남겨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격이 된다. 북한에게는 풍부한 자원이 있지만

기술력이 부족하므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합쳐서 그들의 생활을 더욱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수준과 경제 발전은 비슷해져서 통일 후의 통일 비용이 덜 들게 될 것이다.

앞에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들어보았다. 이런 이유보다도 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이유를 따져서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찌 한 민족의 분단을 이유와 얻을 수 있는 것을 따져서 통일을 하겠느냐. 통일은 이유 없이 해야 하는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이다. 이 과제를 성실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준비와 다른 사례를 보아서 본받을 것은 본받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바람직하게 통일을 해야 한다. 나는 이런 일들이 정확하고 똑 부러지게 추진되어서 머지않아 우리 반에 북쪽 친구가 전학 오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 부디 내 기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한반도의 혈맥을 다시 잇다

★
남원제일고 3_백유진

어제까지 내리던 비가 그치고 5월다운 푸른 하늘과 따사로운 햇빛이 그림처럼 펼쳐있다. 2007년 5월 17일, 6·25전쟁 이후 56년 만에 끊어진 철도가 비무장지대인 군사분계선을 뚫고 위풍당당하게 시험 운영된 역사적인 날이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던 녹슨 고철덩이가 역사적 상징으로 거듭 태어난 것이다. 마치 호랑이의 허리를 가로 지른 휴전선 때문에 올 수도 갈 수도 없었던 분단의 조국이 남북열차로 그 혈맥을 잇게 된 것이다.

통일전망대에 서서 망원경 너머로만 바라보던 곳, 동해의 물과 바닷가를 나는 새들은 자유롭게 넘나드는 한 치 앞 북녘 땅을 우리는 늘 먼발치에서 렌즈로만 바라보았었다. 비록 금강산 관광의 길이 열려 원하는 사람들은 바다로도, 육로도 오간지 제법 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 갈 때처럼 출입국 수속이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지였다.

신문에서는 ‘철의 실크로드를 여는 첫 걸음’이라며 대문짝만한 기사와 함께 남북열차의 시험운행을 합의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전 세계의 평화에 커다란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뉴스를 통해 군사분계선 안쪽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북단 초등학교인 명파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흥겨운 사물놀이 가락을 지켜보면서도 솔직히 난 실감이 되지 않았다.

속초에서 통일전망대쪽으로 30분 이상 해안을 끼고 올라가다보면 오랫동안 부모님께서 알고 지내시던 고기잡이배를 가진 아저씨가 사시는 거진이라는 곳이 있다. 알고 지내신지 10년도 더 된 아주 친하게 지내시는 분인데, 우리 가족은 해마다 여름이면 피서삼아 거길 간다. 예전만큼 고기가 잘 안 잡힌다며 한번은 고기잡이배를 태워주신 적도 있었다. 바다 가운데에 가서 어느 한 곳을 가리키더니 저기만 넘으면 북한이라 말씀하셔서 잔뜩 겁을 먹은 기억이 난다.

사실 통일도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영화나 책에서만 보던 북한은 겁나고 두렵다. 총 메고 로봇처럼 걸어가며 김정일을 향해 경례를 하던 모습이 낯설고, 너무 딱딱해 우리와는 다른 사람같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한민족, 한겨레’라고 귀가 아프게 들었던 말도 잠수함 사건이나 협상 결렬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 또 다시 북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전쟁 때문에 입은 상처야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 상처가 너무 커서 회복되기 어려우나 하는 의구심도 생긴다.

남북한 모두에게 아픈 상처가 있다면 제일 먼저 그 상처를 치유하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부둥켜안고 울지만 이제는 늙어 눈물도 없는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볼 때면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을 이해할 듯도 싶다. 천만이 넘는 이산가족이 있었다니 50년이 넘는 그 세월을 어찌 감당했을지 상상도 되질 않는다. 이산가족을 위해서도 통일은 꼭 필요하다.

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인데, 50년이 넘게 분단된 우리 민족은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 하고 생각한다. 거창하게 민족의 동질성 회복 어쩌고 하는 말보다 당장 달라진 말투, 이해할 수 없는 문화, 게다가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는지..., 식량이나 비료 등을 지원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통일로 나가는 한 걸음 한걸음이라 믿고 싶다.

남한의 뛰어난 기술력과 북한의 풍부한 자원, 값싼 노동력이 합쳐지기만 한다면 아시아의 용을 넘어 세계 어느 나라 부럽지 않을 강대국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의 옛 나라인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마저 왜곡하여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일본 역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망언을 주책없이 말하고 있는 이 마당에 남과 북은 로봇 합체처럼 힘을 합쳐 중국과 일본의 어처구니없는 속셈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독일도 우리처럼 분단되었다가 베를린 장벽을 허물면서 통일이 되었다고 들었다. 비록 축구에서는 우리가 독일에게 질지 몰라도 민족의 우수성, 자존심만큼은 뒤쳐지지 않는다고 믿는다. 하루빨리 고구려도 지키고, 독도도 지켜내는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이 최선책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공든답이 무너지지 않듯 우리의 북한을 향한 짝사랑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뤄지리라 믿으면서….





우리는 친구이니까

★
감곡초 6_이채은

나는 평소 북한에 관심이 없었다. 북한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늘 우리에게 무언가 가져가기만 하려 하는 것 같아서 알뜰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얼마 전, 교무실에 회의를 다녀오신 선생님께서 북한에 교과서용 종이를 지원해주기 위해 성금 모금을 할 테니 각자 용돈을 아껴서 성의껏 낼 것을 말씀하셨다. 북한 교과서 1권을 제작하는 종이 비용은 700원이 든다고 한다. 이 모금 운동은 북한 친구들에게 동정이나 자선을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서로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어 통일에 이르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북한을 왜 도와주어야 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으며 북한에 대한 마음이 풀려졌으나 얼마를 내야 할지 고민도 했었다. 700원을 내자니 친구들의 의식도 있었고, 1000원을 내자니 아깝기도 했고, 또 안 내자니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북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안 낼 수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리고 모금함에 1000원을 넣었다. 돈을 내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웠다. 나는 지금 6학년에 재학 중이다. 우리는 교과서를 학교에서 돈 안 내고 그냥 주어서 공부하는데, 사실 교과서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며, 연필 한 자루, 종이 한 장도 아

껴써야겠다는 반성을 했다. 북한 아이들은 형편이 어려운데 우리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한다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오늘 처음으로 해 본 것이다. 내가 북한에 살게 되었다면 억울할 것 같다. 지금 나의 형편도 만만치 않은데 맘껏 하고 싶은 공부까지 못 하게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무척 나쁠 것 같다. 북한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내가 좀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

성금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넣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성금을 내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북한 아이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 주려고 마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북한 아이들이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는 일인 거 같다. 하지만 우리가 순수한 마음에서 그랬다는 것을 알면 북한 어린이들은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

갑자기 이산가족 생각이 난다. 아픈 현실을 가지고 있는 이산가족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이산가족 상봉밖에 없을까? 한번 만나서 가족 간의 정을 나눈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다. 생각과 이념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가족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시학교와 농촌학교 간의 교류를 하듯이 남한과 북한의 학교끼리 자매결연을 맺어 서로 교류를 하면 북한 친구들의 학교생활도 들을 수 있고 서로의 차이도 이해하고 극복하면서 지낼 수 있다면 이 다음에 통일이 되었을 때도 서로가 적응하기 쉬울 것 같다.

지난 5월, 남북을 가로질렀던 기차가 다시 개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주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통일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두 손 꼭 잡고 굳게 믿는 이산가족의 두 손에 우리는 통일이 라는 기쁨을 안겨주어야 한다. 말로는 쉽게 내뱉고, 생각을 자유롭게는 한 다지만 통일은 말이나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통일이란 단어에 무척 가까워져 있다. 이번 성금 모으기를 통해서 내 마음 속에는 북한의 친구들이 무척 가까워 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통일하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서로 말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우리가 대화를 한다면 어떨까? 매우 궁금하기도 하다. 그만큼 우

리는 가까워진 사이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통일을 하지 않았고, 북한의 주머니 사정도 나아지지 않았다. 우리는 돈을 물 쓰듯 쓰기도 하고, 충동구입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경제생활을 북한이 본다면 기겁을 하며 놀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만큼 우리는 북한과는 전혀 다른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그 돈을 불쌍한 사람이나, 북한에게 도움을 준다면 좋으려만, 나는 내가 의사가 된다면, 아니 그때까지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북한에 가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고쳐주고 싶다. 이렇듯 나는 북한에게 어느새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 따스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최근 돼지바 CF가 TV에 많이 보여지고 있다. 통일을 기원해서 만든 CF 같은데, 이런 사소한 것은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어서 매우 기쁜 일이다.

이번 북한 교과서 제작 성금을 통해서 나는 북한에 대해 관심이 더 생겼고 혹시라도 이런 일들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 내 용돈을 조금씩이라도 아껴서 따로 모아 두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보다 잘 사는 내 친구들이 부럽듯이, 북한의 친구들도 우리를 부러워할 것이고, 어린이는 나라의 꿈나무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 민족, 한 핏줄인 북한의 친구들이 어렵게 살고 힘들어 한다는 것은 곧 내 아픔이기 때문이다.

교과서 제작 성금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북한 친구 돕기 돼지 저금통을 하나씩 준비하여 모아두었다가 다음에는 북한 친구들에게 필요한 컴퓨터도 사 주면 좋을 것 같다. 북한의 친구들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모두 친구이니까. 친구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니까.





난 황주와 해주의 달콤한 사과 맛을 보고 싶다

전주서중 3_ 김인화

극기 훈련이나 수학여행 날 밤이 되면 이제껏 잘 놀다가도 한 쪽 마음이 뻥하니 비어있는 것 같은 공허함과 쓸쓸함이 찾아온다. 지금쯤 가족들은 뭘 하고 있을까. 당장이라도 집에 가서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숙소의 하늘을 찌른다. 단지 이삼일 못 봤어도 이렇게 그리운 마음이 솟구 치는데 그 그리움을 반년 넘게 마음에 지니고 계신 이산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 그리움은 얼마나 요란하게 파동치고 있을까.

비록 TV란 전자매체를 통해 이산가족들의 모습을 접하고 있지만, 그 눈물은 TV를 넘어 우리의 마음을 덩달아 아프게 했다. 어렸을 적 읽은 동화 중에 '통일달리기'라는 동화를 읽었는데, 통일이 되어 북한까지 달릴 것을 생각해서 미리 꾸준히 뛰는 연습을 하더라는 그런 내용의 동화였다. 그 동화가 나온 지 몇 년이 흘렀는데 우리나라의 이름은 아직도 '남한'이다. 언제쯤 남한, 북한이란 명칭이 사라지고 당당히 '우리나라'라는 명칭이 한반도에 붙게 될 것인가. 하루빨리 통일이라는 바람을 잡아서 동화 '통일달리기' 속의 주인공들이 북한까지 뛰게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통일'이란 바람은 쉽게 잡히지 않는다.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해 남한과 북한의 정상들이 만나고,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남북 모두 눈물을 흘렸고, 이제 남북을 잇는 철도까지 생겼지만, 지도엔 아직도 '휴전선'이란 밍상 맞은 줄이 쪽 - 그어져 있다.

황주와 해주의 사과를 맛은 그렇게도 좋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의 황해도란 명칭이 생겼다고 한다. 가뜩이나 사과를 좋아하는 난 황주와 해주에서 자란 빨간 빛의 사과를, 여기 전주에서부터 자동차를 타고 그곳까지 가 직접 따먹어 보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같았다.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면 '통일달리기'의 주인공들이 아직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초등학교 시절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서 북한학생과 남한학생끼리 만나서 퀴즈를 푸는 코너가 있었다. 그것을 계속 보다보니까 내가 남한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북한을 이기고 싶다는 경쟁심이 조금은 들었다. 하지만 그 마음보다도 이렇게 같이 문제를 풀며 즐기는 걸 보고 설날 가족끼리 윷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불쑥불쑥 올라왔다. 물론, 그 코너는 직접 북한, 남한 학생이 만나서 문제를 푼 것이 아닌 합성이었고, 그걸 알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날의 나처럼 실망을 한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난 그 합성사실을 알고 '실망'했다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못하고 '합성'이란 기술에 의해서 만나게 된 것을 알고 실망한 마음. 다시 말해서 '남한사람과 북한사람이 실제로 만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 즉 그게 통일을 정말로 원하는 사람의 마음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통일은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만나고 서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일 테니 말이다. 물론 통일이 되고 나면 남한사람이니 북한사람이니 하는 말은 사라져야 하겠지만 말이다.

통일이 왜 안 되는 것이냐고 물으면 '정부가 무능해서'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남북 정상회담, 남북 철도 연결 등,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역할이 통일을 위한 한 걸음 한걸음일테니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난 "그게 아니야!"라고 외치고 싶다.

현재 남한과 북한에는 남, 북 그 둘을 잇는 철도가 여러 개 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국민들 마음속에 그러한 철도는 없다.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야만 제대로 된 철도고, 그때야 비로소 기차는 '통일'의 바람을 맞으며 그 위를 뽕뽕 달릴 수 있다. 즉, 정부의 노력보다 앞서 우리의 '진실한 소망'이 필요한 것이다.

TV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면 '불쌍하다', '안됐다'란 생각만 가지지 말고 우리가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자. 물론 몇십 년 동안이나 이루지 못한 통일이 자신이 나선다고 해서 이루어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우공이산'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의 한 삽 흙이 산을 옮기듯 그런 작은 움직임이 모이고 모인다면 우리는 통일의 꿈을 좀 더 빨리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태산을 옮기는 힘은 작은 티끌에서 비롯됨을 잊지 말자. 손으로 못 잡을 바람이라면 마음으로라도 잡자. 애당초 '진정한 통일'의 바람은 마음으로 원해야 잡을 수 있는 것일 테니..., 그리고 그런 바람을 맞으며 우린 모두 황주, 해주의 달콤한 사과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니...





꿈에 본 통일



장수고 1_김동욱

2007년 6월 1일 12시 20분 7천만 온 겨레가 그렇게 꿈에도 그려 왔던 통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왔던 통일이 이루어지다니 정말 꿈만 같다. 이제는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모두 다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부터 나는 자랑스러운 통일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행복하다. 감히 말로는 표현 못할 만큼 기쁘고 행복하다. TV며 라디오며 인터넷, 신문 등 모든 매체들이 온통 통일 얘기로 가득하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통일이 이루어지다니 친구들과 나는 부둥켜안고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다. 무엇보다도 할머니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다. 우리 할머니의 소원은 살아생전에 평양에 있는 모란봉에 한번 가보시는 것이었다. 할머니께서는 모란봉이 참 아름다운 곳이라며 나중에 통일이 되면 꼭 같이 가자고 나에게 늘 말씀하시곤 하셨다. 드디어 통일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꿈만 같았다. 잠을 자려고 애써 보아도 너무 설레어 잠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뒤척이다 어느새 깜빡 잠이 들었다. 뒤척이며 잠을 잤는데도 일어나니까 기분이 상쾌하였다.

텔레비전을 켜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휴전선을 철거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방영되고 있었다. 이산가족이신 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 너무 기쁘니

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통일이 되어 다시 한번 고향땅을 밟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TV를 보는 나도 기쁨에 어쩔 줄 모를 정도였다. 기분 좋게 학교에 갔더니 역시나 학교에서도 온통 통일 얘기만 하고 있었다. 나도 책상 위로 가방을 던져놓고 친구들과 함께 통일 얘기를 했다.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친구 중에 한명이 갑자기 노는 토요일에 평양에 가자고 하였다. 우리들은 모두 그러자고 얘기를 하고 계획을 세웠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노는 토요일이 다가왔다.

우리들은 기차를 타고 갈 계획이었는데 경의선이 새롭게 단장하는 공사중이라서 기차는 지금 운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다.

터미널에서 평양 가는 표를 샀다. 생각 했던 것만큼 비싸지는 않았다. 평양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5시간 정도 걸린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가는 사람이 많아서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쳐서 무려 7시간 만에 평양에 도착하였다. 도착하자마자 나는 친구들을 이끌고 모란봉을 향하였다.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모란봉에 도착하여 모란봉을 보니까 할머니 말씀대로 정말 아름다웠다.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재미있게 놀다 보니까 배가 고파져서 밥을 먹으러 갔다. 대동강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갔다. 친구들이 평양까지 왔으니까 냉면 한번 먹어보자고 하여서 냉면을 시켰다.

드디어 냉면이 나왔는데 정말 푸짐하였다. 입맛을 한번 다시고 한 것가락 먹었는데 그 맛은 말로 표현 못할 만큼 맛있었다. 정말 기가 막힌 맛이였다. 또 대동강의 경치를 보면서 먹었기 때문에 더 맛이 있었던 것 같다. 음식을 배부르게 다 먹고 나서 기회가 되면 다음에 다시 한번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식점 벽에다가 ‘장수고등학교 1-3반 친구들 왔다 갑니다.’ 라고 큼지막하게 쓰고 음식점에서 나왔다.

지금 나와 내 친구들은 행복해서 웃음이 끊이지를 않는다.

통일이 이렇게 좋은 것인줄 예전에는 몰랐었다. 통일이 되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인다. 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제부터 나는 통일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보아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여, 난 통일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다!



13

전라남도

- 우리는 하나 _ 339
- 우린 제일 멋진 화음을 만들었고,
모두 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_ 342
- 삶은 달걀 _ 345
- 가슴 아픈 사연들이 새겨진 '휴전선' _ 348
- 12분의 장벽 _ 351
- 그때 그 아이 _ 354
- 할머니의 아픔이 기쁨으로 되는 날 _ 357
- 통일로 가는 뱃길 _ 360
- 할아버지 어깨 _ 363

우리는 하나



황산초 5_ 서유경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직접 전자 오르간을 치며 음악을 연주하시던 선생님께서 갑자기 오르간에서 손을 떼셨다. 우리는 눈치 채지 못한 채 한 소절을 더 부르고는 반주 소리가 들리지 않자, 일제히 노래를 그쳤다.

“감정을 살려서 불러야지. 노래를 부를 때는 마음으로 불러야 하는데 너희는 그냥 부르잖아!”

선생님이 오르간을 툭툭 치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되는데요?” 우리 반 아이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다. 선생님은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불러야지.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뜻을 생각하며 불러야 하는 거야, 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불러야 할지 느낌이 올 거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창가로 새어 들어오는 햇빛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얼마 전에 ‘공동경비구역 JSA’ 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단다. 너희들도 다들 봤지? 선생님은 처음에 그 영화가 남과 북이 싸우는 이야기인줄만 알았어. 그런데 내 짐작과는 달리 참 아름다운 영화였어. 북한 군인과 우리나라 헌병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같이 만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잘못

을 감싸주는 그런 이야기더구나….”

교실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입을 꼭 다물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선생님은 잠시 쉬었다가 말을 이었다.

“선생님은 그 영화를 보고 느낀 게 많았어. 북한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야 하겠고, 자라는 너희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단다. 그리고 과거의 북한에 대한 교육은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었어.”

그때였다. 누군가가 선생님께 따지 듯 물었다.

“북한도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많아요. 간첩도 보내고, 비행기도 폭파하고, 핵폭탄도 만들잖아요?”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옳다는 듯 모두 머리를 끄덕였다. 선생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맞아요. 북한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6·25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들이 보내준 많은 식량과 비료 등 구호 물품은 제대로 인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남북대표의 실속 있는 만남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 뉴스에 경의선 열차가 임진강을 지나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것을 보았지요. 그곳이 바로 56년 동안 공동경비구역으로 잡초만 무성하고 철길은 녹이 쓸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남과 북의 군인이 안타까운 우정을 나누고 있는 이야기를 상상으로만 했던 일이 어제 저녁 철길이 이어지고 남과 북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통일도 아니요, 북측의 마음이 모두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경의선이 뚫리듯이 우리 모두 노력하고 남북한 지도자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정말로 민족을 위한 바른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머지않아 또 다른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꿈을 간절히 바라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침묵이었다.

그때였다.

“선생님 노래 불러요!”

누군가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다. 선생님은 다시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잠시 후 은은한 반주 소리가 들려 왔다.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노래를 시작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문득 며칠 전에 읽었던 ‘비닐똥’이라는 책이 떠올랐다. 한 북한 소년이 밥을 못 먹고 죽은 자신의 동생을 보고는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게 된다. 그 아이는 같이 온 동료와 구걸을 해 가며 2달치 생활비를 마련하게 되고 경비원에게 걸릴까봐 비닐에 돈을 싸서 삼키고 다시 압록강을 건너 북반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가던 중 경비원에게 걸리게 되고 경비원은 똥을 싸고 가라고 한다. 주인공 소년은 다행히도 들키지 않았지만 동료는 참다가 똥을 싸게 된다. 그 똥에는 비닐에 싼 돈까지 섞여 있었다. 그 소년은 그것을 보자마자 체면을 가리지 않고 비닐에 싼 돈을 삼켜 버린다. 결국 그 아이들은 경비병에게 맞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행복한 표정으로 오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북한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됐다고 생각됐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내내 ‘비닐똥’과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는 경의선 열차가 내 눈에 아른거렸다.

남과 북은 하나다. 이제는 모든 것을 서로 이해하고 함께 웃을 일만 남겨야 한다.

‘우리의 소원’의 은은한 반주처럼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도와준다면 통일은 언젠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 올 것이다.





최우수상

우린 제일 멋진 화음을 만들었고, 모두 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나주동강중 3 _ 김보림

“기쁜 날도 많았고, 슬픈 날도 많았으며, 가끔은 가슴 아프면서 힘든 날도 있었고, 어쩔 땐 입이 찢어질 만큼 웃음 가득한 행복한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모두 모여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이루며 멋진 화음을 만들었고, 결국 우리는 모두 ‘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가장 최고를 만들어 냈고, 이젠 행복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기분을 탁 터주는 행복한 결말은 내가 읽은 하이틴 로맨스라는 장르의 소설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허구의 생각이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1950년, 남측과 북측은 한 편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한반도라는 배경에 전쟁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천천히 이야기는 전개되어 왔다. 같은 민족이 서로를 향해 무기를 들고 싸워왔고, 휴전선을 그어 양측으로 나뉘었다. 그로 인해 같은 하늘 아래, 땅에서 살지만 한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교류도 못하게 되었고, 같았던 문화도 점점 달라지고, 이해할 수 없는 점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로 계속 전개되고 있다. 왜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씻지 못할 가슴 아픈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일까? 혹시 통일하고 싶다고 생각만 할 뿐, 새드엔딩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글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을까?

중학교 2학년의 도덕시간에 북한 소개서를 만든 적이 있다. 우리 민족인 북한 소개서를 만들면서, 또 친구들이 발표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른다. 북한의 방언과 문화를 즐겁게 조사했고, 배웠었다. 또한 다른 나라 문화에 섞이지 않으려고 한문도 우리말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표현이 참 예쁘다는 생각도 했고, 우리나라의 옛날 모습과 비슷한 생활방식에 ‘고전적이면서도 곱다’ 라는 생각도 들었다. 어쩌면 서구의 문물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독특한 생활방식을 잃어가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만 같았고 북한의 변함없는 생활방식에 큰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였다. 그리고 ‘우리와 별다르지 않구나. 별다르지 않은 나란데, 같이 못 살아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통일을 하면 더욱 행복한 나라가 될 한반도가 될 건데, 왜 통일이 되지 않을까?’ 라는 가슴 아픈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수많은 의문을 가진 이 이야기의 결말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접한 통일 관련 내용들과 매체들은 나에게 묻는다.

“왜 통일은 되지 않는 거죠? 왜 결말을 짓지 않냐구요!” 화난 내 목소리에 작가는 “통일은 작가가 만들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작가는 밑거름만 만들어 줄 뿐이에요. 그 밑거름을 실천하고 이뤄내는 것은 독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독자인 국민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잘못은 ‘무관심’ 이지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떨어져있었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이 이야기의 결말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이다.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책의 결말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네버엔딩 스토리로 이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친구 관계에서도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다. 남측과 북측에 서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서로 이해할 수 없고, 통일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통일을 이룰 수 없다. 지금 우리 독자들에게 가장 큰 과제는 어쩌면 평화통일이라는 결말을 내기 전에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다. 양측의 국민 모두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휴전선은 저절로 지워질 것

이다.

북한가수들이 한국으로 와서 앨범을 냈을 때는 그만큼 가까움을 느꼈으며, 북측과 남측이 함께 공동주관으로 텔레비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했을 때는 날아갈 만큼 좋았으며, 북핵문제로 다시 멀어짐을 느낄 때에는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우리는 ‘도레미파솔라시도’ 모든 소리를 내면서 멋진 음악을 만들었고, 이젠 더 이상의 악보를 그려나가지도 않을 것이며, 지워나가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도’에서 만날 일만 남았다. ‘도’에서 행복하게 만나서 최고로 아름다운 화음을 담은 완벽한 해피엔딩의 책 한권을 편찬해 낼 일만 남았다. 그리고 그 멋진 화음이 담긴 책 표지에 적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라서 행복합니다.”



살은 달걀



한영고 2 _ 김명국

“참으로 감격스러운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17일 낮 12시 18분에 남측 열차가, 12시 21분에 북측 열차가 기적을 울리며 출발하여 57년이 넘는 세월을 단숨에 뛰어 넘었습니다. 남북통일 기관차는 50여 분 만에 군사 분계선을 지나 도라산 역에 다다랐습니다. 남측 열차는 곧이어 개성 역과 제진 역에서 멈춰 다시 남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학교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와 남과 북이 열차를 시험운행했다는 뉴스를 들었다. 웬지 모르게 마음이 뿌듯하고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었다. 뉴스에서 나오는 기차가 도라산 역을 통과하는 영상을 보고 과연, 기차의 연료는 석유나 석탄이 아닌 남북한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임을 알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북한을 기차여행하면서 각 지역마다의 문화와 역사를 느끼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품을 쓰는 것을 꿈꿔왔다. 이러한 연유에서 이번의 남북철도 운행은 나를 기대감으로 설레게 한 것이다. 내가 작품을 쓸 때에는 어떤 모습일까? 문득, 탁자 위에 올려져있는 삶은 달걀이 보였다.

“달걀 있어요-! 따끈따끈한 달걀이요-!”

“두구두구 습 두구두구 습”

나는 기차가 달리는 소리를 좋아한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들

이서 다녔던 기차여행 때문일 것이다.

“냉차도 있어요. 달같이랑 같이 마시면 아주 맛이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바깥 풍경이다. 맨 처음 보이는 것은 저 멀리 긴 풍경 뒤로 희미하게 보이는 높고 커다란 건물들이었다. 그새 북한도 그렇게 변했나 보다. “어!” 갑자기 울창한 숲이 나타나 내 시야를 가렸다. 이상하게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굉장히 잘 가꾸어진 숲이었다. 우리나라에선 보기 드문 침엽수림이기 때문에, 더욱 자세히 보며 느낌을 표현했다.

“우와! 저런 곳에서 텐트치고 야영하면 진짜 끝내 주겠다.”

이번에는 숲이 사라지고 갑작스럽게 시야가 확 트이면서 나타난 것은 밭이었다. 북에서는 아직도 사람이 직접 김을 매고 있었고, 밭에서 김을 매던 사람이 한 번씩 고개를 들어 이쪽을 쳐다보면, 나도 모르게 흐뭇해졌다.

“북한 사람들은 부지런한가 봐. 일을 열심히 하네.”

어느덧, 통일을 한 지 10년이 지났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기차여행에서 이번에는 가족까지 같이 온 셈이다. 내 아들은 뭐가 그리 궁금한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창문을 짚으며 까르르 웃고 있다. 아내 역시 북한에 온 게 즐거운 것 같았다. 나는 다시 한번 창문 밖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꼈다. 정말 어떤 문학적 표현도 이에 대할 수 없었다.

“이번 역은 평양 역입니다. 고조, 이번 역은 평양입니다.”

“지금까지 도라산 역에서 11시 뉴스 ○○○기자였습니다.”

나는 문득, 어서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남북 열차 운행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고 싶었다.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어보던 나는 ‘통일 기관차’라는 기사 뒤에 붙은 댓글을 읽고 화가 났다. 논리적인 주장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변호하는 그들은 대북 지원문제까지도 걸고 넘어지며, “이건 북에게 또 어떤 불이익으로 협상을 본 것이냐” 부터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그들까지 도와줘야 하느냐” 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만큼 막되게 써놓은 네티즌들도 더러 있었다. 우리는 예부터 조상을

섬기고,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알며, 공동체적인 삶이 발달한 유교 이념국가였다. 특히, 유교에서는 다른 이념들에 비해 가족관계가 더욱 짙었다.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며, 때로는 희생도 하는 아낌없는 공동체다. 그런데, 북한은, 혈연관계인 이산가족들이 해마다 슬픔에 잠겨 서로를 그리워하고 반세기 전에는 한 국가였던 뿔레야 뿔 수 없는 가족 관계가 아닌가? 당신은 가족에게 무엇을 줄 때에도 먼저 이익관계를 고려하는가? 그러므로 나는 통일이나 대북 지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입장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북한은 우리와 한 가족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개의 국토를 두 개로 갈라놓았다면, 다시 우리의 뜻에 따라 한 개로 합치면 될 일이다. 물론 이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국민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우리를 인정했고, 대단히 어려운 고난도 헤쳐 나왔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살펴봐도 뜻을 합치면 어떤 문제이건 해결할 수 있었다. 4천만 국민 모두가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힘쓴다면, 저 늑슬어버린 철망을 거둬버리고 내 아들과 북한 열차를 타고 삶은 달걀을 먹으며 젖은 눈으로 북한 땅을 바라보는 날이 꼭 올 것이다.





가슴 아픈 사연들이 새겨진 ‘휴전선’



장평초 6 _ 박다은

“죽기 전에 꼭 한번 내 고향에 가보고 싶소.” 우리 할아버지 댁 이웃에 사셨던 할아버지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머나먼 길을 떠나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남기셨다던 그 한마디가 지금도 어린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지금부터 57년 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때 황해도에서 살고 계셨던 우리 할아버지 댁 이웃집 할아버지도 피난 도중 가족 모두가 폭격에 목숨을 잃었다.

열세 살의 어린 나이에 한순간에 눈앞에서 가족 모두의 죽음을 목격했으니 얼마나 무섭고 떨렸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겨우 혼자만 살아남은 그 할아버지는 국군의 도움으로 남한까지 무사히 피난을 수 있었지만 너무나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가족 모두를 잃어 가족들의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평생 후회하며 사셨단다.

줄지에 전쟁고아가 돼버린 그 할아버지는 남쪽으로 내려와 먹고 살기 위해 갖은 고생을 다하며 사셨단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젠가 통일이 이루어지면 고향에도 가보고 가족들이 비참하게 죽어간 자리도 가서 이제껏 참고 살았던 눈물도 원 없이 흘려보리라 생각하며 북쪽과 가까운 곳에서만 사셨다고 한다. 하지만, 살아생전엔 통일을 맞을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럴 바엔 차라리 모든 걸 잊으리라 마음먹고 북쪽과는 될 수 있는

한 멀리 떨어진 이곳 장흥까지 오셔서 지내게 되었다. 그래 저래 고생만 하시며 살아오신 그 할아버지는 제 작년에 중풍으로 쓰러져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작년 이맘때 숨을 거두시기 전날까지도 고향을 그리워하며 “내 고향에 가보고 싶다.” 라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는 돌아 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고 서글픈 죽음인가?

휴전선 철책만 없었어도 금방 다녀올 수 있었을 고향,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렇게 잊어버리려 했지만 결코 잊지 못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터 그리워했던 사연이 나의 눈시울을 다시 한번 적신다.

지난 5월 9일부터 어제 14일까지 제 15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금강산에서 열렸다.

60년이 다 되는 기나긴 세월을 그리움으로 간직하며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오다가 겨우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났건만 그토록 기다렸던 무수한 세월이 무색하게도 3일간의 만남의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그 세월동안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흐르는 눈물을 애써 삼키며 헤어진 가족들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으리라는 소망으로 한 평생을 살아왔건만 그토록 힘들게 이루어진 만남의 순간이 겨우 3일이라니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들이다. 짧은 기간의 상봉을 뒤로한 채 아쉬워하면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기약 없는 작별을 하는 남북이산가족들의 애절한 모습을 TV를 통해 보면서 그런 슬픈 사연들이 나의 일기라도 한 듯 어느새 눈물이 앞을 가렸다.

언제쯤 우리 한반도의 허리를 줄라매 놓은 저 녹슨 휴전선을 걷어내어 우리 민족 분단의 슬픔을 씻어줄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면 그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작년 11월에 군복무를 마친 외삼촌은 2년 동안 최전방인 휴전선을 살피며 북한의 도발을 경계했는데 그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지 않다.

휴전선 부근 비무장지대는 오히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수많은 야생동물이 남북을 오가며 자유롭게 지내는 평화의 동산과도 같다.

이처럼 동물들도 마음대로 왔다갔다 평화롭게 지내듯 우리도 하루빨리

민족분단의 철책을 걷어내어 그토록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간절히 가보고 싶은 고향을 마음껏 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나는 책상에 앉아 가슴 아픈 사연들이 빈틈없이 새겨진 휴전선이 걸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간절히 그려본다.





12분의 장벽



순천왕의종 2 _ 장예림

나에게 12분은 소중하지 않은 하찮은 시간이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샤워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책 20페이지 읽는 시간 정도로 말이다. 2년 전, 정확히 말해 나의 초등학교 6학년 여름 전까진 말이다.

제작년 여름 나는 정말 값진 경험을 하게 되었다. 교육청에서 영어, 체육 특기생 및 순천을 빛냈던 학생들을 선발해 전액무료로 금강산 관광을 보내 준다는 소식을 당시 내 담임 선생님이셨던 정명자 선생님께서 들려 주셨다. 금강산 관광이라는 게 학생 신분으로는 흔치 않은 기회였기에 지원 하였는데 마침 예상 외로 높게 나왔던 토익점수 덕에 별 무리 없이 금강산 관광에 선발되게 되었다. 가족들과 함께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가는 것이었기에 부모님과 동생의 적지 않은 시기의 눈길을 꽤 오랫동안 받았던 걸로 기억된다. 그래도 출발하는 날이 되자 웃으며 잘 다녀오라 해주시는 부모님과 돌아올 때 꼭 선물 사오라는 애교 섞인 동생의 말 덕분에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었다.

2박 3일의 일정 중 첫째 날은 휴전선 근처인 고성군에 묵었고 둘째 날 북으로 갔다. 막연하게 책으로만 읽어왔던 북에 내가 직접 간다는 설렘에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얼른 서둘러 버스에 올라탔다. 육로 관광이 허가되어 비무장지대(DMZ)를 버스를 타고 지날 수 있었다. 남측 군사한계선을 막 지날 때 가이드 언니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라고 물어 나는 당

연하다는 듯이 그때의 시간을 말하였다. 그러자 가이드 언니는 “잘 기억해 두세요.”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살포시 웃으셨다. 나는 왜 그러시나 의아해 했지만 난생 처음 직접 내 두 눈으로 보는 비무장지대에 정신을 놓고 차창 밖을 바라보며 가이드 언니의 말은 금새 잊어버렸었다. 그때 날씨가 좋지 않아 흐릿하긴 했지만 넓게 펼쳐진 들판을 보니 속이 시원했지만 그 땅 아래에 무수히 많은 지뢰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이드 언니의 말에 움찔하기도 하였다. 야생동물이 갑작스럽게 도로로 뛰어들지도 모르기에 차는 천천히 서행하였다. 그렇게 정신없게 비무장지대를 구경하던 나는 어느새 우리가 북측 군사한계선을 막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가이드 언니는 “우리가 남측 군사한계선을 넘어서 비무장지대를 달려 이렇게 북측 군사한계선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보세요. 12분밖에 안 걸렸죠? 이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라고 말하였는데, 그때 나는 순간 속에서 뭔가 울컥하는 게 느껴졌다. 나는 그렇게 애국적이지 않고 친구들이 나보고 감정이 메말랐다고 할 정도로 감상적이지도 않은데 순간 울컥해 버렸다. 시끄럽던 버스 안도 그 순간엔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버스 엔진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저 막연하게만 느끼고 있던 북녘 땅. 멀게만 느껴졌던 북녘 땅이 불과 차로 12분밖에 안 걸린다는 것을 안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버스 안에 있던 그 모두가 그랬으리라.

금강산에 도착해 만나게 된 북측 언니들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생수를 팔고 있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며 웃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활기차 보였다. 학교에서 청소시간에 선생님이 안 계실 때 장난치는 것 같았다. 북의 특이한 말투가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처럼 정겹게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와 똑같이 웃고 울고 장난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그들의 땅이 그저 휴전선이라는 장벽에 막혀, 12분이라는 장벽에 막혀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었던 것이다.

인간은 참 어리석어서 자기가 직접 보거나 느끼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을 쉽사리 바꾸려 하지 않는다. 나도 직접 한반도에 붉게 그려진 휴전선이라는 한반도 허리에 주욱 그어져버린 장벽이 실은 12분 만에 지날 수 있다는 사

실을 알게 되고 나서 그들의 생활을 단편적이거나 직접 보고 내 무의식중에 뿌리를 깊게 내려버린 '북한은 우리와 한 민족이었을지 모르지만 조금은 다른 나라' 라는 선입견을 '북은 휴전선으로 가로막힌 우리나라, 같은 우리 민족' 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이번 일로 인해 사람들이 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다. 내가 그러했듯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저 말로만 북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12분이라는 두껍고도 얇은 장벽. 그 얼마 되지 않는 것이 지리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인 것들, 예를 들어 사상, 문화, 언어 등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분했다. 비록 통일이 되었더라도 우리나라가 북과 진정으로 융합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우리나라 문화가 생소해 적응하기 힘들어한다고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나는 열성적인 애국주의자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세계 유일의 분단국' 이라는 오명을 안겨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멀게 느껴지게 하는 그 휴전선이라는 선이 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멸시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기대한다. 이렇게 나에게 특별해진 12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특별해지길 바라며 나는 오늘 모두 행복하기를 기도한다.





그때 그 아이



비금고 2 _ 이현명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죠.’, ‘가지고 오신 모든 짐들을 여기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해외 여행가는 줄 알겠지만, 이 말들은 금강산을 여행할 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2005년 1월 3일, 눈발이 몰아치던 밤, 저는 어머니의 배웅으로 금강산 행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금강산에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그 저 텔레비전에서만 나오던 곳을 제가 간다니 마음 한구석에 뿌듯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 여러 번 검역소를 거쳤습니다. 아직까지 해외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던 저는 어색하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짐을 올려놓았습니다. ‘아, 이제 금강산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내원이 ‘이제부터는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쪽 어깨에는 긴 총을 매단 군인 두 명이 우리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 군인들과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계속 땅만 쳐다보고 있는데, 잠시 후 선생님께서 밝은 목소리로 다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었지만 저는 잔뜩 긴장을 했었는지 그 군인들이 나간 후에 한동안 얼떨떨해져 있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조금 엄격한 심사가 되자, 저는 그때서야 ‘아, 북한에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버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나무들, 개들,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데 왜 이렇게 나뉘어 살아야 하는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금강산에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옷을 단단히 입고 금강산에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새하얀 눈 속에 계곡들과 산봉우리들이 한데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금강산 등반의 준비를 마친 후 한 북한 안내원의 설명을 듣고 나서 금강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깐 처음으로 북한의 민간인과 직접 대면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과자를 파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본 즉시 달려가서 들뜬 마음으로 사진을 찍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초상권 문제로 인하여 사진은 찍을 수 없습니다.' 라는 조금 어려운 말로 거절하셨습니다. 당연히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하는 수 없이 기름과자와 설탕과자를 한 봉지씩 사들고 가던 길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눈이 얼마나 왔던지 들은 바로는 1m정도 쌓였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이 많이 와서 길은 사라지고 임시로 만들어 놓은 길로 금강산 산행을 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계곡을 따라서 걷다 보니 어느새 구룡폭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겨울이라서 그런지 용들은 모두 잠들어 있는 듯 고요했습니다. 잠시 후 한 북한 주민이 오셔서 다른 계절의 구룡폭포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직접보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장관일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려오는 길. 이제는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는 이곳을 뒤로한 채, 들고 간 생수병에는 금강산 계곡물로 가득 채우고, 또 주위에 있는 돌 몇 개를 주워 가지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숙소로 돌아온 저에게 선생님께서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돌을 주워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금강산에 왔다는 기념으로 돌을 몇 개 주워든 것뿐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북한에서 남한으로 돌아갈 때에는 돌을 한 개라도 가져가면 불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씩씩했습니다.

다음날 해금강과 삼일포를 거친 후 저는 2박 3일의 여정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제시하고, 짐을 검사한 채로 말이죠.

제가 금강산에 가서 느낀 점은 금강산의 아름다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금강산 하면 생각나는 가장 선명한 장면은 버스 옆으로 지나가는 한 꼬마아이의 아리송한 표정입니다. 그때는 약간 헤진 옷을 입은 그 아이를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아이의 옷차림의 영상보다 그 아이의 얼굴에서 나오는 어색한 표정이 가슴 속에서 뭔가를 자극합니다. 버스가 지나가는 바람에 가던 길을 멈추고 버스 한대 한대를 찬찬히 지켜보던 그 아이, 과연 그 아이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한 민족이라기보다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 경계해야 되는 사람, 중국보다도 먼 나라의 생소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을 이끌어 나갈 어린 꼬마아이의 머릿속에 이러한 생각이 깃들 것이라 생각하니, 그 아이에게 따뜻한 미소 하나 보내주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때 그 아이를 다시 북한에 가도 만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만난다면 그 아이에게 이러한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꼬마야, 나는 너의 형이야. 물론 친형은 아니지. 하지만 우리는 단군의 핏줄을 이어받은 한 형제란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아무리 닿으려고 손을 뻗어도 닿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엔, 우리 환한 미소로 서로에게 답하자. 철조망이 없는 한 조그만 집에서.’





할머니의 아픔이 기쁨으로 되는 날

★
미력초 5_ 문경은

“휴 - 우 -”

TV를 보고 계신 할머니의 한숨이 길게 새어 나왔다.

“할머니, 또 슬퍼요?”

나는 할머니 옆으로 가서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슬픔 정도가 아니라 아프구나, 아파.”

벌써 80세를 넘기신 할머니의 눈에는 촉촉한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요, 지금까지 잘 기다려 왔잖아요?”

나는 할머니가 슬퍼할 때마다 한 말을 다시 또 했다. 그러나 할머니의 얼굴은 펴지지 않았다.

TV에서는 헤어진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말을 하면서 방울방울 눈물을 떨구고 있는 모습만 봐도 코끝이 시큰해졌다. 할머니는 아침이면 TV 앞에 앉아 헤어진 가족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다.

“나는 언제 우리 동생을 만날 수 있을거니?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할 텐데...”

할머니는 연세가 들면서부터 6·25전쟁 때 헤어진 동생 생각을 많이 하신다. 북한이 고향인 할머니는 아버지를 따라 먼저 남쪽으로 내려오셨다고 하셨다. 남동생과 엄마는 다음에 내려오기로 했는데 그 뒤로 소식을 모른다

고 하셨다. TV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면 계속해서 보고 또 보신다.

“할머니, 그래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산가족도 만나고 금강산도 가는 것 보세요.”

나는 할머니를 위로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더 조바심이 나는구나. 통일만 되면 다 해결될 것을…, 통일이 그렇게도 어려운지… 원.”

할머니는 또 눈물이 글썽해졌다.

“할머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꼭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수십 번도 더한 말을 또 할머니한테 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겠지.”

할머니는 헤어진 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TV 앞에 앉아 계셨다.

“할머니,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곧 통일이 될 거래요. 건강하게 지내시면 고향에 가서 동생을 만날 수 있을 거니까 기운내세요.”

할머니는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옛날이야기를 해 주셨다.

“너도 동생이 있으니까 좋지? 나도 너만 할 때 부모님이랑 동생이랑 서로 생각하면서 사이 좋게 지냈단다. 그런 가족을 50년이 넘게 못 만났으니 오죽 보고 싶겠냐? 죽기 전에 통일만 된다면 한이 없겠다.”

할머니는 연세가 들수록 옛날 생각이 더 난다고 하셨다. 그리고 50년이 넘도록 남북한이 갈라져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하셨다.

“할머니, 우리나라 반기문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어요. 유엔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곳이에요, 반기문총장이 있어서 든든해요. 통일도 훨씬 앞당겨질 거예요.”

나는 신바람이 나서 말했다.

“그 사람이 정말 통일을 시켜 준단냐?”

할머니 얼굴은 금세 밝아졌다.

“할머니, 반기문총장이 통일을 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더 잘 알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두 군데로 갈라진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거든요.”

할머니는 다시 기운이 빠진 것처럼 시무룩해졌다.

“그것은 이 할미도 알고 있는데 뭘…”

나는 다시 힘주어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 서로 갈라져서 전쟁 준비를 하니깐 북한이나 우리가 모두 고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통일이 되면 우리 것은 북한으로 보내주고 북한에서 많이 나온 것은 남쪽으로 나눠주면 편하게 잘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할머니는 다시 눈을 크게 뜨셨다.

“그래서, 금방 통일이 된단냐?”

나는 금강산 관광이 자동차로도 이루어지고, 곧 열차로도 구경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자신 있게 말했다.

“할머니 곧 있으면 헤어진 사람들도 만나고, 북한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될 거니까요.”

통일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고 숙제이기 때문에 해답이 곧 나올 거라고 말씀하신 선생님 모습이 생각났다. 그리고 보니 ‘통일은 우리 할머니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날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통일로 가는 뱃길



여수구룡중 2 _ 조성욱

지난 토요일 오후 모처럼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동생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섰다. 얼굴에 스치는 포근한 봄바람을 마시며 잔잔한 바다를 구경하다보니 어느새 시내에서 꽤 멀리 떨어진 낙포 부두까지 와 있었다.

낙포 부두는 다른 부두처럼 여객선이나 고깃배가 드나드는 곳이 아니고 비료나 기름을 실어 나르는 화물선이 있는 곳이라 조용한 편이다. 그런데 다른 날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큰 배에 짐을 싣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엄청난 양의 비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일하시는 아저씨 한 분에게 어디로 가는 배냐고 여쭙었더니 북한의 원산항으로 비료를 보내는 중이라고 하셨다. 북한? 나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말로만 듣던 쌀이나 비료 등이 북한으로 가는 걸 실제로 보고나니 남다른 느낌으로 가슴이 뭉클했다. 아저씨께서는 근처의 비료공장에서 금년에 30만 톤을 보내게 되는데 이번이 세 번째 가는 길이고 앞으로도 아홉 번쯤은 더 가야한다고 하셨다.

동생과 나는 묵묵히 비료가 쌓여지는 배를 바라보면서 한 번도 가 본적이 없는 북한의 원산항이나 남포항을 머릿속에 그려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보낸 비료로 농사를 지을 북한의 농민들을 그려 보았다. 그들이 웬지 옆에 있는 듯 느껴지면서 이웃 아저씨 같은, 친근한 느낌이 들었다. '저 많은 비료가 북한의 척박한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 주겠지.' 내 고향 여수에서 생산된 비료가 뿌려지는 북한의 그 땅이 바로 우리 땅이라는 생각이 가슴을 뜨겁게 했다.

그렇다. 우리 땅, 우리 조국, 우리 겨레, 얼마나 정다운 말인가. 문득 초등학교 때 가족여행으로 다녀온 통일전망대의 저쪽, 아득히 멀게만 보였던 북녘 땅이 떠올랐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오고가지도 못한 채 철조망에 갇혀있는데 이름 모를 새들만 훨훨 날아 북녘으로 가던 통일 전망대, 그때도 지금과 같은 안타까움으로 슬프기만 했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불행한 민족인가. 눈앞에 보이는 고향땅을 두고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애타게 그리워하는 실향민들, 작은 땅덩이를 절반으로 잘라놓고 마치 남의 나라 사람들처럼 살아온 우리 민족. 가끔씩 텔레비전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지켜보면서 마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인 듯 눈시울이 뜨거웠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을 서로 소식도 모르고 지내다가 얼굴을 확인하며 부둥켜안고 통곡하는 모습은 온 나라를 눈물로 적시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하는 슬픔은 차마 볼 수 없는 아픔이었다.

전쟁이 나던 해 이십 대 청년으로 집을 떠난 아들이 백발 성성한 노인이 되어 죽음을 문 앞에 둔 어머니를 만나는 모습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철조망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계 평화를 도모하는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분단국가라는 사실은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일 뿐이다. 그런데도 통일로 가는 길은 왜 이렇게 험난한 것일까? 반세기라는 오랜 세월을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서로 다른 생활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가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할 것은 잃어버린 동질성을 찾는 일이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우리의 혈관 속에는 똑같은 피가 흐른다는 사실 아래 우리가 한 뿌리였음을 재인식해야 한다.

몇 해 전 평양을 찾아간 우리나라 가수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던 북한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가슴에도 아직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공동의 정서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남과 북의 한결같은 소망인 통일을 하루속히 이뤄야 한다.

한반도 작은 땅, 우리나라를 두고 중국에서는 백두산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고, 일본에서는 독도가 자기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는 기막힌 현실에서 왜 우리는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것일까? 허리 잘린 부끄러운 내 나라, 통일로 가는 길이 제 아무리 험난한 길일지라도 남과 북, 우리 서로 손을 마주 잡고 걷는다면 넘어지지도 쓰러지지도 않고 목적지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낙포 부두에서 출항하는 배가 북한의 원산항이나 남포항에 도착하기까지는 가끔씩 거센 바람도 마주치고 높은 파도도 부딪칠 것이다.

하지만 배는 간다.

그 뱃길을 따라 온 국민의 마음도 함께 간다.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소망이 하나로 응집될 때 바람도, 물결도, 저만큼 물리서서 길을 내줄 것이다.

우리가 보내는 비료가 북한 땅 곳곳에 스며들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통일의 소망이 북한 동포들의 가슴마다 따스하게 스며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할아버지 어깨



송지종합고 3 _ 박주희

“딸깍” 잠겨있는 할아버지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며칠 동안 닫아둔 방이 뿜어내는 찬바람이 날 반긴다. 할아버지가 없는 방안에 들어와 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지금 광주 고모 댁에 계신다. 다리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갔다가 며칠 고모 댁에 머무르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시니 그 전에 할아버지 방을 깨끗이 청소하라는 아빠의 말씀이 지금 나를 할아버지 방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할아버지 방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TV 위에 분필가루처럼 쌓인 먼지와 아무렇게나 자기들 걸려지고 싶은 대로 걸려있는 옷들,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난 신문들이었다. 휴우, 쉽지 않은 청소가 될 것 같은 예감에 한숨이 나온다. 창문을 열고 찬바람이 가득한 방안 공기를 밖으로 쫓아내고 따뜻한 바깥공기를 불러오면서 청소는 시작되었다. 정신없이 방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를 계속했다. 평소엔 안 나던 신까지 나면서 청소에 빠져들고 있는데 옷장 틈 사이로 빼꼼히 보이는 노란종이 한 장, ‘이건 또 뭐야.’ 하면서 틈에 끼여있던 종이를 빼서 무슨 종이인가 펼쳐보였다. 상장 같아 보였다. 누가 받은 건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누가 준 건지가 궁금했다. 아래를 보니, 김대중. 김대중? 내가 알고 있는 김대중이 맞을까 하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분명 내가 알고 있는 전대통령 김대중이었다. 아버지가 대통령에게 상을 받을 일

이 있었던가 생각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6·25 한국전쟁의 참전용사였다는 것을…。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런 훌륭한 것을 왜 옷장 틈 사이에 안 보이게 구겨놓으셨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다. 도저히 내 생각으로 답을 찾지 못해 아빠께 여쭙보았다. 아빠의 대답은 시원했지만 왠지 슬펐다.

할아버지의 뜻이었건 그 누구의 뜻이었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눴던 건 사실이고, 그 사실이 할아버지를 너무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할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였던 것을 부끄러워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렇게 통일을 바라셨을까? 할아버지는 대통령 선거할 때 통일에 대한 얘기가 조금만이라도 나오면 그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한다며 그 후보를 지지하셨고, 통일에 관한 내용이 텔레비전에 조금이라도 비춰지는 날이면 할아버지는 그날의 일이 다시 생각나시는지 온종일 무거운 무언가가 어깨를 누르고 있는 것 같이 어깨가 처질 대로 처져 계시곤 했다.

할아버지가 바라는 건 단 하나였다. 통일. 6·15 남북공동선언 때, 할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다. 온종일 아리랑을 흥얼거리시며 이제 곧 통일이 될 거라며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느꼈던 설렘 그 이상의 것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 보였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설렘은 아직 현실이 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우리는 그대로이며 할아버지의 두 어깨는 더 아래로 처져버렸다. 할아버지의 설렘과 기대가 어지간히 크긴 컸었나보다.

언젠가 할아버지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방송을 본 적이 있다. 부부로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헤어지기 50분 전 “살아서 통일만 기다리라.” 고 할아버지께 말씀하시자 “언제 통일이 오냐.” 면서 우시는 할머니 모습이 기억이 난다. 그 말과 동시에 할아버지의 어깨는 땅 밑을 찾아 내려가고 있는 듯했다. 할아버지는 땅 밑을 찾아 내려간 어깨를 들어 올리고 조용히 자리를 뜨셨다. 불편한 다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시는 할아버지의 뒷모습. 여전히 처질 대로 처진 어깨를 보니 마음이 아팠다. 통일이라는 녀석이 어서 와서 할아버지의 어깨를 다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칼로 벨 수 없는 것이 물이고, 물보다 진한 것이 핏줄이라면 한 혈통을 가

진 우리 한 민족의 핏줄은 끊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찌다가 우리나라에 등지를 틀고 앉아 있는 외세의 손아귀에서 놀아나 여태껏 이리저리 부림을 당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손아귀에서 놀아날 수 없다.

오르지 못할 산이 없는 것처럼 이루지 못할 소원은 없을 것이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다. 오십 년이 넘도록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해 왔다. 이제 이루어질 일만 남았다. 그저 상상만 했던 통일이 아닌 실현이 되는 통일을 보고 싶다. 한국전쟁이라는 슬픈 이야기는 비극적인 결말이 아닌 눈물 나는 '해피 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의 짝 퍼진 어깨를 보고 싶다. 그리고 더 이상 할아버지의 표창장이 옷장 틈 사이에 있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한쪽 벽면을 장식하는 자랑스러운 표창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14

경상북도

- 통일이여 _ 369
- 철마의 미소 _ 371
- 철길을 따라 할머니를 만나다 _ 374
- 북한으로 달리는 남한 열차 _ 378
- '간 큰 가족'의 웃음과 눈물 _ 381
- 백범으로부터 온 편지 _ 384
- 다시 부르게 될 '대한민국' _ 387
- 유월이 오면 _ 390
- 매 듨 _ 392

통일이여



경산서부초 6 _ 김민정

얼마 전 인터넷으로 숙제를 하다가 조회수가 엄청난 사이트 하나를 발견하였다. 그 사이트에는 북한에 관한 많은 글과 사진, 동영상도 올라와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고 가슴 아픈 장면은 북한 어린아이가 굶주려서 죽어가는 모습과 입진각에서 너무나 슬프게 울부짖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었다.

늘 음식을 남기고 편식하는 나는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과,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진심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동영상은 내게 충격적이었고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도덕시간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곰곰이 떠올려보았다.

지난 주말, 아빠의 회사일로 경기도 파주에 갈 기회가 생겨 우리 가족은 입진각을 찾게 되었다. 입진강을 따라 강 건너 저 편에 긴 철조망이 쳐져 있고, 군인 아저씨들이 총을 들고 그림처럼 서 있었다. 6·25사변 때 사용했던 군 장비들이 전시된 곳도 둘러보았다. 그 무기들로 한 민족끼리 싸웠다니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서 있는 곳 바로 건너편이 북한 땅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다. 그곳의 분위기는 엄숙하리 만큼 조용했다. 관람 온 사람들 중에는 외국 사람들도 섞여 있었는데, 웬지 부끄럽게 느껴졌다. 아빠께서 한국전쟁 이야기와 이산가족의 아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 50년이 넘게 철조망이 가로 막혀 있다고 하시며 길게 한숨을 지어셨다. 자유의 다리 철조망 사이엔 빛바랜 꽃과 낡은 천 조각, 그리고 전달되지 못한 편지들이 꽃혀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천 조각이 북한을 향해 애타게 손짓하는 듯이 보였다.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통일에 대해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이곳에서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책에서는 “단일 민족국가, 한겨레 한민족”라고 배웠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갈라진 채로 오십 년이 훌쩍 넘었는데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 이대로 영영 다른 나라가 되고 마는 것은 아닐까? 이곳에 와서 보니 이산가족이 겪는 고통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철조망에 걸려 나부끼는 편지와 천 조각이,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본 이산가족 상봉 장면과 겹쳐져 눈을 감아도 자꾸만 떠올랐다.

지금의 이산가족들은 대부분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되셨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서 가족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통일의 숙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릴 적에 읽었던 책이 생각난다. 키다리 아저씨가 사는 성이 있었다. 사람들이 싫어 담장을 높게 높게 쌓아 올렸다. 그 후 그 성에는 봄이 찾아오지 않았다. 사계절 추운 겨울만이 계속 되어 모든 것은 꿈꿨다. 키다리 아저씨는 외로워졌다. 그러자 아저씨는 용기를 내어 담장을 조금씩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다. 담장 사이로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놀러오면서 아이들과 함께 봄도 찾아온다는 이야기다.

북한도 우리가 다가갈 수 없게 높이 쌓아 올린 담장을 조금씩 허물어 주었으면 좋겠다. 북한이 그렇게 되도록 서로 마음을 열고 노력해야 한다. 우선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일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생각, 내 가족 일이라는 생각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화해할 마음의 준비를 모두가 할 때이다. 그러면 통일의 그날도 먼 소식만은 아닐 것이다.

‘통일이여 어서 오라.’

철마의 미소



봉화중 1_ 최서경

나는 56년 전 그날을 아직 잊지 못합니다. 내 생애 가장 가슴 아프고, 서글팠던 해지요. 내가 늘 가던 길이 단단한 철조망으로 막혀버린 일입니다. ‘철마’, 철로 만든 말이라고 불리는 나의 일은 남쪽의 서울과 북쪽의 신의주를 오가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달릴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길은 없어져버렸죠. 내가 어느 쪽으로 가든 언제나 반갑게 손을 흔드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는 딱딱한 군모와 군화를 신은 무장군인만이 보일 뿐입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눈물을 삼키며 오늘도 힘겹게 하루를 보냅니다.

이젠 봄입니다. 제 발치에 고운 민들레 한 송이가 피어났네요. 수줍어 보이는 목소리가 나를 부릅니다.

“보셨어요? 철로를 잊고 있어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앞에선 끊어진 철로를 보수하는 인부들이 보였기 때문이죠. 저는 꿈인 줄만 알고 팔뚝을 몇 번이나 꼬집어보았지만 꿈이 아닙니다. 저는 민들레라도 끌어안고 열싸 춤을 추고 싶었죠.

인부들이 두런두런 말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철도가 이어지면, 언젠가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산가족이라면 몰라. 남한 사람들은 통일이 되길 원치 않을걸.”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릴까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통일을 바라는 줄로만 알았어요.

“아니. 왜?”

“그야 북한의 폐쇄적인 정치와 경제적 격차 때문이지.”

나는 마른 입술을 혀로 쓱 축였습니다. 시무룩해 있는 저에게 민들레가 조심스레 말을 건넵니다.

“힘내세요! 통일은 꼭 될 거예요. 제가 매일 기도할게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산들 바람이 불어와 민들레의 머리칼을 흐트러 놓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까. 제 주위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플랜카드에는 ‘축! 경의선 철도 복원공사 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갖가지 색깔의 축포가 “퐁”하고 터집니다. 단상에 올라갔던 사람이 연설을 마치니 귀가 따갑도록 박수소리와 함성소리가 들려옵니다.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관사의 두근거리는 심장소리도 느껴집니다. 56년 만에 달려보는 저는 기쁜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지만, 꼭 참고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발끝으로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몇십 년간 움직이지 못해서인지 몸이 굉장히 찌뿌둥하지만 기분만은 더할 나위 없이 가볍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달려보는 거라서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가만히 있던 기관사가 말을 겁니다.

“이 기차는 판문 역에서부터 개성 역까지 간단다.”

“경의선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철도예요.”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통일이 되면...,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얼마간을 달렸을까, 기차길 옆에서 소꿉장난을 하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와아! 기차다!”

기관사가 장난스럽게 살짝 종을 울려줍니다. 아이들은 흠뻑 땀을 흘려 손가락을 털고 손을 흔듭니다.

개성 역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맞아줍니다. 개성은 변했네요. 공장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안전모를 쓴 인부도,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신사도 모두 저를 축하합니다. 개성 역을 돌아 나오는 몸이 뻑적 지근합니다. 전신이 아릿하게 당겨 오지만 마음만은 가뿐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뜨겁게 제 등을 달구던 햇빛이 조금 잠잠해집니다. 아카시아 향을 몸 안 가득 머금은 봄바람이 뽀얀 향기를 흩뿌리며 내게 살짝 휘감깁니다. 뻗으로 느껴지는 바람이 더할 나위 없이 향기롭습니다. 환문 역에 도착했습니다. 미끄러지듯이 멈춘 저에게 축하가 쏟아집니다.

밤입니다. 뽀얗게 밝은 달밤입니다. 희뿌연 달빛에 저는 쓸쓸해졌습니다. 두 곳의 사람들이 이리도 똑같은데 왜 서로에게 충구를 겨누고 있을까요? 저는 괜히 서글퍼져서 옆에 곤히 자고 있는 민들레의 머리를 쓱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곤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에 빠져들고 말았죠.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예전처럼 서울과 신의주를 오가는 꿈이었죠. 저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철길을 따라 할머니를 만나다



영주여고 1 _ 심소현

구름 한 점 없이 청량한 하늘에서, 어느새 여름의 향기가 물씬 느껴졌다. 의외로 따사로운 햇살에 눈을 감았다 떴다. 기분 좋은 따뜻함이었다.

발 밑으로 밟히는 자갈의 소리가 귓가를 쓸었다. 그동안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오랫동안 할머니를 찾지 못했던 까닭에, 지금 가는 이 길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지난 해 겨울에 할머니를 찾아뵈었을 때 손녀딸이 온다고 곱게 차려입으신 하늘색 치마저고리가 유난히도 추워 보여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분홍색 스웨터를 샀었다. 벌써 겨울은 다 지나가 버려 입으실 일이 별로 없겠지 만, 한 손에 든 그 스웨터를 보며 혼자서 살짝 웃음 지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던 중에, 저만치서 뿌연게 연기를 내며 달려오는 기차가 보였다. 남들은 편한 자가용이나 비행기를 두고 그 먼 거리를 기차로 가느냐고 타박하지만, 내게는 꼭 이 기차를 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이 기차는, 내가 처음으로 할머니를 만나게 해 준 고마운 기차이기 때문이다.

내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이 기차가 처음으로 개통이 되었다. 남쪽 땅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문산 역에서부터, 남측의 마지막 역인 도라산 역, 그리고 갈라지고 찢어졌던 상처를 가진 판문역을 거쳐 북측의 개성 역까지 첫 운행된 통일기차. 남북철도라고 이름 붙여진 그 철도가 북한 땅을 지나갈 때, 비록 그 자리에 서 있지는 못했지만

각종 언론 매체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영상들은 충분히 나를 희망에 가득 차게 해 주었다. 그 희망에서부터, 잠시 나의 기억을 되돌려 보았다.

그날, 나는 그저 아빠의 어깨에 매달리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던 10살 짜리 꼬마아이였을 뿐이었다. 늘 나와 잘 놀아 주시던 아빠는, 가끔 나를 데리고 기차길 옆을 걷곤 하셨다. 그럴 때면 그저 아빠가 나와 함께 라는 사실이 좋아 심각한 아빠의 표정도 모르고 혼자 까르르 웃곤 했다.

“은지야.”

“응? 왜 아빠.”

갑작스럽게 무거워진 아빠의 목소리에 더 어리광을 피우고 싶었다.

“우리 은지한테 할머니가 있어.”

“나도 알어. 아빠 할머니도 있고 엄마 할머니도 있잖아. 치, 나도 다 아는데.”

“으유후, 다 아세요 우리 공주님? 근데 그 할머니 말고 또 다른 할머니가 있어.”

“어? 그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데?”

“아빠를 낳아주신 할머니야. 지금 아빠 할머니는 아빠를 키워주신 할머니구.”

“음..., 뭔가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 난 할머니가 셋이네!”

아직 어리기만 했던 나는 뭐가 그리도 재밌던지 까르르 웃기만 했다. 아빠는 아빠를 낳아주신 할머니를 만나러 갈 수 없다는 아빠의 말, 그 말을 하면서 아빠의 얼굴 가득 드리워진 그늘을 난 알아차리지 못했다.

“은지야,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꼭 이 기차길을 따라 할머니를 만나러 가자.”

아빠의 목소리에, 눈물이 묻어 있었다는 걸 왜 미처 몰랐을까.

그날을 떠올리자, 아주 잠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쓱쓱 닦아내고 일부러 힘차게 기차에 올라탔다. 객실 문 앞에 만연히 피어 있는 무궁화 문양이 여전히 나를 반기고 있었다. 그 문양이 늘어진 곳을 손가락으로 따라가 보면, 뚜렷이 드러나는 한반도가 눈에 선명했다. 또 다시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빠는 나에게 그 말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금강산으로 할머니를 만나러 갔다. 어째서 나는 갈 수 없냐고 떼를 쓰던 나를 두고, 아빠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진을 지갑에 고이 넣은 채 거울을 보고 보고 또 보다가 현관을 나섰다. 며칠 후, 돌아온 아빠의 얼굴은 누구보다도 지쳐있었지만 얼굴만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전히 아빠에게 토라져 있던 나는 아빠의 손에 들려진 인형을 보고서야 마음이 풀렸다. 땀을 dri우고 하얀 저고리와 까만 치마를 입고 목에 장구를 매고 있던 귀여운 인형. 아빠는 그것이 할머니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했다. 너무 기분이 좋아 그 인형을 안고 빙빙 돌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애써 눈물을 삼켰으리라.

어느덧 시간은 나를 고등학생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만들었고, 머리가 굽어진 탓에 이산가족이니 남북통일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 할머니를 만난 아빠의 슬픔이 서린 기쁨도,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서로의 얼굴을 감싸 안고 울부짖은 그 모든 이들의 아픔도 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그렇게 그렇게 모든 이들의 아픔을 안고서, 남북열차가 개통되었다. 그때 품었던 나의 희망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사회적인 것이 아니었다. 한반도의 허리를 끊어놓은 휴전선의 소멸도 아니었다. 온 국민의 평화통일도 아니었다. 단지, 아빠와 할머니가 다시 만나 한 가족으로 돌아가는 가족의 통일을 바랐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그 가족의 통일은, 우리 모두의 평화로운 통일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에 한숨을 쉬기도 했었다.

첫 열차 운행 후 1년 만에, 열차를 통한 자유로운 교류가 시작되었다. 아빠와 나는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부푼 꿈을 안고, 그 열차에 올라탔다. 열차는 달리고 또 달렸다. 할머니의 하얀 그 한복 저고리 끝 주름까지, 달리고 또 달렸다.

“니레 그 은지네?”

쫄쫄쫄, 주름살 가득한 할머니의 얼굴은 놀랍게도 아빠와 똑 닮아 있었다. 그리고 나의 얼굴과도 닮아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할머니의 얼굴임에도, 낯설거나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었을까. 할머니는 그 거친 손으로 나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내레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라우. 글티 안에? 뭐 어드러케든 이자 만났

으네 돼았어. 인지 돼았어. 어쩔 이래 네 아바디랑 똑 닳았나?”

주절주절 말을 늘어놓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할머니는 목이 메어 말을 더 잇지 못하셨다. 그러면서 계속 아빠에게 미안하다는 말만을 되풀이 하셨다.

“내가 니 아바디 손을 놓는 기 아니랬어. 아니랬어…”

아빠는 할머니와 마주앉아 눈물만을 흘렸다. 두 분의 모습을 지켜보는 내 눈가에도 눈물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때의 아픔과 한들이 사라진 지금, 어릴 적 아빠와의 약속처럼, 언제든지 아빠 손을 꼭 잡고 기차길을 따라 걸어가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

차창 밖의 풍경은 시원스러웠다. 푸름이 무성히 우거진 나무들을 지나쳐서, 가지각색 피어있는 탐스런 꽃밭을 지나쳐서, 할머니의 기억이 서린 그곳까지 가고 있다.

사립문을 열고 들어서면, 할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내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실 것이다.

“아이고, 우리 은지레 어째 왔는가? 얼른 들어오니라. 이리 힘들어서 어찌 왔는가?”

할머니, 지금 만나러 갑니다.





북한으로 달리는 남한 열차



영주중앙초 5_ 임기범

중간놀이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단체 긴 줄넘기를 하였다. 서로 더 많이 뛰려고 버르면서 온 힘을 다해 신나게 뛰었다. 그렇게 신나게 뛰고 난 후 흐르는 땀을 닦으며 친구들과 같이 교실로 들어왔다. 교실에는 당번들이 갖다놓은 시원한 우유가 있었다. 나는 덥고 목이 마르던 참이라 우유를 맛있게 마셨다. 우유를 마시면서 이렇게 즐겁고 신나니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3교시 때에는 선생님께서 국어수업에 관한 안내를 해 주셨고 나와 친구들은 책을 읽거나 어려운 낱말이나 단어를 찾는 등 열심히 국어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때, 선생님께서

“아, 지금이구나.”

하시면서 갑자기 텔레비전을 켜셨다

우리는 공부를 하다말고

‘뭐지?’

하면서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텔레비전을 켜시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남북한 철도 시험운행에 관한 실황 중계였다. 오늘 남북한 철도 시험 운행을 한다고 텔레비전에서 여러 차례 들긴 했지만 학교에서 직접 텔레비전으로 볼 줄은 몰랐었다. 우

리는 모두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처음에 남한 측 기념사를 통일부 장관님이 읽으셨는데 기념사에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통일을 바라는지, 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지 아주 잘 나타나 있었다. 우리나라 장관님의 기념사가 끝난 후 북한 측의 답사가 있었다. 북한도 역시 얼마나 통일을 바라고 이루려고 하는지 잘 알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을 들으면서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친구는 ‘같이 축구를 하고 싶다.’ 라든가 오늘처럼 ‘같이 줄넘기를 하자.’ 라고 서로의 생각이 맞아 떨어지면 같이 신나게 놀이를 즐기는데 왜 남한과 북한은 서로 의견이 맞는데도 통일을 하지 못할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다.

그 순간 텔레비전 화면에서 폭죽이 펡펡 터지면서 기차가 철로를 타고 서서히 들어오고 있었다. 나와 우리 반 친구들은 “와!” 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리고 남한, 북한 대표들이 기차에 탑승하였다. 텔레비전에서는 56년 만에 끊어진 열차가 다시 이어진 역사적인 날이라고 하였다. 이대로 간다면 금방 통일이 될 것만 같았다.

선생님께서 웃으시면서

“너희들은 좋겠다. 통일이 되면 너희들이 중,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수학 여행을 금강산이나 백두산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우리 반 아이들은 신나는 일이 지금 당장에라도 일어나는 것처럼 들떠서 웃고 떠들면서 야단들이었다.

나도 아이들과 금강산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빨리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분단된 나라라는 부끄러운 이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통일에 대해서 잘 알고, 북한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오늘 학교에서 본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와 북한 이야기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어머니가 어릴 적에는 북한은 참 나쁜 나라고 주민들은 굶고 헐벗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나라에 쳐들어 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 반공을 철저히 해

야 된다고 배우셨다고 한다. 그때 상황으로는 그것이 바른 교육이었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통일을 바라기는 하지만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고 하셨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은 무엇일까?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을 나쁘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비록 지금 가난하여 못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로 빨리 발전하는 방법도 물론 있다. 바로 통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의 자원을 이용하고 북한이 우리의 기술을 이용하면 더욱더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시험 운행이 빠른 시일 내에 시험이라는 말을 떼어 버리고 정식 운행 열차가 되어 북한을 기차로 오고 가고, 많은 물자들을 실어 나르고, 또 반도국인 우리가 북쪽이 막혀 그동안 육로로 가지 못했던 중국, 러시아, 더 나아가서 유럽까지도 기차 여행이 가능한 날이 올 것이다. 아니 빨리 와야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북한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찾고 중요시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통일이 되는 날을 앞당길 수 있고 한민족으로서의 진정한 동포애도 느낄 것이다.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나는 기다린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통일이 꼭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오늘 폭죽을 터트리며 달리던 기차가 정식 운행 열차가 되어 나를 태우고 평양을 지나 유럽까지 가는 그날이 오기를...





‘간 큰 가족’의 웃음과 눈물

문화중 2 _ 최원식

작년에 TV에서 우연히 ‘간 큰 가족’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영화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6·25전쟁 때 북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며 살아가는 실향민 할아버지가 통일이 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전 재산 50억을 통일부에 기증하겠다는 뜻밖의 소식을 전한다. 그러자 아들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통일이 되었다고 아버지를 속여 감쪽같이 가짜 통일 상황을 믿게 만드는 데 성공한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 가족들은 ‘남북 단일팀 탁구 대회’, ‘평양 교예단 공연’ 까지 가짜로 연출하면서 여러 가지 웃기는 사건들을 벌인다. 배우들의 코믹연기와 커져가는 거짓말, 꼬여가는 상황들에 실컷 웃으며 영화를 즐겼다.

하지만 그토록 감격하던 할아버지가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죽는 장면에서 처음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웬지 모를 안타까움이 생겨났다. 물론 우리 가족이나 친척 중에는 실향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할아버지와 같은 절박한 심정을 느껴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해마다 6월이면 학교에서는 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 라면서 통일에 대한 글짓기를 시키지만 학생들 대부분은 이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짜증스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통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에게 아무런 불편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과 북은 원래 한민족, 한나라였으며 이것은 앞으로도 결코 변할 수 없으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부에서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 쌀을 비롯한 비료, 생필품 등을 보내고 있으며 산업 부문에서도 작으나마 기술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조금씩 서로 경제적·사회적으로 교류를 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독일처럼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여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라는 불명예를 털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부터 새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마스크를 통해 알려지는 우리의 현실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살기 위해 생사를 뛰어넘는 위험을 감수하고 탈북한 동포들을 가슴으로 받아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남한의 사정을 잘 모른다는 그들의 약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남한에서 평화적으로 북한에 보내고 있는 물자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한 핏줄을 지닌 동포라는 생각을 먼저 갖는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풍족한 우리와 달리 한 끼의 식사조차도 해결하기 힘든 북한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작은 도움의 손길이 생사를 바꿀 수도 있는 커다란 힘이 된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새롭게 정비된 자세를 먼저 갖춘 뒤에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이다 보면 언젠가는 '간 큰 가족'에서 보여준 통일의 모습이 영화의 소재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은 또한 우리나라의 국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 중국의 동북아 공정 프로젝트도 우리들의 국력을 알리고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만약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된다면 국력은 지금보다 훨씬 강해져 감히 일본이 우리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길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지금의 북한은 무한한 지하자원과 풍부한 노동력이 갖추어져 있다. 우리의 기술이 북한의 경제 자원을 만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

화, '물 만난 물고기' 마냥 한국의 국력은 더욱 강대해질 것이며 주변국들의 터무니없는 요구들도 점점 줄어들 것이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룬 위대한 민족이 아닌가? 세계가 의구심을 품고 지켜보았던 88올림픽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2002년 한·일 월드컵도 큰 성공을 거두어 세계에 우리의 힘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반만년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명을 발전시켜 온 우리 민족이 손에 손잡고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고 서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다 보면 통일은 점점 더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그때 우리는 TV에서 이산가족들의 눈물이 아니라 웃음을 보게 될 것이다. 또 그때 우리는 '간 큰 가족'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도 함께 볼 것이다.





백범으로부터 온 편지



구미고 2 _ 김인곤

아, 지금 나의 기분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나? 정말 고맙네, 고마워. 저 먼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조국에 대한 걱정이 끊이질 않았는데 반세기가 넘은 지금까지도 조국 통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자네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데에 대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이. 단일 국가를 만들겠다고 떠들고 나서서 결국은 아무 이룬 것도 없이 죽어 후손들에게 짐만 더 보탠 나 같은 사람을 그래도 좋게 봐줘서 이렇게 연락을 해주니 참 고맙구려.

자네를 통해 작금의 우리나라를 보니 뿌듯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하네. 우선 내가 살아 있을 적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에서 이렇게 강한 나라로 만든 후손들이 자랑스럽다네. 또 꾸준히 이산가족끼리 상봉도 하게하고 문화 교류도 해왔다고? 이걸 우리 민족의 강한 동족의식이 뒷받침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인게지.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통일이 되지 않고 있다는 데에선 많이 아쉽네. 난 내심 기대했거든. 게다가 북쪽이 최근에 원자폭탄을 만들었다고? 일본에서 터졌던 폭탄의 위력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정말 너무들 하는구먼. 아무리 수십 년이 지났다지만..., 걱정되는 구먼.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된 것은 사실 저 강대국들의 영향 때문이었지. 내적으로는 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단체들이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저들이 전파한 사상 때문에 흩어지고 말았잖나. 또 외적으로 저들은 일본의 무장해

제를 명분으로 제 멋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나라를 둘로 갈라놓아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다네. 이렇게 분단될 줄 알았다면 내가 추진했던 남북협상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타협을 봐야 하는 것인데..., 정말 많은 후손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할 따름이네.

‘통일’이라는 두 글자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마음에 품고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라네. 내가 살아있을 적에는 이를 대수롭게 여기던 자들이 적지 않았다네. 그렇다고 그들이 분열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네. 일단은 나라를 만들어 주권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통일은 나중에 해도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그들 생각이었지. 그러나 주권보다 중요한 것은 단결이었어. 아무리 독립을 얻었다한들 찢어지게 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나?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가 일체에 대항해 독립 운동할 때 가장 난점 중 하나가 이 분열이 아니었겠나? 사회주의니 뭐니 해서 우리 민족 내에서도 서로 각자의 이념대로 갈라져 힘이 분산돼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일궈 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말일세.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삼국 시대에도 분열됐긴 했어도 이토록 남남인 양 모른 채하고 민간인들도 오가지 못하게 막지는 않았어.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사가 아닌 강대국들의 입김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단이 된 것일세. 이것은 한반도를 터전으로 성실히 살아온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인하는 일일세.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예전의 단결된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첫 번째 나의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네. 두 번째로는 3·8선으로 인해 오도가도 못 하고 생이별하게 된 우리 남과 북의 동포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리해야 하네. 셋째로는 이렇게 오래 떨어져서 살게 되면 그동안 한 터전에서 살았던 우리 민족 간의 이질화가 심화된다는 것이네. 우린 말이 서로 다르긴 했어도 같은 겨레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잘 단결하였던 민족이네만 이제껏 서로 못 만나서 다른 나라 사람인 것처럼 여기게 된다면 큰일이란 말이네. 넷째, 남과 북이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걸세. 우리 한반도는 예전부터 지경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였으나 지금은 북한이 그 길목을 막고 있

어서 교류의 어려움이 있지. 만약 통일이 되어 내륙의 길이 열린다면 우리는 동북아의 허브의 역할을 넘어 해양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두보의 역할로서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이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통일은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기여할 수 있다네. 내가 살아있을 적만 해도 이념의 대립이 심했는데 이젠 소련의 붕괴로 이것이 의미를 잃었다고 할 수 있으니 한반도의 통일은 이를 더욱 실질적으로 이루어 이념으로 인한 아픔으로부터의 완전한 탈피를 선언할 수 있는 게야. 게다가 우리의 평화로운 일치를 보고 많은 분쟁지역에 심리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도 예상이 가능해.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 동안 잦은 침략과 수탈에도 불구하고 일치감과 민족의식만은 놓지 않고 살았다네. 이런 우리나라가 강대국의 놀이감이나 되어서 분열되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네.

이보게들, 우리의 소중한 나라, 사랑하는 나라, 피땀 흘려 만든 이 나라를 다시 하나로 묶세나. 그 옛날 서로 기뻐하며 반도를 누비던 우리 민족을 기대하면서 말일세. 간곡히 부탁하네. 우리의 숙원인 통일을 꼭 이뤄 주길 바라네.

- 2007년 5월 00일 하늘나라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동포들에게 백범 김구 -





다시 부르게 될 '대한민국'

★
인덕초 5 _ 박유희

2002년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한·일 월드컵을 기억하는가? 초등학교에 들어오기 전,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우리 민족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깊이 인식시켜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때 일을 떠올리며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왜, 남북이 아닌 남한이라는 대한민국 반쪽과 일본이 같이 월드컵을 열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이웃 나라끼리 다툼을 피하고, 나라와 나라 간에 우애를 다지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엄연히 한 핏줄인 북한을 바로 옆에 두고 일본과 손을 잡게 되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 어른들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결같이 대답한다. 나는 이 대답이 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사실 나는 남북 분단 현실의 문제를 직접 보고 경험한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른들이나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남한과 북한은 한 핏줄이고 한 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라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나는 그 궁금한 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최전방 지역과 도라산 역, 통일촌,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동굴을 추운 겨울, 따뜻한 물 한 병만

챙겨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다.

통일촌! 통일촌이라는 곳은 정말 통일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사는 곳이었다. 자신은 이곳 남한에 있지만 생사조차 모르는 가족과 친척들이 북한에 있어서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이 걱정하고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떡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 봤는데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통일촌에서 만난 이산가족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과 상처들, 그리고 그 속에서 싹트고 있는 간절한 통일의 염원은 어린 나에게도 강하게 전해졌다.

다음으로 간 곳은 최전방 지역이었다. 추운 겨울이라 군인 아저씨들의 고생하시는 모습이 몹시 안타까웠다. 내가 살고 있는 남쪽지역보다 북쪽인 탓에 매우 춥기도 했지만 남과 북이 나누어져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현실이 나를 더욱 춥게 만들었다. 군인 아저씨들의 안내로 우리는 북한에서 땅 밑에 파놓은 굴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놀랍게도 굴 속에는 남한과 북한의 땅을 연결시켜 주는 길이 있었다. 이 길이 서로 왕래를 하기 위한 길이 아니라 남쪽을 침략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다. 정말 같은 민족끼리 왜 이렇게 굴을 파면서까지 남쪽을 치려고 했는지 무섭기도 하고 한편 그런 현실이 답답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남과 북을 지상에서 연결시켜주는 도라산 역이었다.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걸어서도 북한으로 갈 수 있는 그야말로 땅위의 길이었다. 아직까지는 남북이 통일되지 않아 오고갈 수는 없지만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직접 기차를 타고 북한에 가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며칠 전, 어린이 신문을 통해 남북열차가 개통되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통된 날 딱 하루만 운행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남북열차를 하루 개통하는데도 돈이 3천억 원이나 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큰 돈을 들이면서 철도를 개통을 하는 데는 그만큼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소망과 마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서 머지않은 장래에 통일의 열차가 우렁찬 기적을 울리며 달리게 되리라 믿어 보았다.

가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좋지 않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언짢았다. 그 이유는 북한 사람들도 다른 나라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었다. 체험활동에서 커다란 동상을 하나 보았는데 남한과 북한 군인이 서로 부둥켜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동상을 보면 북한 사람들을 나쁘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해지기도 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때려고 해도 뺄 수 없는, 운명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민족의 후예들이다. 음악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처럼 통일 그 희망의 불씨가 점점 더 커져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남북통일의 절실함을 깨닫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서로서로 손잡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는 2002년의 반쪽짜리 월드컵이 아닌 큰 호랑이가 힘차게 도약하는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기를 손꼽아 간절히 빌어 본다. 그때는 남한과 북한이 아닌 남쪽과 북쪽이 모두 하나가 되어 외칠 것이다.

“대~~한민국!”





유월이 오면



풍산중 3 _ 황경주

유월이 오면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다. 서로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6·25사변은 이 땅에 분단을 낳았고, 그 분단으로 인해 그들은 아직 만나지 못 한다.

우리의 분단은 반세기를 넘겼다. 반세기 동안 우리는 언어와 문화, 삶의 방식들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 그 반세기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고, 외로움 속 그리움으로 살아가는 이도 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리움을 뒤로 한 채, 먼 하늘로 발길을 옮긴 사람도 있다.

몇해 전,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았다. 이 영화는 나에게 가족과 민족에 대한 인식을 바꿔 준 영화였다. 이 영화는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며, 가슴 아픈 가족애를 보여 주었다. 나는 직접 전쟁을 겪어 보지 못해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는 못 한다. 그러나 그 시대 상황을 그려 놓은 영화를 보며 참으로 전쟁의 참혹함을 가슴 깊이 느꼈다. 그리고 헤어진 가족들의 참혹함도 함께 알 수 있었다.

얼마 전, 통일 전망대에 간 적이 있다. 저 너머 그다지 멀지도 않은 곳이 북한이었다. 가까운 곳, 그렇게 가까운 곳에 반세기가 넘도록 갈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다. 언젠가는 이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 한다. '통일'이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튼튼히 해야 할 기초 공사가 많다.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그것과 더불어 양보도 해야 한다. 지금은 서로가 양보해야 할 것들이 많다. 양보는 통일이라는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으로서 참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문화적·경제적 교류와 지원도 필요할 듯하다.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단절의 거리를 좁히고, 벌어진 틈을 메워야 한다. 달라졌다는 것은 또다시 같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문화와 언어를 가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같은 민족이며 한 핏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는 우리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북한의 경제가 나아지는 것이 통일 후의 우리나라의 부담을 덜 수도 있다. 만일 지금 이대로 통일이 된다면 남한이 가지는 부담은 너무나 커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후를 생각해서라도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쌓아 나가야 하며, 그 자부심 또한 가져야 할 것이다. 통일시대에 걸맞는 의식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자라나는 세대의 통일에 관한 확고한 신념을 심어주는 일 등은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우리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진다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다. 통일이라는 것은 각 나라의 대표가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것이다.

나는 믿는다. 언젠가는 철조망을 남과 북이 함께 거두며, 또 쌓아놓은 담을 허물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분단이라는 아픔을 지워 버리고, 가장 행복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매 답



영양여고 2 _ 최미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시범 운행 되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렸다. 눈을 돌리자 쌓아둔 신문 사이로 뼈죽이 '탈북자 이송 문제'에 관한 기사가 보였다.

아카시아 냄새가 바람에 실려 와 코를 간질였다. 철조망 너머에 있을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세계 10대 종교의 반열에 오른 '주체사상'을 광적으로 신봉하면서 우리와 다르게 살고 있을까.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창문을 닫았다. 햇살이 격자무늬를 타고 책상에 내려왔다. 검은 네모의 그림자 안에 펜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들고 4년 전, 우리나라의 허리를 가르고 있는 녹슨 철조망을 넘은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바람이 스웨터 안속을 비집고 들어왔다. 그날은 바람이 바늘처럼 불어댈던, 생각만 해도 팔뚝에 소름이 돋는 그런 날이었다. 그날에, 나는 바람이 길을 낸 자리에 풀포기가 다시금 어우러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행복한 전율을 느끼며 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위쪽으로, 위쪽으로 갔다. 오랫동안 요통에 시달렸을 한반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작은 발걸음을 딛는 오름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동안 창밖을 내다보며 제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창자속에서부터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주의 사항'을 안내 받은 뒤에 버스를 타고, 다시 버

스를 갈아타고 군사 분계점을 넘었다. 몇 걸음 사이에서 달라지는 군인들의 군복이 내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다. 창밖으로 새가 날아가고 있었다. '새는 날기 위해 뼈를 가볍게 한다.' 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북한 군인들이 굳은 얼굴로 들어 와, 우리의 얼굴을 찬찬히 둘러 볼 때에 뼈를 가볍게 해야한다는 것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그날, 바위 산의 어깨동무 아래에서 북한 TV 속, 남한 드라마를 보며 잠이 들었다. '구구, 구구' 하는 새소리가 들려왔다.

4박 5일, 아름다운 새소리와 함께, 많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또 만나자' 는 예술단의 끝인사, 삼일포에서 들었던 눈물나는 노래, 안내원 언니의 꾸짖음, 가격 흥정 소리들, 버스 기사 아저씨의 아들 이야기, 풀 향기처럼 소박한 웃음을 머금은 그들의 소리에 내 얼굴도 덩달아 변했다. 뜨거워졌다.

갈 때처럼 올 때에도 엄격한 신원 확인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누군가의 아들, 동생, 오빠일 젊은 북한 군인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렇게, 짧았던 여행이 끝이 났다. 버스를 타고, 또 갈아타고 아래로 내려갔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었다.

집에 돌아 와 이야기 한 보따리씩을 풀어 던지고는 잠을 청했다. 늦은 밤,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반쯤 잠이 든 채로 라디오를 듣고 있던 내 귀에 어느 스님의 가슴 울리는 한 마디가 박혔다.

“끈은 풀려고 묶는 것이지, 끊으라고 묶는 게 아냐.”

마음속에서 맴돌던 매듭이 조금은 느슨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북한에서 들었던 '구구' 하는 새 소리가 내 방에서도 들렸다. 달빛이 한 아름 내려왔다.



15

경상남도

- 한반도의 마법 기차 _ 397
- 유월이 오면 _ 399
- 백두산 _ 401
- 창원부터 연변 끝까지 _ 404
- 현충일과 선물 _ 406
- 동해물과 백두산이... _ 409
- 기차를 타고 통일의 그날을 향해... _ 412
- “현충일” _ 414
- 이해와 화합 속에 다시 핀 백두산 _ 416

한반도의 마법 기차

★
교동초 5_ 이명진

푸른색의 귀여운 새싹과 화사한 꽃들이 대지를 뒤덮어 지나가는 바람도 낮을 잃고 바라보곤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어느 봄이었습니다. 높은 언덕 위에 우뚝 솟아 있는 큰 성에 젊은 마법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법사는 마법 나라를 떠나 살 곳을 찾다가 한반도에 반해 대한민국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마법사는 하루하루를 한반도를 구경하며 즐겁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슈우웅~ 핑! 쿵!”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마법사가 성의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마법사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나라가 전쟁과 피로 물들다니…”

그렇습니다. 한반도의 사람들이 남과 북으로 갈려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름다움으로 차있던 나라가 피와 사람들의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리에는 슬픈 표정의 시체들이 보이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들렸습니다. 마법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 할지 말이지요. 하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이기에 미련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한반도의 허리에는 줄이 그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미움은 그리움으로 바뀌었습

니다. 마법사는 언젠가는 하나가 되겠지 하며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은 21세기. 마법사도 어느덧 일흔을 훌쩍 넘었습니다. 마법사는 죽기 전에 여행이라도 떠나야겠다고 생각하여 시베리아에 가기로 했습니다. 마법사는 너무 늙었고 시베리아까지는 멀기 때문에 기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마법사는 언덕 위의 성을 나섰습니다. 그리곤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남과 북이 아직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시베리아로 가는 기차가 없었습니다. 마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거의 평생 동안 사랑했던 나라의 행복을 바랐고 자신도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 여행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법사는 남은 힘을 끌어 모아 마지막 마법을 써서 사람들을 조종했습니다. 그리고 성에서 수정구슬로 지켜보았죠. 사람들은 경의선 복원사업, 기공식 등 여러 절차를 거쳐 마침내 2004년에 남북도로 연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때, 마법사는 더 이상 마법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정구슬도 더 이상 사람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노고가 물거품이 될까 다급해진 마법사는 성을 나와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에게 도착한 마법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북한 사람들도 이제는 서로가 한 핏줄인 것을 깨닫고 남북 열차 개통을 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마법은 필요 없었던 거죠. 마법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언덕 위의 성에 돌아왔습니다.

몇 년 후 드디어 남북 열차가 시험운영되었습니다. 마법사는 한반도를 흐릿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에는 환한 빛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통일이 된 어느 미래에 여러분이 높은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성 어느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마법사를 본다면 그 마법사는 남북열차를 개통해 준 아니, 통일을 이루게 해준 마법사일 것입니다.

감사의 말이라도 전해보세요.

나는 하루빨리 마법사의 마법이 아름다운 땅, 한반도에 뿌려져 마법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지길 기도합니다.

유월이 오면



구산중 1_한광희

“ 짹짹, 쫄로롱 쪽 ”

유월의 산은 어느 때보다도 싱그럽다. 오월의 열은 푸르름과 칠월의 짙은 푸르름이 조화를 이뤄 새로운 푸른색을 내기도 한다. 나무가 있는 곳엔 새 소리가 있고, 새소리가 있는 곳엔 웃음소리가 넘쳐난다. ‘올해는 더 잘되겠지.’ 하는 모심는 농부들의 희망도 느껴진다. 또, 유월은 칠월 못지않은 아름다움이 있으면서도 짜증날 만큼 덥지 않다. 그래서 유월은 언제나 피서를 계획하는 달이고 농사를 시작하는 달이고, 새 학년에 적응된 달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푸르른 달이다.

그러나 유월은 비극의 달이다. 1950년 이후의 유월은 조국에게 아들을 뺏긴 어머니의 심정이고, 형제를 잃은 아버지의 심정이다.

나의 외가댁 근처에는 영화세트장이 하나 있다. 그 영화는 형제가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어야 했던 아주 슬픈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한국전쟁을 다룬 ‘태극기 휘날리며’이다. 아주 오래전에 봐서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국전쟁이 왜 비극적인 전쟁이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영화였다고 기억한다. 모든 전쟁이 마찬가지로 전쟁이 남긴 상처는 심각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에 나간 소년병, 학도병들마저도 이름 석자, 빼한 구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채 스러진 넋이 되었다. 나도 언젠가 군대를 가야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다. 군대는 힘이 들고,

엄격한 곳이라 방법만 있다면 나도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다. 게다가 지금이 전쟁 중이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하지만 소년병들의 당시 상황을 짐작해보면 교묘하게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비겁한 짓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유월은 푸른 슬픔이다. 그러나 유월은 붉게 떠오르는 희망이다. 그날의 나만한 소년병의 희생이 오늘 나의 평온함이듯 오늘 나의 애국이 내일 조국의 평화 통일이기를 희망한다.

유월이 오면 이토록 평화로운 강산을 지켜주는 님을 기억하자. 유월의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애국으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이름 모를 산새의 노랫소리가 오늘따라 평화롭게 들려온다.

“ 짹짹 쪼로롱 쪽 ”

현충일 공휴일을 맞아 지난밤부터 태극기를 준비했다. 동생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까불어 댔다. 아침에는 현충일이니까 조기를 달아달라는 방송도 나왔다. 태극기 다는 것도 애국인 것 같아 가슴이 뿌듯했다. 그러나 6월의 싱그러움과 산새소리에 빠져 있을 무렵 뒤통수를 치는 생각 한 자락….

“ 앗! 태극기 안 달고 왔다.”

결국 우리의 산행으로 인해 애국심은 이론으로 끝나고 말았다. 사소한 애국마저 실천하지 못한 내가 참 부끄러웠다. 그래도 산새소리는 참 곱기도 했다.

“ 짹짹 쪼로롱 쪽(태극기나 달지)”



백 두 산



마산제일여고 3 _ 박준하

“어머니, 저 북한학과에 진학하겠습니다.”

열여덟이 되던 해 봄, 나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나의 꿈을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고통과 핍박 속에서 둘로 나누어져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어야 했던 우리 민족을 평화 속에서 하나로 합치는 것, 거래와 함께 하나 된 미래로 가는 길을 닦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사명이라고, 그것이 나의 숙명이라고 믿어 왔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고심한 끝에 말씀을 드린 나의 꿈에 대해 어머니께서는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안 된다고 못 박으셨다. “말이 좋아 북한학과지 빨갱이 되는 곳이 아니냐? 졸업 후 개성공단에 취직할 거냐? 통일되면 밥 굶어 죽는다.” 등 온갖 말로 반대를 하셨다.

나는 “요즘 북한에 대한 연구 기관이 많고, 시민단체도 활성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통일부에서도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 북한과 통일이 되면 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늘어나게 되므로 북한에 대해 공부한 전문가들을 찾게 될 것이다.” 하며 차근차근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 피곤하니 그만 방에서 나가라고 하셨다. 방문을 닫고 돌아서는 나를 향해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혹시, 너희 아빠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

아버지는 사진 작가셨다. 봄이면 지리산의 철쭉을 찾아, 가을이면 설악의

단풍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한반도의 생명을 카메라에 담으셨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꼭 북쪽의 세상을 찍어 이북이 고향이신 할아버지께 북한의 땅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셨다. 그러던 1995년 어느 봄 건강하시던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상태가 조금 호전 되시자 백두산으로 떠나셨다. 그리고 얼마 후 하늘과 바람과 꽃과 눈이 머무는 백두산 천지를 찍어 오셨다. 할아버지는 표현하지는 못하셨지만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다. 할아버지는 그해 겨울 사진을 가슴에 묻으시고 잠드셨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우리는 할아버지를 기리듯 백두산 사진을 거실에다 걸어두었다. 나는 백두산의 넓은 하늘을 보며 자라났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갔다.

여섯 살 꼬마였던 나는 순식간에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다. 6학년이 다 끝나가던 2001년 그해 겨울 아버지는 뜻밖에도 간암이라는 병에 걸리셨다. 눈물로 찾아간 아버지의 병실에서 아버지는 황달이 드리워진 얼굴에 웃음을 띄며, 복수가 차오르는 배를 가누고 일어나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한국인이 되라고 하셨다. 나는 그 말의 뜻도 모른 채 울기만 울었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다.

어머니께 나의 꿈을 말씀 드린 후로 어머니와 나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어머니께서는 북한학과를 가겠다는 딸을 이해하지 못했고 나는 교대를 가라고 하시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어머니와 갈등의 골은 깊어갔고 침묵의 투쟁 속에서 여름이 찾아왔다. 여름방학이 시작된 지 얼마 후 어머니께서 나를 부르셨다. 어머니께서는 내게 아직도 북한학과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냐고 물으셨다. 나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서랍 속에서 여권 두 개를 꺼내셨다. 여권에는 북경행 비행기표 두 장이 있었다. 어머니께서 여권을 내미시며 “지금은 중국으로 돌아 백두산에 가야하지만 네가 열심히 공부해 북한을 통해 백두산에 갈 수 있는 세상을, 민족의 역사를 다시 쓰는 세상을 만들어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어머니께 꼭 안겼다. 심장 저 깊은 곳까지 전율이 느껴졌다.

그렇게 어머니와 나는 백두산을 향해 떠났다.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북

경으로, 북경에서 다시 연길로 갔다. 연길에서 하룻밤을 묵고 3일 동안 용정과 명동촌, 운동주 생가, 백두산, 도문(두만강 유람선) 등 우리의 역사가 깃든 곳을 두루 돌아보았다. 용정에서는 홍범도 장군을 돕던 대한국민회의 함성이, 명동에서는 북로군정서군을 이끌던 김좌진 장군의 용맹스러운 목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고 마지막 날 두만강에서 유람선을 탈 때는 맞은편 강 너머로 하나 될 북한의 땅이 보여 두근거림을 멈출 수 없었다.

셋째 날 드디어 백두산에 올랐다. 우리말을 쓰는 조선족들이 운영하는 저잣거리를 지나 백두산으로 향했다. 산을 중반쯤 오를 때부터 비가 많이 와서 비록 천지까지는 오르지 못했지만 한발 한발 내딛는 동안 통일이 되어 북한과 함께 우리의 역사를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우리의 백두산을, 북한을 가슴에 품고 돌아왔다.

수능시험을 5개월 정도 남겨둔 긴장된 수험생의 교실 속에서 나는 가끔 백두산의 바람을 느낀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1400km를 넘게 불어온 이 바람은 공부에 지친 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헛되지 않음을, 그 어떤 독립군의 투쟁보다 숭고한 일이라 이야기한다.

나는 오늘도 백두대간을 이을 하나 될 대한민국을 위해 걸음을 내딛는다. 우리 집 거실에 걸린 백두산 사진에 꽃이 핀다. 그 속에 할아버지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신다.

하나 된 통일 대한민국이 있다.





창원부터 연변 끝까지



명도초 6 _ 배선정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내가 엄마와 함께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갔을 때의 일이다. 어머니께서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다. 나는 어머니께 왜 우시냐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 말씀이,

“갑자기 중국에 계신 외할머니와 친척들이 생각나는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 어머니는 중국에 살다가 오셨다. 연변이라는 곳은 북한말과 거의 같은 말을 쓰는 곳이다. 어머니께서는 지금 중국에 계신 외할머니와 친척들이 보고 싶은 것이다. 어머니의 눈물을 보니 나는 마음이 좋지 않았다. 이 기차가 창원에서 중국에 있는 연변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통일이 된다면 연변까지 갈 수 있을텐데...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 가족한테도 기쁜 일이지만 이산가족에게는 더 행복하고 좋은 일일 것이다. 내가 지금 조금 더 컸다면 통일의 필요성을 누군가에게 알릴 수 있지만 지금 나이로는 도움도 못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요즘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별 생각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 왜냐하면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통일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한나라 안에서 서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간다. 지금 북한은 울타리가 쳐져 있어 나오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의 가족과 다름없다. 나는 4살 때 우리 집 형편이 별로 좋지 않

아 어머니, 아버지와 3년 동안 떨어져 산 적이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한국에서 돈을 버시고 나와 남동생은 중국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서 지냈다. 그때 엄마와 함께할 수 있는 사촌 언니, 오빠들이 부럽기만 했다.

외할머니와 언니, 오빠가 잘 대해 줬지만 나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눈물도 많이 흘렸다. 그래서 나는 조금이나마 이산가족의 그 슬픈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북한이 남 같지가 않다. 오히려 같은 민족인데도 서로 욕해대고 미워하는 그 현실에 통일이 더욱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다. 우리 모두가 통일에 대한 문제를 알고 우리가 먼저 북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어야 한다. 그 조그만 친절은 북한 사람들에게 큰 힘을 안겨 줄 수도 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다. 북한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무척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정성이라도 돈을 보태서 자금을 지원해줘야 한다. 그리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좋은 감정을 실어줘야 한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웃음과 사랑을 나눠준다는 것이다. 지금은 비록 서로 미워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사랑의 싹이 틀 것이다. 그러다보면 통일이 될 것이고 통일이 되면 정말 좋은 점이 많을 것이다. 일단은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 행복해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자원이 풍부해질 것이다. 또 그렇게 무섭고 비참한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첨단기술이 크게 발달되어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통일이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통일이 꼭 되어서 우리 엄마의 바람대로 기차를 타고 창원부터 연변 끝까지 꼭 가게 되어 엄마의 밝은 미소를 보고 싶고 현재 남북분단이라는 장벽에 가로 막혀 반세기가 넘도록 자유롭게 갈 수 없었던 금강산이나 백두산과 또 고구려 유적지도 함께 보러 기차를 타고 다같이 수학여행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세상 끝까지라도 기차를 타고 온 세계를 가서 볼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한번 통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통일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늘 행복해질 수 있게 도와 주세요.’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또 빌고 빌어본다.



현충일과 선물



계룡중 3_백영랑

사람들은 현충일을 순국열사를 기리는 날고 알고 있다. 그래서 현충일이 되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며 묵념을 하기도 하고, 전쟁과 관련된 갖가지 행사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겐 현충일이 특별하다. 현충일은 내 생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내 생애의 13번째 현충일은 내게 그 어떤 선물보다 큰 깨달음을 안겨 주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다. 난 오후에 있을 내 생일 파티를 위해 아침부터 씻고 단장을 하고 있었다.

“우리 모두 붉은 피를 흘리며…”

그때 텔레비전에서는 현충일 기념식을 하고 있었다. 내가 태어난, 이렇게 좋은 날 저런 잔인한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나빴다.

“아, 저게 뭐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한 난 텔레비전을 끄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섰다. 약속장소로 향하는 길에 많은 조기가 걸려 있었는데, 태극기가 펄럭이는 소리가 마치 내게 축하한다고 박수를 쳐 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생일 축하합니다.”

친구들은 내게 케이크와 꽃까지 선물해 주었다. 우리는 점심을 먹고 노래방으로 향했다.

“룰루리아”

그 당시 며칠 후 노래경연 대회를 앞두고 있던 두 친구는 들떠서 소리도 질렀다. 그러나 이게 웬일, 노래방을 3곳이나 갔는데 모두 문이 닫혀 있었다. 다른 날은 늦은 밤까지 영업하면서 하필 오늘 문을 열지 않는 것인지 원망스러웠다. 그때까지만 해도 화창했던 내 마음속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그냥 공원에나 가자.”

우린 결국 과자를 잔뜩 사서 공원벤치에 앉았다. 그곳에서도 마치 병아리처럼 재잘재잘 거리며 불만을 토로해냈다.

“그러니까, 신나게 한 곡 부르려고 했더니 이게 뭐야.”

우리가 어찌나 시끄러웠던지 한 할아버지께서 우릴 향해 서서히 다가오셨다. 그때 할아버지의 표정의 엄숙함은…, 저승사자도 저런 표정이겠구나 하고 느끼게 했다.

“머? 노래방? 너희가 지금 누구 덕에 편히 사는 건데, 그런 말이 나와?”

우리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도망갈까 생각도 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다.

“내가 어렸을 제 얼마나 무서웠는데, 힘들었는데…, 내가 이래 봐도 우리 집이 옛날엔 꽤 부자였어. 아버지 그리 가시고…, 그런데 이것 봐, 요새 것들은 전쟁을 겪어 보지 않았다고 이 슬픈 날 노래를 불러?”

할아버지는 혼자 중얼거리시더니 이내 떠나셨다. 그러나 그때 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다. TV에서나 보던 내용이 실제 어른들의 생활이었다니, 가슴이 뭉클했다. 이런 의미 깊은 날에 우린 현충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웃고 떠들 일만 생각했다니…, 참 부끄러웠다. 우리들의 기나긴 침묵은 계속 이어졌다.

“다음부터 영랑이 생일은 음력!”

비록 우린 신나게 놀지는 못했지만 가슴에 큰 감동을 전해 받고는 헤어졌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이토록 가벼울 수가 없었다.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도 하는 6월은 역사적으로 참 아픔이 많은 달이다. 이런 6월 중 애국심 하나로 싸우다 전사하신 분들을 기리는 현충일 날 태어

난 난 참 운이 좋은 아이인 것 같다. 그들의 울분과 소망을 안고 태어난 난 선조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를 아끼고 사랑하여야겠다. 그들의 염원이었을 통일을 위해 난 통일을 향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잊지 않겠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부끄러운 타이틀을 없애고 국제 사회에 자랑스럽게 명함을 내걸 수 있는 날까지 내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
창원여고 2 _ 현세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 나라를 대표하는 애국가 속에서 백두산이라는 단어가 첫 소절을 장식하고 있다. 2744m의 그 어마한 높이에 더불어 그 높은 기상의 빛을 바라는 것이 바로 백두산이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근원이라고 불릴 만큼 그 기상이 높았고 모든 주산맥의 기가 백두산으로부터 뻗어 나온다고 하여 옛 선조들은 백두산을 성산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한반도의 대표 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백두산이 현재 중국의 영토 아래에서 관광이 허용되어 지고 있다 하니, 비통한 역사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저 울부짖을 뿐이다. 최근 들어 불거지고 있는 화제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동북공정이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고구려의 역사와 백두산을 포함한 모든 우리의 소유물을 자신들의 소수 역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황당 무개한 발언 앞에서 허탈한 웃음만 지을 뿐 마땅히 뾰족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계략 앞에 힘없이 주저할 뿐이다. 특히나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을 두만강이라 주장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우리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금수강산을 내어놓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한반도의 엄청난 위기 아래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하고 힘써야 할 것은 바로 통일이다.

통일이라는 목표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과정 속에서

남과 북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면 백두산에 가는 길도 백두산을 되찾는 일도 더 수월하게 될 것이다. 분단이라는 뼈를 깎는 비참한 현실 아래서 우리의 산마저 빼앗긴 채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방안은 통일이며, 백두산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 민족의 자유와 화합을 위하여 해야 할 한반도의 주어진 과제 또한 통일이다. 통일이라는 목표를 쉽사리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지금 눈앞의 어려운 과정과 갈등을 두려워하여 통일의 목표를 포기하고 주저해 버린다면 앞으로 이 한반도의 운명은,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암담하다.

우리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중 절대적인 이유는 우리는 피를 나눈 한민족이기 때문이다. 모든 분단되었던 국가들은 그것이 무력이든 흡수이든 통일을 이룩하였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분단이라는 현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한민족이 한 혈육이 잠시 분리 되었을 뿐 우리는 다시 하나로 합쳐 백두산의 정기를 이어 세계로 뻗어 나아가는 한반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 민족이 하나로 합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이를 두고 찬반에 손을 든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느 누가 보아도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50여 년간 그 무엇이 우리를 자극하였기에 우리가 동포를 모른 채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지나친 발전 속에 민족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신적으로 퇴폐되었다. 지구촌이라고 불리어지는 21세기 현대인들에게 민족의 자유와 화합보다 물질적 풍요가 더 중요한 것일까? 우리는 더 멀리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통일의 장점만을 생각하고 허술한 통일을 하여 뒤틀리게 된다면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있을 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진정한 통일을 한반도에 자리하게 할 것이다. 하나의 공간 안에 두 체제가 존재할 수 있는 경우는 서로가 존중한다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을 우리화하려고 해서 안 된다. 비록 그들의 체제가 우리와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백두산정계비의 기록이 흐려졌다고 해서 우리의 역사마저 흐려진 것은 아니다. 중국이라는 틀로부터 갇혀 있는 백두산처럼 지금 우리민족도 3·8선이라는 틀 안에 갇혀 서로가 다른 옷을 입고 서로를 경계하고 있다. 어리석게도 같은 민족인데 외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서로가 적이라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루빨리 분단의 고통으로 찢든 옷을 벗고 서로의 손을 마주 잡은 채 백두산의 정기를 다시 이어 받아야 할 것이다. 다른 곳을 거쳐서가 아니라 오로지 한반도를 통해서 백두산을 향하는 그날까지, 남한까지 백두산의 민족자유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노력에 노력을 더해야 할 것이다.





기차를 타고 통일의 그날을 향해..



백동초 6 _ 한아름

세뱃돈 받을 생각에 즐거운 설날, 할머니 댁에 가는 길. 마치 장난감 같은 기차가 나무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차를 생각해 보면 문득 통일기차가 떠오릅니다. 회사 할아버지를 통일기차에 태워 가족들을 만나게 하고 싶은 작은 소망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회사 할아버지는 회사에 가까이 살기 때문에 회사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회사 할아버지는 6·25전쟁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사람... 바로 말로만 듣던 이산가족입니다. 회사 할아버지는 가족은 물론 자식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명절 때면 가족이 더욱 그리워진다고 하십니다. 통일이란 말을 버릇처럼 외치고 습관처럼 되 내이셨겠지요.

늘 가족이 그림고 정이 그리운 회사 할아버지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 싶은 마음에 주말과 명절날을 꼭 회사 할아버지 댁에 들리시지만 그런 작은 도움으로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잊을 수 없으리란 건 알 수 있었습니다. TV나 인터넷에서 이산가족을 많이 보았지만 새어나오는 눈물과 많은 시간이 흐른 만큼의 주름살을 통해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 할아버지나 다름없는 회사 할아버지가 이산가족이라니 통일이 더더욱 절실해집니다. 회사 할아버지가 이산가족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이산가족들을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 지나간 세월동안 통일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건지, 왜 통일기차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토록 기뻐하는지….

분단된 남북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응어리를 남겨놓고 있고, 열릴 듯 말 듯한 통일의 문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회사 할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이산가족들이 '통일기차'를 타고 헤어진 가족들과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해 보며 통일노래 한 자락을 불러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현충일”



봉곡중 3_ 정태규

올해도 어김없이 현충일이 지나갔다. 그리고 앞으로 약 2주 정도만 있으면,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되흔들고 한반도를 두 동강 낸 주요 원인인 6·25가 다가온다. 솔직히 말해 요즘 10대를 포함한 신세대들은 남북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이 “왜 우리나라랑 북한이 다시 합쳐져야 하는 거지?” 하고 되물어보곤 한다. 이처럼, 현충일이나 6·25가 그저 옛날 일로 인식되어 점점 우리에게 잊혀져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우리 신세대들 또한 한번쯤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용사님들의 정신과 영혼을 기억하며 되새기고 싶다.

현충일을 생각하니 문득 나의 종조할아버지가 생각이 난다. 내가 3년 동안 뉴질랜드에 가기 전에 아마 내가 6학년쯤이었던 것 같다.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은 나, 형,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이 함께 살았다. 그래서 그때에는 통일이라든지 전쟁에 대한 것에 대해 일절 몰랐다. 그런데, 어떤 친척분의 말에 의하면 나의 종조부님께서 국립 현충원에 계신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것 때문에 나의 할아버지께서는 사흘 밤을 지새셨다. 현충일 날, 우리 가족은 국립 현충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했을 때, 명단에는 나의 종조부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특히, 할아버지께서 더욱이 눈물을 흘리셨다.

또,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는 3남 중의 장남이셨다. 그리고 세 분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살아 돌아오자고 약속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시지 못하고 50년이 지나 이렇게 뼈만 앙상한 유골로 돌아오시다니..., 그때 난 정말로 우리 민족이 이러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이한 것이 너무나 안되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2달 전에 뉴질랜드라는 나라에서 3년간의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뉴질랜드에서의 3년간의 생활로 인해 영어도 많이 늘었지만 우리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점도 배우고 왔다. 내가 그곳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갔을 때였다. 나와 같은 반 아이들이 동양인인 나를 보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자 나는 주저하지 않고 한국에서 왔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애들이 북한이냐 남한이냐고 묻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흠칫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난 남한, 북한 할 것 없이 한 나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 북한 할 것 없이 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곧 왔으면 좋겠다.

현충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 매우 뜻 깊은 날이다.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를 포함한 많은 용사님들께서 희생하신 결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내가 한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요즘 많은 십대청소년들이 6·25나 현충일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 후세의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민족이었다는 것도 까맣게 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발 벗고 나서서 우리의 슬픈 역사를 알려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먼지 날리는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싸우시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해와 화합 속에 다시 핀 백두산

★
창원남고 1_ 양창석

‘전국 학생 통일 글짓기 대회’란 뜻 깊은 축제의 장에 내가 하나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다. 내가 소개하고 싶은 책의 이름은 김동인의 ‘붉은 산’이다. 이 책은 1932년 <삼천리>에 실린 단편 소설로서, 우리 한민족의 투철한 역사 의식과 민족정신이 반영된 문학적 가치가 큰 작품이다.

이 책은 ‘나’가 의사 신분으로 만주를 여행할 때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조선인이 모여 사는 만주의 작은 어느 마을에 ‘삶’ (정익호)이란 교포 청년이 있었다. 그는 항상 동리 사람들에게 나쁜 짓만 일삼고 다니는 등 소문난 깡패로서, 그 악명이 자자하였다. 그러던 중 이 동네 주민인 송철지가 그 해의 소작료를 나귀에 싣고 만주인 지주를 만나러 갔다가 부당하게 폭행을 당한 채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다. 그것을 보고 ‘삶’은 그날 밤 만주에 가서 송철지의 분풀이를 한 뒤, 다음날 아침 피투성이가 된 채 죽임을 맞이하게 된다.

“보고 싶어요. 붉은, 붉은 산이…”

그는 힘겹게 이 말을 하고는 마을 사람들의 애국가를 들으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내가 다소 뜬금없을지도 모르지만, 이 작품을 소개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난 ‘삶’이 말한 ‘그 붉은 산’이 우리 민족의 성산, 백두산이라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백두산은 옛날 고구려 시대의 우리조상 때부터 신성히 여겨 온, 우리 민족의 터전이었다. 또한 그 오랜 역사는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계속되어 왔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청나라와의 협약에서 백두산의 우리 소유를 인정하는 백두산정계비를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광복 후부터 우리 한민족의 상징이었던 백두산은 증오와 파멸의 대상이 되었다. 6·25전쟁 중에 국군은 백두산을 바라보며 북으로 진격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남한의 백두산 침공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이 얼마나 슬픈 동족상잔의 비극이 아닌란 말인가! 그 후 우리 남한에게 있어서 백두산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상의 땅이 되어 버렸다. 이처럼 백두산이 갈라진 후로,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민족이었던 우리 민족은 둘로 나뉘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다. 그리고 6·25전쟁이 터진 지 약 반세기만에 남과 북은 서서히 통일의 길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을 제약하는 몇 가지 장애물이 존재한다.

서로의 반목과 증오, 불신, 반세기 동안 너무나 달라진 서로의 정치체제, 그리고 문화의 이질감, 사상의 차이는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커다란 우리의 남은 숙제가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6·25전쟁 도중 피난을 가다 생사도 알 수 없는 수많은 가족들, 그리고 서로의 생사를 알고 있어도 같이 살 수 없는 이산가족들..., 이렇듯 분단이 준 상처의 곪은 너무나도 깊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과 비극의 상처를 헤아리기엔 시간과 양쪽의 노력과 협조가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 보다 통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남, 북한 서로의 진실된 이해와 협력의 마음이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서로 감싸 안으려 노력할 때 진실된 우리나라의 통일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서로 이해와 협력의 마음을 가지고 통일 국가를 건설할 때이다. '삶'이 죽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를 위해 애국가를 불러준 것처럼 서로 진실된 마음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마음이 형성될 때 그토록 어렵게 여겨지던 통일의 꽃은 저 높이높은 백두산 위에 우리 남북 상호 간의 이해와 화합으로 다시 환하게 피어날 것이다.

16

제주도

- 동상에 담긴 형제의 사랑 _ 421
- 꿈은 이루어진다 _ 423
- 늦봄 문익환 선생님께 _ 426
- 통일의 몸짓 _ 429
- $1 \div 2 = 1$, $1 + 1 = 1??$ _ 431
- 작지만 먼 소망 _ 433
- 우리 모두 경의선 타고 _ 435
- 삼일포에서 한 사흘 묵어가면 좋으련만 _ 437
- 61년 9개월 7일 _ 440

동상에 담긴 형제의 사랑



남광초 6 _ 문선일

몇 년 전, 태양이 이글거리는 혀를 내뿜으며 나를 벨름 잡아 삼킬 것 같던 날, 서울로 갔던 나는 작은 고모의 손을 잡고 전쟁기념관으로 갔다. 전쟁기념관에 들어가기 전, 안전모 같은 군모를 쓰고 있는 아저씨 둘이서 서로를 부둥켜안고 있는 동상이 가장 먼저 내 눈에 들어왔다.

‘어? 저 동상은 도대체 뭘까?’ 하는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러나 작은 고모의 재촉에 그 동상에서 눈이 떨어졌다.

그날에서 몇 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흘러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던 어느 날, 그동안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던 국어 문제지의 일명 쉬어가기 문제에서 나는 그 동상의 사연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그 동상의 슬픈 사연의 주인공인 박규철 소위는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 때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싸웠다. 박 소위가 도망치는 북한군을 추격하여 충북 단양군 죽령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이고 있었을 때, 박 소위의 눈에 땅바닥에 엎드린 북한군 한 명이 보였다. 박 소위는 이마에 땀이 송글 송글 흐르고 있는 북한군에게, “총을 겨누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하고 고래고래 외쳤다. 그런데 힐끗 고개를 든 그 북한군은 박 소위의 동생인 박용철이 아닌가! 하마터면, 박 소위는 자신의 친동생을 죽일 뻔한 것이었다. 박 소위는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 북에 가족을 남겨두고 홀로 남에 내려와 군인이 되었고, 박 소위의 동생인 박용철은 인민군이 된 것이다. 박

소위는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총알에 아랑곳하지 않고 동생 박용철에게 뛰어가 동생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서로에게 총을 겨누며 싸웠던 양측의 군인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만들었다고 한다.

지금 남과 북은 여러 가지 교류를 하며 통일이라는 단어가 어색해지지 않고 있지만, 아직도 동생 북한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걸핏하면 '핵무기'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 북한의 대응으로 내 주위의 몇몇 친구들은 북한과 통일되지 못 할 것이란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한다. 이런 저런 북한과 관련된 소식들을 듣다보면 어느새 내 마음은 다 타 들어가 재가 되어버린다. 전쟁 통에 난리였던 그 당시에도 박 소위와 박용철 군은 날아오는 총알도 두려워 않고 서로 부둥켜안았다. 그런데 왜, 지금 남과 북, 양측은 서로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지 못하고 있을까! 가난해서, 단지 그 이유만으로 형과 아우의 사이에 크나큰 장벽이 놓일 수 있을까?

6·25전쟁이 발발한 지 어언 6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언어, 문화 등이 달라졌지만 요즘에 반가운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어두웠던 통일의 길에 밝은 해님이 나온 것이다.

'5월 17일 철도 시범운행'이라고 9시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타난 글을 보고 감격했다. 비록 시범운행이었지만 57년 만에 철도의 문이 사르르 열렸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싱글벙글해지는지...

이제 더 이상 이산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뉴스에서 하나하나 전해져서 내 가슴에서 메아리치듯 울려 퍼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도와주고 팔을 벌리다보면 통일은 이미 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에 운행된 철도 시범운행처럼 말이다.

56년간 우리는 분단된 생활을 해 왔지만 아직 우리에게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21세기 평화통일의 기차는 이미 달리고 있다. 남과 북은 형제이기에 우리는 두 손을 맞잡고 그 기차에 빨리 올라타야 할 것이다. 아자!

꿈은 이루어진다



종문종 3 _ 오유경

우리가 감동을 느끼고 현실감을 느끼며 보고 또 봤던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공동경비구역 JSA’, ‘쉬리’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통일’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찾아낼 수 있다.

‘남북 철도 연결구간 시범운행’이라는 목적하에 운행된 경의선 철도운행 또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시행한 것으로서,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우리는 통일에 조금씩 가까워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통일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많이 반영되고, 또 만들어져 왔다.

몇 년 전쯤에 모 방송사 프로그램에는 북한 어린이들과 남한 어린이들이 문제를 풀면서 선의의 경쟁도 하고, 서로 웃음꽃도 피우는 코너가 있었다. 나는 따지고 보면 남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한 어린이들을 응원하자!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시청했었다. 짐차 시간이 흐를수록 남한 어린이가 북한 어린이를, 북한 어린이가 남한어린이를 서로 생각해 주고 배려해 주는 모습들이 반영되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자각하게 되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남·북한 어린이들이 한 스튜디오에서, 서로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같은 스튜디오에서 서로 마주보고 얼굴을 대하며 대화를 나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수 없이 했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풀고 있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나는 내가 그 또래 나이 때 참가했던 한 프로그램을 떠올려 보았다. 지금도 '통일' 하면 떠오르는 추억으로, 당시 어린 '나' 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경험을 하게 한 프로그램이었다.

탈북 청소년들과 며칠 동안 함께 놀고, 웃으면서 지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와는 다른 언어를 쓰는 그 아이들은 내게 '산뜻한' 충격을 주었다.

같은 민족, 같은 핏줄인데 왜 우리와 다른 언어를 써야하는 걸까?

당시 어렸던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내가 한층 발전되고 성숙해지면서 이제는 통일이 되면 어떤 것이 달라지게 될까? 하는 생각을 우선시하게 된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남과 북은 서로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제일 먼저 스포츠 분야이다.

점차 증가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에 추세를 보면, 앞으로 세계 사회에서 스포츠가 얼마나 중요한 분야를 차지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축구, 농구, 유도, 태권도 등 우리나라와 북한 모두 일부 스포츠 분야에서 는 쟁쟁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통일이 되어 서로의 취약한 종목을 보완·발전시킨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우뚝 서는 세계 속의 스포츠 국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강한 국력이다.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국방에 관해 아직까지는 서로를 견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매년 국방비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이 되면 국방비가 감소될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요, 또한 좀 더 강화된 국방력을 얻음으로써 세계 속의 강대국으로 위상을 드높일 일도 머지않았다.

세 번째는 경제 분야이다.

몇 년 전부터 개성공단에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에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면 세계 어느 나라의 제품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문화 분야이다.

북한도 평양예술단과 곡예단 등 여러 가지 능력이 뛰어나며, 앞으로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능력과 기술에 북한의 능력을 보태어 좀 더 발전시키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손백도 두 손이 마주쳐야 만들어지는 것처럼 남과 북도 통일이 되면 만들어 질 것이 무궁무진하고, 또 일부 분야는 이미 합작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서로가 손을 잡고 한 발짝씩 나아가는 지금 순간, 순간이 모이고 모여 통일의 발자취를 남긴다면 세계 속의 남북한, 세계 속의 한반도가 되는 그날은 머지않을 거라 확신한다.





늦봄 문익환 선생님께



남주고 2 _ 오동현

문익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007년 늦봄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선생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2007년 올해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했습니다. 4월에는 지난날 선생님께서 제안하셨던 겨레말 큰 사전 편찬회의가 있었고, 요즘에는 경의·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으로 언론이 분주하기만 합니다. 이와 같은 햇살을 보고 선생님께서는 무슨 기분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역사,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뒤바꾸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문득 언젠가 5·18 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연대되었던 만화에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제 틀린 것 같아도 남이 하자는 대로 그저 대하지 않고 하다 보면, 착하다는 말을 듣게 되지. 착하게 사는 것은 생각보다 쉽네. 올바르게 사는 것이 어렵지.’ 선생님의 혼을 그려내는 이 글을 읽으며, 선생님의 방북 사건이 떠오른 이유는 무엇이이었을까요?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선생님의 남북통일에 대한 굳은 신념이 떠오른 이유는 무엇이이었을까요?

경의·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으로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올해의 늦봄이야말로, 지난 반세기 우리 민족의 응어리를 풀어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말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가슴과 눈으로 하는 대화를 하러 왔습니다. 한편이 이기고 한편이 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길을

찾아왔습니다.’ 라는 선생님의 진심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통일을 위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실천하신 수많은 값진 것들 중에서 저는 ‘관보다는 민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는 선생님의 통일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칠천만 겨레 통일맞이 운동이 제 마음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살아계셨던 지난 날,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정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통일에 대한 열망이 숨 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바른 것을 위해 제 목소리 낼 수 있는 민(民)덕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얼마 전 있었던 남북경협 토론회가 경의·동해선 열차 시험 운행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의 민간 기업들이 만나 시작한 조그마한 경제 협력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협력체 그리고 통일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국민과 민간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업, 시민단체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사이의 교환을 통한 민의 교류야말로 평화통일에 있어 핵심이 될 것입니다. 통일 전의 한반도를 살아가는 것도, 통일 후의 한반도를 살아가야 할 것도 바로 우리 칠천만 겨레가 아니겠습니까?

분단 반세기란 시기는 숫자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에 따라 둘로 나누어졌던 우리의 백두대간은 너무나도 힘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민족을 ‘한(恨)의 민족’ 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끊어진 백두대간을 다시 잇기 위해, 앞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통일 운동을 탄압했던 국가와 싸워야 했다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분단에 무관심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분단 상태를 유지하려는 민과 싸워야 합니다.

백두대간을 끊는 것보다 다시 잇는 작업은 훨씬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은 시인의 말처럼 가로막혔던 민족의 핏줄이 이어져 언젠가는

뜨거운 피가 순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북의 평화적 관계가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와 국민의 무관심에 발목 잡힐 때면, ‘당신들이 주인이 되는 잔치를 벌여야지. 세계는 니들거야. 발바닥으로 살살이 훑고 다녀야지.’ 하고 말씀하시던 선생님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통일을 향한 국민의 염원이, 민이 주체가 되는 통일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민의 힘이 하나로 모아질 때, 선생님께서 줄곧 외치셨던 ‘통일은 다 됐다’ 하는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통일의 몸짓



새서귀초 5 _ 한은솔

2년 전에 도라산 역에서부터 강원도 철원지역의 안보관광지 견학을 다녀온 적이 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통일이나 안보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는 목적에만 기뻐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3·8선의 철조망, 총, 지뢰, 땅굴, 전쟁, 자유, 평화, 철마 등등 통일이나 전쟁에 관련된 말들이 맴돌고 있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 50여 년 동안 멈췄던 남북 철마가 역사적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첫 기적을 올리며 남과 북을 오갔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 라는 글을 보고 사진도 찍고 와서 그런지 가슴이 마구 뛰었다. 그때 본 녹슨 기차는 달리기도전에 쇳물을 흘려내리며 주저앉을 것만 같은 느낌이었는데 드디어 철마가 달리다니..., 나는 신문을 가슴에 꼭 안아보았다.

‘아, 6학년이 되면 저 기차를 타고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갈 수도 있겠구나.’ 싶어 행복한 생각을 했다. 내가보고 온 것들이 헛것은 아니었구나 싶은 생각에 견학노트를 펼쳐보게 되었는데 간단간단한 메모들이 가슴을 찡하게 했다. 그 중에 자유의 다리에 꽃힌 편지들이 잊혀지질 않는다. 이산가족들이 북한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비에 젖을까봐 비닐로 꼼꼼싸놓은 모습은 지금도 내 마음에서 깃발처럼 펄럭이고 있다. 망배단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고 하염없이 담배를 태우시던 어느 할아버지의 모습도 모두

이산가족의 슬픈 몸짓이라는게 이제야 더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그 사이 평생 달릴 수 없을 것 같은 철마가 달리기 시작했고 내가 5학년이 되었기 때문일까...

양다문 입술로 3·8선의 철조망을 흔들어보던 군인, 총구명으로 얼룩진 노동당사의 건물, 사람이 살지 않을 것 같은 지하 땅굴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을 떠올려 보면서 이 땅의 평화가 그냥 찾아온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개성공단에 우리 근로자들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엄마가 우시는 것을 봤다. 엄마도 나도 전쟁세대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엄마의 눈물은 아마도 나보다는 우리의 역사를 더 잘 아는데서 흘린 게 아닐까 싶다.

‘통일’은 우리의 지나간 전쟁 역사를 제대로 알고자 할 때 빨리 다가올 것이다. 나도 그곳에 견학을 다녀온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몸짓이 뭔지 조금 알게 되었다. 애써서 알고 싶기도 했고 반갑기도 하다. 내가 달리는 철마의 소식을 보고 신문을 끌어안을 수 있었던 이유도 내 마음이 통일을 스스로 이뤄냈기 때문이다.

견학을 다녀온 이후 나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라는 말을 엄청 좋아하게 되었다. 남쪽에서 북쪽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겨레, 같은 민족이라는 의미를 나뉠대로 찾았기 때문이다.

지금 제주도는 꽃천지, 꽃세상이다. 이 땅에 언제 전쟁이 있었나 싶다. 이 평화를 함께 누리고 함께 지켜갈 수 있도록 통일이라는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달리는 철마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둘 것이다.



$1 \div 2 = 1, 1 + 1 = 1??$



제주중 3_ 임용민

내가 즐겨서 읽는 '파페포포' 시리즈 중에서도 '안단테' 라는 시리즈가 있다. 그중 마지막 부분에는 플라나리아를 이용하는 남한과 북한의 상황을 보여준다.

그 이야기에서 플라나리아는 사람에 의하여 둘로 나뉘어진다. 그때 플라나리아는 특유의 재생능력으로 떨어져 나간 두 부분이 각각 새로운 개체로 재생이 된다. 이 이야기에서 각각 떨어져 나가서 새로운 개체가 된 것이 남한과 북한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상황을 수학으로 풀어서 보면 ' $1 \div 2 = 1$ ' 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게 무슨말인가? 그것은 한 민족이었던 남한과 북한이 문화, 경제, 교육, 언어 등으로 나뉘어져서 각각 다른 나라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제 우리는 ' $1 \div 2 = 1$ ' 이 되어버린 남과 북을 하나로 합치는 일이 남았다.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자.

에디슨이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들과 다름없이 ' $1 + 1 = 2$ ' 라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에디슨은 왜 ' $1 + 1 = 2$ ' 가 되어야 하나며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어 수업을 중단시킨 일이 있었다. 그때 에디슨이 주장한 내용은 ' $1 + 1 = 1$ ' 이라는 것이었다. 선생님이 에디슨에게 왜 그렇게 되냐고 물으니 에디슨이 물방울 두개를 합치면 물방울 한 개가 되고 토끼와 호랑이를 합치면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어서 호랑이 한 마리가 되니깐 ' $1 + 1 = 1$ ' 이라고 말하였다.

앞에서 말한 에디슨 이야기를 우리나라 현실에 비유를 해보면 ' $1 \div 2 = 1$ '이 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 $1 + 1 = 1$ '이 되어 다시 한 민족, 한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수학귀신'이라는 책에서는 '1'을 이용하여 모든 수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다시 한 국가로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 $1 + 1 = 1$ '에서 '1'이 되어서 다른 것을 창조하고, 발전하여 더욱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물론 지금 우리의 처지인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도 ' $1 \div 2 = 1$ '이므로 '1'이 된다. 하지만 이 '1'은 ' $1 + 1 = 1$ '의 '1'에서 반으로 나눈 것이 때문에 ' $1 + 1 = 1$ '의 '1'보다 크지가 않다. 그러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물론, 발전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 $1 \div 2 = 1$ '의 '1'이 작으니 크게 발전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반세기의 아픔을 치유하고 반세기 동안 나누어져서 달라진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하나가 되어 더 크게 발전을 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통일이 되려면 고정관념을 깨야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 $1 + 1 = 2$ '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하나가 아닌 둘이므로, 지난 6월 25일 일어난 한국전쟁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과 같은 사건을 겪지 않으려면 고정관념을 깨야한다.

통일이 되려면 또한 남과 북 중 한 나라에서 강압적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윈윈전략으로 ' $1 \div 2 = 1$ ' 처럼 가지는 것을 반씩 나누어서 한 나라가 되도록 하여서 평화통일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고정관념을 깨고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해서 통일을 해 우리나라가 미래에는 아픔과 고통 없이 발전해 가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작지만 먼 소망



제주사대부설고 1 _ 변수빈

통일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먼 것처럼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고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처럼 잡힐 듯하면서도 잡히지 않지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수학 숙제처럼, 언젠가는 꼭 풀어야만 하는 우리 민족의 영원한 과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대륙으로 진출하는데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기 위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틀린 소리는 아니다. 하지만, 나는 통일이 저울로 쟀 수도 없고 지도에서 찾을 수도 없는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통일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리워하지만 철조망에 가로막혀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가족이란 이름의 끈으로 다시 묶어주기 때문이다.

내가 어렸을 적 살았던 동네에는, 북한에서 오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었다. 그 할머니는, 북에 있는 당신 자식이 아이를 낳았다면 꼭 내 나이 또래일 것이라며, 나를 볼 때마다 “예구, 귀여운 내 아기. 저 멀리 있는 내 아기도 이렇게 따뜻(채송화를 뜻하는 북한말)같은 건가.”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다.

언어도 풍습도 다른 제주도에서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을텐데, 의지할 가족마저 멀리 있으니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그러나 그 할머니에게 더 잔인한 사실은, 그리운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은 작은 소망마저 우리나라의 허리를 끊어 놓은 쇠그물이 빼앗아 버렸다는 것이다. 집에 오면 반기는 아이

들이 있고, 조출한 밥상이지만 온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나눠먹는 단란한 저녁시간. 이런 소박한 풍경마저도 할머니에게는 별처럼 아득히 먼 꿈이 되어버린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그런 할머니의 아픔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이 된 것 같아 슬프다. 그러나 조금만 귀 기울여 보면,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가까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가족들을 향해 부르는 애절한 곡조의 노래들... 또 우리는 볼 수 있다. 지금 헤어지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가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못하는 이산가족들의 마지막 상봉의 모습을... 이런 그들의 안타까움과 간절함이야말로 통일을 이뤄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날이 갈수록 북한과의 이질성이 깊어져 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때때로 내 귓가에 맴돌던 할머니의 낯선 북한말마저 영영 들리게 될 것 같지 않아 두렵다. 내가 할머니의 목소리를 잇기 전에, 그 할머니의 작은 소망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경의선 타고

★
동광초 5_김정은

“엄마, 나 경희야. 경희.”

일흔은 돼 보이시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할머니께서 아기 목소리를 내셨다. 아이마냥 자신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은 ‘엄마’는 멀뚱히 쳐다보셨다.

“누구세요? 너 경희냐? 아이고, 경희야!”

그날, 내가 보았던 이산가족의 모습이었다. 서로를 부둥켜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모녀를 보며 내 마음이 잔잔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니, 마음이 울렁거렸다고 해야할지도 모르겠다. 그날은 마음이 갑자기 복잡해졌다. 실처럼 뒤엉킨 기분이랄까….

그날 난, 진짜 이산가족을 보았다. 연기를 하는 것도, 꾸며지지도 않은 진짜 이산가족을 보았다. 자신의 딸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보며 ‘분단’이라는 이름이 그들을 뚝뚝 가뒀다고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래도 그들은 생전에 한번 만나보기라도 하였지만 아직도 수만 명의 사람들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왔다. 아려왔다.

그래도 희소식은 있었다. 며칠 전, 경의선이 드디어 개통된 것이다! 그래서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까지 갔다왔다고 한다.

비록 실험이었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경의선을 타고 북한을 다녀오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끊겨져 더 초라해 보이고, 쓸쓸해보였던 철도가 다시 이어져 남북 간을 오갔다는 것만으로도 매

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경의선으로 남북 간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남북이 우호적으로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경의선에 남북 간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몇 년 전, 북한 어린이들과 남한 어린이들이 함께 문제를 푸는 방송이 있었다. 나도 그 방송을 참 즐겨보았었다. 그런데 은근히 ‘남한 어린이들이 더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곤 하였다. 북한 어린이들이 더 잘하면 왠지 불안하고, 남한 어린이들이 더 잘하면 미소를 짓게 되기도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이지만 그때는 정말 그랬다. 결국 나에게도 북한을 좋지 않게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남한과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더 나의 그때 심정이 바보 같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은근히 느꼈던 나의 그때 심정은 결국 50년 동안의 분단에서 비롯돼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그 세월동안 저절로 머릿속에 편견이라는 작은 유리조각이 서서히 박혀가 버린 것이다.

그렇다. 사실 50년이란 세월은 강산이 5번이나 변한, 길고도 긴 세월이다. 우리는 그 세월을 눈물과 답답한 가슴으로 살아왔다.

이번 경의선 개통과 이산가족 상봉은 강산이 5번 바뀌도록 가슴만 치며 살아온 우리에게는 한줄기 따스한 빛이자, 희망이다.

저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아라! 우리의 통일을 빛내어 주고 있는 저 아름답고도, 간절하고도, 뜨거운 태양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한반도 허리에 분단의 선을 지울 미래의 우리 모습을 보아라! 경의선을 타고 만날 우리 모두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날,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를 빛내어 주고 축하해주고 있을 것이다.





삼일포에서 한 사흘 묵어가면 좋으련만

★
세화중 3_ 부미정

2학년 겨울방학 때의 어느 날이었다. 금강산에 가보지 않겠냐는 아빠의 질문에 ‘정말?’ 이라는 의문 반 설렘 반에 당연히 가겠다고 수락했다.

금강산으로 떠나던 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북한 땅 밟기가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다. 북한의 군인들이 사진과 얼굴을 비교하고, 카메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류해 놓았을 뿐더러 수속절차도 세 번이나 거쳐야 겨우 버스에 올라 탈 수 있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북한 군인들이 타더니 버스에 타있던 사람들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그때 나는 침으로 가까이서 보는 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기하기도 했고, 웬지 모르게 무섭기도 하였다. 한민족 사람인데 괜히 두려워했던 것이 나의 실수였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짐을 풀기위해 숙소로 이동하는 도중에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 있었다. 모든 곳에 연두색 철창이 세워져 있던 것이었다.

북한 사람들이 걷는 길, 온천욕을 즐기는 곳, 가는 식당, 잠자리 모두 남측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던 것처럼 아름다운 바깥 풍경마저도 분단의 한계를 느끼게 해주었다.

둘째 날 아침 일찍 만물상에 도착했다.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있어 더욱 웅장하였고 천하에 존재하는 만물의 모양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주의 축소

판이 아닌가 싶었다. 눈이 오고 난 후라 길이 미끄러워 등산이 어려웠지만 끝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구경하는 동안 북한 사람들은 무얼 하고 있을까? 힘들게 일을 하고 있을런지, 따뜻한 밥을 먹었는지...’ 하는 생각을 했다.

등산을 마치고 온정각으로 이동하는 중에 밖에서 그림자밧기 놀이를 하고 있던 북한 어린이들이 보였다.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에 버스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 시선이 철창 밖으로 향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찍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 속상해 하셨던 아저씨 한 분이 생각난다.

온정각, 옥류관, 목관관에서 만났던 식당 언니들이 “입에는 맞습니까?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아서리 심심하지는 않습니까?” 하고 묻길래 “정말 맛있어요. 남측 음식보다 훨씬 더요.” 하고 대답했다. 땀을 흘리는 종업원 언니가 친근하게 느껴져서 이말 저말을 나누며 우리 가족과 조심스레 통일 얘기를 꺼내었다. 괜한 말을 한건 아닐까 하는 내 예상을 깨고 언니는 얼른 통일의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을 가서 우리 민족이 얼른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우린 이렇게 북한을 둘러보는데 북한 사람들은 아직 그럴 수 없다는게 아쉬울 따름이다.

삼아제 과수원에 갔을 때 철창 건너편에 있던 북한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하고 말도 건네보았다. 나의 동포들에게 우리가 북한에서 즐기고 있는 생활을 한번만이라도 경험하도록 해주고 싶었다. 아니, 함께하고 싶었다.

신선들이 하루만 놀자고 하여 내려왔는데 사흘을 넘겼다하여 삼일포라 불리우는 곳에서, 남북이 하나 되는 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 사흘 묵었음 하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찡했다.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언제쯤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가 다른 나라의 눈치 안 보며 함께 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우리가 부동켜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우리의 작은 몸도 피가 안 통하면 병이 드는데, 우리 한반도는 반세기가

넘도록 허리가 분질러져 살아왔다. 이보다 더한 아픔, 더한 고통이 어디 있을까?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들인데 너무 다르게 살고 있다는 현실에 안타까울 뿐이었다.

내 나라의 산인데도 에베레스트보다 더 멀고 높아서 갈 수 없었던 금강산, 산과 물은 낫설지 않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북한 군인들과 연두색 철창을 보며 어서 하나가 되어야지 하고 마음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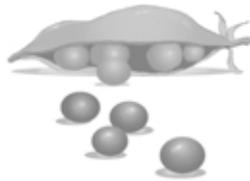
마지막 구룡연 코스에서 너무 아쉬워, 며칠 더 있다가면 안 되냐는 괜한 투정을 부렸던 게 생각이 난다.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땔 수 없었던 그 땅에, 나의 동포들과 다시 꼭 만나자는 약속을 하였다. 어떠한 약속보다도 정말 지키고 싶은 약속이라 흐르는 눈물은 나도 어쩔 수 없었던가 보다.

금강산을 다녀와서 '통일'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남북이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다.

차창 밖으로 보였던 철창은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게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만은 서로의 벽을 허물어 버렸다.

진실된 마음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라 했다. 남북 모두가 통일을 간절히 원한다면 반세기 동안 이루지 못한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지금의 나와 나의 후손들 그리고 이미 우리 맘속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웃음소리가 널리 울려퍼지는 그날까지 나는 통일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61년 9개월 7일



제주외고 2 _ 송은유

61년 9개월 7일. 백일장 장소에 들어오면서 본 전자 달력에 쓰여져있던 날짜. 달력이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그것은 우리 조국이 분단된 뒤 흐른 세월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짧지만 통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녔을 무렵, 나에게 있어 통일이란 단어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 어차피 우리가 도와줘도 다시 돌아오는 것도 없고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서 그런지, 혼자만 특별해 보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고 철없는 마음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때는 TV에서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았을 때이다. 화면 속에서 자신의 가족을 만나 뜨거운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할머니를 보며 나도 모르게 반성의 눈물을 흘렸다.

2005년 1월, 육로를 통해 휴전선을 넘어 금강산에 다녀온 적이 있다. 비무장 지대를 지나면서 나는, 이렇게 웃으면서 버스를 타고 지나갈 수 있는 이곳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분들을 생각하며 허무함을, 그리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위험 물품을 챙기지 않는 것일까 하는 마음에 버스를 점검하는 북측(가이드 언니가 북한이 아닌 북측이라고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군인들을 보며 씩씩함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약 3일 정도를 생활하고 북측 사람들을 만나보니, 그래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통일과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 이외도 용천 피해 어린이들을 위한 구호 물품 전달 남북 적십자 회담, 7·4 남북 공동 성명 등 통일을 위해 힘쓰고 있다. 물론 북한에서의 약속 위반과 핵 유지, 군사분계선 침범 등 통일을 원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그에 맞서서 같이 싸울 것이 아니라 포용의 자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옛 이야기 중에 초나라와 위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초와 위의 국가 경계선 주변엔 각 나라의 수박밭이 있었다. 부지런한 위나라 사람들이 기른 수박은 자주 물을 주어 달고 맛있었다. 하지만 게으른 초나라 사람들이 기른 수박은 모두 작고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이에 초나라 사람들은 밤에 몰래 가 위나라 수박에 물을 냈다. 금이 간 위나라의 수박은 점차 말라 비틀어져 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위나라 사람들은 그 고을 수령에게 가서 우리도 초나라의 수박을 깨려 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수령은 밤마다 초나라 사람들이 모르게 초나라의 수박에 물을 주고 오라고 했다. 초나라의 수박들이 점점 잘 자라게 되고 이 사실은 안 초나라의 왕은 위나라에 금은보화를 내리고 그 뒤로 위나라와 초나라는 사이 좋게 지내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에서 우린 통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관용과 사랑의 자세임을 알 수 있다. 비록 분단의 아픔과 적대심, 이질감 등 통일의 앞을 가로막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사랑으로 이겨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남과 북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 때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들어오면서 봤던 61년 9개월 7일이 분단 된 뒤 흐른 날이 아니라 통일이 된 뒤 흐른 날이 되는 그날까지,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 우리함께 가자!



2007 제12회 학생 통일글짓기대회 입상작

초판인쇄일 2007년 8월 27일

초판발행일 2007년 8월 29일

발 행 처 통일교육원

서울 강북구 4 · 19길 275 (수유동)

전화 02) 901-7122

홈페이지주소 www.uniedu.go.kr

디자인 · 인쇄 현프린트

전화 02) 2273-7142
